

실태조사 22-03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과제책임자 : 서 희 정

2022년 1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연구 개요

본 연구는 방송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활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방송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송대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는 교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교내 통계자료의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 1일자 등록생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80,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설문조사 중복응답이나 미등록생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둘째 방송대 진학동기에 대한 분석, 셋째, 방송대 재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 넷째, 방송대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는 방송대의 데이터허브시스템과 정보화본부에서 추출한 2022년 10월 1일자 기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집이 어려운 최종학력과 가계월소득 분포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연도별 등록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경우에는 등록생이 95,389명으로, 등록률은 70.7%를 나타냈다. 2022학년도 2학기는 등록생 수가 82,571명으로 등록률은 69.0%로 나타났다.

둘째,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방송대 진학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학과 선택시 고려했던 요인’,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4.9%로 가장 많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가 26.9%,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16.8%,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5%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방식의 대학이 아니라 원격교육 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가 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13.7%였다.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사이버대학, 원격기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 중 방송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3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23.0%,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18.5%,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13.5% 순이었다.

셋째, '2022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습활동' 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매체강의 수강 현황

'매체강의 수강 현황'은 '매체강의 수강 방식', '사용기기, 수강 장소', 'TV 방송강의 시청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는 '13-15강'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45.3%)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로 형성평가 확대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은 '1-3강' 14.4%, '4-6강' 12.8%, '10-12강' 10.8%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강의를 '거의 듣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로 전년 동월(1.9%) 대비 0.5% 감소하였다. ii) '매체강의 수강방식'에 대해서는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월(59.0%)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강의만 듣는다'는 비율은 35.2%로 전년 동월(32.9%)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iii)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PC'가 66.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17.2%, '태블릿 PC' 4.7% 순이었다. iv) '매체강의 수강 장소'는 '집'이 75.3%로 가장 많았고, '직장' 12.3%, '이동 중에' 7.0%, '기타' 2.5%, '도서관'은 2.4% 순이었다. v) '매체강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3.6%, '보통이다' 20.0% 등의 순이었다. vi) 'TV강의 시청 방식'은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이 35.5%였다.

□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는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U-KNOU 캠퍼스 개선사항’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는 ‘주 2-3회’가 46.9%로 가장 많았고, ‘매일’ 26.6%, ‘주 1회’ 15.6%, ‘월 1회’ 6.3% 순이었다. ii) ‘U-KNOU 캠퍼스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2.5%, ‘보통이다’ 21.5% 순이었다. iii)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은 ‘학습 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35.8%로 가장 많았고, ‘학사 정보 제공’ 33.3%,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 10.4% 순이었다.

□ 형성평가

‘형성평가’에 대한 의견은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44.0%로 가장 많았고, ‘U-KNOU 마이페이지’ 30.1%, ‘문자 및 이메일’ 19.9% 순이었다. ii)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44.0%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33.7%) 대비 10.3% 증가한 결과이다. ‘도움이 된다’도 36.9%의 응답율을 보였다. iii)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27.2%) 대비 12.9% 증가한 결과이다. ‘도움이 된다’는 36.0%로 나타났다.

□ 출석수업 참여 현황

‘출석수업 참여 현황’은 ‘출석수업 참여방식 및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경험 및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i) ‘출석수업 참여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이 66.1%로 전년 동월(61.8%)에 비해 4.3%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은 15.8%로 전년 동월(19.4%)에 비해 3.6% 감소하였다.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은 18.1%로 나타났다. ii)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가 39.5%로 가장 많았다. iii) ‘출석수업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에 가장 높은 43.6%의 응답율을 보였고, ‘보통이다’ 28.1%, ‘매우 만족한다’ 21.6% 순이었다. iv)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에서, 변경한 학생들은 ‘직

장이거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으며,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9.5%를 차지하였다.

□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재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은 '학업스타일', '학습시간',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학업스타일' 조사 결과,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하는 비율이 61.7%로 가장 높고,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20.8%, '일별, 주별 또는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13.1%의 순이었다. ii) '학습시간'은 '평소 학습시간'과 '시험기간 학습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학생들의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시간 미만' 22.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8.7%,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1.9%, '10시간 이상' 8.2% 등의 순이었다.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학습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시간 미만' 20.1%,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8.0% 순이었다. 평소보다 시험 기간에 평균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학업스타일' 분석 결과에서(<표 IV-35> 참조), 재학생의 약 20.8%가 시험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 학습동아리 참여동기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의 조사 결과,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참여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12.4%는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2022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i) '튜터링'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40.4%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43.0%가 '(매우)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ii) '멘토링'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61.3%였으며,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도움됨' 12.4%, '보통'

10.5%, ‘매우 도움됨’ 9.7% 순으로 응답하였다. iii) ‘학생콜센터’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56.6%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5.9%가 ‘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iv)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59.7%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4.8%가 ‘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v) ‘진로·심리상담’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73.7%를 차지하여 학생지원 서비스 중에 이용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0.7%가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의 어려움

i) ‘학사일정 확인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38.3%로 나타나 약 3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학사용어 이해하기(수강신청 및 변경, 출석수업, 과제물 시험 등)’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26.1%로 나타나 약 4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홈페이지 이용하기(과제물 제출, 출석수업 변경 등)’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25.7%로 나타나 약 4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37.5%로 나타나 약 3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과제물 준비하기’에 대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많았고, ‘보통’ 30.4%, ‘매우 어려움’ 16.6%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0.1%)의 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기말평가 준비하기’에 대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보통’ 32.1%, ‘매우 어려움’ 16.6%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48.9%)에 가까운 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에 대해 ‘쉬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가장 많았고, ‘보통’ 30.5%, ‘매우 쉬움’ 24.3%의 순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

i) '교과내용'의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해, 작년과 달리 '인터넷 카페'를 선택한 응답이 1순위 2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학교 홈페이지' 22.2%, '기타' 18.0%, '선후배 및 동료'가 9.1%, '스터디그룹' 8.2%로 나타났다. ii) '학사행정(시험일정, 출석수업 신청, 수강신청 등)'의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가 5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선후배 및 동료' 10.4%, '인터넷 카페' 8.9%, '기타' 8.5%, '스터디그룹' 6.5%, '튜터 또는 멘토' 4.9% 순이었다. iii)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직장일이나 가사 때문에' 31.0%, '학습 부담이 커서' 18.9%, '낮은 학점으로 자신감을 잃어서' 6.0%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음'도 33.6%로 나타났다.

□ 학업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i)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고, '보통' 28.0%, '매우 필요함' 21.0% 순이었다. ii) '과제물 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8.1%, '보통' 22.4% 순이었다. iii) '시험 준비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7.8%, '보통'이 23.2% 순이었다. iv)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8.3%, '매우 필요함'이 21.6% 순이었다. v) '컴퓨터 활용 교육'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이 26.9%, '매우 필요함'이 17.4% 순이었다. vi)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은 '매우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 39.1%, '보통' 17.5% 순이었다.

이번 재학생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사정보 제공과 개별 맞춤형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원격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특강 혹은 러닝팁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차 례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 방법	3
3) 연구 대상	4
4) 설문지 구성	7
3. 연구의 주요 용어 및 개념	8
II.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	10
1. 재학생 규모 분석	10
1) 등록생 규모 및 변화 추이	10
2)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12
3) 단과대학 및 학과별 현황	15
4) 지역대학별 현황	21
2. 인구통계학적 특징	24
1) 성별 현황	24
2) 연령별 현황	26
3) 직업별 현황	29
4) 최종학력별 현황	32
5) 가계 월소득	35
III. 방송대 진학 동기	38
1. 대학교육,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	38
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38

2)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41
2. 방송대 및 학과 선택 이유	45
1)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45
2) 학과 선택 이유	48
3)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	52
IV. 학습활동	56
1. 매체강의 수강 현황	56
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	56
2) 매체강의 수강방식	59
3)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	62
4) 매체강의 수강 장소	66
5) 매체강의 만족도	69
6) TV강의 시청 방식	72
2.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76
1)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76
2) U-KNOU 캠퍼스에 대한 만족도	79
3) U-KNOU 캠퍼스 서비스 개선사항	82
3. 형성평가에 대한 의견	86
1)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86
2)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	89
3)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 취득 도움도	92
4. 출석수업 참여 현황	96
1) 출석수업 참여 방식	96
2)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99
3) 출석수업 만족도	103
4)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	106
5.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110
1) 학업스타일	110

2) 학습시간	113
3)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	120
V. 학교생활 적응	124
1.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124
1) 튜터링	124
2) 멘토링	127
3) 학생콜센터(1577-9995)	130
4)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134
5) 진로·심리 상담	137
2.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	140
1) 학사일정 확인하기	141
2) 학사용어 이해하기	145
3) 홈페이지 이용하기	148
4)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151
5) 과제물 준비하기	154
6) 기말평가 준비하기	158
7)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	161
3.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	164
1) 교과내용	164
2) 학사행정	168
3) 학업중단 고민 이유	171
4.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175
1)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175
2) 과제물 작성 교육	178
3) 시험 준비 전략 안내	181
4)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184
5) 컴퓨터 활용 교육	187
6) 학사 관련 정보 알림	190

VI. 요약 및 시사점	193
1. 요약	193
2. 정책적 시사점	200
※ 참고문헌	203
※ 부록 :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지	205



표 차례

<표 I-1> 연도별 재학생 실태조사 응답 현황	4
<표 I-2>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 현황	5
<표 I-3> 조사 영역 및 항목	7
<표 II-1> 연도별 학생 학적 변동 현황	10
<표 II-2> 연도별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13
<표 II-3> 연도별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15
<표 II-4> 연도별 학과별 재학생 분포 현황(1학기)	17
<표 II-5> 연도별 학과별 재학생 분포 현황(2학기)	19
<표 II-6> 연도별 지역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1학기)	22
<표 II-7> 연도별 지역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2학기)	23
<표 II-8> 연도별 학기별 성별 분포	24
<표 II-9> 재학생의 평균 연령	26
<표 II-10> 연도별 연령별 재학생 현황(1학기)	27
<표 II-11> 연도별 연령별 재학생 현황(2학기)	27
<표 II-12> 연도별 재학생의 직업 현황(1학기)	29
<표 II-13> 연도별 재학생의 직업 현황(2학기)	30
<표 II-14> 연도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현황	32
<표 II-15> 학과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현황	33
<표 II-16> 연도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 현황	35
<표 II-17> 학과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 현황	36
<표 III-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39
<표 III-2>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학과별)	40
<표 III-3>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42
<표 III-4>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학과별)	43
<표 III-5>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46
<표 III-6>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학과별)	47
<표 III-7> 학과(전공) 선택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49
<표 III-8> 학과(전공) 선택 이유(학과별)	50

<표 III-9> 방송대 진학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53
<표 III-10> 방송대 진학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학과별)	54
<표 IV-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57
<표 IV-2>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학과별)	58
<표 IV-3> 매체강의 수강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60
<표 IV-4> 매체강의 수강방식(학과별)	61
<표 IV-5>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63
<표 IV-6>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학과별)	64
<표 IV-7> 매체강의 수강 장소(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67
<표 IV-8> 매체강의 수강 장소(학과별)	68
<표 IV-9> 매체강의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70
<표 IV-10> 매체강의 만족도(학과별)	71
<표 IV-11> TV강의 시청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73
<표 IV-12> TV강의 시청방식(학과별)	74
<표 IV-13>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77
<표 IV-14>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학과별)	78
<표 IV-15> U-KNOU 캠퍼스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80
<표 IV-16> U-KNOU 캠퍼스 만족도(학과별)	81
<표 IV-17>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83
<표 IV-18> U-KNOU 캠퍼스 개선사항(학과별)	84
<표 IV-19>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87
<표 IV-20>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학과별)	88
<표 IV-21>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90
<표 IV-22>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학과별)	91
<표 IV-23>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93
<표 IV-24>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학과별)	94
<표 IV-25> 출석수업 참여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97
<표 IV-26> 출석수업 참여방식(학과별)	98
<표 IV-27> 출석수업 참여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01
<표 IV-28> 출석수업 참여이유(학과별)	102
<표 IV-29>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04

<표 IV-30>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학과별)	105
<표 IV-31>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08
<표 IV-32>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학과별)	108
<표 IV-33> 학업스타일(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11
<표 IV-34> 학업스타일(학과별)	112
<표 IV-35>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14
<표 IV-36>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학과별)	115
<표 IV-37>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17
<표 IV-38>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학과별)	118
<표 IV-39>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21
<표 IV-40>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학과별)	122
<표 V-1> 튜터링의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25
<표 V-2> 튜터링의 도움 정도(학과별)	126
<표 V-3> 멘토링의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28
<표 V-4> 멘토링의 도움 정도(학과별)	129
<표 V-5>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31
<표 V-6>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학과별)	132
<표 V-7>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35
<표 V-8>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학과별)	136
<표 V-9> 진로 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38
<표 V-10>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학과별)	139
<표 V-11> 방송대 첫 학기 적응에 어려운 점	141
<표 V-12> 학사일정 확인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42
<표 V-13> 학사일정 확인하기(학과별)	143
<표 V-14> 학사용어 이해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46
<표 V-15> 학사용어 이해하기(학과별)	147
<표 V-16> 홈페이지 이용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49
<표 V-17> 홈페이지 이용하기(학과별)	150
<표 V-18> 학습계획 세우 공부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52
<표 V-19> 학습계획 세우 공부하기(학과별)	153
<표 V-20> 과제물 준비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56

<표 V-21> 과제물 준비하기(학과별)	156
<표 V-22> 기말평가 준비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59
<표 V-23> 기말평가 준비하기(학과별)	160
<표 V-24>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	162
<표 V-25>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학과별)	163
<표 V-26>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65
<표 V-27>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학과별)	166
<표 V-28>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69
<표 V-29>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학과별)	170
<표 V-30> 학업중단 고민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72
<표 V-31> 학업중단 고민 이유(학과별)	173
<표 V-32>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76
<표 V-33>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학과별)	177
<표 V-34> 과제물 작성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79
<표 V-35> 과제물 작성 교육(학과별)	180
<표 V-36> 시험 준비 전략 안내(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82
<표 V-37> 시험준비 전략 안내(학과별)	183
<표 V-38>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85
<표 V-39>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학과별)	186
<표 V-40> 컴퓨터 활용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88
<표 V-41> 컴퓨터 활용 교육(학과별)	189
<표 V-42> 학사 관련 정보 알림(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191
<표 V-43> 학사 관련 정보 알림(학과별)	191
<표 VI-1>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특강 시리즈 예시	202



그림 차례

[그림 II-1] 연도별 1학기 등록생과 등록률 변화 추이	11
[그림 II-2] 연도별 2학기 등록생과 등록률 변화 추이	11
[그림 II-3] 연도별 1학기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14
[그림 II-4] 연도별 2학기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14
[그림 II-5] 연도별 1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16
[그림 II-6] 연도별 2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16
[그림 II-7] 연도별 1학기 성별 현황	25
[그림 II-8] 연도별 2학기 성별 현황	25
[그림 II-9] 연도별 1학기 연령대 현황	28
[그림 II-10] 연도별 2학기 연령대 현황	28
[그림 II-11] 연도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분포	33
[그림 II-12] 연도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현황	36
[그림 III-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38
[그림 III-2]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42
[그림 III-3]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45
[그림 III-4] 학과(전공) 선택 이유	48
[그림 III-5]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	52
[그림 IV-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	56
[그림 IV-2] 매체강의 수강방식	59
[그림 IV-3] 매체강의 수강시 사용기기	63
[그림 IV-4] 매체강의 수강 장소	66
[그림 IV-5] 매체강의 만족도	69
[그림 IV-6] TV강의 수강방식	72
[그림 IV-7]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76
[그림 IV-8] U-KNOU 캠퍼스 만족도	79
[그림 IV-9] U-KNOU 캠퍼스 개선사항	82

[그림 IV-10]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86
[그림 IV-11]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 정도	89
[그림 IV-12]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 정도	92
[그림 IV-13] 출석수업 참여 방식	96
[그림 IV-14] 출석수업 참여 이유	100
[그림 IV-15]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	104
[그림 IV-16]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	107
[그림 IV-17] 학업스타일	110
[그림 IV-18]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113
[그림 IV-19]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116
[그림 IV-20]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	120
[그림 V-1] 튜터링의 도움 정도	124
[그림 V-2] 멘토링의 도움 정도	127
[그림 V-3] 학생콜센터의 도움 정도	131
[그림 V-4]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	134
[그림 V-5]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	137
[그림 V-6] 학사일정 확인하기	142
[그림 V-7] 학사용어 이해하기	145
[그림 V-8] 홈페이지 이용하기	149
[그림 V-9] 학습계획 세워 공부하기	152
[그림 V-10] 과제물 준비하기	155
[그림 V-11] 기말평가 준비하기	158
[그림 V-12]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	161
[그림 V-13]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	165
[그림 V-14]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	168
[그림 V-15] 학업중단 고민 이유	171
[그림 V-16]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175
[그림 V-17] 과제물 작성 교육	178
[그림 V-18] 시험 준비 전략 안내	181

[그림 V-19]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184
[그림 V-20] 컴퓨터 활용 교육	187
[그림 V-21] 학사 관련 정보 알람	19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에 앞장서며 약 80만 명의 미래 인재를 배출해왔다. 이는 원격교육 기반의 평생교육체제를 바탕으로 가능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의 재교육 수요를 수용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현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방송대는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지원정책』을 발표하며 ‘평생학습 휴가·휴직제’와 ‘원패스카드’지급을 통해 3050의 세대가 평생학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2).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학령인구의 감소는 고등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방송대의 재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이후에 줄곧 약 10만 명을 유지해온 학부 재학생 수는 2022학년도 2학기에 82,571¹⁾명을 기록하여 재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데이터허브시스템, 2022). 신·편입생의 연령대 분포를 통해 원인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 2학기에 20대가 28.3%로 30대 27.9%와 40대 22.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송수연, 2022).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대학 차원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학생 수 감소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재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조사하여 교육 질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순위 중의 하나이다. 즉 재학생 실태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현황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다면, 교육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학년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1) 재학생 수는 방송대의 데이터허브시스템의 ‘학적-학기별 학생 현황’의 수치를 활용하였음. II장의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의 분석 결과는 2022.10.1.로 집계된 재학생 수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송대 미래원격교육연구원(구, 원격교육연구소)에서는 신·편입생, 재학생, 졸업생 등 다양한 학생 집단 대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실태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로 발행해왔다. 특히, 매년 10월경에 실시하는 재학생 실태조사는 재학생의 규모 및 특성과 학습현황에 대한 변화 양상을 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별, 학과별로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교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의 문항은 2015년 개편된 설문지 문항을 기초로 하며, 조사 시행 전에 문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교내 유관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학과의 학과발전계획 수립과 학생 지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대한 학과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보고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재학생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온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다.

두 번째 부분은 방송대 진학동기에 대한 현황 조사이다.

세 번째 부분은 재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현황 조사이다.

네 번째 부분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현황 조사이다.

다섯 번째 부분은 앞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학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가 우리 대학의 정책 수립 및 결정의 근거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이며,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방송대 진학동기, 방송대 재학생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 적응, 시사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본문에서 다루어질 각각의 연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첫째는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이다. 재학생 전수 분석을 토대로 재학생의 특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한다. 우리 대학의 데이터허브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방송대 재학생 규모의 시계열적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는 방송대 재학생의 진학 동기에 대한 분석이다. 방송대 진학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격교육기관과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과 선택시 고려했던 요인은 무엇인지,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방송대 재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대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 계획을 세워 학습하는지, 매체강의 수강 및 출석수업 참여 양상은 어떠한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발생한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는 방송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분석이다. 방송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무엇인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학업 중단을 고민했던 경험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다섯째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 제시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이다. 앞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의 학생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방송대 설문조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작하고 시행하였다. 재학생들은 교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

참여 독려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이메일로 설문 안내를 하였다. 분석대상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중에 2학기 통계자료 기준일인 10월 1일자에 등록되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는 SPSS statistics 26.0을 활용하였으며, 설문 항목과 요인에 따라서 빈도분석, 교차분석(χ^2 검정) 등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2학기 2학기에 등록한 재학생 80,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체 학생 중에 총 3,599명이 응답하였으나 2022년 10월 1일 등록자 통계 기준에 근거하여 중복응답과 미등록자를 제외하고 총 3,565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1>을 통해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전체 재학생 집단(모집단) 대비 설문조사 응답률을 제시하였다. 2022학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응답자 수가 소폭 감소했으며, 응답률은 2014년 이후 4~6%대에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왔으나, 올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4.4%의 응답율을 나타냈다. 표본집단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집단 분포와 표본집단 분포를 각 변수별로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I-2>에 제시되어 있으며, 두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보여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1> 연도별 재학생 실태조사 응답 현황

단위 : 명,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수	118,937	111,888	102,797	96,501	93,545	88,795	91,210	90,340	80,762
응답자수	6,065	6,359	4,078	5,517	4,397	5,537	5,693	4,264	3,565
응답률	5.1	5.7	4.0	5.7	4.7	6.2	6.2	4.7	4.4

2022학년도 2학기의 전체 재학생(모집단)과 조사집단(표본집단)의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2>와 같다.

<표 1-2>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포 현황

단위 : 명, %

구분	내용	모집단		표본집단	
		인원수	백분율	인원수	백분율
성별	남자	26,999	33.4	1,268	35.6
	여자	53,763	66.6	2,297	64.4
입학학년	1학년 신입생	34,458	42.7	1,347	37.8
	2학년 편입생	9,001	11.1	421	11.8
	3학년 편입생	37,303	46.2	1,797	50.4
연령대	10대	325	0.4	17	0.5
	20대	16,968	21	583	16.4
	30대	17,191	21.3	797	22.4
	40대	20,894	25.9	942	26.4
	50대	17,033	21.1	755	21.2
	60대	7,052	8.7	417	11.7
	70대 이상	1,299	1.6	54	1.5
단과대학	인문과학대학	14,099	17.5	658	18.5
	사회과학대학	23,197	28.7	1123	31.5
	자연과학대학	25,346	31.4	1027	28.8
	교육과학대학	18,120	22.4	757	21.2
학과	국어국문학과	2,782	3.4	124	3.5
	영어영문학과	5,541	6.9	223	6.3
	중어중문학과	2,961	3.7	152	4.3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32	0.7	34	1.0
	일본학과	2,283	2.8	125	3.5
	법학과	4,910	6.1	215	6.0
	행정학과	1,144	1.4	51	1.4
	경제학과	1,163	1.4	54	1.5
	경영학과	5,269	6.5	210	5.9
	무역학과	774	1.0	25	0.7
	미디어영상학과	2,725	3.4	102	2.9

	관광학과	1,325	1.6	61	1.7
	사회복지학과	5,887	7.3	405	11.4
	농학과	5,347	6.6	239	6.7
	생활과학과	5,849	7.2	265	7.4
	컴퓨터과학과	7,409	9.2	236	6.6
	통계·데이터과학과	1,953	2.4	106	3.0
	보건환경학과	2,446	3.0	105	2.9
	간호학과	2,342	2.9	76	2.1
	교육학과	4,040	5.0	184	5.2
	청소년교육과	3,815	4.7	159	4.5
	유아교육과	6,664	8.3	231	6.5
	문화교양학과	2,551	3.2	133	3.7
	생활체육지도과	1,050	1.3	50	1.4
지역대학	서울	31,189	38.6	1,429	40.1
	부산	4,813	6.0	225	6.3
	대구/경북	4,492	5.6	203	5.7
	인천	7,163	8.9	277	7.8
	광주/전남	2,993	3.7	140	3.9
	대전/충남	5,307	6.6	221	6.2
	울산	1,743	2.2	67	1.9
	경기	12,905	16.0	532	14.9
	강원	2,438	3.0	107	3.0
	충북	2,349	2.9	113	3.2
	전북	1,867	2.3	90	2.5
	경남	2,381	2.9	109	3.1
	제주	1,122	1.4	52	1.5
	계	80,762	100.0	3,565	100.0

대부분의 특성에서 모집단 분포와 표본집단 분포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입학유형과 연령대, 단과대학, 학과, 지역대학 등에서 모집단 분포와 표본집단

분포에서 작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20대의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낮고 30대와 60대의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단과대학 중에서는 자연과학대학과 교육과학대학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대 실태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고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대의 특성상 학생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온라인 설문조사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나 인터넷 접근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관심도가 연령 변수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표집 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심스러운 결과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방송대 재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엄밀한 표집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표집하는데 있어서도 표집 절차에 따른 체계적 표집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자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집방식은 조사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모집단에 대한 추리를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설문지 구성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의 구체적인 영역 및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I-3>에 제시되어 있으며,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I-3> 조사 영역 및 항목

조사 영역	조사 항목
방송대 진학	방송대 진학 동기
	학과 선택시 고려한 요인
	방송대 진학 결정 장애 요인

학습활동	매체강의 수강 현황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개선사항
	출석수업 참여 현황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학습동아리 참여 동기
학교생활 적응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
	학업 중단 이유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종학력
	출신고등학교
	직업
	가계 월 소득

3. 연구의 주요 용어 및 개념

연구에 제시된 통계표와 결과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통계조사 용어 및 표기법을 정리하였다.

- 통계량 및 통계치 : 통계량은 표본에 따라 변동하는 확률변수로 여기서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라 표기하였다. 그리고 통계량에 대한 분산비 또는 차이를 나타낸 결과치인 F 검정값, χ^2 검정값, t 검정값, Fisher 정확 검정값은 분석 방법에 따라 별도 표기하였다.
- 평균 및 합계 : 항목 측정치에 대한 전체 평균 및 합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치와 총평균, 합계를 일반적으로 소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표기된 평균과 합계가 실제 측정치의 평균,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수준: 실제로는 모집단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 조건이 틀렸다고 잘못 생각할 확률을 말한다. 이러한 확률은 문제에 따라서 적절히 정해야 하나 여기서는 그 기준값을 5%(0.05)로 정하였다. 사회과학의 통계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5% 정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1% 내지는 10%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간 평균 비교 값에 대하여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관련 표시는 분석마다 별도로 제시하였다.
- 증감률 : 증감률이란 전년도와 대비하여 통계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든 비율을 나타낸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text{증감률} = \frac{\text{금년도 수치} - \text{전년도 수치}}{\text{전년도 수치}} \times 10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II.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

이 장에서는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재학생의 특성과 분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송대의 데이터허브시스템과 정보화본부에서 추출한 2022년 10월 1일자 기준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2013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10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학생의 전체적인 규모와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어떠한지, 재학생 집단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1. 재학생 규모 분석

1) 등록생 규모 및 변화 추이

2022학년도 2학기 방송대 재학생은 10월 1일자 기준으로 총 82,571명이다. 연도별과 학기별 방송대 재학생 규모는 다음의 <표 II-1>, [그림 II-1], [그림 II-2]와 같다.²⁾

<표 II-1> 연도별 학생 학적 변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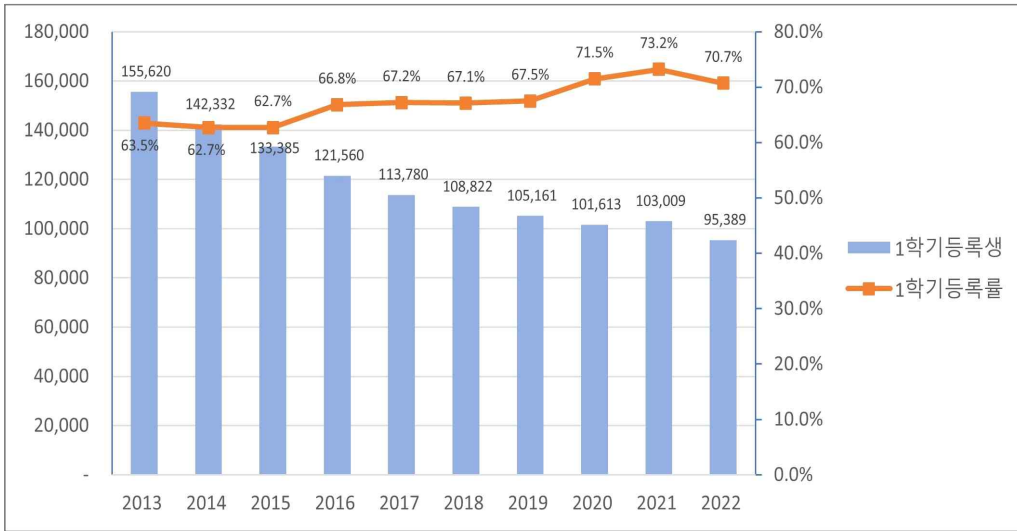
단위: 명, 명, 명, %

연도	1학기				2학기			
	재적생수	등록생수	휴학생수	등록률	재적생수	등록생수	휴학생수	등록률
2013	245,257	155,620	89,637	63.5	226,682	122,366	104,316	54.0
2014	226,866	142,332	84,534	62.7	215,898	118,937	96,961	55.1
2015	212,875	133,385	79,490	62.7	176,418	111,888	64,530	63.4
2016	181,949	121,560	60,389	66.8	162,237	102,797	59,440	63.4
2017	169,326	113,780	55,546	67.2	153,380	96,501	56,879	62.9
2018	162,099	108,822	53,277	67.1	146,744	93,545	53,199	63.7
2019	155,899	105,161	50,738	67.5	133,841	88,795	45,046	66.3
2020	142,082	101,613	40,469	71.5	130,991	91,210	39,781	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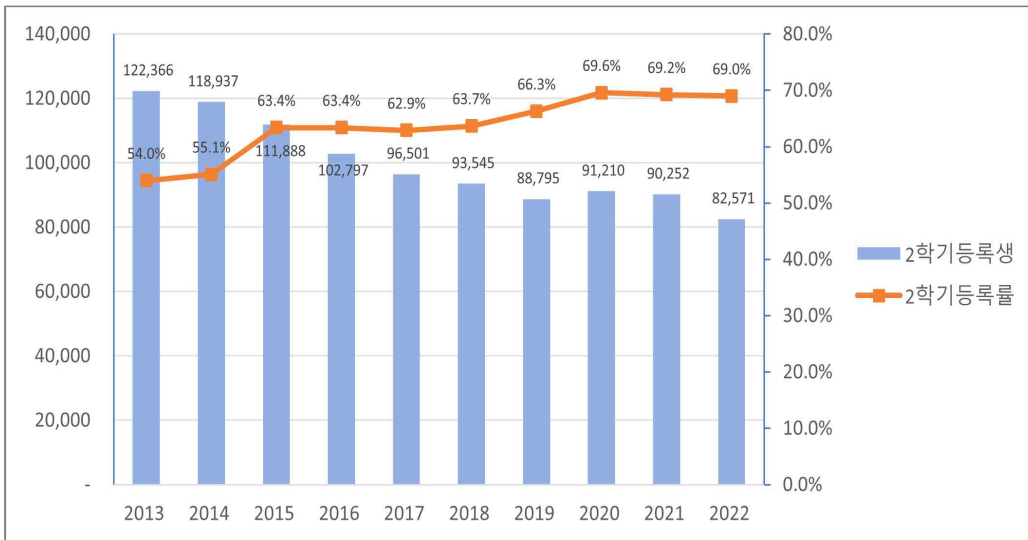
2) 연도별 학생 학적 변동 현황에서의 등록생 수치는 다른 표에서의 통계수치(통계정보시스템-등록 부분에서 가져온 수치임)와 다르게 통계정보시스템의 학적 부분의 수치를 사용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II.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

2021	140,714	103,009	37,705	73.2	130,354	90,252	40,102	69.2
2022	135,002	95,389	39,613	70.7	119,734	82,571	37,163	69.0



[그림 II-1] 연도별 1학기 등록생과 등록률 변화 추이



[그림 II-2] 연도별 2학기 등록생과 등록률 변화 추이

연도별 등록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22학년도 1

학기에는 등록생이 95,389명으로 2021학년도 1학기에 비해 7,620명 감소했으며, 등록률은 70.7%를 나타냈다. 2022학년도 2학기에도 등록생 수는 82,571명으로 2021학년도 2학기에 비해 7,681명 감소했다. 등록률은 69.0%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학기별로 등록생 수와 등록률을 비교하면, 대체로 1학기가 2학기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방송대 학생들이 첫 학기가 지나고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³⁾

재학생 중 신입생과 편입생의 현황은 <표 II-2>, [그림 II-3], [그림 II-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는 재학생 중 신·편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전년 동월(33.3%)에 비해 4.3% 감소했다. 반면, 2학기의 경우에는 재학생 중 신·편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인 2021학년도와 비교하여 0.1% 차이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편입생을 제외한 기존 재학생의 비중은 2022학년도 1학기의 경우 71%로 지난해에 비해 4.3% 증가하였으며, 2학기의 경우 89.1%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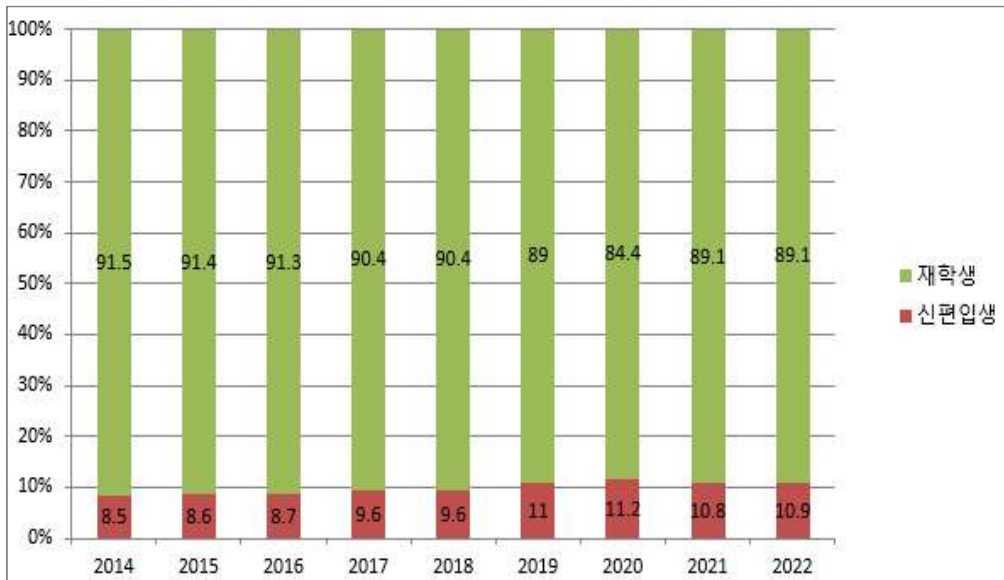
3)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은 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년 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I-2> 연도별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구분	연도	전체	신·편입생						재학생 (기 입학생)	
			소계		신입학생		편입학생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학기	2014	142,332	48,779	34.3	23,988	16.9	24,791	17.4	93,553	65.7
	2015	133,385	42,591	31.9	20,725	15.5	21,866	16.4	90,794	68.1
	2016	121,560	36,573	30.1	16,858	13.9	19,715	16.2	84,987	69.9
	2017	113,780	34,346	30.2	15,654	13.8	18,692	16.4	79,434	69.8
	2018	108,822	35,455	32.6	15,631	14.4	19,824	18.2	73,367	67.4
	2019	105,161	33,476	31.8	13,936	13.3	19,540	18.6	71,685	68.2
	2020	101,848	32,355	31.8	12,753	12.5	19,602	19.2	65,618	64.4
	2021	103,252	33,074	33.3	12,075	12.2	20,999	21.2	66,119	66.7
	2022	95,389	27,693	29.0	8,761	9.2	18,932	19.8	67,696	71.0
2학기	2014	118,937	10,115	8.5	3,957	3.3	6,158	5.2	108,822	91.5
	2015	111,888	9,614	8.6	3,537	3.2	6,077	5.4	102,274	91.4
	2016	102,797	8,912	8.7	3,237	3.1	5,675	5.5	93,885	91.3
	2017	96,501	9,300	9.6	3,574	3.7	5,726	5.9	87,201	90.4
	2018	93,545	8,963	9.6	3,348	3.6	5,615	6.0	84,582	90.4
	2019	88,795	9,724	11.0	3,476	3.9	6,248	7.0	79,071	89.0
	2020	91,387	10,202	11.2	3,475	3.8	6,727	7.4	77,128	84.4
	2021	90,430	9,483	10.8	3,035	3.5	6,448	7.4	77,755	89.1
	2022	80,762	8,767	10.9	2,522	3.1	6,245	7.7	71,995	89.1



[그림 II-3] 연도별 1학기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그림 II-4] 연도별 2학기 재학생 중 신·편입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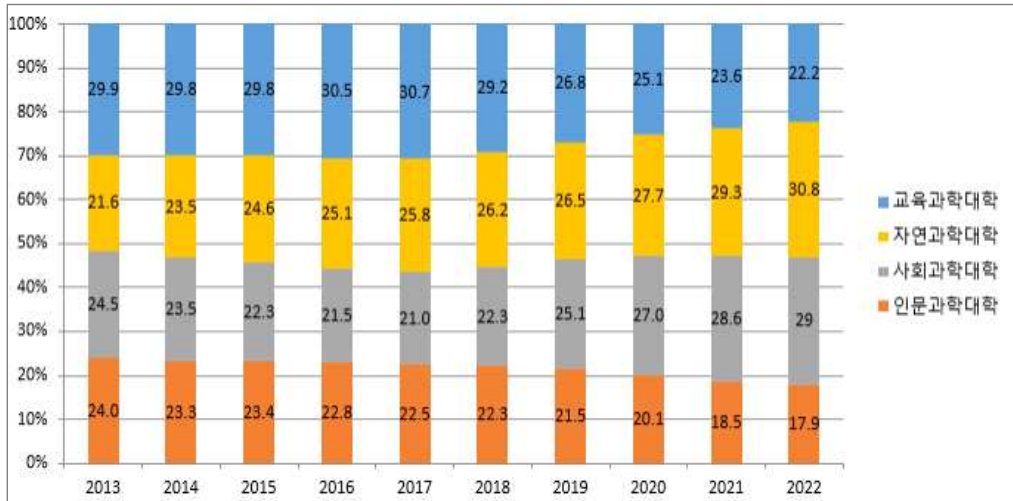
3) 단과대학 및 학과별 현황

단과대학과 학과를 기준으로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2022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재학생 전체 80,762명 가운데 『자연과학대학』이 25,346명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 23,197명, 『교육과학대학』 18,120명, 『인문과학대학』 14,099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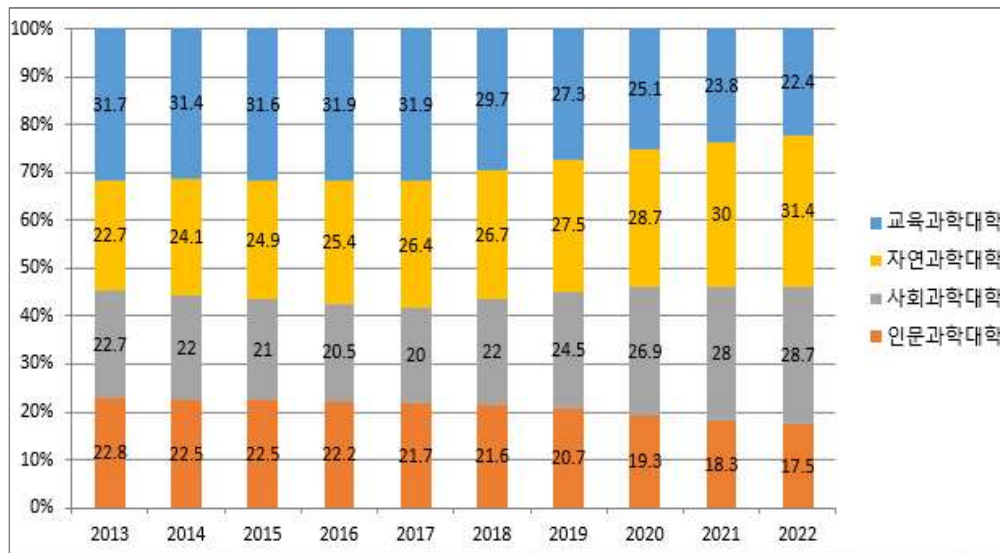
<표 II-3> 연도별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구분	연도	전 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1 학 기	2013	155,620	37,347	24.0	38,070	24.5	33,607	21.6	46,596	29.9
	2014	142,332	33,119	23.3	33,426	23.5	33,422	23.5	42,365	29.8
	2015	133,385	31,200	23.4	29,683	22.3	32,754	24.6	39,748	29.8
	2016	121,560	27,736	22.8	26,189	21.5	30,509	25.1	37,126	30.5
	2017	113,780	25,582	22.5	23,897	21.0	29,370	25.8	34,931	30.7
	2018	108,822	24,247	22.3	24,292	22.3	28,560	26.2	31,723	29.2
	2019	105,161	22,662	21.5	26,429	25.1	27,901	26.5	28,169	26.8
	2020	101,848	20,486	20.1	27,526	27.0	28,228	27.7	25,608	25.1
	2021	103,252	19,121	18.5	29,503	28.6	30,299	29.3	24,329	23.6
	2022	95,389	17,088	17.9	27,672	29.0	29,412	30.8	21,217	22.2
2 학 기	2013	122,366	27,944	22.8	27,823	22.7	27,749	22.7	38,850	31.7
	2014	118,937	26,797	22.5	26,129	22.0	28,610	24.1	37,401	31.4
	2015	111,888	25,225	22.5	23,462	21.0	27,857	24.9	35,344	31.6
	2016	102,797	22,797	22.2	21,092	20.5	26,085	25.4	32,823	31.9
	2017	96,501	20,993	21.7	19,290	20.0	25,466	26.4	30,752	31.9
	2018	93,545	20,210	21.6	20,594	22.0	24,989	26.7	27,752	29.7
	2019	88,795	18,366	20.7	21,748	24.5	24,410	27.5	24,271	27.3
	2020	91,387	17,622	19.3	24,616	26.9	26,219	28.7	22,930	25.1
	2021	90,430	16,549	18.3	25,283	28.0	27,102	30.0	21,496	23.8
	2022	80,762	14,099	17.5	23,197	28.7	25,346	31.4	18,120	22.4

연도별로 각 단과대학의 학생 수와 각 단과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그림 II-5]와 [그림 II-6]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림 II-5] 연도별 1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그림 II-6] 연도별 2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

2022학년도 1학기의 단과대학별 비중은 『자연과학대학』 30.8% 『사회과학대학』 29.0%, 『교육과학대학』 22.2%, 『인문과학대학』 17.9% 순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2학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과학대학』 31.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과학대학』 28.7%, 『교육과학대학』 22.4%, 『인문과학대학』 17.5%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 재학생 현황을 학과별로 살펴보면 <표 II-4>, <표 II-5>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1학기의 경우 지난해 동일 학기에 비해 재학생 수가 소폭이지만 증가한 학과는 『미디어영상학과』,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학과』, 『생활체육지도과』이다. 2022학년도에 신설된 『생활체육지도과』는 1,168명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학과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컴퓨터과학과』 9%, 『유아교육과』 8.2%, 『사회복지학과』 7.2%, 『생활과학과』 7.2%, 『영어영문학과』 7.2% 등이었다. 이 5개 학과가 방송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8%에 달했다. 반면에 비율이 낮은 학과는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생활체육지도과』 1.2%를 제외하면,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7%, 『행정학과』 1.4%, 『경제학과』 1.4%로 나타났다.

<표 II-4> 연도별 학과별 재학생 분포 현황(1학기)

연도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		일본		법학		행정		경제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5,934	3.8	16,494	10.6	7,564	4.9	683	0.4	6,672	4.3	7,938	5.1	3,494	2.2	2,197	1.4
2014	5,485	3.9	14,043	9.9	7,487	5.3	685	0.5	5,419	3.8	7,431	5.2	3,239	2.3	1,768	1.2
2015	4,925	3.7	12,644	9.5	8,178	6.1	666	0.5	4,787	3.6	6,759	5.1	2,874	2.2	1,566	1.2
2016	4,357	3.6	10,824	8.9	7,752	6.4	633	0.5	4,170	3.4	6,572	5.4	2,495	2.1	1,304	1.1
2017	4,107	3.6	9,706	8.5	7,133	6.3	606	0.5	4,030	3.5	6,699	5.9	2,222	2.0	1,135	1.0
2018	3,954	3.6	8,969	8.2	6,434	5.9	558	0.5	4,332	4.0	6,276	5.8	1,972	1.8	1,126	1.0
2019	3,637	3.5	8,596	8.2	5,745	5.5	577	0.5	4,071	3.9	6,014	5.7	1,756	1.7	1,198	1.1
2020	3,427	3.4	8,057	7.9	5,070	5.0	586	0.6	3,346	3.3	6,046	5.9	1,619	1.6	1,240	1.2
2021	3,437	3.3	7,471	7.2	4,493	4.4	609	0.6	3,111	3.0	6,557	6.4	1,595	1.5	1,535	1.5
2022	3,212	3.4	6,825	7.2	3,718	3.9	635	0.7	2,698	2.8	5,950	6.2	1,364	1.4	1,357	1.4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연도	경영		무역		미디어		관광		사회복지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5,320	9.8	1,818	1.2	3,546	2.3	3,757	2.4	-	-	4,600	3.0	12,251	7.9	6,662	4.3
2014	12,379	8.7	1,753	1.2	3,196	2.2	3,660	2.6	-	-	4,511	3.2	12,300	8.6	6,132	4.3
2015	10,753	8.1	1,607	1.2	2,744	2.1	3,390	2.5	-	-	4,615	3.5	11,927	8.9	5,762	4.3
2016	9,011	7.4	1,351	1.1	2,479	2.0	2,977	2.4	-	-	4,668	3.8	10,643	8.8	5,367	4.4
2017	7,596	6.7	1,220	1.1	2,285	2.0	2,740	2.4	-	-	4,821	4.2	9,751	8.6	5,289	4.6
2018	6,704	6.2	1,164	1.1	2,219	2.0	2,667	2.5	2,164	2.0	5,028	4.6	9,143	8.4	5,597	5.1
2019	6,366	6.1	1,113	1.1	2,426	2.3	2,579	2.5	4,977	4.7	5,561	5.3	8,283	7.9	5,942	5.7
2020	6,037	5.9	1,040	1.0	2,696	2.6	2,486	2.4	6,362	6.2	5,859	5.8	7,823	7.7	6,720	6.6
2021	6,803	6.6	1,098	1.1	3,230	3.1	2,103	2.0	6,582	6.4	6,358	6.2	7,666	7.4	7,749	7.5
2022	6,364	6.7	921	1.0	3,257	3.4	1,626	1.7	6,833	7.2	6,129	6.4	6,851	7.2	8,631	9.0
연도	통계·데이터		보건		간호		교육		청소년		유아		문화		생활체육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334	0.9	3,443	2.2	5,317	3.4	13,155	8.5	13,692	8.8	13,943	9.0	5,806	3.7	-	-
2014	1,303	0.9	3,501	2.5	5,675	4.0	10,786	7.6	12,238	8.6	13,624	9.6	5,717	4.0	-	-
2015	1,366	1.0	3,447	2.6	5,637	4.2	10,130	7.6	10,896	8.2	13,281	10.0	5,441	4.1	-	-
2016	1,293	1.1	3,100	2.6	5,438	4.4	9,378	7.7	10,363	8.5	12,393	10.2	4,992	4.1	-	-
2017	1,383	1.2	2,867	2.5	5,259	4.6	9,194	8.1	9,648	8.5	11,422	10.0	4,667	4.1	-	-
2018	1,456	1.3	2,786	2.6	4,550	4.2	7,990	7.2	8,466	7.8	10,967	10.1	4,300	4.0	-	-
2019	1,499	1.4	2,604	2.5	4,012	3.8	6,910	6.6	6,910	6.6	10,103	9.6	3,831	3.6	-	-
2020	1,645	1.6	2,820	2.8	3,361	3.3	6,347	6.2	6,400	6.3	9,308	9.1	3,553	3.5	-	-
2021	2,460	2.4	3,016	2.9	3,050	3.0	5,632	5.5	5,356	5.2	9,016	8.7	3,324	3.2	1,001	1.0
2022	2,504	2.6	2,818	3.0	2,479	2.6	4,777	5.0	4,456	4.7	7,792	8.2	3,024	3.2	1,168	1.2

2학기 역시 학과별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21학년도 2학기에 비해 『사회복지학과』, 『컴퓨터과학과』, 『통계·데이터과학과』, 『생활체육지도과』에서는 소폭이지만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2022학년도에 신설된 『생활체육지도과』는 1,050명을 기록하여 1, 2학기 모두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학과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2학기에는 『컴퓨터과학과』 9.2%, 『유아교육과』 8.3%, 『사회복지학과』 7.3%, 『생활과학과』 7.2%, 『영어영문학과』 6.9% 등이었다. 이 5개 학과가 방송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1학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비율이 낮은 학과는 2022학년도 신설학과인 『생활체육지도과』 1.3%를 제외하면,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7%, 『행정학과』 1.4%, 『경제학과』 1.4%로 나타났다.

<표 II-5> 연도별 학과별 재학생 분포 현황(2학기)

연도	국문		영문		중문		프랑스		일본		법학		행정		경제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4,716	3.9	11,704	9.6	6,016	4.9	472	0.4	5,036	4.1	6,097	5.0	2,702	2.2	1,545	1.3
2014	4,598	3.9	11,003	9.3	6,339	5.3	504	0.4	4,353	3.7	5,881	4.9	2,689	2.3	1,344	1.1
2015	4,193	3.7	9,949	8.9	6,755	6.0	485	0.4	3,843	3.4	5,352	4.8	2,311	2.1	1,200	1.1
2016	3,662	3.6	8,752	8.5	6,500	6.3	471	0.5	3,412	3.3	5,474	5.3	2,069	2.0	988	1.0
2017	3,520	3.6	7,770	8.1	5,923	6.1	488	0.5	3,292	3.4	5,269	5.5	1,848	1.9	921	1.0
2018	3,404	3.6	7,407	7.9	5,489	5.9	450	0.5	3,460	3.7	5,235	5.6	1,683	1.8	925	1.0
2019	3,093	3.5	6,946	7.8	4,732	5.3	468	0.5	3,127	3.5	4,769	5.4	1,436	1.6	943	1.1
2020	3,017	3.3	6,813	7.5	4,351	4.8	511	0.6	2,930	3.2	5,371	5.9	1,493	1.6	1,142	1.2
2021	3,069	3.4	6,451	7.1	3,801	4.2	547	0.6	2,681	3.0	5,518	6.1	1,398	1.5	1,235	1.4
2022	2,782	3.4	5,541	6.9	2,961	3.7	532	0.7	2,283	2.8	4,910	6.1	1,144	1.4	1,163	1.4

<표 II-5> 연도별 학과별 재학생 분포 현황(2학기)

연도	경영		무역		미디어		관광		사회복지		농학		생활과학		컴퓨터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0,583	8.6	1,318	1.1	2,618	2.1	2,960	2.4	-	-	3,640	3.0	10,479	8.6	4,906	4.0
2014	9,715	8.2	1,263	1.1	2,381	2.0	2,856	2.4	-	-	4,093	3.4	10,790	9.1	4,830	4.1
2015	8,541	7.6	1,170	1.0	2,174	1.9	2,714	2.4	-	-	4,172	3.7	10,300	9.2	4,617	4.1
2016	7,058	6.9	1,001	1.0	2,025	2.0	2,477	2.4	-	-	4,097	4.0	9,246	9.0	4,252	4.1
2017	6,150	6.4	905	0.9	1,852	1.9	2,345	2.4	-	-	4,157	4.3	8,567	8.9	4,442	4.6
2018	5,680	6.1	980	1.0	1,898	2.0	2,273	2.4	1,920	2.1	4,379	4.7	7,941	8.5	4,871	5.2
2019	5,021	5.7	882	1.0	1,952	2.2	2,183	2.5	4,562	5.1	4,994	5.6	7,142	8.0	4,961	5.6
2020	5,606	6.1	919	1.0	2,428	2.7	2,134	2.3	5,523	6.0	5,611	6.1	7,084	7.8	5,970	6.5
2021	5,915	6.5	937	1.0	2,771	3.1	1,773	2.0	5,736	6.3	5,732	6.3	6,705	7.4	7,142	7.9
2022	5,269	6.5	774	1.0	2,725	3.4	1,325	1.6	5,887	7.3	5,347	6.6	5,849	7.2	7,409	9.2
연도	통계·데이터		보건		간호		교육		청소년		유아		문화		생활체육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000	0.8	2,745	2.2	4,979	4.1	10,755	8.8	11,347	9.3	11,854	9.7	4,894	4.0	-	-
2014	1,034	0.9	2,856	2.4	5,007	4.2	9,652	8.1	10,567	8.9	12,155	10.2	5,027	4.2	-	-
2015	1,014	0.9	2,750	2.5	5,004	4.5	9,044	8.1	10,056	9.0	11,571	10.3	4,673	4.2	-	-
2016	1,006	1.0	2,635	2.6	4,849	4.7	8,362	8.1	9,251	9.0	10,776	10.5	4,434	4.3	-	-
2017	11,41	1.2	2,463	2.6	4,696	4.9	8,047	8.3	8,421	8.7	10,251	10.6	4,033	4.2	-	-
2018	1,105	1.2	2,338	2.5	4,355	4.7	7,002	7.5	7,403	7.9	9,611	10.3	3,736	4.0	-	-
2019	1,205	1.4	2,272	2.6	3,836	4.3	5,903	6.6	6,242	7.0	8,863	10.0	3,263	3.7	-	-
2020	1,568	1.7	2,581	2.8	3,405	3.7	5,570	6.1	5,556	6.1	8,647	9.5	3,157	3.5	-	-
2021	1,865	2.1	2,608	2.9	3,050	3.4	4,962	5.5	4,811	5.3	8,045	8.9	2,928	3.2	750	0.8
2022	1,953	2.4	2,446	3.0	2,342	2.9	4,040	5.0	3,815	4.7	6,664	8.3	2,551	3.2	1,050	1.3

4) 지역대학별 현황

지역대학별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6>, <표 II-7>과 같다. 2022학년도에는 1학기 및 2학기 모두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각 지역대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학년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대학별로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서울지역대학』 38.7%, 『경기지역대학』 16.1%, 『인천지역대학』 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있는 이 세 지역대학의 학생 수를 합하면 60,679명으로 전체 학생 수 중 63.7%의 비중을 차지한다.

2022학년도 2학기에도 각 지역대학별 학생분포는 1학기과 유사하며, 1순위는 『서울지역대학』 39.0%, 2순위 『경기지역대학』 16.0%, 3순위 『인천지역대학』 8.9%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있는 이 세 지역대학의 학생 수를 합하면 51,257명으로 전체 학생 수 중 63.9% 비중을 차지한다.

<표 II-6> 연도별 지역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1학기)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61,914	39.8	9,137	5.9	9,683	6.2	14,546	9.3	5,742	3.7	8,973	5.8	3,408	2.2
2014	55,834	39.2	8,603	6.0	8,628	6.1	13,628	9.6	5,147	3.6	8,353	5.9	3,078	2.2
2015	51,645	38.7	8,079	6.1	8,065	6.0	13,035	9.8	4,884	3.7	7,946	6.0	2,903	2.2
2016	46,992	38.6	7,469	6.1	7,223	5.9	11,520	9.5	4,511	3.7	7,520	6.2	2,607	2.1
2017	43,079	37.9	6,980	6.1	6,659	5.9	10,931	9.6	4,291	3.8	7,168	6.3	2,474	2.2
2018	40,838	37.5	6,841	6.3	6,344	5.8	10,122	9.3	4,073	3.7	7,099	6.5	2,393	2.2
2019	39,280	37.4	6,675	6.3	6,144	5.8	9,493	9.0	3,937	3.7	6,870	6.5	2,472	2.4
2020	38,234	37.5	6,366	6.3	5,852	5.7	9,277	9.1	3,795	3.7	6,637	6.5	2,421	2.4
2021	39,584	38.3	6,310	6.1	5,733	5.6	9,201	8.9	3,818	3.7	6,740	6.5	2,314	2.2
2022	36,879	38.7	5,617	5.9	5,295	5.6	8,458	8.9	3,489	3.7	6,253	6.6	1,968	2.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22,539	14.5	4,804	3.1	4,346	2.8	3,676	2.4	4,861	3.1	1,991	1.3	155,620	100
2014	21,244	14.9	4,369	3.1	3,903	2.7	3,349	2.4	4,444	3.1	1,752	1.2	142,332	100
2015	19,981	15.0	4,112	3.1	3,631	2.7	3,213	2.4	4,149	3.1	1,742	1.3	133,385	100
2016	18,313	15.1	3,765	3.1	3,350	2.8	3,038	2.5	3,716	3.1	1,606	1.5	121,560	100
2017	17,425	15.3	3,606	3.2	3,200	2.8	2,890	2.5	3,541	3.1	1,536	1.3	113,780	100
2018	16,763	15.4	3,443	3.2	3,106	2.9	2,836	2.6	3,463	3.2	1,501	1.4	108,822	100
2019	16,379	15.6	3,250	3.1	3,134	3.0	2,708	2.6	3,278	3.1	1,541	1.5	105,161	100
2020	15,800	15.5	3,201	3.1	3,042	3.0	2,559	2.5	3,185	3.1	1,479	1.5	101,848	100
2021	16,376	15.9	3,085	3.0	3,057	3.0	2,468	2.4	3,078	3.0	1,488	1.4	103,252	100
2022	15,342	16.1	2,902	3.0	2,753	2.9	2,193	2.3	2,856	3.0	1,384	1.5	95,389	100

<표 II-7> 연도별 지역대학별 재학생 분포 현황(2학기)

구분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47,817	39.1	7,298	6.0	7,604	6.2	11,726	9.6	4,434	3.6	7,203	5.9	2,721	2.2
2014	46,067	38.7	7,201	6.1	7,427	6.2	11,405	9.6	4,366	3.7	7,100	6.0	2,544	2.1
2015	42,817	38.3	6,858	6.1	6,803	6.1	10,837	9.7	4,164	3.7	6,774	6.1	2,458	2.2
2016	39,257	38.2	6,234	6.1	6,098	5.9	9,820	9.5	3,886	3.8	6,434	6.2	2,235	2.2
2017	36,328	37.6	5,993	6.2	5,714	5.9	9,186	9.5	3,664	3.8	6,132	6.4	2,093	2.2
2018	34,764	37.2	5,883	6.3	5,450	5.8	8,701	9.3	3,526	3.8	6,250	6.7	2,140	2.3
2019	32,871	37.0	5,694	6.4	5,179	5.8	8,032	9.0	3,379	3.8	5,896	6.6	2,123	2.4
2020	34,554	37.8	5,632	6.2	5,300	5.8	8,221	9.0	3,384	3.7	5,945	6.5	2,121	2.3
2021	34,693	38.4	5,432	6.0	5,042	5.6	8,149	9.0	3,291	3.6	5,947	6.6	1,970	2.2
2022	31,189	39.0	4,813	6.0	4,492	5.6	7,163	8.9	2,993	3.7	5,307	6.6	1,743	2.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7,816	14.6	3,797	3.1	3,489	2.9	3,017	2.5	3,939	3.2	1,505	1.2	122,366	100
2014	17,645	14.8	3,709	3.1	3,290	2.8	2,918	2.5	3,769	3.2	1,496	1.3	118,937	100
2015	16,843	15.1	3,418	3.1	3,136	2.8	2,710	2.4	3,608	3.2	1,462	1.3	111,888	100
2016	15,589	15.2	3,192	3.1	2,841	2.8	2,654	2.6	3,212	3.1	1,348	1.3	102,797	100
2017	14,834	15.4	3,019	3.1	2,679	2.8	2,500	2.6	3,059	3.2	1,300	1.3	96,501	100
2018	14,537	15.5	2,972	3.2	2,662	2.8	2,430	2.6	2,951	3.2	1,279	1.4	93,545	100
2019	13,810	15.6	2,763	3.1	2,678	3.0	2,326	2.6	2,784	3.1	1,260	1.4	88,795	100
2020	14,369	15.7	2,802	3.1	2,711	3.0	2,264	2.5	2,811	3.1	1,273	1.4	91,387	100
2021	14,474	16.0	2,684	3.0	2,611	2.9	2,115	2.3	2,715	3.0	1,307	1.4	90,430	100
2022	12,905	16.0	2,438	3.0	2,349	2.9	1,867	2.3	2,381	2.9	1,122	1.4	80,762	100

2. 인구통계학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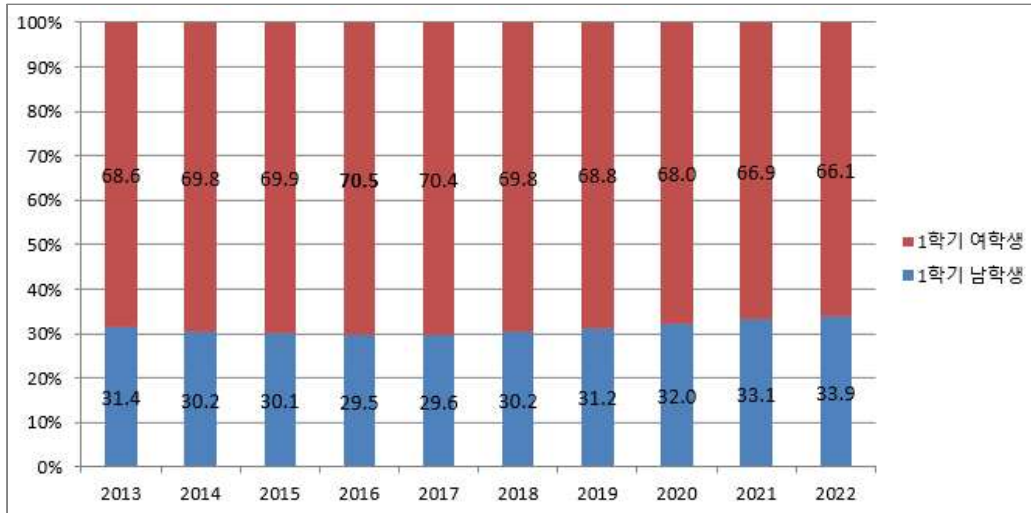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재학생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학생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최종학력별, 소득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1)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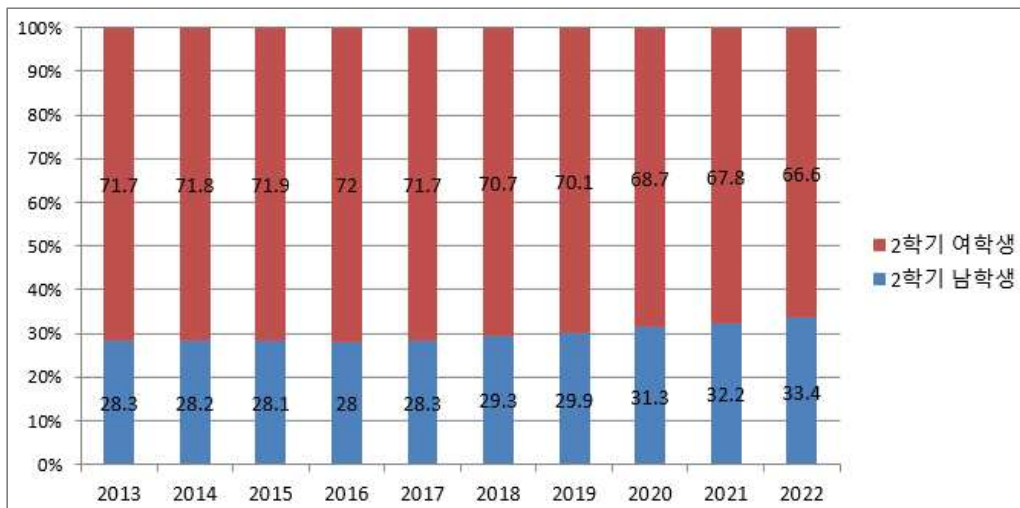
연도별 재학생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1학과 2학기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0.8%, 1.2%씩 소폭 증가했다. 2학기는 1학기에 비해, 남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낮았다. 1학과 2학기 사이에 중도탈락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학기에 남학생 비율이 더 감소한 것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권선아, 김명진, 서희정, 김민정, 2020). 연도별 학기별 성별 분포 현황은 <표 II-8>, [그림 II-6], [그림 II-7]과 같다.

<표 II-8> 연도별 학기별 성별 분포

구분	1학기					2학기				
	등록생수	남학생		여학생		등록생수	남학생		여학생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55,620	48,236	31.0	107,384	69.0	122,366	34,733	28.4	87,633	71.6
2014	142,332	43,047	30.2	99,285	69.8	118,937	33,497	28.2	85,440	71.8
2015	133,385	40,139	30.1	93,246	69.9	111,888	31,484	28.1	80,404	71.9
2016	121,560	35,838	29.5	85,722	70.5	102,797	28,768	28.0	74,029	72.0
2017	113,780	33,708	29.6	80,072	70.4	96,501	27,274	28.3	69,227	71.7
2018	108,822	32,908	30.2	75,914	69.8	93,545	27,391	29.3	66,154	70.7
2019	105,161	32,814	31.2	72,347	68.8	88,795	26,523	29.9	62,272	70.1
2020	101,848	32,603	32.0	69,245	68.0	91,387	28,604	31.3	62,783	68.7
2021	103,252	34,167	33.1	69,085	66.9	90,430	29,139	32.2	61,291	67.8
2022	95,389	32,318	33.9	63,071	66.1	80,762	26,999	33.4	53,763	66.6



[그림 II-7] 연도별 1학기 성별 현황



[그림 II-8] 연도별 2학기 성별 현황

2) 연령별 현황

재학생의 연령별 현황은 다음의 <표 II-9>에 제시되어 있으며, 재학생 전체의 평균 연령은 44.3세로 나타났다.

<표 II-9> 재학생의 평균 연령

구분	평균	표준편차
2014	40.6	10.5
2016	43.3	11.3
2017	42.6	12.1
2018	43.2	12.0
2019	43.9	12.2
2020	45.2	12.5
2021	44.4	12.5
2022	43.3	12.8

연령 변화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표 II-10>, <표 II-11>과 같다.⁴⁾ 지난 10년 동안 30대의 비중은 줄곧 감소해왔는데 올해 1학기에는 30대의 비율이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1, 2학기 모두 50대 이상의 비율은 2.4%씩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2013학년도 2학기의 경우, 30대 33.1%, 40대 31.0%, 20대 21.0%, 50대 11.5% 순이었고, 2014년은 40대 32.5%, 30대 30.4%, 20대 20.6%, 50대 12.6%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30대와 20대보다 비율이 높았다. 2022년은 40대 25.9%, 30대 21.3%, 20대 21%, 50대 21.1% 순으로 나타나 4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50대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2013학년도 2학기과 비교해 볼 때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1.8% 감소하였고,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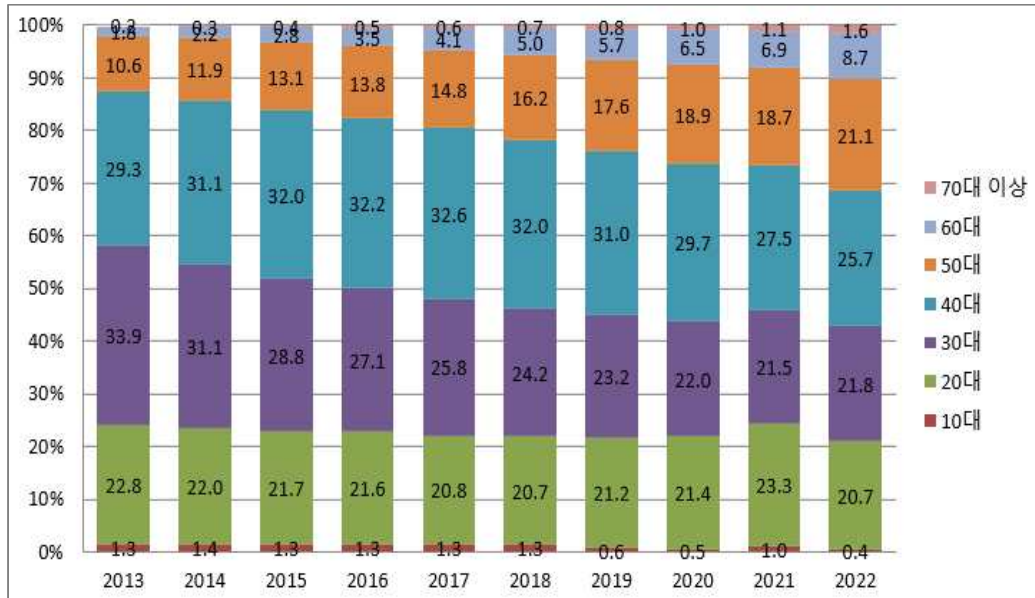
4) 연령대를 나누는 방식은 통계정보 시스템 자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만 31세에서 40세까지를 30대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표 II-10> 연도별 연령별 재학생 현황(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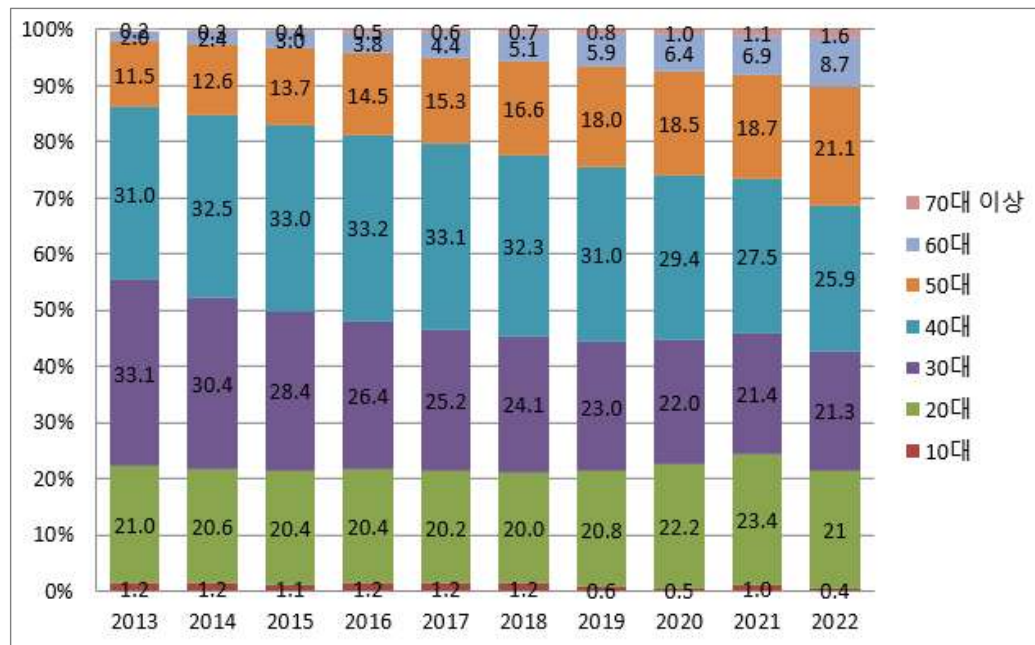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2,088	1.3	35,538	22.8	52,742	33.9	45,663	29.3	16,441	10.6	2,804	1.8	344	0.2	155,620	100.0
2014	1,978	1.4	31,326	22.0	44,210	31.1	44,206	31.1	16,989	11.9	3,199	2.2	424	0.3	142,332	100.0
2015	1,755	1.3	28,960	21.7	38,365	28.8	42,624	32.0	17,465	13.1	3,734	2.8	484	0.4	133,385	100.0
2016	1,636	1.3	26,233	21.6	32,971	27.1	39,155	32.2	16,735	13.8	4,289	3.5	541	0.5	121,560	100.0
2017	1,439	1.3	23,681	20.8	29,347	25.8	37,154	32.6	16,808	14.8	4,701	4.1	650	0.6	113,780	100.0
2018	1,418	1.3	22,496	20.7	26,309	24.2	34,849	32.0	17,615	16.2	5,406	5.0	729	0.7	108,822	100.0
2019	588	0.6	22,332	21.2	24,420	23.2	32,552	31.0	18,475	17.6	5,969	5.7	825	0.8	105,161	100.0
2020	476	0.5	21,803	21.4	22,438	22.0	30,283	29.7	19,229	18.9	6,646	6.5	973	1.0	101,848	100.0
2021	1,074	1.0	24,025	23.3	22,243	21.5	28,381	27.5	19,306	18.7	7,094	6.9	1,129	1.1	103,252	100.0
2022	348	0.4	19,774	20.7	20,768	21.8	24,561	25.7	20,168	21.1	8,253	8.7	1,517	1.6	95,389	100.0

<표 II-11> 연도별 연령별 재학생 현황(2학기)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442	1.2	25,728	21.0	40,498	33.1	37,943	31.0	14,019	11.5	2,431	2.0	305	0.2	122,366	100.0
2014	1,388	1.2	24,512	20.6	36,178	30.4	38,601	32.5	15,014	12.6	2,868	2.4	376	0.3	118,937	100.0
2015	1,283	1.1	22,838	20.4	31,732	28.4	36,961	33.0	15,298	13.7	3,348	3.0	428	0.4	111,888	100.0
2016	1,248	1.2	20,941	20.4	27,122	26.4	34,178	33.2	14,973	14.5	3,860	3.8	475	0.5	102,797	100.0
2017	1,172	1.2	19,494	20.2	24,337	25.2	31,945	33.1	14,727	15.3	4,248	4.4	578	0.6	96,501	100.0
2018	1,151	1.2	18,668	20.0	22,544	24.1	30,216	32.3	15,527	16.6	4,788	5.1	651	0.7	93,545	100.0
2019	503	0.6	18,429	20.8	20,408	23.0	27,555	31.0	15,950	18.0	5,218	5.9	732	0.8	88,795	100.0
2020	479	0.5	20,259	22.2	20,119	22.0	26,890	29.4	16,921	18.5	5,836	6.4	883	1.0	91,387	100.0
2021	882	1.0	21,158	23.4	19,384	21.4	24,864	27.5	16,932	18.7	6,240	6.9	970	1.1	90,430	100.0
2022	325	0.4	16,968	21.0	17,191	21.3	20,894	25.9	17,033	21.1	7,052	8.7	1,299	1.6	80,762	100.0



[그림 II-9] 연도별 1학기 연령대 현황



[그림 II-10] 연도별 2학기 연령대 현황

3) 직업별 현황5)

방송대 재학생의 연도별 직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2>, <표 II-13>과 같다. 1학기 및 2학기 모두 『간호사』,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회사원(전문관리직)』, 『전업주부』, 『전업학생』의 비율이 감소했다. 1학기에는 『예술인』, 2학기에는 『회사원(사무직)』, 『회사원(생산기술직)』의 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며, 대체적으로 전년도인 2022학년도와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12> 연도별 재학생의 직업 현황(1학기)

연도	농업		임업		어업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행정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869	0.6	39	0.0	161	0.1	235	0.2	80	0.1	5,768	3.7	826	0.5	8,137	5.2	1,464	0.9
2014	819	0.6	45	0.0	99	0.1	269	0.2	66	0.0	6,027	4.2	659	0.5	7,261	5.1	1,297	0.9
2015	868	0.7	40	0.0	65	0.0	296	0.2	70	0.1	5,956	4.5	621	0.5	6,806	5.1	1,171	0.9
2016	865	0.7	30	0.0	47	0.0	282	0.2	51	0.0	5,666	4.9	551	0.5	6,190	5.1	1,152	1.0
2017	838	0.7	26	0.0	40	0.0	257	0.2	58	0.1	5,359	4.7	535	0.5	5,581	4.9	1,000	0.9
2018	871	0.8	38	0.0	64	0.1	199	0.2	56	0.1	4,222	3.9	444	0.4	4,521	4.2	856	0.8
2019	869	0.8	36	0.0	88	0.1	178	0.2	54	0.1	3,428	3.3	392	0.4	3,655	3.5	725	0.7
2020	891	0.9	46	0.0	83	0.1	161	0.2	43	0.0	2,811	2.8	363	0.4	3,163	3.1	653	0.6
2021	828	0.8	49	0.0	88	0.1	193	0.2	37	0.0	2,472	2.4	326	0.3	2,777	2.7	596	0.6
2022	762	0.8	52	0.1	91	0.1	186	0.2	37	0.0	1,969	2.1	333	0.3	2,301	2.4	500	0.5
연도	공무원		직업군인		국영기업		회사원 (관리 전문직)		회사원 (사무직)		회사원 (판매 영업직)		회사원 (생산 기술직)		정치인		법조인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7,182	4.6	1,001	0.6	996	0.6	13,717	8.8	22,856	14.7	4,148	2.7	6,414	4.1	104	0.1	681	0.4
2014	6,377	4.5	763	0.5	796	0.6	12,090	8.5	20,260	14.2	3,757	2.6	5,779	4.1	79	0.1	509	0.4
2015	5,723	4.3	573	0.4	756	0.6	11,041	8.3	18,452	13.8	3,413	2.6	5,352	4.0	52	0.0	400	0.3
2016	5,315	4.4	442	0.4	664	0.6	9,821	8.1	16,634	13.7	3,012	2.5	4,675	4.1	38	0.0	359	0.3
2017	4,883	4.3	413	0.4	638	0.6	8,957	7.9	15,272	13.4	2,684	2.4	4,148	3.6	41	0.0	320	0.3

5) 2022학년도 1학기 직업별 현황에서 '무응답'은 29,354명 30.8%로 집계되었고, 2022학년도 2학기 직업별 현황에서 '무응답'은 24,963명 30.9%로 집계되었다. '무응답'은 표에서 제외하였다.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2018	4,115	3.8	345	0.3	666	0.6	7,835	7.2	13,005	12.0	2,182	2.0	3,668	3.4	54	0.0	408	0.4
2019	3,847	3.7	379	0.4	673	0.6	7,434	7.1	11,921	11.3	1,841	1.8	3,328	3.2	57	0.1	443	0.4
2020	3,586	3.5	415	0.4	613	0.6	7,155	7.0	11,313	11.1	1,631	1.6	3,087	3.0	48	0.0	405	0.4
2021	3,400	3.3	401	0.4	592	0.6	6,947	6.7	11,270	10.9	1,575	1.5	2,988	2.9	52	0.1	378	0.4
2022	3,002	3.1	386	0.4	522	0.5	6,225	6.5	10,510	11.0	1,374	1.4	2,751	2.9	59	0.1	418	0.4

연도	예술인		언론방송인		종교인		자영업		전업주부		전업학생		기타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1,318	0.8	554	0.4	421	0.3	8,645	5.6	28,112	18.1	5,252	3.4	36,640	23.5	155,620	100.0
2014	1,159	0.8	493	0.3	394	0.3	8,055	5.7	26,144	18.4	5,247	3.7	33,888	23.8	142,332	100.0
2015	1,065	0.8	442	0.3	336	0.3	7,681	5.8	24,234	18.2	5,190	3.9	32,782	24.6	133,385	100.0
2016	945	0.8	386	0.3	326	0.3	7,067	6.2	21,481	17.7	5,053	4.2	30,508	25.1	121,560	100.0
2017	881	0.8	411	0.4	277	0.2	6,669	5.9	19,028	16.7	4,274	3.8	31,190	27.4	113,780	100.0
2018	829	0.8	342	0.3	233	0.2	5,857	5.4	15,460	14.2	3,681	3.4	38,854	35.7	108,822	100.0
2019	790	0.8	329	0.3	224	0.2	5,432	5.2	12,554	11.9	3,312	3.1	23,799	22.6	105,161	100.0
2020	776	0.8	277	0.3	180	0.2	4,985	4.9	10,647	10.5	3,048	3.0	21,763	21.4	101,848	100.0
2021	378	0.4	294	0.3	215	0.2	4,626	4.5	8,767	8.5	2,974	2.9	21,756	21.1	103,252	100.0
2022	716	0.8	283	0.3	191	0.2	4,138	4.3	7,248	7.6	2,601	2.7	19,378	20.3	95,389	100.0

<표 II-13> 연도별 재학생의 직업 현황(2학기)

연도	농업		임업		어업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행정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637	0.5	25	0.0	106	0.1	208	0.2	73	0.1	5,241	4.3	639	0.5	6,362	5.2	1,166	1.0
2014	676	0.6	37	0.0	74	0.1	228	0.2	60	0.1	5,293	4.5	571	0.5	6,219	5.2	1,083	0.9
2015	732	0.7	36	0.0	50	0.0	260	0.2	50	0.0	5,249	4.7	520	0.5	5,752	5.1	1,015	0.9
2016	734	0.7	25	0.0	42	0.0	245	0.2	49	0.0	5,014	5.4	485	0.5	5,273	5.2	986	1.0
2017	721	0.7	26	0.0	27	0.0	215	0.2	49	0.0	4,729	4.9	452	0.5	4,819	5.0	810	0.8
2018	719	0.8	37	0.0	61	0.1	154	0.2	37	0.0	3,908	4.2	348	0.4	3,836	4.1	749	0.8
2019	746	0.8	39	0.0	74	0.1	159	0.2	40	0.0	3,163	3.6	306	0.3	3,070	3.5	640	0.7
2020	774	0.8	44	0.0	72	0.1	175	0.2	37	0.0	2,826	3.1	318	0.3	2,916	3.2	571	0.6
2021	704	0.8	39	0.0	73	0.1	157	0.2	33	0.0	2,429	2.7	277	0.3	2,477	2.7	543	0.6
2022	635	0.8	43	0.1	90	0.1	160	0.2	26	0.0	1,804	2.2	277	0.3	2,001	2.5	406	0.5

II.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

연도	공무원		직업군인		국영기업		회사원 (관리 전문직)		회사원 (사무직)		회사원 (판매 영업직)		회사원 (생산 기술직)		정치인		범죄인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5,521	4.5	758	0.6	764	0.6	10,167	8.3	17,073	14.0	2,896	2.4	4,493	3.7	78	0.1	537	0.4
2014	5,199	4.4	562	0.5	650	0.5	9,646	8.1	16,455	13.8	2,950	2.5	4,470	3.8	51	0.0	420	0.4
2015	4,617	4.1	423	0.4	636	0.6	8,910	8.0	15,242	13.6	2,675	2.4	4,212	3.8	48	0.0	317	0.3
2016	4,326	4.7	364	0.4	560	0.5	7,986	8.3	13,716	13.3	2,381	2.3	3,729	3.6	38	0.0	303	0.3
2017	3,937	4.1	312	0.3	516	0.5	7,395	7.7	12,725	13.2	2,161	2.2	3,421	3.5	37	0.0	275	0.3
2018	3,466	3.7	339	0.4	582	0.6	6,695	7.2	10,940	11.7	1,734	1.9	3,033	3.2	36	0.0	386	0.4
2019	3,075	3.5	293	0.3	549	0.6	6,072	6.8	9,696	10.9	1,439	1.6	2,631	3.0	50	0.1	374	0.4
2020	3,123	3.4	366	0.4	518	0.6	6,349	6.9	10,081	11.0	1,394	1.5	2,627	2.9	45	0.0	349	0.4
2021	2,832	3.1	357	0.4	491	0.5	6,059	6.7	9,810	10.8	1,299	1.4	2,513	2.8	54	0.1	356	0.4
2022	2,423	3.0	305	0.4	457	0.6	5,320	6.6	8,997	11.1	1,115	1.4	2,318	2.9	57	0.1	350	0.4
연도	예술인		언론방송인		종교인		자영업		전업주부		전업학생		기타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3	957	0.8	401	0.3	341	0.3	6,803	5.6	24,398	19.9	3,929	3.2	28,793	23.5	122,366	100.0		
2014	907	0.8	369	0.3	324	0.3	6,726	5.7	23,442	19.7	4,025	3.4	28,500	24.0	118,937	100.0		
2015	852	0.8	339	0.3	279	0.2	6,483	5.8	21,649	19.3	4,044	3.6	27,498	24.6	111,888	100.0		
2016	788	0.8	342	0.3	264	0.3	6,038	5.9	19,250	18.7	3,962	3.9	25,897	25.2	102,797	100.0		
2017	746	0.8	318	0.3	240	0.2	5,572	5.8	16,778	17.4	3,520	3.6	26,702	27.7	96,501	100.0		
2018	664	0.7	300	0.3	197	0.2	4,921	5.3	13,326	14.2	3,067	3.3	33,990	36.3	93,545	100.0		
2019	665	0.7	259	0.3	181	0.2	4,449	5.0	10,635	12.0	2,706	3.0	19,854	22.4	88,795	100.0		
2020	718	0.8	259	0.3	177	0.2	4,373	4.8	9,188	10.1	2,761	3.0	19,223	21.0	91,387	100.0		
2021	688	0.8	269	0.3	191	0.2	3,964	4.4	7,623	8.4	2,572	2.8	18,676	20.7	90,430	100.0		
2022	590	0.7	230	0.3	165	0.2	3,588	4.4	6,139	7.6	2,207	2.7	16,092	19.9	80,762	100.0		

연도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직업군을 살펴보면(2학기 기준), 2013년은 『기타』 23.5%, 『전업주부』 19.9%, 『회사원(사무직)』 14.0%, 『회사원(관리전문직)』 8.3%, 『자영업』 5.6%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기타』 27.7%, 『전업주부』 17.4%, 『회사원(사무직)』 13.2%, 『회사원(관리전문직)』 7.7%, 『자영업』 5.8% 순이었다. 2022년은 『기타』 19.9%, 『전업주부』 7.6%, 『회사원(사무직)』 11.1%, 『회사원(관리전문직)』 6.6%, 『자영업』 4.4%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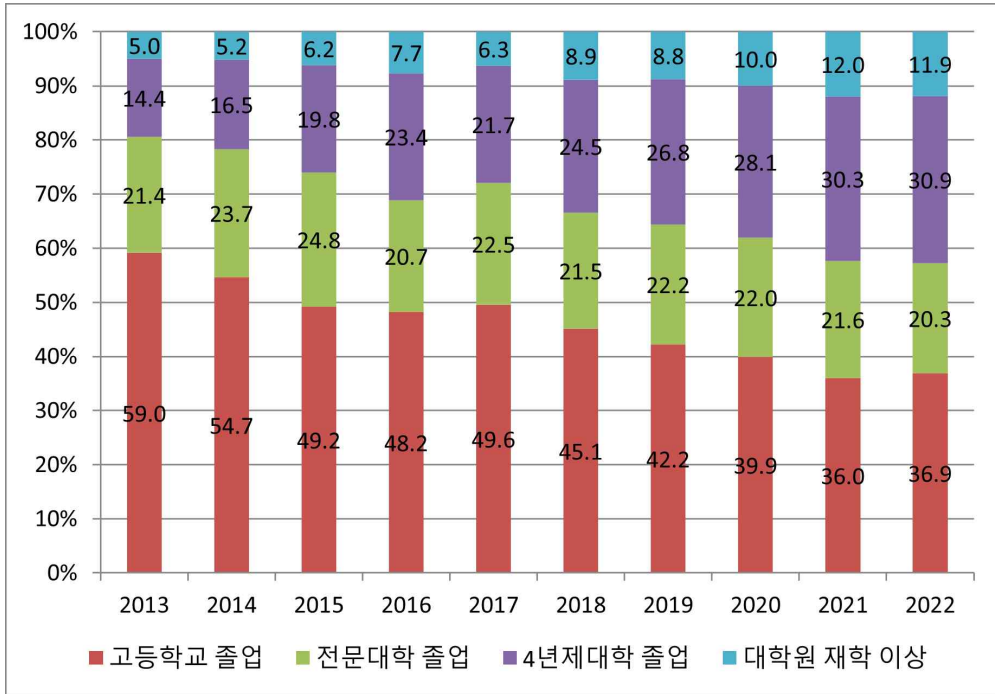
4) 최종학력별 현황

방송대 재학생의 최종학력별 분포는 <표 II-14>, [그림 II-11]과 같다. 재학생의 최종학력은 우리 대학의 데이터허브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4> 연도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현황

연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3	2,962	59.0	1,075	21.4	725	14.4	251	5.0	5,013	100.0
2014	3,315	54.7	1,435	23.7	998	16.5	317	5.2	6,065	100.0
2015	3,131	49.2	1,579	24.8	1,257	19.8	392	6.2	6,359	100.0
2016	1,964	48.2	846	20.7	955	23.4	313	7.7	4,078	100.0
2017	2,736	49.6	1,239	22.5	1,196	21.7	345	6.3	5,516	100.0
2018	1,982	45.1	947	21.5	1,078	24.5	390	8.9	4,397	100.0
2019	2,338	42.2	1,230	22.2	1,483	26.8	485	8.8	5,537	100.0
2020	2,271	39.9	1,251	22.0	1,600	28.1	571	10.0	5,693	100.0
2021	1,536	36.0	922	21.6	1,294	30.3	512	12.0	4,264	100.0
2022	1,314	36.9	724	20.3	1,103	30.9	424	11.9	3,565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참여자의 최종학력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년제 대학 졸업』 30.9%, 『전문대학 졸업』 20.3%, 『대학원 재학 이상』 11.9%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2018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0.9% 소폭 상승한 반면, 『4년제 대학 졸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그림 II-11] 연도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분포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참여자의 최종학력 분포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체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문화교양학과에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이 62.4%로 다른 학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졸업』 비율은 간호학과에서 86.8%,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은 사회복지학과에서 56.5%로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데이터과 학과는 『4년제 대학 졸업』 과 『대학원 재학 이상』 비율이 각각 36.8%, 37.7%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표 II-15> 학과별 재학생의 최종학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	전체
국어국문학과	69 (55.6)	15 (12.1)	30 (24.2)	10 (8.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71 (31.8)	41 (18.4)	80 (35.9)	31 (13.9)	223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중어중문학과	51 (33.6)	14 (9.2)	60 (39.5)	27 (17.8)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9 (26.5)	4 (11.8)	9 (26.5)	12 (35.3)	34 (100.0)
일본학과	45 (36.0)	23 (18.4)	32 (25.6)	25 (20.0)	125 (100.0)
법학과	68 (31.6)	17 (7.9)	84 (39.1)	46 (21.4)	215 (100.0)
행정학과	27 (52.9)	16 (31.4)	7 (13.7)	1 (2.0)	51 (100.0)
경제학과	25 (46.3)	7 (13.0)	15 (27.8)	7 (13.0)	54 (100.0)
경영학과	110 (52.4)	63 (30.0)	28 (13.3)	9 (4.3)	210 (100.0)
무역학과	11 (44.0)	10 (40.0)	3 (12.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58 (56.9)	29 (28.4)	9 (8.8)	6 (5.9)	102 (100.0)
관광학과	31 (50.8)	7 (11.5)	20 (32.8)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36 (8.9)	88 (21.7)	229 (56.5)	52 (12.8)	405 (100.0)
농학과	76 (31.8)	23 (9.6)	96 (40.2)	44 (18.4)	239 (100.0)
생활과학과	123 (46.4)	52 (19.6)	74 (27.9)	16 (6.0)	265 (100.0)
컴퓨터과학과	77 (32.6)	60 (25.4)	79 (33.5)	20 (8.5)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14 (13.2)	13 (12.3)	39 (36.8)	40 (37.7)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6 (43.8)	24 (22.9)	26 (24.8)	9 (8.6)	105 (100.0)
간호학과	3 (3.9)	66 (86.8)	7 (9.2)	0 (0.0)	76 (100.0)
교육학과	79 (42.9)	30 (16.3)	58 (31.5)	17 (9.2)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5 (40.9)	38 (23.9)	44 (27.7)	12 (7.5)	159 (100.0)
유아교육과	39 (16.9)	63 (27.3)	108 (46.8)	21 (9.1)	231 (100.0)
문화교양학과	83 (62.4)	13 (9.8)	26 (19.5)	11 (8.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7 (34.0)	8 (16.0)	21 (42.0)	4 (8.0)	50 (100.0)
계	1233 (34.6)	724 (20.3)	1184 (33.2)	424 (11.9)	3,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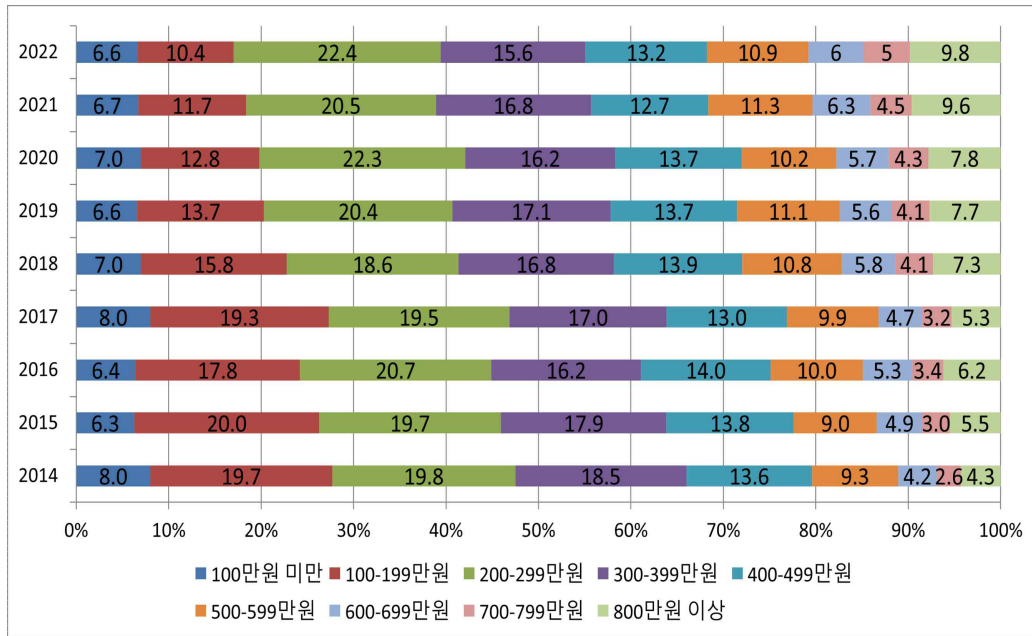
5) 가계 월소득

재학생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16>, [그림 II-12]와 같다. 재학생의 최종학력은 대학의 데이터허브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참여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6> 연도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 현황

연도	100 만원미만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599 만원		600-699 만원		700-799 만원		800 만원이상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4	486	8.0	1,194	19.7	1,201	19.8	1,121	18.5	826	13.6	562	9.3	254	4.2	160	2.6	261	4.3
2015	400	6.3	1,273	20	1,251	19.7	1,138	17.9	876	13.8	572	9.0	310	4.9	189	3.0	350	5.5
2016	261	6.4	726	17.8	843	20.7	659	16.2	572	14.0	408	10.0	218	5.3	137	3.4	254	6.2
2017	443	8.0	1,066	19.3	1,073	19.5	939	17.0	718	13.0	547	9.9	261	4.7	177	3.2	292	5.3
2018	308	7.0	695	15.8	816	18.6	740	16.8	610	13.9	475	10.8	253	5.8	181	4.1	319	7.3
2019	365	6.6	760	13.7	1,132	20.4	945	17.1	756	13.7	615	11.1	309	5.6	228	4.1	426	7.7
2020	400	7.0	728	12.8	1,269	22.3	921	16.2	781	13.7	579	10.2	324	5.7	246	4.3	445	7.8
2021	286	6.7	497	11.7	876	20.5	715	16.8	541	12.7	481	11.3	267	6.3	190	4.5	411	9.6
2022	234	6.6	371	10.4	800	22.4	557	15.6	471	13.2	388	10.9	215	6.0	178	5.0	351	9.8

연도별로 비중이 높은 소득 구간은 2014년의 경우 ‘200~299만원’ 19.8%, ‘100~199만원’ 19.7%, ‘300~399만원’ 18.5%, ‘400~499만원’ 13.6% 순이었다. 2022년에는 ‘200~299만원’ 22.4%, ‘300~399만원’ 15.6%, ‘400~499만원’ 13.2%, ‘100~199만원’ 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200~299만원’, ‘400~499만원’, ‘700~799만원’ 및 ‘800만원 이상’ 구간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199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월 평균 가계 소득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12] 연도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현황

가계 월소득의 학과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표 II-17> 과 같다.

<표 II-17> 학과별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만원 이상	계
국어국문학과	9 (7.3)	17 (13.7)	26 (21.0)	19 (15.3)	13 (10.5)	12 (9.7)	5 (4.0)	6 (4.8)	17 (13.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20 (9.0)	24 (10.8)	46 (20.6)	41 (18.4)	26 (11.7)	24 (10.8)	8 (3.6)	15 (6.7)	19 (8.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5 (3.3)	23 (15.1)	30 (19.7)	24 (15.8)	22 (14.5)	16 (10.5)	3 (2.0)	6 (3.9)	23 (15.1)	152 (100.0)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6 (17.6)	2 (5.9)	9 (26.5)	1 (2.9)	2 (5.9)	4 (11.8)	1 (2.9)	2 (5.9)	7 (20.6)	34 (100.0)
일본학과	9 (7.2)	13 (10.4)	34 (27.2)	14 (11.2)	15 (12.0)	12 (9.6)	9 (7.2)	5 (4.0)	14 (11.2)	125 (100.0)
법학과	9	20	44	37	32	26	12	8	27	215

II. 재학생 규모 및 특성 분석

	(4.2)	(9.3)	(20.5)	(17.2)	(14.9)	(12.1)	(5.6)	(3.7)	(12.6)	(100.0)
행정학과	3 (5.9)	5 (9.8)	15 (29.4)	7 (13.7)	9 (17.6)	5 (9.8)	5 (9.8)	1 (2.0)	1 (2.0)	51 (100.0)
경제학과	3 (5.6)	3 (5.6)	12 (22.2)	14 (25.9)	7 (13.0)	5 (9.3)	1 (1.9)	4 (7.4)	5 (9.3)	54 (100.0)
경영학과	8 (3.8)	15 (7.1)	63 (30.0)	28 (13.3)	22 (10.5)	24 (11.4)	15 (7.1)	10 (4.8)	25 (11.9)	210 (100.0)
무역학과	1 (4.0)	2 (8.0)	10 (40.0)	5 (20.0)	0 (0.0)	3 (12.0)	1 (4.0)	2 (8.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 학과	9 (8.8)	11 (10.8)	36 (35.3)	12 (11.8)	11 (10.8)	5 (4.9)	3 (2.9)	8 (7.8)	7 (6.9)	102 (100.0)
관광학과	4 (6.6)	4 (6.6)	20 (32.8)	10 (16.4)	6 (9.8)	7 (11.5)	1 (1.6)	2 (3.3)	7 (11.5)	61 (100.0)
사회복지학과	27 (6.7)	49 (12.1)	82 (20.2)	57 (14.1)	61 (15.1)	41 (10.1)	31 (7.7)	23 (5.7)	34 (8.4)	405 (100.0)
농학과	7 (2.9)	19 (7.9)	49 (20.5)	31 (13.0)	37 (15.5)	27 (11.3)	21 (8.8)	16 (6.7)	32 (13.4)	239 (100.0)
생활과학과	20 (7.5)	38 (14.3)	54 (20.4)	43 (16.2)	30 (11.3)	24 (9.1)	19 (7.2)	17 (6.4)	20 (7.5)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4 (5.9)	27 (11.4)	54 (22.9)	38 (16.1)	33 (14.0)	21 (8.9)	14 (5.9)	11 (4.7)	24 (10.2)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2 (1.9)	6 (5.7)	21 (19.8)	19 (17.9)	19 (17.9)	17 (16.0)	4 (3.8)	8 (7.5)	10 (9.4)	106 (100.0)
보건환경학과	9 (8.6)	4 (3.8)	32 (30.5)	14 (13.3)	17 (16.2)	9 (8.6)	8 (7.6)	2 (1.9)	10 (9.5)	105 (100.0)
간호학과	2 (2.6)	3 (3.9)	14 (18.4)	18 (23.7)	11 (14.5)	10 (13.2)	6 (7.9)	5 (6.6)	7 (9.2)	76 (100.0)
교육학과	15 (8.2)	27 (14.7)	31 (16.8)	25 (13.6)	21 (11.4)	30 (16.3)	16 (8.7)	5 (2.7)	14 (7.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9 (11.9)	18 (11.3)	18 (11.3)	30 (18.9)	24 (15.1)	18 (11.3)	9 (5.7)	6 (3.8)	17 (10.7)	159 (100.0)
유아교육과	17 (7.4)	23 (10.0)	64 (27.7)	35 (15.2)	29 (12.6)	25 (10.8)	13 (5.6)	12 (5.2)	13 (5.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2 (9.0)	14 (10.5)	24 (18.0)	22 (16.5)	20 (15.0)	19 (14.3)	8 (6.0)	3 (2.3)	11 (8.3)	133 (100.0)
생활체육지도 과	4 (8.0)	4 (8.0)	12 (24.0)	13 (26.0)	4 (8.0)	4 (8.0)	2 (4.0)	1 (2.0)	6 (12.0)	50 (100.0)
계	234 (6.6)	371 (10.4)	800 (22.4)	557 (15.6)	471 (13.2)	388 (10.9)	215 (6.0)	178 (5.0)	351 (9.8)	3,565 (100.0)

학과별로 가구 월소득별 재학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전체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가운데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농학과, 컴퓨터과학과에서 800만원 이상 최고 구간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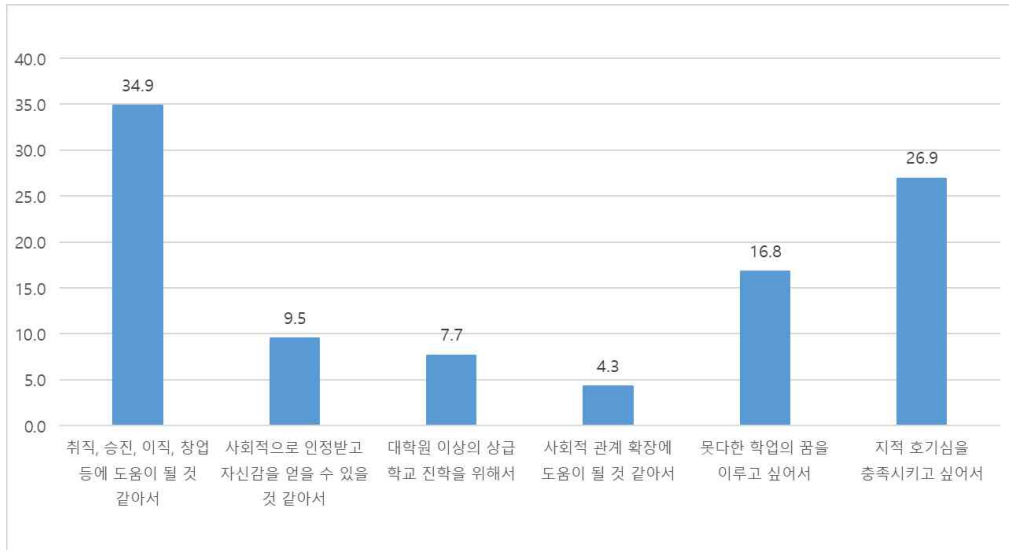
III. 방송대 진학 동기

이 장에서는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방송대 진학 동기를 살펴보았다. 방송대 진학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학과 선택시 고려했던 요인’,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대학교육,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

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4.9%로 가장 많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가 26.9%,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16.8%,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5%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3.2%로 가장 많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가 26.2%,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18.2%,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9%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원 이상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전체	
성별	남자	318 (25.1)	110 (8.7)	96 (7.6)	78 (6.2)	242 (19.1)	424 (33.4)	1,268 (100.0)	
	여자	925 (40.3)	228 (9.9)	177 (7.7)	75 (3.3)	356 (15.5)	536 (23.3)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356 (26.4)	178 (13.2)	85 (6.3)	63 (4.7)	390 (29.0)	275 (20.4)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61 (38.2)	28 (6.7)	24 (5.7)	15 (3.6)	43 (10.2)	150 (35.6)	421 (100.0)
		3학년	726 (40.4)	132 (7.3)	164 (9.1)	75 (4.2)	165 (9.2)	535 (29.8)	1,797 (100.0)
연령대	10대	5 (50.0)	1 (10.0)	0 (0.0)	0 (0.0)	1 (10.0)	3 (30.0)	10 (100.0)	
	20대	294 (58.3)	44 (8.7)	61 (12.1)	7 (1.4)	47 (9.3)	51 (10.1)	504 (100.0)	
	30대	392 (50.1)	59 (7.5)	70 (9.0)	14 (1.8)	96 (12.3)	151 (19.3)	782 (100.0)	
	40대	359 (38.2)	85 (9.1)	66 (7.0)	31 (3.3)	130 (13.8)	268 (28.5)	939 (100.0)	
	50대	166 (20.9)	97 (12.2)	47 (5.9)	56 (7.1)	164 (20.7)	263 (33.2)	793 (100.0)	
	60대	26 (5.5)	49 (10.4)	25 (5.3)	39 (8.2)	135 (28.5)	199 (42.1)	473 (100.0)	
	70대 이상	1 (1.6)	3 (4.7)	4 (6.3)	6 (9.4)	25 (39.1)	25 (39.1)	64 (100.0)	
계		1,243 (34.9)	338 (9.5)	273 (7.7)	153 (4.3)	598 (16.8)	960 (26.9)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남성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가 33.4%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가 29%로 가장 많았고, 2학년과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각각 38.2%와 40.4%로 가장 많았다. 입학유형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취직이나 승진 등의 경력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편입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에서는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된 이유로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1순위로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층에 따라 교육목적에 확연히 차이가 나며, 40대 이하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위한 재교육 혹은 심화교육에, 50대 이상에서는 학업에 대한 순수한 목적이 더욱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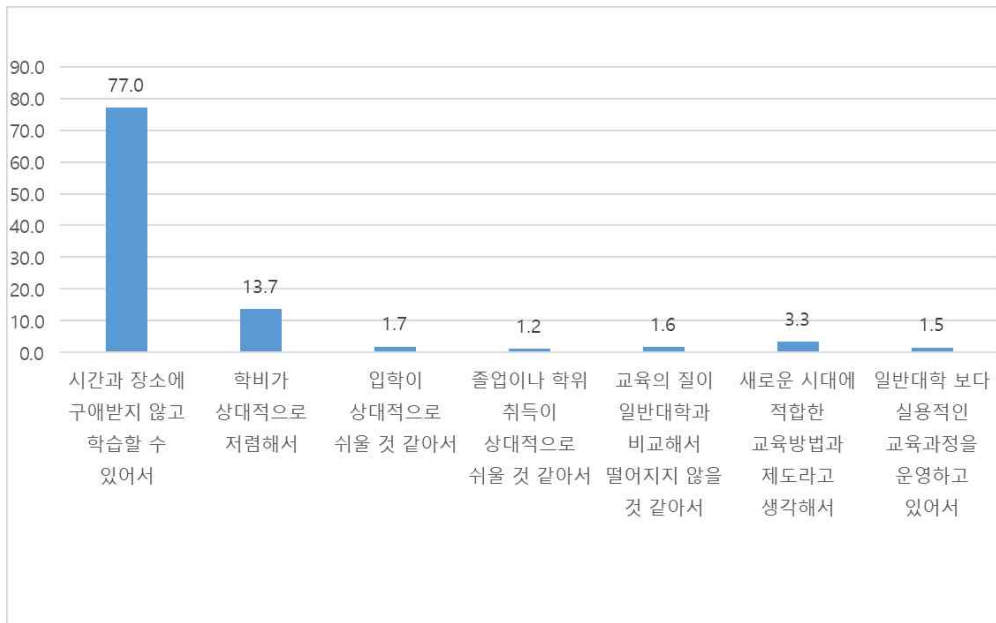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학원 이상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회적 관계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전체
국어국문학과	7 (5.6)	12 (9.7)	11 (8.9)	5 (4.0)	33 (26.6)	56 (45.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4 (15.2)	18 (8.1)	16 (7.2)	9 (4.0)	48 (21.5)	98 (43.9)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8 (11.8)	11 (7.2)	10 (6.6)	5 (3.3)	24 (15.8)	84 (55.3)	152 (100.0)
프랑스언어 문화학과	1 (2.9)	3 (8.8)	1 (2.9)	1 (2.9)	5 (14.7)	23 (67.6)	34 (100.0)
일본학과	27 (21.6)	11 (8.8)	7 (5.6)	1 (0.8)	28 (22.4)	51 (40.8)	125 (100.0)
법학과	47 (21.9)	17 (7.9)	23 (10.7)	10 (4.7)	43 (20.0)	75 (34.9)	215 (100.0)

행정학과	18 (35.3)	6 (11.8)	4 (7.8)	6 (11.8)	11 (21.6)	6 (11.8)	51 (100.0)
경제학과	10 (18.5)	9 (16.7)	4 (7.4)	2 (3.7)	9 (16.7)	20 (37.0)	54 (100.0)
경영학과	96 (45.7)	26 (12.4)	10 (4.8)	8 (3.8)	48 (22.9)	22 (10.5)	210 (100.0)
무역학과	18 (72.0)	1 (4.0)	0 (0.0)	0 (0.0)	3 (12.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40 (39.2)	15 (14.7)	9 (8.8)	5 (4.9)	12 (11.8)	21 (20.6)	102 (100.0)
관광학과	15 (24.6)	7 (11.5)	3 (4.9)	5 (8.2)	11 (18.0)	20 (32.8)	61 (100.0)
사회복지학과	212 (52.3)	32 (7.9)	15 (3.7)	35 (8.6)	37 (9.1)	74 (18.3)	405 (100.0)
농학과	69 (28.9)	25 (10.5)	11 (4.6)	11 (4.6)	40 (16.7)	83 (34.7)	239 (100.0)
생활과학과	107 (40.4)	28 (10.6)	15 (5.7)	15 (5.7)	57 (21.5)	43 (16.2)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32 (55.9)	11 (4.7)	20 (8.5)	2 (0.8)	24 (10.2)	47 (19.9)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37 (34.9)	7 (6.6)	16 (15.1)	1 (0.9)	3 (2.8)	42 (39.6)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7 (54.3)	7 (6.7)	6 (5.7)	2 (1.9)	18 (17.1)	15 (14.3)	105 (100.0)
간호학과	33 (43.4)	16 (21.1)	13 (17.1)	2 (2.6)	8 (10.5)	4 (5.3)	76 (100.0)
교육학과	56 (30.4)	23 (12.5)	14 (7.6)	9 (4.9)	37 (20.1)	45 (24.5)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0 (37.7)	9 (5.7)	18 (11.3)	7 (4.4)	30 (18.9)	35 (22.0)	159 (100.0)
유아교육과	125 (54.1)	19 (8.2)	29 (12.6)	5 (2.2)	21 (9.1)	32 (13.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7 (5.3)	19 (14.3)	14 (10.5)	4 (3.0)	42 (31.6)	47 (35.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7 (34.0)	6 (12.0)	4 (8.0)	3 (6.0)	6 (12.0)	14 (28.0)	50 (100.0)
계	1,243 (34.9)	338 (9.5)	273 (7.7)	153 (4.3)	598 (16.8)	960 (26.9)	3,565 (100.0)

2)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전통적 방식의 대학이 아니라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III-2]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가 7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13.7%. 다른 응답들은 4% 미만을 나타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응답 순위에 변화가 없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는 전년 동월(76.1%)에 비해 0.9% 증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는 전년 동월(13.5%)에 비해 0.2% 감소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서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서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제도라고 생각해서	일반대학 보다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전체	
성별	남자	984 (77.6)	146 (11.5)	22 (1.7)	19 (1.5)	21 (1.7)	54 (4.3)	22 (1.7)	1,268 (100.0)
	여자	1,762 (76.7)	341 (14.8)	40 (1.7)	22 (1.0)	37 (1.6)	63 (2.7)	32 (1.4)	2,297 (100.0)
입	신입생	1,003	201	38	15	24	44	22	1,347

Ⅲ. 방송대 진학 동기

학 유 형	(1학년)	(74.5)	(14.9)	(2.8)	(1.1)	(1.8)	(3.3)	(1.6)	(100.0)	
	편 입 생	2 학년	324 (77.0)	49 (11.6)	8 (1.9)	5 (1.2)	10 (2.4)	19 (4.5)	6 (1.4)	421 (100.0)
		3 학년	1,419 (79.0)	237 (13.2)	16 (0.9)	21 (1.2)	24 (1.3)	54 (3.0)	26 (1.4)	1,797 (100.0)
연 령 대	10대	5 (50.0)	1 (10.0)	1 (10.0)	0 (0.0)	1 (10.0)	2 (20.0)	0 (0.0)	10 (100.0)	
	20대	345 (68.5)	102 (20.2)	25 (5.0)	11 (2.2)	9 (1.8)	4 (0.8)	8 (1.6)	504 (100.0)	
	30대	602 (77.0)	122 (15.6)	12 (1.5)	14 (1.8)	17 (2.2)	8 (1.0)	7 (0.9)	782 (100.0)	
	40대	738 (78.6)	137 (14.6)	7 (0.7)	6 (0.6)	12 (1.3)	25 (2.7)	14 (1.5)	939 (100.0)	
	50대	642 (81.0)	77 (9.7)	7 (0.9)	6 (0.8)	14 (1.8)	36 (4.5)	11 (1.4)	793 (100.0)	
	60대	367 (77.6)	45 (9.5)	9 (1.9)	4 (0.8)	4 (0.8)	33 (7.0)	11 (2.3)	473 (100.0)	
	70대 이상	47 (73.4)	3 (4.7)	1 (1.6)	0 (0.0)	1 (1.6)	9 (14.1)	3 (4.7)	64 (100.0)	
계	2,746 (77.0)	487 (13.7)	62 (1.7)	41 (1.2)	58 (1.6)	117 (3.3)	54 (1.5)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를 1순위로 응답했으며, 남성은 77.6%로 여성보다 응답 비율이 0.9% 더 높았다.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라는 응답은 여성이 14.8%로 남성 11.5%보다 3.3% 더 높게 나타났다.

원격교육기관 선택 이유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에 70~80%의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보면, 20-30대에서는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에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10대와 70대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제도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학과별)

구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학비가 상대적으 로 저렴해서	입학이 상대적으 로 쉬운 것 같아서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쉬운 것 같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어서	단위: 명,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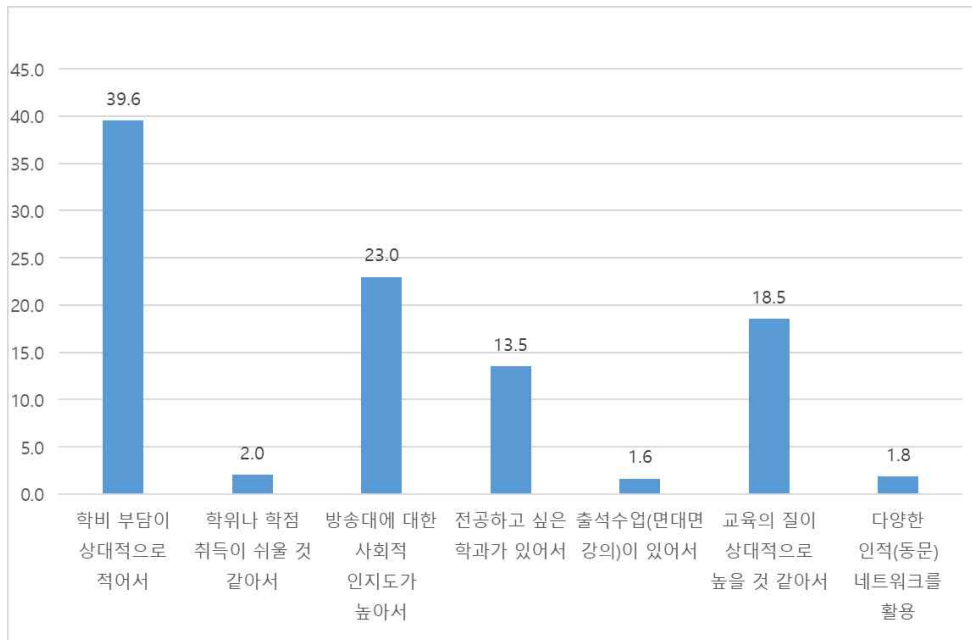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국어국문학과	91 (73.4)	13 (10.5)	4 (3.2)	1 (0.8)	5 (4.0)	7 (5.6)	3 (2.4)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72 (77.1)	28 (12.6)	5 (2.2)	2 (0.9)	2 (0.9)	10 (4.5)	4 (1.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23 (80.9)	15 (9.9)	0 (0.0)	2 (1.3)	5 (3.3)	5 (3.3)	2 (1.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5 (73.5)	7 (20.6)	0 (0.0)	0 (0.0)	1 (2.9)	0 (0.0)	1 (2.9)	34 (100.0)
일본학과	91 (72.8)	21 (16.8)	4 (3.2)	1 (0.8)	1 (0.8)	5 (4.0)	2 (1.6)	125 (100.0)
법학과	165 (76.7)	26 (12.1)	6 (2.8)	2 (0.9)	3 (1.4)	9 (4.2)	4 (1.9)	215 (100.0)
행정학과	42 (82.4)	4 (7.8)	1 (2.0)	0 (0.0)	1 (2.0)	3 (5.9)	0 (0.0)	51 (100.0)
경제학과	46 (85.2)	5 (9.3)	0 (0.0)	1 (1.9)	1 (1.9)	0 (0.0)	1 (1.9)	54 (100.0)
경영학과	172 (81.9)	27 (12.9)	3 (1.4)	3 (1.4)	2 (1.0)	1 (0.5)	2 (1.0)	210 (100.0)
무역학과	17 (68.0)	7 (28.0)	0 (0.0)	0 (0.0)	0 (0.0)	1 (4.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76 (74.5)	14 (13.7)	5 (4.9)	0 (0.0)	3 (2.9)	2 (2.0)	2 (2.0)	102 (100.0)
관광학과	45 (73.8)	8 (13.1)	1 (1.6)	1 (1.6)	2 (3.3)	1 (1.6)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310 (76.5)	60 (14.8)	2 (0.5)	3 (0.7)	8 (2.0)	16 (4.0)	6 (1.5)	405 (100.0)
농학과	187 (78.2)	27 (11.3)	1 (0.4)	3 (1.3)	3 (1.3)	11 (4.6)	7 (2.9)	239 (100.0)
생활과학과	199 (75.1)	49 (18.5)	2 (0.8)	5 (1.9)	2 (0.8)	5 (1.9)	3 (1.1)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81 (76.7)	34 (14.4)	9 (3.8)	4 (1.7)	4 (1.7)	4 (1.7)	0 (0.0)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82 (77.4)	9 (8.5)	2 (1.9)	4 (3.8)	2 (1.9)	5 (4.7)	2 (1.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82 (78.1)	10 (9.5)	3 (2.9)	3 (2.9)	3 (2.9)	3 (2.9)	1 (1.0)	105 (100.0)
간호학과	66 (86.8)	8 (10.5)	0 (0.0)	1 (1.3)	0 (0.0)	0 (0.0)	1 (1.3)	76 (100.0)
교육학과	139 (75.5)	25 (13.6)	4 (2.2)	1 (0.5)	1 (0.5)	11 (6.0)	3 (1.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19 (74.8)	25 (15.7)	1 (0.6)	2 (1.3)	3 (1.9)	6 (3.8)	3 (1.9)	159 (100.0)
유아교육과	176 (76.2)	40 (17.3)	5 (2.2)	2 (0.9)	3 (1.3)	3 (1.3)	2 (0.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97 (72.9)	21 (15.8)	4 (3.0)	0 (0.0)	2 (1.5)	8 (6.0)	1 (0.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43 (86.0)	4 (8.0)	0 (0.0)	0 (0.0)	1 (2.0)	1 (2.0)	1 (2.0)	50 (100.0)
계	2,746 (77.0)	487 (13.7)	62 (1.7)	41 (1.2)	58 (1.6)	117 (3.3)	54 (1.5)	3,565 (100.0)

2. 방송대 및 학과 선택 이유

1)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사이버대학, 원격기반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 등) 중 방송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3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23.0%,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18.5%,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13.5%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결과 수치와 응답 순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5>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남녀 모두 ‘학비 부담이 상

대적으로 적어서'를 1순위로 응답했으며 여성이 41.2%로 남성 36.5%보다 응답 비율이 4.7% 더 높았고, 2순위는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이며 남성 22.8%, 여성 23.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의 응답 비율은 여성 18.9%, 남성 18.0%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의 응답 비율은 남성이 15.9%, 여성이 12.2%로 3.7%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5>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학위나 학점 취득이 쉬운 것 같아서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출석수업(면대면 강의)이 있어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인적(동문) 네트워크를 활용	전체	
성별	남자	463 (36.5)	31 (2.4)	289 (22.8)	201 (15.9)	22 (1.7)	228 (18.0)	34 (2.7)	1,268 (100.0)	
	여자	947 (41.2)	41 (1.8)	530 (23.1)	280 (12.2)	35 (1.5)	433 (18.9)	31 (1.3)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530 (39.3)	32 (2.4)	327 (24.3)	172 (12.8)	29 (2.2)	229 (17.0)	28 (2.1)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64 (39.0)	2 (0.5)	78 (18.5)	83 (19.7)	5 (1.2)	84 (20.0)	5 (1.2)	421 (100.0)
		3학년	716 (39.8)	38 (2.1)	414 (23.0)	226 (12.6)	23 (1.3)	348 (19.4)	32 (1.8)	1,797 (100.0)
연령대	10대	3 (30.0)	1 (10.0)	3 (30.0)	0 (0.0)	0 (0.0)	3 (30.0)	0 (0.0)	10 (100.0)	
	20대	240 (47.6)	13 (2.6)	147 (29.2)	52 (10.3)	3 (0.6)	44 (8.7)	5 (1.0)	504 (100.0)	
	30대	331 (42.3)	21 (2.7)	206 (26.3)	95 (12.1)	8 (1.0)	113 (14.5)	8 (1.0)	782 (100.0)	
	40대	389 (41.4)	11 (1.2)	190 (20.2)	119 (12.7)	16 (1.7)	202 (21.5)	12 (1.3)	939 (100.0)	
	50대	272 (34.3)	16 (2.0)	171 (21.6)	115 (14.5)	16 (2.0)	182 (23.0)	21 (2.6)	793 (100.0)	
	60대	155 (32.8)	9 (1.9)	88 (18.6)	84 (17.8)	11 (2.3)	109 (23.0)	17 (3.6)	473 (100.0)	
	70대 이상	20 (31.3)	1 (1.6)	14 (21.9)	16 (25.0)	3 (4.7)	8 (12.5)	2 (3.1)	64 (100.0)	
계	1,410 (39.6)	72 (2.0)	819 (23.0)	481 (13.5)	57 (1.6)	661 (18.5)	65 (1.8)	3,565 (100.0)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39.8%로 가장 높았다. 2학년 편입생의 경우 다른 입학유형 학생들과 비교

하여 응답 양상에 차이를 보였는데,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18.5%)’에 대한 응답은 다른 입학유형에 비해 낮았지만,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20.0%)’와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19.7%)’에 응답한 비율은 높았다.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보면, 20대-40대가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에 각각 47.6%, 42.3%, 41.4% 비율로 응답하여 그 중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와 20대로 각각 30.0%와 2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에는 50-60대 모두 23.0%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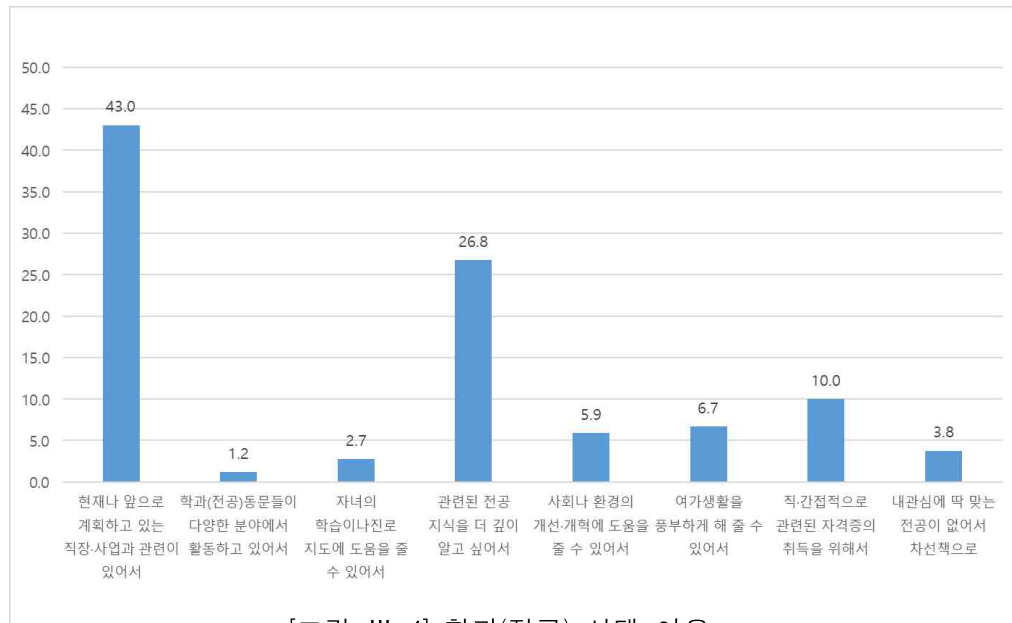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학위나 학점 취득이 쉬운 것 같아서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출석수업(면대면 강의)이 있어서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다양한 인적(동문) 네트워크 활용	전체
국어국문학과	46 (37.1)	1 (0.8)	23 (18.5)	14 (11.3)	5 (4.0)	33 (26.6)	2 (1.6)	124 (100.0)
영어영문학과	96 (43.0)	5 (2.2)	52 (23.3)	18 (8.1)	4 (1.8)	43 (19.3)	5 (2.2)	223 (100.0)
중어중문학과	51 (33.6)	5 (3.3)	31 (20.4)	17 (11.2)	2 (1.3)	43 (28.3)	3 (2.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9 (26.5)	0 (0.0)	8 (23.5)	4 (11.8)	1 (2.9)	12 (35.3)	0 (0.0)	34 (100.0)
일본학과	48 (38.4)	1 (0.8)	30 (24.0)	23 (18.4)	1 (0.8)	21 (16.8)	1 (0.8)	125 (100.0)
법학과	81 (37.7)	7 (3.3)	47 (21.9)	25 (11.6)	8 (3.7)	47 (21.9)	0 (0.0)	215 (100.0)
행정학과	29 (56.9)	3 (5.9)	15 (29.4)	1 (2.0)	0 (0.0)	1 (2.0)	2 (3.9)	51 (100.0)
경제학과	23 (42.6)	0 (0.0)	11 (20.4)	7 (13.0)	3 (5.6)	9 (16.7)	1 (1.9)	54 (100.0)
경영학과	94 (44.8)	2 (1.0)	66 (31.4)	10 (4.8)	2 (1.0)	29 (13.8)	7 (3.3)	210 (100.0)
무역학과	11 (44.0)	0 (0.0)	12 (48.0)	1 (4.0)	0 (0.0)	1 (4.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38 (37.3)	1 (1.0)	30 (29.4)	14 (13.7)	1 (1.0)	16 (15.7)	2 (2.0)	102 (100.0)
관광학과	28 (45.9)	2 (3.3)	10 (16.4)	7 (11.5)	1 (1.6)	6 (9.8)	7 (11.5)	61 (100.0)
사회복지학과	161	6	90	41	1	101	5	405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39.8)	(1.5)	(22.2)	(10.1)	(0.2)	(24.9)	(1.2)	(100.0)
농학과	78 (32.6)	6 (2.5)	46 (19.2)	67 (28.0)	2 (0.8)	30 (12.6)	10 (4.2)	239 (100.0)
생활과학과	108 (40.8)	10 (3.8)	54 (20.4)	48 (18.1)	5 (1.9)	38 (14.3)	2 (0.8)	265 (100.0)
컴퓨터과학과	94 (39.8)	3 (1.3)	84 (35.6)	13 (5.5)	1 (0.4)	40 (16.9)	1 (0.4)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36 (34.0)	1 (0.9)	29 (27.4)	15 (14.2)	1 (0.9)	24 (22.6)	0 (0.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5 (42.9)	1 (1.0)	22 (21.0)	17 (16.2)	1 (1.0)	16 (15.2)	3 (2.9)	105 (100.0)
간호학과	34 (44.7)	6 (7.9)	16 (21.1)	14 (18.4)	1 (1.3)	3 (3.9)	2 (2.6)	76 (100.0)
교육학과	77 (41.8)	2 (1.1)	35 (19.0)	13 (7.1)	3 (1.6)	51 (27.7)	3 (1.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6 (41.5)	3 (1.9)	29 (18.2)	22 (13.8)	6 (3.8)	30 (18.9)	3 (1.9)	159 (100.0)
유아교육과	94 (40.7)	3 (1.3)	46 (19.9)	55 (23.8)	6 (2.6)	25 (10.8)	2 (0.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47 (35.3)	3 (2.3)	24 (18.0)	20 (15.0)	1 (0.8)	34 (25.6)	4 (3.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6 (32.0)	1 (2.0)	9 (18.0)	15 (30.0)	1 (2.0)	8 (16.0)	0 (0.0)	50 (100.0)
계	1,410 (39.6)	72 (2.0)	819 (23.0)	481 (13.5)	57 (1.6)	661 (18.5)	65 (1.8)	3,565 (100.0)

2) 학과 선택 이유



[그림 III-4] 학과(전공) 선택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과(전공)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했던 요인’을 질문한 결과를 분석하면 [그림 III-4]와 같다.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가 43.0%로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26.8%,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10%,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서’ 6.7%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응답 순위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에 응답한 비율이 전년 동월(42.3%)에 비해 0.7%,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전년 동월(9.2%)에 비해 0.8% 증가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학과(전공) 선택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학과(전공)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있어서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사회나 환경의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싶어서	여가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내관심에 딱 맞는 전공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전체	
성별	남자	492 (38.8)	18 (1.4)	20 (1.6)	395 (31.2)	98 (7.7)	115 (9.1)	86 (6.8)	44 (3.5)	1,268 (100.0)	
	여자	1,041 (45.3)	24 (1.0)	78 (3.4)	559 (24.3)	112 (4.9)	123 (5.4)	270 (11.8)	90 (3.9)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536 (39.8)	17 (1.3)	47 (3.5)	380 (28.2)	75 (5.6)	112 (8.3)	104 (7.7)	76 (5.6)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75 (41.6)	3 (0.7)	22 (5.2)	114 (27.1)	12 (2.9)	40 (9.5)	44 (10.5)	11 (2.6)	421 (100.0)
		3학년	822 (45.7)	22 (1.2)	29 (1.6)	460 (25.6)	123 (6.8)	86 (4.8)	208 (11.6)	47 (2.6)	1,797 (100.0)
연령대	10대	6 (60.0)	0 (0.0)	0 (0.0)	2 (20.0)	1 (10.0)	0 (0.0)	1 (10.0)	0 (0.0)	10 (100.0)	
	20대	301 (59.7)	12 (2.4)	2 (0.4)	113 (22.4)	5 (1.0)	8 (1.6)	35 (6.9)	28 (5.6)	504 (100.0)	
	30대	424 (54.2)	9 (1.2)	18 (2.3)	182 (23.3)	27 (3.5)	20 (2.6)	64 (8.2)	38 (4.9)	782 (100.0)	
	40대	447 (47.6)	8 (0.9)	41 (4.4)	216 (23.0)	53 (5.6)	25 (2.7)	119 (12.7)	30 (3.2)	939 (100.0)	
	50대	282 (35.6)	7 (0.9)	22 (2.8)	224 (28.2)	66 (8.3)	75 (9.5)	103 (13.0)	14 (1.8)	793 (100.0)	
	60대	70 (14.8)	4 (0.8)	11 (2.3)	190 (40.2)	49 (10.4)	95 (20.1)	32 (6.8)	22 (4.7)	473 (100.0)	

	70대 이상	3 (4.7)	2 (3.1)	4 (6.3)	27 (42.2)	9 (14.1)	15 (23.4)	2 (3.1)	2 (3.1)	64 (100.0)
계		1,533 (43.0)	42 (1.2)	98 (2.7)	954 (26.8)	210 (5.9)	238 (6.7)	356 (10.0)	134 (3.8)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서 남녀 모두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가 1순위였고, 여성의 응답 비율이 45.3%로 남성보다 6.5% 더 높았다.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았던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는 남성 31.2%, 여성 24.3%로 남성의 비율이 6.9%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응답 비율이 3.4%로 남성 1.6%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9.1%로 여자 5.4%보다 3.7%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보면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가 모든 입학유형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3학년 편입생의 응답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는 3학년 편입생에서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보면, 10-30대는 1순위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에 50~60%의 응답을 보였으나,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응답비율이 점차 감소한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과 40대에서는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6.3%와 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II-8>과 같다.

<표 III-8> 학과(전공) 선택 이유(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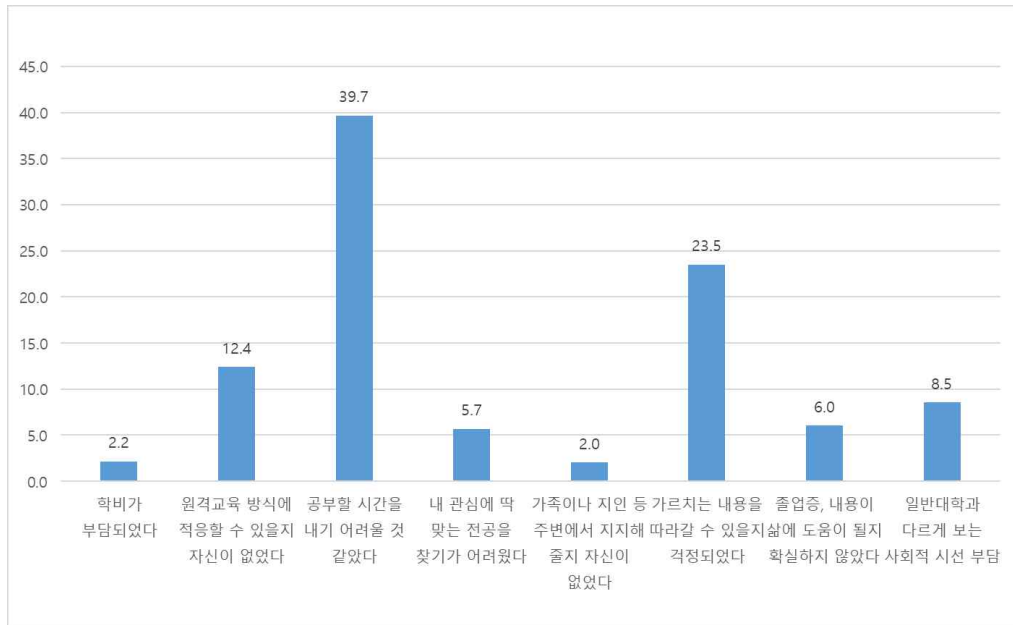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학과(전공)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사회나 환경의 개선·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내관심에 맞는 전공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전체
국어국문학과	18 (14.5)	1 (0.8)	2 (1.6)	80 (64.5)	2 (1.6)	15 (12.1)	2 (1.6)	4 (3.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60 (26.9)	2 (0.9)	10 (4.5)	107 (48.0)	6 (2.7)	24 (10.8)	4 (1.8)	10 (4.5)	223 (100.0)

Ⅲ. 방송대 진학 동기

중어중문학과	33 (21.7)	1 (0.7)	2 (1.3)	61 (40.1)	6 (3.9)	39 (25.7)	3 (2.0)	7 (4.6)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3 (8.8)	0 (0.0)	0 (0.0)	18 (52.9)	1 (2.9)	7 (20.6)	1 (2.9)	4 (11.8)	34 (100.0)
일본학과	23 (18.4)	0 (0.0)	2 (1.6)	58 (46.4)	3 (2.4)	23 (18.4)	11 (8.8)	5 (4.0)	125 (100.0)
법학과	101 (47.0)	1 (0.5)	2 (0.9)	80 (37.2)	12 (5.6)	4 (1.9)	9 (4.2)	6 (2.8)	215 (100.0)
행정학과	24 (47.1)	1 (2.0)	0 (0.0)	8 (15.7)	8 (15.7)	1 (2.0)	6 (11.8)	3 (5.9)	51 (100.0)
경제학과	19 (35.2)	0 (0.0)	4 (7.4)	28 (51.9)	1 (1.9)	0 (0.0)	2 (3.7)	0 (0.0)	54 (100.0)
경영학과	149 (71.0)	5 (2.4)	0 (0.0)	38 (18.1)	3 (1.4)	0 (0.0)	9 (4.3)	6 (2.9)	210 (100.0)
무역학과	18 (72.0)	0 (0.0)	0 (0.0)	3 (12.0)	0 (0.0)	1 (4.0)	0 (0.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51 (50.0)	1 (1.0)	1 (1.0)	27 (26.5)	0 (0.0)	9 (8.8)	1 (1.0)	12 (11.8)	102 (100.0)
관광학과	15 (24.6)	0 (0.0)	1 (1.6)	16 (26.2)	4 (6.6)	14 (23.0)	5 (8.2)	6 (9.8)	61 (100.0)
사회복지학과	183 (45.2)	3 (0.7)	0 (0.0)	34 (8.4)	73 (18.0)	5 (1.2)	104 (25.7)	3 (0.7)	405 (100.0)
농학과	96 (40.2)	5 (2.1)	1 (0.4)	52 (21.8)	20 (8.4)	30 (12.6)	26 (10.9)	9 (3.8)	239 (100.0)
생활과학과	118 (44.5)	9 (3.4)	3 (1.1)	52 (19.6)	18 (6.8)	7 (2.6)	47 (17.7)	11 (4.2)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62 (68.6)	3 (1.3)	4 (1.7)	57 (24.2)	3 (1.3)	1 (0.4)	4 (1.7)	2 (0.8)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54 (50.9)	1 (0.9)	4 (3.8)	43 (40.6)	1 (0.9)	0 (0.0)	1 (0.9)	2 (1.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7 (54.3)	0 (0.0)	0 (0.0)	12 (11.4)	11 (10.5)	1 (1.0)	19 (18.1)	5 (4.8)	105 (100.0)
간호학과	48 (63.2)	1 (1.3)	0 (0.0)	25 (32.9)	0 (0.0)	0 (0.0)	2 (2.6)	0 (0.0)	76 (100.0)
교육학과	74 (40.2)	4 (2.2)	8 (4.3)	32 (17.4)	17 (9.2)	2 (1.1)	33 (17.9)	14 (7.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7 (42.1)	1 (0.6)	38 (23.9)	14 (8.8)	8 (5.0)	3 (1.9)	21 (13.2)	7 (4.4)	159 (100.0)
유아교육과	125 (54.1)	2 (0.9)	13 (5.6)	47 (20.3)	2 (0.9)	1 (0.4)	40 (17.3)	1 (0.4)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7 (12.8)	1 (0.8)	2 (1.5)	47 (35.3)	10 (7.5)	43 (32.3)	0 (0.0)	13 (9.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8 (36.0)	0 (0.0)	1 (2.0)	15 (30.0)	1 (2.0)	8 (16.0)	6 (12.0)	1 (2.0)	50 (100.0)
계	1,533 (43.0)	42 (1.2)	98 (2.7)	954 (26.8)	210 (5.9)	238 (6.7)	356 (10.0)	134 (3.8)	3,565 (100.0)

3)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방송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할 당시 귀하의 결정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 III-5]와 같다.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가 1순위로 39.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23.5%,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12.4%,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 8.5%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응답 순위는 변함이 없었지만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를 선택한 비율이 1.1% 증가했고,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도 1.2% 증가했다. 반면,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2.1% 감소했다.



[그림 III-5]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9>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에서 남녀 모두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남성의 응답 비율이 43.7%로

여성 37.4%보다 6.3% 더 높았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와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의 응답 비율은 여성이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는 3학년 편입생(43.4%)이 가장 높았고, 2학년 편입생(41.8%), 신입생(34.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는 응답은 신입생이 25.9%로 2학년과 3학년 편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응답은 3학년 편입생(12.5%)과 1학년 신입생(12.4%)이 2학년 편입생(11.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방송대 진학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합비가 부담되었다	원격교육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지지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졸업증, 내용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 부담	전체	
성별	남자	35 (2.8)	148 (11.7)	554 (43.7)	83 (6.5)	14 (1.1)	256 (20.2)	66 (5.2)	112 (8.8)	1,268 (100.0)	
	여자	42 (1.8)	293 (12.8)	860 (37.4)	120 (5.2)	59 (2.6)	582 (25.3)	149 (6.5)	192 (8.4)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1학년)	30 (2.2)	167 (12.4)	459 (34.1)	74 (5.5)	32 (2.4)	398 (29.5)	59 (4.4)	128 (9.5)	1,347 (100.0)	
	편입생	2학년	4 (1.0)	50 (11.9)	176 (41.8)	25 (5.9)	9 (2.1)	93 (22.1)	31 (7.4)	33 (7.8)	421 (100.0)
		3학년	43 (2.4)	224 (12.5)	779 (43.4)	104 (5.8)	32 (1.8)	347 (19.3)	125 (7.0)	143 (8.0)	1,797 (100.0)
연령대	10대	0 (0.0)	0 (0.0)	2 (20.0)	1 (10.0)	1 (10.0)	3 (30.0)	1 (10.0)	2 (20.0)	10 (100.0)	
	20대	10 (2.0)	48 (9.5)	165 (32.7)	34 (6.7)	8 (1.6)	81 (16.1)	37 (7.3)	121 (24.0)	504 (100.0)	
	30대	16 (2.0)	82 (10.5)	358 (45.8)	32 (4.1)	17 (2.2)	144 (18.4)	60 (7.7)	73 (9.3)	782 (100.0)	
	40대	30 (3.2)	109 (11.6)	419 (44.6)	50 (5.3)	23 (2.4)	213 (22.7)	49 (5.2)	46 (4.9)	939 (100.0)	
	50대	9 (1.1)	104 (13.1)	332 (41.9)	43 (5.4)	20 (2.5)	206 (26.0)	40 (5.0)	39 (4.9)	793 (100.0)	
	60대	11 (2.3)	81 (17.1)	129 (27.3)	39 (8.2)	3 (0.6)	167 (35.3)	27 (5.7)	16 (3.4)	473 (100.0)	
	70대 이상	1 (1.6)	17 (26.6)	9 (14.1)	4 (6.3)	1 (1.6)	24 (37.5)	1 (1.6)	7 (10.9)	64 (100.0)	

계	77 (2.2)	441 (12.4)	1,414 (39.7)	203 (5.7)	73 (2.0)	838 (23.5)	215 (6.0)	304 (8.5)	3,565 (100.0)
---	-------------	---------------	-----------------	--------------	-------------	---------------	--------------	--------------	------------------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보면,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는 응답이 30대 45.8%, 40대 44.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는 2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원격 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는 응답은 70대 이상에서 26.6%로 높게 나타났다. 10-20대의 경우는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20%, 24%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적 시선 때문에 방송대 입학 결정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방송대 진학결정을 어렵게 한 사항(학과별)

단위: 명, %

구분	학비가 부담되었다	원격교육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웠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지지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졸업증, 내용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 부담	전체
국어국문학과	3 (2.4)	16 (12.9)	38 (30.6)	14 (11.3)	2 (1.6)	40 (32.3)	7 (5.6)	4 (3.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6 (2.7)	22 (9.9)	95 (42.6)	16 (7.2)	0 (0.0)	53 (23.8)	12 (5.4)	19 (8.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 (1.3)	25 (16.4)	58 (38.2)	5 (3.3)	1 (0.7)	41 (27.0)	8 (5.3)	12 (7.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4 (11.8)	12 (35.3)	2 (5.9)	0 (0.0)	7 (20.6)	5 (14.7)	4 (11.8)	34 (100.0)
일본학과	3 (2.4)	16 (12.8)	47 (37.6)	10 (8.0)	2 (1.6)	27 (21.6)	13 (10.4)	7 (5.6)	125 (100.0)
법학과	4 (1.9)	16 (7.4)	107 (49.8)	7 (3.3)	5 (2.3)	50 (23.3)	12 (5.6)	14 (6.5)	215 (100.0)
행정학과	3 (5.9)	4 (7.8)	16 (31.4)	2 (3.9)	0 (0.0)	19 (37.3)	1 (2.0)	6 (11.8)	51 (100.0)
경제학과	0 (0.0)	7 (13.0)	24 (44.4)	3 (5.6)	1 (1.9)	10 (18.5)	5 (9.3)	4 (7.4)	54 (100.0)

Ⅲ. 방송대 진학 동기

구분	학비가 부담되었다	원격교육 방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웠	내심에는 전공을 가려왔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지지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졸업증, 내용이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 부담	전체
경영학과	2 (1.0)	20 (9.5)	96 (45.7)	8 (3.8)	3 (1.4)	46 (21.9)	8 (3.8)	27 (12.9)	210 (100.0)
무역학과	1 (4.0)	2 (8.0)	11 (44.0)	1 (4.0)	0 (0.0)	3 (12.0)	2 (8.0)	5 (2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13 (12.7)	40 (39.2)	7 (6.9)	0 (0.0)	22 (21.6)	5 (4.9)	14 (13.7)	102 (100.0)
관광학과	1 (1.6)	10 (16.4)	21 (34.4)	8 (13.1)	0 (0.0)	11 (18.0)	6 (9.8)	4 (6.6)	61 (100.0)
사회복지학과	11 (2.7)	64 (15.8)	158 (39.0)	11 (2.7)	11 (2.7)	97 (24.0)	33 (8.1)	20 (4.9)	405 (100.0)
농학과	5 (2.1)	32 (13.4)	103 (43.1)	16 (6.7)	7 (2.9)	53 (22.2)	10 (4.2)	13 (5.4)	239 (100.0)
생활과학과	2 (0.8)	40 (15.1)	83 (31.3)	24 (9.1)	5 (1.9)	67 (25.3)	16 (6.0)	28 (10.6)	265 (100.0)
컴퓨터과학과	5 (2.1)	16 (6.8)	108 (45.8)	2 (0.8)	2 (0.8)	44 (18.6)	19 (8.1)	40 (16.9)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0 (0.0)	8 (7.5)	51 (48.1)	5 (4.7)	0 (0.0)	25 (23.6)	10 (9.4)	7 (6.6)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13 (12.4)	40 (38.1)	7 (6.7)	3 (2.9)	25 (23.8)	5 (4.8)	10 (9.5)	105 (100.0)
간호학과	2 (2.6)	11 (14.5)	37 (48.7)	0 (0.0)	3 (3.9)	15 (19.7)	3 (3.9)	5 (6.6)	76 (100.0)
교육학과	9 (4.9)	25 (13.6)	57 (31.0)	19 (10.3)	6 (3.3)	44 (23.9)	10 (5.4)	14 (7.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4 (2.5)	21 (13.2)	53 (33.3)	12 (7.5)	8 (5.0)	46 (28.9)	7 (4.4)	8 (5.0)	159 (100.0)
유아교육과	5 (2.2)	34 (14.7)	98 (42.4)	3 (1.3)	7 (3.0)	45 (19.5)	12 (5.2)	27 (11.7)	231 (100.0)
문화교양학과	5 (3.8)	17 (12.8)	36 (27.1)	20 (15.0)	4 (3.0)	39 (29.3)	3 (2.3)	9 (6.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 (2.0)	5 (10.0)	25 (50.0)	1 (2.0)	3 (6.0)	9 (18.0)	3 (6.0)	3 (6.0)	50 (100.0)
계	77 (2.2)	441 (12.4)	1,414 (39.7)	203 (5.7)	73 (2.0)	838 (23.5)	215 (6.0)	304 (8.5)	3,565 (100.0)

IV. 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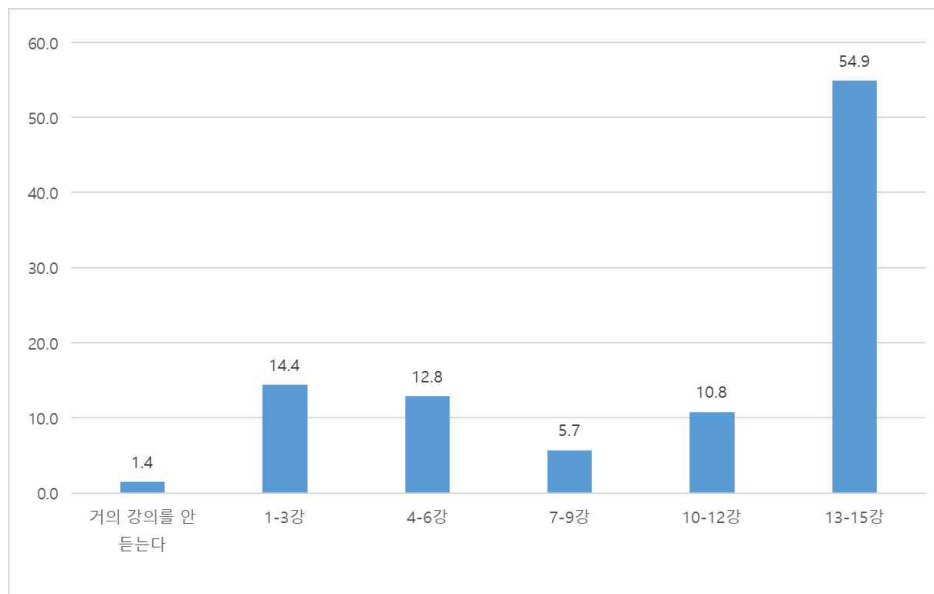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실태조사 응답자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매체강의 수강 현황,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출석수업 참여 현황,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학습동아리 참여동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매체강의 수강 현황

매체강의 수강 현황은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 매체강의 수강방식, 사용 기기, 수강 장소, TV 방송강의 시청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

‘매체강의 한 과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는 총 15강 중 평균적으로 몇 강을 들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수는 '13-15강'이 5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1-3강' 14.4%, '4-6강' 12.8%, '10-12강'이 10.8%, '7-9강' 5.7% 순이었다. 매체강의를 거의 듣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였다. 2021학년도의 응답 결과와 비교하면, '13-15강'을 수강하는 비율이 9.6%이상 대폭 증가한 반면, '4-6강', '7-9강', '10-12강'은 각각 1.4% 5.1% 3.1%의 비율로 감소했다. 전체 학생의 30.0%는 매체강의 15강 중에 절반 이하만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1-3강	4-6강	7-9강	10-12강	13-15강	전체	
성별	남자	19 (1.5)	134 (10.6)	129 (10.2)	62 (4.9)	134 (10.6)	790 (62.3)	1,268 (100.0)	
	여자	32 (1.4)	379 (16.5)	329 (14.3)	141 (6.1)	250 (10.9)	1,166 (50.8)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21 (1.6)	208 (15.4)	195 (14.5)	84 (6.2)	134 (9.9)	705 (52.3)	1,347 (100.0)	
	편입생	2 학년	7 (1.7)	60 (14.3)	48 (11.4)	18 (4.3)	49 (11.6)	239 (56.8)	421 (100.0)
		3 학년	23 (1.3)	245 (13.6)	215 (12.0)	101 (5.6)	201 (11.2)	1,012 (56.3)	1,797 (100.0)
		4 학년							
연령대	10대	0 (0.0)	2 (20.0)	1 (10.0)	0 (0.0)	2 (20.0)	5 (50.0)	10 (100.0)	
	20대	15 (3.0)	82 (16.3)	73 (14.5)	49 (9.7)	84 (16.7)	201 (39.9)	504 (100.0)	
	30대	17 (2.2)	135 (17.3)	104 (13.3)	60 (7.7)	91 (11.6)	375 (48.0)	782 (100.0)	
	40대	12 (1.3)	151 (16.1)	110 (11.7)	48 (5.1)	106 (11.3)	512 (54.5)	939 (100.0)	
	50대	4 (0.5)	87 (11.0)	110 (13.9)	28 (3.5)	65 (8.2)	499 (62.9)	793 (100.0)	
	60대	3 (0.6)	50 (10.6)	48 (10.1)	16 (3.4)	35 (7.4)	321 (67.9)	473 (100.0)	
	70대 이상	0 (0.0)	6 (9.4)	12 (18.8)	2 (3.1)	1 (1.6)	43 (67.2)	64 (100.0)	
계	51 (1.4)	513 (14.4)	458 (12.8)	203 (5.7)	384 (10.8)	1,956 (54.9)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강의를 듣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5%, 여성 1.4%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3-15강’을 듣는 비율이 2학년 편입생이 56.8%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이 56.3%로 유사했으며, 1학년 신입생이 52.3%로 가장 낮았다. 반면, ‘거의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비율도 2학년 편입생에서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3-15강’ 수강에 응답한 비율은 20대 39.9%, 30대 48.0%, 40대 54.5%, 50대 62.9%, 60대 67.9%, 70대 이상 67.2%로 7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매체강의 한 과목에 대한 평균 수강 강수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매체강의 한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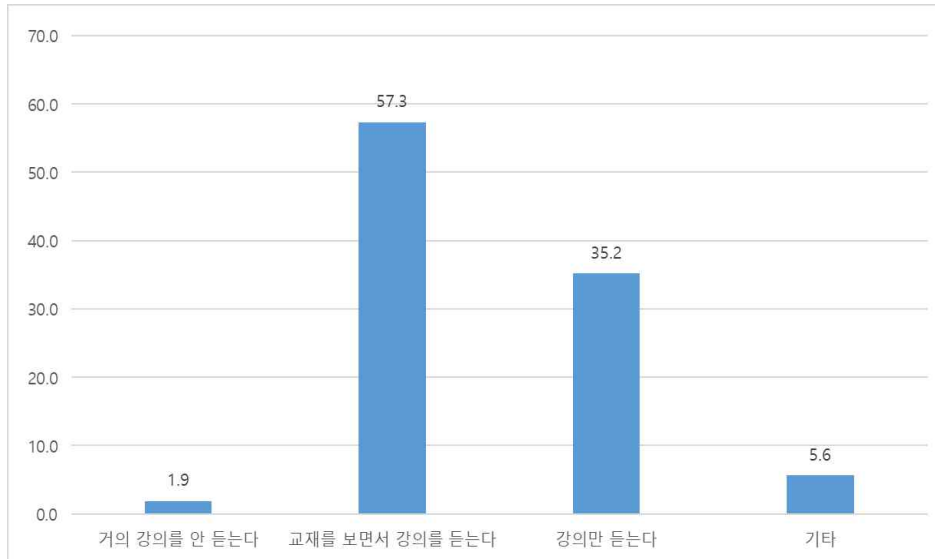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1-3강	4-6강	7-9강	10-12강	13-15강	전체
국어국문학과	1 (0.8)	18 (14.5)	17 (13.7)	6 (4.8)	13 (10.5)	69 (55.6)	124 (100.0)
영어영문학과	4 (1.8)	36 (16.1)	31 (13.9)	8 (3.6)	24 (10.8)	120 (53.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0 (0.0)	20 (13.2)	16 (10.5)	4 (2.6)	13 (8.6)	99 (65.1)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2 (5.9)	3 (8.8)	3 (8.8)	5 (14.7)	21 (61.8)	34 (100.0)
일본학과	1 (0.8)	24 (19.2)	12 (9.6)	7 (5.6)	5 (4.0)	76 (60.8)	125 (100.0)
법학과	4 (1.9)	28 (13.0)	26 (12.1)	6 (2.8)	18 (8.4)	133 (61.9)	215 (100.0)
행정학과	0 (0.0)	10 (19.6)	2 (3.9)	2 (3.9)	8 (15.7)	29 (56.9)	51 (100.0)
경제학과	0 (0.0)	8 (14.8)	5 (9.3)	4 (7.4)	4 (7.4)	33 (61.1)	54 (100.0)
경영학과	5 (2.4)	31 (14.8)	33 (15.7)	14 (6.7)	31 (14.8)	96 (45.7)	210 (100.0)
무역학과	1 (4.0)	3 (12.0)	1 (4.0)	6 (24.0)	4 (16.0)	10 (4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11 (10.8)	15 (14.7)	7 (6.9)	10 (9.8)	58 (56.9)	102 (100.0)
관광학과	0 (0.0)	12 (19.7)	8 (13.1)	1 (1.6)	7 (11.5)	33 (54.1)	61 (100.0)
사회복지학과	1 (0.2)	48 (11.9)	42 (10.4)	13 (3.2)	32 (7.9)	269 (66.4)	405 (100.0)
농학과	1 (0.4)	30 (12.6)	36 (15.1)	10 (4.2)	36 (15.1)	126 (52.7)	239 (100.0)
생활과학과	7 (2.6)	37 (14.0)	37 (14.0)	24 (9.1)	24 (9.1)	136 (51.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7 (3.0)	27 (11.4)	36 (15.3)	21 (8.9)	38 (16.1)	107 (45.3)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4 (3.8)	9 (8.5)	11 (10.4)	10 (9.4)	17 (16.0)	55 (51.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3 (2.9)	21 (20.0)	13 (12.4)	3 (2.9)	12 (11.4)	53 (50.5)	105 (100.0)
간호학과	0 (0.0)	22 (28.9)	16 (21.1)	5 (6.6)	5 (6.6)	28 (36.8)	76 (100.0)
교육학과	2 (1.1)	30 (16.3)	24 (13.0)	7 (3.8)	17 (9.2)	104 (56.5)	184 (100.0)
청소년교육과	5 (3.1)	23 (14.5)	18 (11.3)	13 (8.2)	19 (11.9)	81 (50.9)	159 (100.0)
유아교육과	4 (1.7)	42 (18.2)	33 (14.3)	18 (7.8)	24 (10.4)	110 (47.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0 (0.0)	15 (11.3)	19 (14.3)	7 (5.3)	13 (9.8)	79 (59.4)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6 (12.0)	4 (8.0)	4 (8.0)	5 (10.0)	31 (62.0)	50 (100.0)
계	51 (1.4)	513 (14.4)	458 (12.8)	203 (5.7)	384 (10.8)	1,956 (54.9)	3,565 (100.0)

2) 매체강의 수강방식

‘귀하는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매체강의 수강방식

매체강의를 들을 때 공부하는 방식은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가 1순위로 57.3%를 차지했고, ‘강의만 듣는다’는 비율은 35.2%였다. ‘거의 강의를 안듣는다’는 1.9%, 기타 5.6% 순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교재를 보면서 매체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2022학년도(59%)에 비해 1.7% 감소하였고, 강의만 듣는 학생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매체강의 수강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	강의만 듣는다	기타	전체	
성별	남자	25 (2.0)	696 (54.9)	491 (38.7)	56 (4.4)	1,268 (100.0)	
	여자	42 (1.8)	1,347 (58.6)	764 (33.3)	144 (6.3)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28 (2.1)	813 (60.4)	431 (32.0)	75 (5.6)	1,347 (100.0)	
	편입생	2 학년	10 (2.4)	253 (60.1)	132 (31.4)	26 (6.2)	421 (100.0)
		3 학년	29 (1.6)	977 (54.4)	692 (38.5)	99 (5.5)	1,797 (100.0)
연령대	10대	1 (10.0)	6 (60.0)	2 (20.0)	1 (10.0)	10 (100.0)	
	20대	23 (4.6)	246 (48.8)	202 (40.1)	33 (6.5)	504 (100.0)	
	30대	25 (3.2)	384 (49.1)	323 (41.3)	50 (6.4)	782 (100.0)	
	40대	10 (1.1)	529 (56.3)	348 (37.1)	52 (5.5)	939 (100.0)	
	50대	6 (0.8)	489 (61.7)	263 (33.2)	35 (4.4)	793 (100.0)	
	60대	2 (0.4)	333 (70.4)	109 (23.0)	29 (6.1)	473 (100.0)	
	70대 이상	0 (0.0)	56 (87.5)	8 (12.5)	0 (0.0)	64 (100.0)	
계		67 (1.9)	2,043 (57.3)	1,255 (35.2)	200 (5.6)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는 비율은 여성 58.6%, 남성 54.9%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강의만 듣는다’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남

성 38.7%, 여성 33.3%로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는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은 60.4%, 2학년 편입생 60.1%, 3학년 편입생은 54.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만 듣는다’는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38.5%로 1순위이며 다른 입학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1학년 신입생 32%, 2학년 편입생 31.4%로 나타났다.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는 비율은 2학년 편입생이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는 비율이 40대 이하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강의만 듣는다’는 비율은 30대에서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거의 강의를 듣지 않는다는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다.

‘매체강의 수강방식’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4>와 같다.

<표 IV-4> 매체강의 수강방식(학과별)

구분	단위: 명, %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	강의만 듣는다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0 (0.0)	76 (61.3)	36 (29.0)	12 (9.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6 (2.7)	162 (72.6)	42 (18.8)	13 (5.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 (0.7)	115 (75.7)	31 (20.4)	5 (3.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20 (58.8)	10 (29.4)	4 (11.8)	34 (100.0)
일본학과	1 (0.8)	89 (71.2)	33 (26.4)	2 (1.6)	125 (100.0)
법학과	5 (2.3)	106 (49.3)	95 (44.2)	9 (4.2)	215 (100.0)
행정학과	1 (2.0)	21 (41.2)	27 (52.9)	2 (3.9)	51 (100.0)
경제학과	0 (0.0)	32 (59.3)	22 (40.7)	0 (0.0)	54 (100.0)
경영학과	8 (3.8)	121 (57.6)	73 (34.8)	8 (3.8)	210 (100.0)
무역학과	0 (0.0)	12 (48.0)	12 (48.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3 (2.9)	48 (47.1)	46 (45.1)	5 (4.9)	102 (100.0)
관광학과	1 (1.6)	38 (62.3)	19 (31.1)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5 (1.2)	230 (56.8)	148 (36.5)	22 (5.4)	405 (100.0)
농학과	1	138	86	14	239

	(0.4)	(57.7)	(36.0)	(5.9)	(100.0)
생활과학과	9 (3.4)	174 (65.7)	69 (26.0)	13 (4.9)	265 (100.0)
컴퓨터과학과	7 (3.0)	104 (44.1)	105 (44.5)	20 (8.5)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3 (2.8)	51 (48.1)	45 (42.5)	7 (6.6)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63 (60.0)	33 (31.4)	7 (6.7)	105 (100.0)
간호학과	1 (1.3)	30 (39.5)	42 (55.3)	3 (3.9)	76 (100.0)
교육학과	0 (0.0)	100 (54.3)	68 (37.0)	16 (8.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4 (2.5)	84 (52.8)	60 (37.7)	11 (6.9)	159 (100.0)
유아교육과	8 (3.5)	125 (54.1)	88 (38.1)	10 (4.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 (0.8)	81 (60.9)	40 (30.1)	11 (8.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23 (46.0)	25 (50.0)	2 (4.0)	50 (100.0)
계	67 (1.9)	2,043 (57.3)	1,255 (35.2)	200 (5.6)	3,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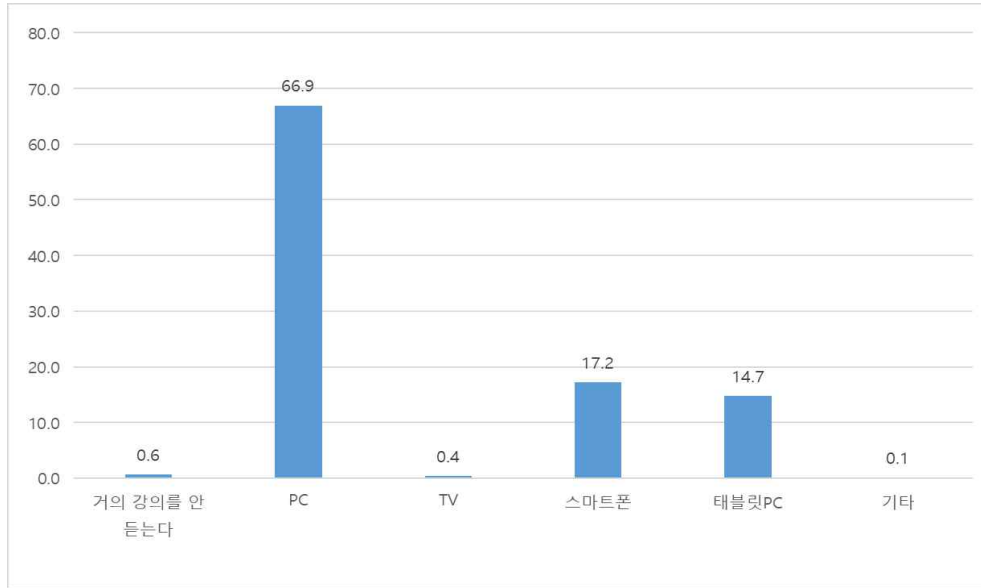
3)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3]과 같다.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PC’가 66.9%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폰’ 17.2%, ‘태블릿PC’ 14.7%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스마트폰’은 19.3%에서 17.2%로 2.1% 감소했고, ‘PC’ 사용은 66.8%에서 66.9%로 0.1% 증가, ‘태블릿PC’ 사용은 13%에서 14.7%로 1.7% 증가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5>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강의를 들을 때, ‘PC’를 주로 사용하는 비율은 남성이 73.7%로 여성 63.2%보다 10.5% 높았다. 반면, ‘스마트폰’으로 매체강의를 듣는 비율은 여성이 18.6%로 남성 14.5%보다 4.1% 높았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보면, 매체강의를 들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태블릿PC’는 2학년 편입생이 17.6%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매체강의 수강시 사용기기

<표 IV-5>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PC	TV	스마트폰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기타(MP3 플레이어, PMP 등)	전체		
성별	남자	14 (1.1)	935 (73.7)	12 (0.9)	184 (14.5)	123 (9.7)	0 (0.0)	1,268 (100.0)	
	여자	9 (0.4)	1,451 (63.2)	2 (0.1)	428 (18.6)	402 (17.5)	5 (0.2)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9 (0.7)	912 (67.7)	5 (0.4)	236 (17.5)	182 (13.5)	3 (0.2)	1,347 (100.0)	
	편입생	2학년	4 (1.0)	284 (67.5)	2 (0.5)	57 (13.5)	74 (17.6)	0 (0.0)	421 (100.0)
		3학년	10 (0.6)	1,190 (66.2)	7 (0.4)	319 (17.8)	269 (15.0)	2 (0.1)	1,797 (100.0)
		4학년							
연령대	10대	0 (0.0)	9 (90.0)	0 (0.0)	0 (0.0)	1 (10.0)	0 (0.0)	10 (100.0)	
	20대	8 (1.6)	326 (64.7)	2 (0.4)	61 (12.1)	107 (21.2)	0 (0.0)	504 (100.0)	
	30대	9 (1.2)	501 (64.1)	1 (0.1)	126 (16.1)	143 (18.3)	2 (0.3)	782 (100.0)	
	40대	3 (0.3)	603 (64.2)	1 (0.1)	200 (21.3)	131 (14.0)	1 (0.1)	939 (100.0)	
	50대	2 (0.3)	514 (64.8)	3 (0.4)	172 (21.7)	101 (12.7)	1 (0.1)	793 (100.0)	
	60대	1	378	3	51	39	1	473	

	(0.2)	(79.9)	(0.6)	(10.8)	(8.2)	(0.2)	(100.0)
70대 이상	0 (0.0)	55 (85.9)	4 (6.3)	2 (3.1)	3 (4.7)	0 (0.0)	64 (100.0)
계	23 (0.6)	2,386 (66.9)	14 (0.4)	612 (17.2)	525 (14.7)	5 (0.1)	3,565 (100.0)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PC'를 사용하는 비율은 4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C' 외에도 50대는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였으며(21.7%), 20대는 '태블릿PC(21.2%)'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매체강의 수강 시 사용기기(학과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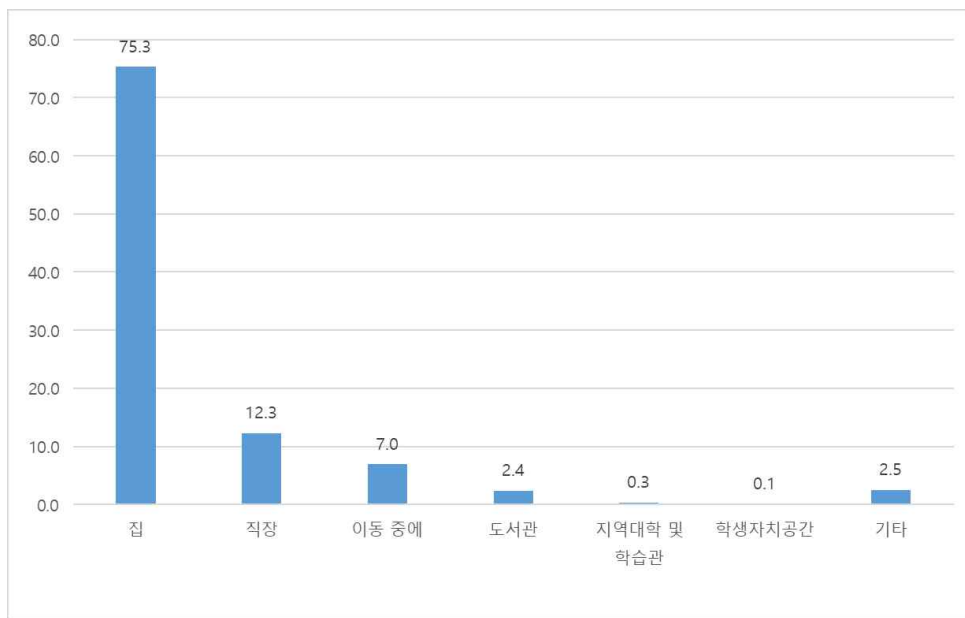
구분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PC	TV	스마트폰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기타(MP3 플레이어, PMP 등)	전체
국어국문학과	0 (0.0)	77 (62.1)	1 (0.8)	23 (18.5)	23 (18.5)	0 (0.0)	124 (100.0)
영어영문학과	2 (0.9)	144 (64.6)	2 (0.9)	41 (18.4)	32 (14.3)	2 (0.9)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 (0.7)	111 (73.0)	0 (0.0)	21 (13.8)	19 (12.5)	0 (0.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19 (55.9)	0 (0.0)	4 (11.8)	11 (32.4)	0 (0.0)	34 (100.0)
일본학과	1 (0.8)	97 (77.6)	3 (2.4)	9 (7.2)	15 (12.0)	0 (0.0)	125 (100.0)
법학과	0 (0.0)	134 (62.3)	0 (0.0)	48 (22.3)	33 (15.3)	0 (0.0)	215 (100.0)
행정학과	0 (0.0)	39 (76.5)	1 (2.0)	6 (11.8)	5 (9.8)	0 (0.0)	51 (100.0)
경제학과	0 (0.0)	36 (66.7)	1 (1.9)	11 (20.4)	6 (11.1)	0 (0.0)	54 (100.0)
경영학과	2 (1.0)	150 (71.4)	0 (0.0)	35 (16.7)	23 (11.0)	0 (0.0)	210 (100.0)
무역학과	0 (0.0)	15 (60.0)	0 (0.0)	5 (20.0)	5 (2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71 (69.6)	0 (0.0)	15 (14.7)	15 (14.7)	0 (0.0)	102 (100.0)
관광학과	0 (0.0)	41 (67.2)	1 (1.6)	13 (21.3)	6 (9.8)	0 (0.0)	61 (100.0)
사회복지학과	0 (0.0)	262 (64.7)	1 (0.2)	83 (20.5)	59 (14.6)	0 (0.0)	405 (100.0)

IV. 학습활동

농학과	0 (0.0)	164 (68.6)	2 (0.8)	50 (20.9)	23 (9.6)	0 (0.0)	239 (100.0)
생활과학과	3 (1.1)	170 (64.2)	0 (0.0)	41 (15.5)	49 (18.5)	2 (0.8)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 (1.7)	170 (72.0)	1 (0.4)	23 (9.7)	38 (16.1)	0 (0.0)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2 (1.9)	66 (62.3)	1 (0.9)	16 (15.1)	21 (19.8)	0 (0.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1 (1.0)	70 (66.7)	0 (0.0)	16 (15.2)	18 (17.1)	0 (0.0)	105 (100.0)
간호학과	1 (1.3)	54 (71.1)	0 (0.0)	10 (13.2)	11 (14.5)	0 (0.0)	76 (100.0)
교육학과	1 (0.5)	110 (59.8)	0 (0.0)	34 (18.5)	39 (21.2)	0 (0.0)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 (1.3)	106 (66.7)	0 (0.0)	35 (22.0)	16 (10.1)	0 (0.0)	159 (100.0)
유아교육과	1 (0.4)	155 (67.1)	0 (0.0)	40 (17.3)	35 (15.2)	0 (0.0)	231 (100.0)
문화교양학과	0 (0.0)	89 (66.9)	0 (0.0)	24 (18.0)	19 (14.3)	1 (0.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 (2.0)	36 (72.0)	0 (0.0)	9 (18.0)	4 (8.0)	0 (0.0)	50 (100.0)
계	23 (0.6)	2,386 (66.9)	14 (0.4)	612 (17.2)	525 (14.7)	5 (0.1)	3,565 (100.0)

4) 매체강의 수강 장소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매체강의를 들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매체강의 수강 장소

매체강의를 주로 듣는 장소는 ‘집’이 75.3%로 가장 높았고, ‘직장’ 12.3%, ‘이동 중에’ 7.0%, ‘기타’ 2.5%, ‘도서관’은 2.4%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8.0%에서 75.3%로 감소하였고, ‘이동 중에’는 7.2%에서 7.0%로 감소한 반면, ‘직장’라고 답한 비율은 11.1%에서 12.3%로, ‘도서관’은 1.5%에서 2.4%로 증가했다. ‘기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카페 혹은 스터디카페에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매체강의 수강 장소(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집	직장	이동 중에	도서관	지역 대학 및 학습관	학생 자치 공간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895 (70.6)	202 (15.9)	99 (7.8)	40 (3.2)	7 (0.6)	0 (0.0)	25 (2.0)	1,268 (100.0)	
	여자	1,791 (78.0)	237 (10.3)	149 (6.5)	45 (2.0)	5 (0.2)	5 (0.2)	65 (2.8)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1,029 (76.4)	170 (12.6)	80 (5.9)	33 (2.4)	3 (0.2)	1 (0.1)	31 (2.3)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326 (77.4)	42 (10.0)	27 (6.4)	11 (2.6)	1 (0.2)	0 (0.0)	14 (3.3)	421 (100.0)
		3 학년	1,331 (74.1)	227 (12.6)	141 (7.8)	41 (2.3)	8 (0.4)	4 (0.2)	45 (2.5)	1,797 (100.0)
연 령 대	10대	7 (70.0)	0 (0.0)	1 (10.0)	1 (10.0)	0 (0.0)	0 (0.0)	1 (10.0)	10 (100.0)	
	20대	377 (74.8)	73 (14.5)	22 (4.4)	16 (3.2)	0 (0.0)	0 (0.0)	16 (3.2)	504 (100.0)	
	30대	589 (75.3)	85 (10.9)	66 (8.4)	20 (2.6)	2 (0.3)	2 (0.3)	18 (2.3)	782 (100.0)	
	40대	692 (73.7)	120 (12.8)	75 (8.0)	25 (2.7)	2 (0.2)	1 (0.1)	24 (2.6)	939 (100.0)	
	50대	576 (72.6)	114 (14.4)	65 (8.2)	16 (2.0)	4 (0.5)	1 (0.1)	17 (2.1)	793 (100.0)	
	60대	384 (81.2)	44 (9.3)	19 (4.0)	7 (1.5)	4 (0.8)	1 (0.2)	14 (3.0)	473 (100.0)	
	70대 이상	61 (95.3)	3 (4.7)	0 (0.0)	0 (0.0)	0 (0.0)	0 (0.0)	0 (0.0)	64 (100.0)	
계		2,686 (75.3)	439 (12.3)	248 (7.0)	85 (2.4)	12 (0.3)	5 (0.1)	90 (2.5)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강의를 주로 듣는 장소가 ‘집’인 비율은 여성이 78.0%로 남성 7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주로 매체강의를 듣는다는 비율은 남성 15.9%, 여성 10.3%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재학생의 직업분포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강의를 주로 듣는 장소가 ‘집’인 비율이 2학년 편입생에서 77.4%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직장’에서 매체강의를 듣는 비율은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 모두 12.6%로 동일하며 2학년 편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매체강의를 주로 ‘집’에서 듣는 비율은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81.2%, 95.3%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장’에서 듣는 비율은 20대가 14.5%, 50대 14.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체강의 수강 장소’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매체강의 수강 장소(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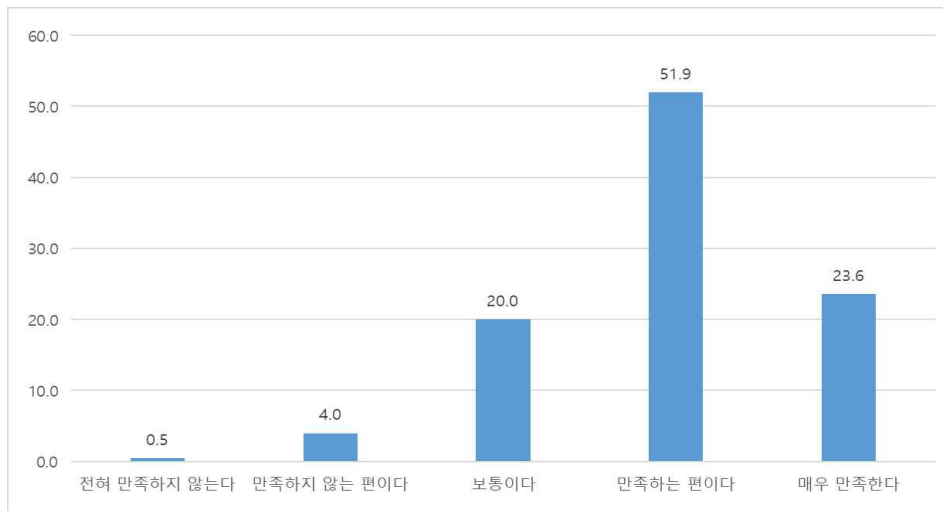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집	직장	이동 중에	도서관	지역 대학 및 학습관	학생 자치 공간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103 (83.1)	12 (9.7)	5 (4.0)	1 (0.8)	0 (0.0)	0 (0.0)	3 (2.4)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73 (77.6)	19 (8.5)	9 (4.0)	6 (2.7)	4 (1.8)	2 (0.9)	10 (4.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27 (83.6)	14 (9.2)	8 (5.3)	0 (0.0)	0 (0.0)	0 (0.0)	3 (2.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30 (88.2)	4 (11.8)	0 (0.0)	0 (0.0)	0 (0.0)	0 (0.0)	0 (0.0)	34 (100.0)
일본학과	94 (75.2)	20 (16.0)	5 (4.0)	5 (4.0)	1 (0.8)	0 (0.0)	0 (0.0)	125 (100.0)
법학과	145 (67.4)	29 (13.5)	27 (12.6)	11 (5.1)	0 (0.0)	0 (0.0)	3 (1.4)	215 (100.0)
행정학과	37 (72.5)	10 (19.6)	2 (3.9)	1 (2.0)	0 (0.0)	0 (0.0)	1 (2.0)	51 (100.0)
경제학과	37 (68.5)	9 (16.7)	4 (7.4)	2 (3.7)	0 (0.0)	0 (0.0)	2 (3.7)	54 (100.0)
경영학과	135 (64.3)	39 (18.6)	19 (9.0)	10 (4.8)	0 (0.0)	0 (0.0)	7 (3.3)	210 (100.0)
무역학과	20 (80.0)	4 (16.0)	1 (4.0)	0 (0.0)	0 (0.0)	0 (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71 (69.6)	21 (20.6)	8 (7.8)	0 (0.0)	0 (0.0)	0 (0.0)	2 (2.0)	102 (100.0)
관광학과	39 (63.9)	9 (14.8)	6 (9.8)	3 (4.9)	2 (3.3)	1 (1.6)	1 (1.6)	61 (100.0)
사회복지학과	315 (77.8)	44 (10.9)	24 (5.9)	7 (1.7)	3 (0.7)	1 (0.2)	11 (2.7)	405 (100.0)
농학과	176 (73.6)	30 (12.6)	19 (7.9)	5 (2.1)	1 (0.4)	0 (0.0)	8 (3.3)	239 (100.0)
생활과학과	211 (79.6)	33 (12.5)	11 (4.2)	3 (1.1)	0 (0.0)	1 (0.4)	6 (2.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70 (72.0)	26 (11.0)	21 (8.9)	10 (4.2)	0 (0.0)	0 (0.0)	9 (3.8)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76 (71.7)	8 (7.5)	11 (10.4)	7 (6.6)	0 (0.0)	0 (0.0)	4 (3.8)	106 (100.0)
보건환경학과	81 (77.1)	13 (12.4)	8 (7.6)	2 (1.9)	0 (0.0)	0 (0.0)	1 (1.0)	105 (100.0)
간호학과	60 (78.9)	11 (14.5)	3 (3.9)	1 (1.3)	0 (0.0)	0 (0.0)	1 (1.3)	76 (100.0)
교육학과	143 (77.7)	16 (8.7)	15 (8.2)	3 (1.6)	1 (0.5)	0 (0.0)	6 (3.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28	17	11	1	0	0	2	159

	(80.5)	(10.7)	(6.9)	(0.6)	(0.0)	(0.0)	(1.3)	(100.0)
유아교육과	181 (78.4)	24 (10.4)	16 (6.9)	6 (2.6)	0 (0.0)	0 (0.0)	4 (1.7)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01 (75.9)	14 (10.5)	12 (9.0)	1 (0.8)	0 (0.0)	0 (0.0)	5 (3.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3 (66.0)	13 (26.0)	3 (6.0)	0 (0.0)	0 (0.0)	0 (0.0)	1 (2.0)	50 (100.0)
계	2,686 (75.3)	439 (12.3)	248 (7.0)	85 (2.4)	12 (0.3)	5 (0.1)	90 (2.5)	3,565 (100.0)

5) 매체강의 만족도

‘귀하의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의 매체강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매체강의 만족도

‘매체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3.6% ‘보통이다’ 20.0% 순이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75.5%의 학생들이 매체강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가 각각 0.3%, 3.2% 높아져 전반적으로 매체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

율은 4.5%로, 2021학년도(5.1%) 대비 0.6% 감소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9>와 같다.

성별 차이를 보면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성 75.9%, 여성 75.3%로 거의 유사했으며, ‘매우 만족한다’ 비율은 남성이 4.1% 더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2학년 편입생의 만족도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 신입생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의 응답 비율이 5.4%로 2, 3학년 편입생보다 높았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매체강의에 만족하는 비율은 20대는 62.1%, 30대는 65.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았으며,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표 IV-9> 매체강의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성별	남자	13 (1.0)	51 (4.0)	242 (19.1)	630 (49.7)	332 (26.2)	1,268 (100.0)	
	여자	4 (0.2)	91 (4.0)	472 (20.5)	1,222 (53.2)	508 (22.1)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7 (0.5)	66 (4.9)	272 (20.2)	668 (49.6)	334 (24.8)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 (0.2)	19 (4.5)	77 (18.3)	216 (51.3)	108 (25.7)	421 (100.0)
		3학년	9 (0.5)	57 (3.2)	365 (20.3)	968 (53.9)	398 (22.1)	1,797 (100.0)
연령대	10대	0 (0.0)	0 (0.0)	2 (20.0)	7 (70.0)	1 (10.0)	10 (100.0)	
	20대	5 (1.0)	34 (6.7)	152 (30.2)	226 (44.8)	87 (17.3)	504 (100.0)	
	30대	3 (0.4)	47 (6.0)	216 (27.6)	371 (47.4)	145 (18.5)	782 (100.0)	
	40대	6 (0.6)	29 (3.1)	173 (18.4)	508 (54.1)	223 (23.7)	939 (100.0)	
	50대	3 (0.4)	20 (2.5)	101 (12.7)	448 (56.5)	221 (27.9)	793 (100.0)	
	60대	0 (0.0)	10 (2.1)	64 (13.5)	261 (55.2)	138 (29.2)	473 (100.0)	
	70대 이상	0 (0.0)	2 (3.1)	6 (9.4)	31 (48.4)	25 (39.1)	64 (100.0)	
계		17 (0.5)	142 (4.0)	714 (20.0)	1,852 (51.9)	840 (23.6)	3,565 (100.0)	

‘매체강의 만족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매체강의 만족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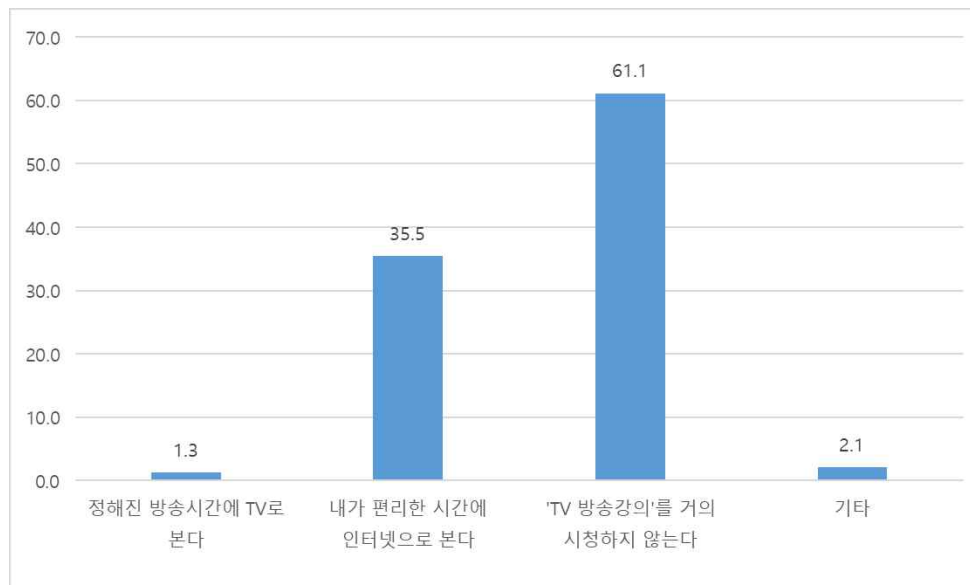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국어국문학과	1 (0.8)	3 (2.4)	19 (15.3)	60 (48.4)	41 (33.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 (1.3)	12 (5.4)	43 (19.3)	118 (52.9)	47 (21.1)	223 (100.0)
중어중문학과	0 (0.0)	4 (2.6)	17 (11.2)	74 (48.7)	57 (37.5)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0 (0.0)	2 (5.9)	4 (11.8)	15 (44.1)	13 (38.2)	34 (100.0)
일본학과	0 (0.0)	4 (3.2)	29 (23.2)	64 (51.2)	28 (22.4)	125 (100.0)
법학과	0 (0.0)	10 (4.7)	39 (18.1)	116 (54.0)	50 (23.3)	215 (100.0)
행정학과	0 (0.0)	3 (5.9)	14 (27.5)	24 (47.1)	10 (19.6)	51 (100.0)
경제학과	0 (0.0)	2 (3.7)	5 (9.3)	32 (59.3)	15 (27.8)	54 (100.0)
경영학과	0 (0.0)	9 (4.3)	57 (27.1)	108 (51.4)	36 (17.1)	210 (100.0)
무역학과	0 (0.0)	1 (4.0)	4 (16.0)	15 (60.0)	5 (2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7 (6.9)	26 (25.5)	52 (51.0)	16 (15.7)	102 (100.0)
관광학과	1 (1.6)	0 (0.0)	12 (19.7)	31 (50.8)	17 (27.9)	61 (100.0)
사회복지학과	3 (0.7)	6 (1.5)	52 (12.8)	237 (58.5)	107 (26.4)	405 (100.0)
농학과	0 (0.0)	13 (5.4)	38 (15.9)	126 (52.7)	62 (25.9)	239 (100.0)
생활과학과	0 (0.0)	17 (6.4)	61 (23.0)	131 (49.4)	56 (21.1)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 (0.8)	16 (6.8)	82 (34.7)	97 (41.1)	39 (16.5)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1 (0.9)	3 (2.8)	25 (23.6)	59 (55.7)	18 (17.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8 (7.6)	27 (25.7)	43 (41.0)	25 (23.8)	105 (100.0)
간호학과	0 (0.0)	2 (2.6)	21 (27.6)	42 (55.3)	11 (14.5)	76 (100.0)
교육학과	1 (0.5)	3 (1.6)	26 (14.1)	114 (62.0)	40 (21.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	2	29	79	47	159

	(1.3)	(1.3)	(18.2)	(49.7)	(29.6)	(100.0)
유아교육과	0 (0.0)	7 (3.0)	50 (21.6)	120 (51.9)	54 (23.4)	231 (100.0)
문화교양학과	0 (0.0)	5 (3.8)	27 (20.3)	68 (51.1)	33 (24.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3 (6.0)	7 (14.0)	27 (54.0)	13 (26.0)	50 (100.0)
계	17 (0.5)	142 (4.0)	714 (20.0)	1,852 (51.9)	840 (23.6)	3,565 (100.0)

6) TV강의 시청 방식

‘TV 방송강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TV강의 수강방식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이 35.5%였다. 정해진 방송시간에 TV로 보는 비율은 1.3%

에 불과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 비율은 전년 동월(55.6%)에 비해 6% 감소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TV강의 시청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정해진 방송시간에 TV로 본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	'TV 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성별	남자	18 (1.4)	459 (36.2)	766 (60.4)	25 (2.0)	1,268 (100.0)	
	여자	28 (1.2)	805 (35.0)	1,413 (61.5)	51 (2.2)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22 (1.6)	492 (36.5)	809 (60.1)	24 (1.8)	1,347 (100.0)	
	편입생	2 학년	6 (1.4)	134 (31.8)	274 (65.1)	7 (1.7)	421 (100.0)
		3 학년	18 (1.0)	638 (35.5)	1,096 (61.0)	45 (2.5)	1,797 (100.0)
연령대	10대	0 (0.0)	3 (30.0)	7 (70.0)	0 (0.0)	10 (100.0)	
	20대	8 (1.6)	150 (29.8)	340 (67.5)	6 (1.2)	504 (100.0)	
	30대	4 (0.5)	245 (31.3)	515 (65.9)	18 (2.3)	782 (100.0)	
	40대	4 (0.4)	350 (37.3)	567 (60.4)	18 (1.9)	939 (100.0)	
	50대	15 (1.9)	300 (37.8)	455 (57.4)	23 (2.9)	793 (100.0)	
	60대	12 (2.5)	182 (38.5)	268 (56.7)	11 (2.3)	473 (100.0)	
	70대 이상	3 (4.7)	34 (53.1)	27 (42.2)	0 (0.0)	64 (100.0)	
계		46 (1.3)	1,264 (35.5)	2,179 (61.1)	76 (2.1)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 60.4%, 여성 61.5%로 여성이 1.1%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은 남성이 36.2%, 여성이 35.0%로 남성이 1.2% 더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보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학년 편입생이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이 36.5%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0대가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70대 이상이 53.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60대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해진 시간에 TV로 수강한다’ 비율은 5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TV강의 시청방식’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12>와 같다.

<표 IV-12> TV강의 시청방식(학과별)

구분	단위: 명, %				
	정해진 방송시간에 TV로 본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	‘TV 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1 (0.8)	57 (46.0)	65 (52.4)	1 (0.8)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 (1.3)	77 (34.5)	137 (61.4)	6 (2.7)	223 (100.0)
중어중문학과	3 (2.0)	45 (29.6)	103 (67.8)	1 (0.7)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6 (17.6)	28 (82.4)	0 (0.0)	34 (100.0)
일본학과	2 (1.6)	40 (32.0)	81 (64.8)	2 (1.6)	125 (100.0)
법학과	3 (1.4)	78 (36.3)	130 (60.5)	4 (1.9)	215 (100.0)
행정학과	0 (0.0)	17 (33.3)	34 (66.7)	0 (0.0)	51 (100.0)
경제학과	1 (1.9)	17 (31.5)	34 (63.0)	2 (3.7)	54 (100.0)
경영학과	1 (0.5)	64 (30.5)	142 (67.6)	3 (1.4)	210 (100.0)
무역학과	0 (0.0)	6 (24.0)	17 (68.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0 (0.0)	47 (46.1)	53 (52.0)	2 (2.0)	102 (100.0)
관광학과	0 (0.0)	31 (50.8)	27 (44.3)	3 (4.9)	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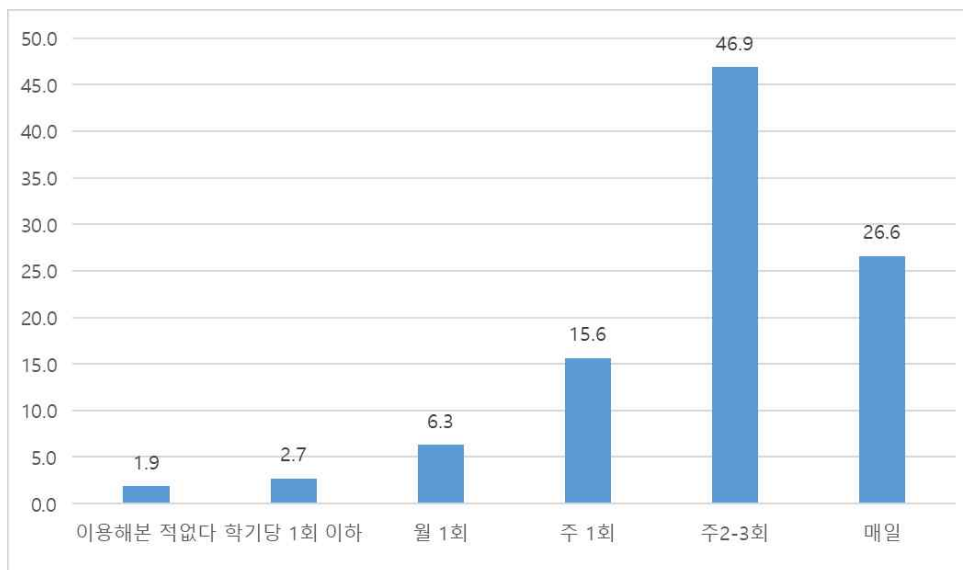
IV. 학습활동

사회복지학과	4 (1.0)	153 (37.8)	237 (58.5)	11 (2.7)	405 (100.0)
농학과	3 (1.3)	95 (39.7)	136 (56.9)	5 (2.1)	239 (100.0)
생활과학과	5 (1.9)	101 (38.1)	154 (58.1)	5 (1.9)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 (0.8)	56 (23.7)	174 (73.7)	4 (1.7)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0 (0.0)	28 (26.4)	75 (70.8)	3 (2.8)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38 (36.2)	62 (59.0)	3 (2.9)	105 (100.0)
간호학과	1 (1.3)	35 (46.1)	38 (50.0)	2 (2.6)	76 (100.0)
교육학과	2 (1.1)	63 (34.2)	114 (62.0)	5 (2.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5 (3.1)	61 (38.4)	89 (56.0)	4 (2.5)	159 (100.0)
유아교육과	2 (0.9)	83 (35.9)	143 (61.9)	3 (1.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5 (3.8)	49 (36.8)	75 (56.4)	4 (3.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 (2.0)	17 (34.0)	31 (62.0)	1 (2.0)	50 (100.0)
계	46 (1.3)	1,264 (35.5)	2,179 (61.1)	76 (2.1)	3,565 (100.0)

2.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1)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2-3회’가 46.9%로 가장 많았고, ‘매일’ 26.6%, ‘주 1회’ 15.6%, ‘월 1회’ 6.3% 순이었다.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9%였다. 2021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주 2-3회’ 이용 빈도는 45.8%에서 46.9%로 1.1% 증가한 반면, ‘매일’ 이용하는 빈도는 29.2%에서 26.6%로 2.6% 감소했으며, ‘주 1회’는 1.3% 증가, ‘월 1회’는 0.3% 증가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3>과 같다.

<표 IV-13>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해본 적 없다	학기당 1회 이하	월 1회	주 1회	주 2~3회	매일	전체	
성 별	남자	37 (2.9)	41 (3.2)	85 (6.7)	181 (14.3)	586 (46.2)	338 (26.7)	1,268 (100.0)	
	여자	30 (1.3)	55 (2.4)	141 (6.1)	376 (16.4)	1,085 (47.2)	610 (26.6)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27 (2.0)	43 (3.2)	84 (6.2)	186 (13.8)	595 (44.2)	412 (30.6)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7 (1.7)	11 (2.6)	30 (7.1)	62 (14.7)	212 (50.4)	99 (23.5)	421 (100.0)
		3 학년	33 (1.8)	42 (2.3)	112 (6.2)	309 (17.2)	864 (48.1)	437 (24.3)	1,797 (100.0)
연 령 대	10대	0 (0.0)	0 (0.0)	0 (0.0)	1 (10.0)	2 (20.0)	7 (70.0)	10 (100.0)	
	20대	4 (0.8)	13 (2.6)	39 (7.7)	120 (23.8)	233 (46.2)	95 (18.8)	504 (100.0)	
	30대	9 (1.2)	15 (1.9)	53 (6.8)	157 (20.1)	395 (50.5)	153 (19.6)	782 (100.0)	
	40대	13 (1.4)	21 (2.2)	55 (5.9)	131 (14.0)	457 (48.7)	262 (27.9)	939 (100.0)	
	50대	22 (2.8)	17 (2.1)	36 (4.5)	83 (10.5)	374 (47.2)	261 (32.9)	793 (100.0)	
	60대	14 (3.0)	25 (5.3)	34 (7.2)	59 (12.5)	189 (40.0)	152 (32.1)	473 (100.0)	
	70대 이상	5 (7.8)	5 (7.8)	9 (14.1)	6 (9.4)	21 (32.8)	18 (28.1)	64 (100.0)	
계		67 (1.9)	96 (2.7)	226 (6.3)	557 (15.6)	1,671 (46.9)	948 (26.6)	3,565 (100.0)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U-KNOU 캠퍼스'를 이용해본 적 없다는 비율이 남성 2.9%, 여성 1.3%로 남성이 여성보다 1.6% 높았다. '주 2~3회' 이용 비율은 여성이 47.2%로 남성 46.2%보다 1.0% 더 높고, '매일'은 남성 26.7%, 여성 26.6%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입학유형별로 살펴보면, 'U-KNOU 캠퍼스'를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은 1학년 신입생 30.6%, 2학년 편입생 23.5%, 3학년 편입생 24.3%로 신입생이 편입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 2~3회' 이용하는 비율이 신입생은 44.2%이며 2, 3학년 편입생이 각각 50.4%, 48.1%로 편입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신입생이 편입생보다 U-KNOU 캠퍼스를 더욱 규칙적으로 이용하며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U-KNOU 캠퍼스를 이용해본 적 없다’는 비율은 70대 이상이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U-KNOU 캠퍼스’를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10대를 제외하면 50대와 60대가 각각 32.9%, 32.1%로 전체 연령층 중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14>와 같다

<표 IV-14>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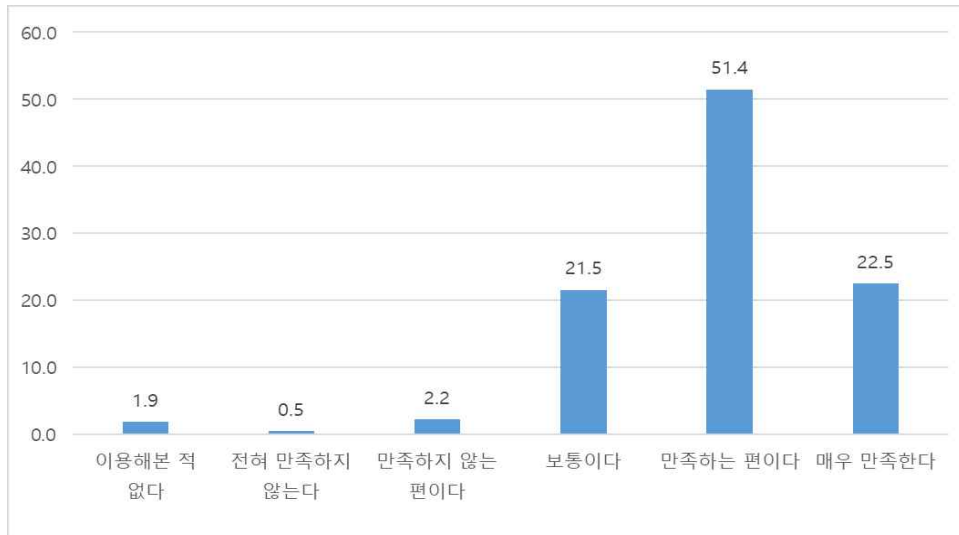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이용해본 적 없다	학기당 1회 이하	월 1회	주 1회	주 2~3회	매일	전체
국어국문학과	1 (0.8)	2 (1.6)	14 (11.3)	21 (16.9)	43 (34.7)	43 (34.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9 (4.0)	8 (3.6)	6 (2.7)	27 (12.1)	102 (45.7)	71 (31.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6 (3.9)	3 (2.0)	11 (7.2)	18 (11.8)	60 (39.5)	54 (35.5)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0 (0.0)	2 (5.9)	2 (5.9)	3 (8.8)	22 (64.7)	5 (14.7)	34 (100.0)
일본학과	2 (1.6)	5 (4.0)	9 (7.2)	12 (9.6)	50 (40.0)	47 (37.6)	125 (100.0)
법학과	5 (2.3)	4 (1.9)	16 (7.4)	35 (16.3)	102 (47.4)	53 (24.7)	215 (100.0)
행정학과	1 (2.0)	0 (0.0)	3 (5.9)	8 (15.7)	25 (49.0)	14 (27.5)	51 (100.0)
경제학과	0 (0.0)	1 (1.9)	2 (3.7)	4 (7.4)	27 (50.0)	20 (37.0)	54 (100.0)
경영학과	6 (2.9)	6 (2.9)	12 (5.7)	38 (18.1)	107 (51.0)	41 (19.5)	210 (100.0)
무역학과	1 (4.0)	1 (4.0)	1 (4.0)	5 (20.0)	10 (40.0)	7 (2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2 (2.0)	10 (9.8)	12 (11.8)	63 (61.8)	14 (13.7)	102 (100.0)
관광학과	1 (1.6)	4 (6.6)	3 (4.9)	18 (29.5)	21 (34.4)	14 (23.0)	61 (100.0)
사회복지학과	6 (1.5)	8 (2.0)	32 (7.9)	57 (14.1)	191 (47.2)	111 (27.4)	405 (100.0)
농학과	5 (2.1)	8 (3.3)	15 (6.3)	32 (13.4)	113 (47.3)	66 (27.6)	239 (100.0)
생활과학과	6 (2.3)	8 (3.0)	13 (4.9)	43 (16.2)	120 (45.3)	75 (28.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 (0.8)	3 (1.3)	18 (7.6)	42 (17.8)	120 (50.8)	51 (21.6)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2 (1.9)	3 (2.8)	3 (2.8)	18 (17.0)	57 (53.8)	23 (21.7)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4 (3.8)	1 (1.0)	25 (23.8)	49 (46.7)	24 (22.9)	105 (100.0)
간호학과	1 (1.3)	2 (2.6)	7 (9.2)	21 (27.6)	36 (47.4)	9 (11.8)	76 (100.0)
교육학과	0 (0.0)	2 (1.1)	10 (5.4)	27 (14.7)	87 (47.3)	58 (31.5)	184 (100.0)
청소년교육과	4 (2.5)	9 (5.7)	8 (5.0)	22 (13.8)	64 (40.3)	52 (32.7)	159 (100.0)
유아교육과	2 (0.9)	6 (2.6)	18 (7.8)	38 (16.5)	130 (56.3)	37 (16.0)	231 (100.0)
문화교양학과	4 (3.0)	5 (3.8)	9 (6.8)	20 (15.0)	52 (39.1)	43 (32.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0 (0.0)	3 (6.0)	11 (22.0)	20 (40.0)	16 (32.0)	50 (100.0)
계	67 (1.9)	96 (2.7)	226 (6.3)	557 (15.6)	1,671 (46.9)	948 (26.6)	3,565 (100.0)

2) U-KNOU 캠퍼스에 대한 만족도

‘U-KNOU 캠퍼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응답결과는 [그림 IV-8]과 같다.



[그림 IV-8] U-KNOU 캠퍼스 만족도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U-KNOU 캠퍼스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2.5%, ‘보통이다’ 21.5% 순이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73.9%의 학생들이 U-KNOU 캠퍼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동월(72.1%)에 비해 1.8% 증가한 결과이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5>와 같다.

<표 IV-15> U-KNOU 캠퍼스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해본 적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성 별	남자	37 (2.9)	11 (0.9)	40 (3.2)	235 (18.5)	643 (50.7)	302 (23.8)	1,268 (100.0)	
	여자	29 (1.3)	6 (0.3)	39 (1.7)	533 (23.2)	1,190 (51.8)	500 (21.8)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28 (2.1)	4 (0.3)	36 (2.7)	260 (19.3)	678 (50.3)	341 (25.3)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7 (1.7)	3 (0.7)	9 (2.1)	95 (22.6)	205 (48.7)	102 (24.2)	421 (100.0)
		3 학년	31 (1.7)	10 (0.6)	34 (1.9)	413 (23.0)	950 (52.9)	359 (20.0)	1,797 (100.0)
연 령 대	10대	0 (0.0)	0 (0.0)	0 (0.0)	0 (0.0)	7 (70.0)	3 (30.0)	10 (100.0)	
	20대	5 (1.0)	4 (0.8)	20 (4.0)	139 (27.6)	250 (49.6)	86 (17.1)	504 (100.0)	
	30대	8 (1.0)	2 (0.3)	30 (3.8)	226 (28.9)	387 (49.5)	129 (16.5)	782 (100.0)	
	40대	16 (1.7)	6 (0.6)	19 (2.0)	183 (19.5)	494 (52.6)	221 (23.5)	939 (100.0)	
	50대	19 (2.4)	5 (0.6)	4 (0.5)	117 (14.8)	421 (53.1)	227 (28.6)	793 (100.0)	
	60대	14 (3.0)	0 (0.0)	6 (1.3)	87 (18.4)	241 (51.0)	125 (26.4)	473 (100.0)	
	70대 이상	4 (6.3)	0 (0.0)	0 (0.0)	16 (25.0)	33 (51.6)	11 (17.2)	64 (100.0)	
계		66 (1.9)	17 (0.5)	79 (2.2)	768 (21.5)	1,833 (51.4)	802 (22.5)	3,565 (100.0)	

성별 차이를 보면, U-KNOU 캠퍼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

한 비율이 남성 74.5%, 여성 73.6%로 남성이 여성보다 0.9%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1학년 신입생의 만족도가 75.6%로 가장 높았고, 2, 3학년 편입생은 모두 72.9%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10대를 제외하고 30대의 만족도가 66.0%로 가장 낮았으며, 20대와 70대는 각각 66.7%와 68.8%로 나타나 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50대는 81.7%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용해 본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70대 이상에서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U-KNOU 캠퍼스 만족도’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16>과 같다.

<표 IV-16> U-KNOU 캠퍼스 만족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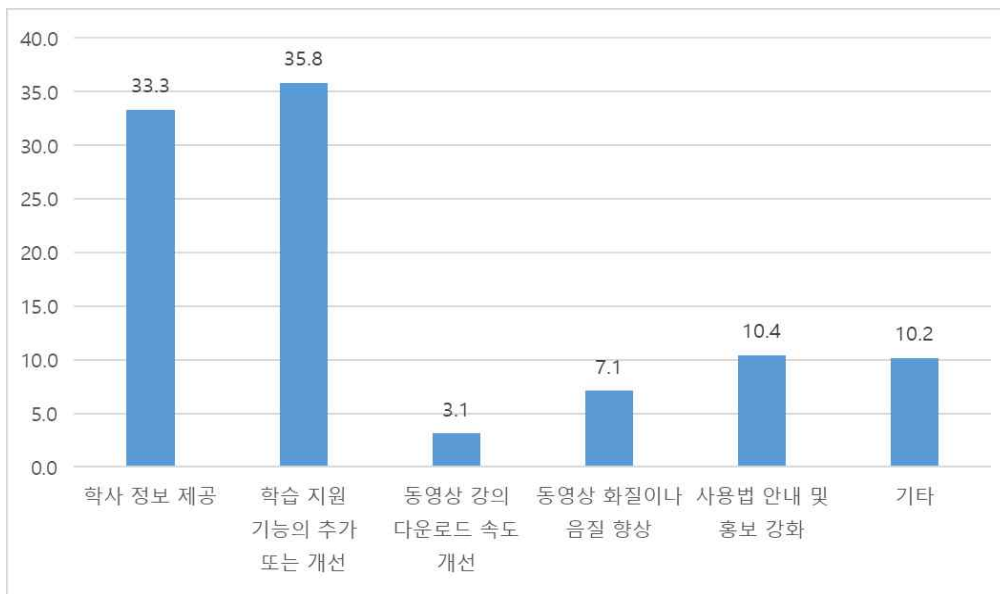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이용해본 적 없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국어국문학과	0 (0.0)	1 (0.8)	2 (1.6)	24 (19.4)	65 (52.4)	32 (25.8)	124 (100.0)
영어영문학과	9 (4.0)	2 (0.9)	4 (1.8)	45 (20.2)	110 (49.3)	53 (23.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5 (3.3)	0 (0.0)	4 (2.6)	33 (21.7)	69 (45.4)	41 (27.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0 (0.0)	0 (0.0)	1 (2.9)	8 (23.5)	16 (47.1)	9 (26.5)	34 (100.0)
일본학과	3 (2.4)	2 (1.6)	2 (1.6)	26 (20.8)	61 (48.8)	31 (24.8)	125 (100.0)
법학과	4 (1.9)	0 (0.0)	11 (5.1)	41 (19.1)	116 (54.0)	43 (20.0)	215 (100.0)
행정학과	0 (0.0)	0 (0.0)	0 (0.0)	10 (19.6)	28 (54.9)	13 (25.5)	51 (100.0)
경제학과	0 (0.0)	0 (0.0)	0 (0.0)	8 (14.8)	34 (63.0)	12 (22.2)	54 (100.0)
경영학과	6 (2.9)	1 (0.5)	6 (2.9)	48 (22.9)	112 (53.3)	37 (17.6)	210 (100.0)
무역학과	1 (4.0)	0 (0.0)	0 (0.0)	8 (32.0)	8 (32.0)	8 (3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1 (1.0)	5 (4.9)	29 (28.4)	49 (48.0)	17 (16.7)	102 (100.0)
관광학과	1 (1.6)	0 (0.0)	0 (0.0)	16 (26.2)	28 (45.9)	16 (26.2)	61 (100.0)
사회복지학과	7 (1.7)	1 (0.2)	8 (2.0)	80 (19.8)	219 (54.1)	90 (22.2)	405 (100.0)
농학과	5 (2.1)	1 (0.4)	2 (0.8)	48 (20.1)	123 (51.5)	60 (25.1)	239 (100.0)
생활과학과	6 (2.3)	0 (0.0)	7 (2.6)	53 (20.0)	133 (50.2)	66 (24.9)	265 (100.0)

컴퓨터과학과	3 (1.3)	1 (0.4)	9 (3.8)	74 (31.4)	113 (47.9)	36 (15.3)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1 (0.9)	1 (0.9)	5 (4.7)	19 (17.9)	61 (57.5)	19 (17.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3 (2.9)	2 (1.9)	24 (22.9)	48 (45.7)	26 (24.8)	105 (100.0)
간호학과	1 (1.3)	0 (0.0)	0 (0.0)	29 (38.2)	40 (52.6)	6 (7.9)	76 (100.0)
교육학과	0 (0.0)	0 (0.0)	1 (0.5)	28 (15.2)	103 (56.0)	52 (28.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3 (1.9)	1 (0.6)	2 (1.3)	32 (20.1)	75 (47.2)	46 (28.9)	159 (100.0)
유아교육과	3 (1.3)	1 (0.4)	5 (2.2)	52 (22.5)	118 (51.1)	52 (22.5)	231 (100.0)
문화교양학과	5 (3.8)	1 (0.8)	1 (0.8)	24 (18.0)	76 (57.1)	26 (19.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0 (0.0)	2 (4.0)	9 (18.0)	28 (56.0)	11 (22.0)	50 (100.0)
계	66 (1.9)	17 (0.5)	79 (2.2)	768 (21.5)	1,833 (51.4)	802 (22.5)	3,565 (100.0)

3) U-KNOU 캠퍼스 서비스 개선사항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U-KNOU 캠퍼스 개선사항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학습 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35.8%로 가장 많았고, '학사정보 제공' 33.3%,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 10.4%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사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0.9% 증가했고, '기타'가 0.9% 증가하였다. 학생들이 '기타'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 기반의 직관적인 UI개선과 자막 제공, 동영상 재생속도의 다양화, 필기 기능 추가, 출석수업과 시험 등의 학사일정 알림 등의 요구가 추가적으로 도출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학사정보 제공	학습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 속도 개선	동영상 화질이나 음질 향상	사용법 안내 및 홍보 강화	기타	전체	
성별	남자	397 (31.3)	446 (35.2)	38 (3.0)	102 (8.0)	155 (12.2)	130 (10.3)	1,268 (100.0)	
	여자	791 (34.4)	831 (36.2)	74 (3.2)	152 (6.6)	217 (9.4)	232 (10.1)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418 (31.0)	507 (37.6)	42 (3.1)	104 (7.7)	141 (10.5)	135 (10.0)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39 (33.0)	152 (36.1)	13 (3.1)	30 (7.1)	48 (11.4)	39 (9.3)	421 (100.0)
		3학년	631 (35.1)	618 (34.4)	57 (3.2)	120 (6.7)	183 (10.2)	188 (10.5)	1,797 (100.0)
연령대	10대	3 (30.0)	1 (10.0)	0 (0.0)	2 (20.0)	3 (30.0)	1 (10.0)	10 (100.0)	
	20대	183 (36.3)	158 (31.3)	19 (3.8)	44 (8.7)	43 (8.5)	57 (11.3)	504 (100.0)	
	30대	286 (36.6)	251 (32.1)	20 (2.6)	59 (7.5)	87 (11.1)	79 (10.1)	782 (100.0)	
	40대	323 (34.4)	346 (36.8)	32 (3.4)	63 (6.7)	85 (9.1)	90 (9.6)	939 (100.0)	
	50대	238 (30.0)	315 (39.7)	23 (2.9)	53 (6.7)	81 (10.2)	83 (10.5)	793 (100.0)	
	60대	135 (28.5)	189 (40.0)	16 (3.4)	27 (5.7)	58 (12.3)	48 (10.1)	473 (100.0)	
	70대 이상	20 (31.3)	17 (26.6)	2 (3.1)	6 (9.4)	15 (23.4)	4 (6.3)	64 (100.0)	
계	1,188 (33.3)	1,277 (35.8)	112 (3.1)	254 (7.1)	372 (10.4)	362 (10.2)	3,565 (100.0)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U-KNOU 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학사 정보 제공'과 '학습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 관련 여성의 응답 비율이 각각 34.4%, 36.2%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에 대한 요구는 남성이 12.2%로 여성 9.4%보다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학습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가 1학년 신입생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사정보 제공'에 응답한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35.1%로 가장 높았고,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는 2학년 편입생이 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학사정보 제공'은 20-4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학습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은 50-60대에서 전체 연령층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는 10대와 70대의 응답 비율이 30.0%와 23.4%로 높게 나타났다.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18>과 같다.

<표 IV-18> U-KNOU 캠퍼스 개선사항(학과별)

단위: 명, %

구분	학사 일정 안내 강화	학습 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	동영상 강의 다운로드 속도 개선	동영상 화질이나 음질 향상	사용법 안내 및 홍보 강화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35 (28.2)	41 (33.1)	0 (0.0)	17 (13.7)	16 (12.9)	15 (12.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75 (33.6)	81 (36.3)	9 (4.0)	18 (8.1)	14 (6.3)	26 (11.7)	223 (100.0)
중어중문학과	40 (26.3)	63 (41.4)	5 (3.3)	9 (5.9)	19 (12.5)	16 (10.5)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2 (35.3)	12 (35.3)	0 (0.0)	3 (8.8)	1 (2.9)	6 (17.6)	34 (100.0)
일본학과	47 (37.6)	44 (35.2)	5 (4.0)	7 (5.6)	12 (9.6)	10 (8.0)	125 (100.0)
법학과	71 (33.0)	64 (29.8)	6 (2.8)	23 (10.7)	25 (11.6)	26 (12.1)	215 (100.0)
행정학과	14 (27.5)	13 (25.5)	2 (3.9)	4 (7.8)	11 (21.6)	7 (13.7)	51 (100.0)
경제학과	17 (31.5)	18 (33.3)	0 (0.0)	9 (16.7)	4 (7.4)	6 (11.1)	54 (100.0)
경영학과	77 (36.7)	64 (30.5)	6 (2.9)	15 (7.1)	31 (14.8)	17 (8.1)	210 (100.0)
무역학과	8 (32.0)	10 (40.0)	0 (0.0)	2 (8.0)	2 (8.0)	3 (12.0)	25 (100.0)

IV. 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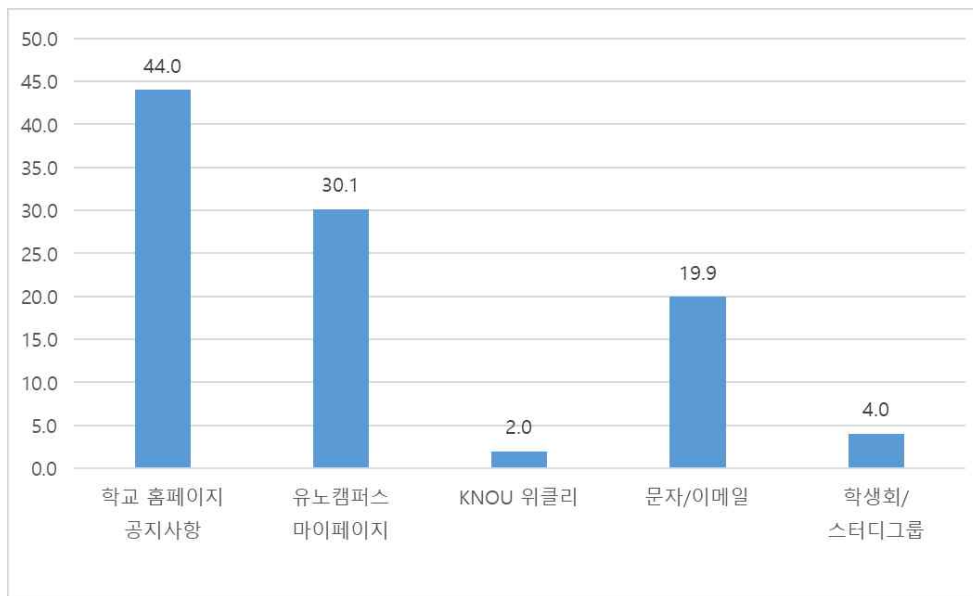
미디어영상학과	30 (29.4)	44 (43.1)	4 (3.9)	7 (6.9)	11 (10.8)	6 (5.9)	102 (100.0)
관광학과	18 (29.5)	25 (41.0)	2 (3.3)	5 (8.2)	9 (14.8)	2 (3.3)	61 (100.0)
사회복지학과	150 (37.0)	142 (35.1)	11 (2.7)	16 (4.0)	43 (10.6)	43 (10.6)	405 (100.0)
농학과	69 (28.9)	96 (40.2)	10 (4.2)	13 (5.4)	32 (13.4)	19 (7.9)	239 (100.0)
생활과학과	82 (30.9)	108 (40.8)	9 (3.4)	13 (4.9)	33 (12.5)	20 (7.5)	265 (100.0)
컴퓨터과학과	80 (33.9)	76 (32.2)	7 (3.0)	15 (6.4)	19 (8.1)	39 (16.5)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33 (31.1)	36 (34.0)	4 (3.8)	6 (5.7)	8 (7.5)	19 (17.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9 (27.6)	36 (34.3)	3 (2.9)	11 (10.5)	13 (12.4)	13 (12.4)	105 (100.0)
간호학과	37 (48.7)	28 (36.8)	2 (2.6)	3 (3.9)	5 (6.6)	1 (1.3)	76 (100.0)
교육학과	65 (35.3)	71 (38.6)	6 (3.3)	8 (4.3)	16 (8.7)	18 (9.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59 (37.1)	58 (36.5)	5 (3.1)	10 (6.3)	13 (8.2)	14 (8.8)	159 (100.0)
유아교육과	88 (38.1)	78 (33.8)	10 (4.3)	18 (7.8)	19 (8.2)	18 (7.8)	231 (100.0)
문화교양학과	38 (28.6)	46 (34.6)	5 (3.8)	17 (12.8)	14 (10.5)	13 (9.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4 (28.0)	23 (46.0)	1 (2.0)	5 (10.0)	2 (4.0)	5 (10.0)	50 (100.0)
계	1,188 (33.3)	1,277 (35.8)	112 (3.1)	254 (7.1)	372 (10.4)	362 (10.2)	3,565 (100.0)

3. 형성평가에 대한 의견

방송대의 형성평가는 강의 진도율 혹은 연습문제 등의 학습활동을 성적에 반영하는 제도이며, 2021학년도 1학기에 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전 교과목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시행 2년차에 접어든 형성평가에 대해 재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귀하는 형성평가 관련 안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인지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0]과 같다.



[그림 IV-10]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형성평가 관련 안내경로’를 조사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44.0%로 가장 많았고,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 30.1%, ‘문자 및 이메일’ 19.9% 순이었다. 2021학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은 전년 동월(49.9%)

에 비해 5.9% 감소했으며, 반면,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는 전년 동월(26.1%)에 비해 4% 증가했고, 위클리도 0.6%, ‘문자 및 이메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9>와 같다.

<표 IV-19>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	KNOU 위클리	문자/이메일	학생회/ 스터디그룹	전체	
성별	남자	551 (43.5)	396 (31.2)	38 (3.0)	242 (19.1)	41 (3.2)	1,268 (100.0)	
	여자	1,017 (44.3)	678 (29.5)	32 (1.4)	468 (20.4)	102 (4.4)	2,297 (100.0)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633 (47.0)	366 (27.2)	26 (1.9)	259 (19.2)	63 (4.7)	1,347 (100.0)	
	편입생	2 학년	188 (44.7)	140 (33.3)	10 (2.4)	73 (17.3)	10 (2.4)	421 (100.0)
		3 학년	747 (41.6)	568 (31.6)	34 (1.9)	378 (21.0)	70 (3.9)	1,797 (100.0)
		4 학년						
연령 대	10대	7 (70.0)	2 (20.0)	0 (0.0)	1 (10.0)	0 (0.0)	10 (100.0)	
	20대	211 (41.9)	123 (24.4)	5 (1.0)	140 (27.8)	25 (5.0)	504 (100.0)	
	30대	331 (42.3)	222 (28.4)	15 (1.9)	184 (23.5)	30 (3.8)	782 (100.0)	
	40대	429 (45.7)	297 (31.6)	13 (1.4)	167 (17.8)	33 (3.5)	939 (100.0)	
	50대	358 (45.1)	241 (30.4)	16 (2.0)	147 (18.5)	31 (3.9)	793 (100.0)	
	60대	200 (42.3)	164 (34.7)	19 (4.0)	68 (14.4)	22 (4.7)	473 (100.0)	
	70대 이상	32 (50.0)	25 (39.1)	2 (3.1)	3 (4.7)	2 (3.1)	64 (100.0)	
계		1,568 (44.0)	1,074 (30.1)	70 (2.0)	710 (19.9)	143 (4.0)	3,565 (100.0)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44.3%, 남성 43.5%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입생의 경우 47.0%, 2학년 편입생은 44.7%, 3학년 편입생은 41.6%로, 신입생이 편입생보다 홈페이지를 통해 형성평가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가 70%, 70대 이상이 5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0>과 같다.

<표 IV-20>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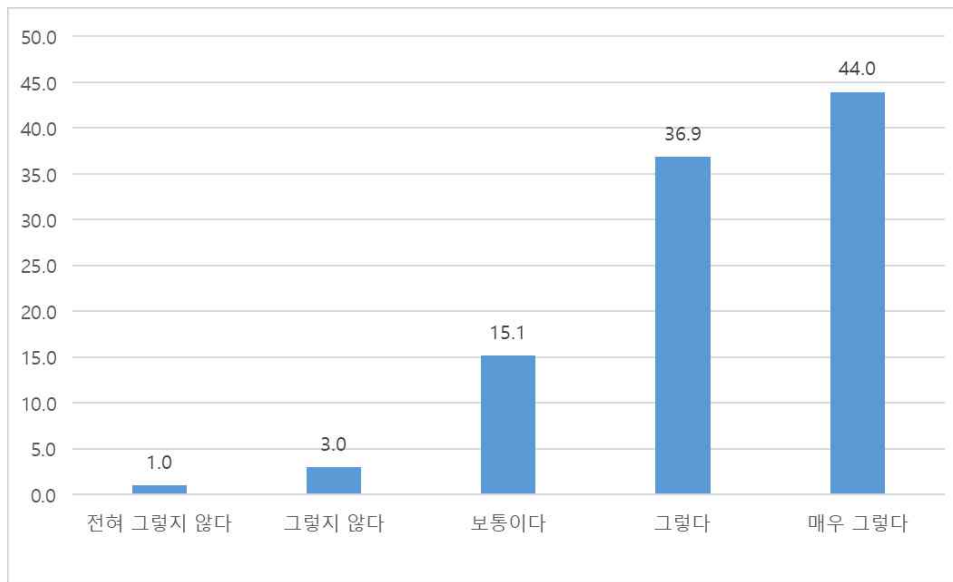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노캠퍼스 마이페이지	KNOU 위클리	문자/이메 일	학생회/ 스터디그룹	전체
국어국문학과	53 (42.7)	40 (32.3)	4 (3.2)	24 (19.4)	3 (2.4)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00 (44.8)	61 (27.4)	7 (3.1)	49 (22.0)	6 (2.7)	223 (100.0)
중어중문학과	66 (43.4)	47 (30.9)	5 (3.3)	28 (18.4)	6 (3.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2 (35.3)	14 (41.2)	0 (0.0)	8 (23.5)	0 (0.0)	34 (100.0)
일본학과	60 (48.0)	41 (32.8)	2 (1.6)	17 (13.6)	5 (4.0)	125 (100.0)
법학과	95 (44.2)	67 (31.2)	2 (0.9)	45 (20.9)	6 (2.8)	215 (100.0)
행정학과	20 (39.2)	18 (35.3)	1 (2.0)	8 (15.7)	4 (7.8)	51 (100.0)
경제학과	20 (37.0)	19 (35.2)	1 (1.9)	12 (22.2)	2 (3.7)	54 (100.0)
경영학과	94 (44.8)	59 (28.1)	2 (1.0)	44 (21.0)	11 (5.2)	210 (100.0)
무역학과	12 (48.0)	7 (28.0)	1 (4.0)	5 (2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40 (39.2)	32 (31.4)	1 (1.0)	27 (26.5)	2 (2.0)	102 (100.0)
관광학과	23 (37.7)	22 (36.1)	2 (3.3)	12 (19.7)	2 (3.3)	61 (100.0)
사회복지학과	183 (45.2)	124 (30.6)	14 (3.5)	68 (16.8)	16 (4.0)	405 (100.0)
농학과	97 (40.6)	70 (29.3)	8 (3.3)	49 (20.5)	15 (6.3)	239 (100.0)
생활과학과	121 (45.7)	87 (32.8)	6 (2.3)	45 (17.0)	6 (2.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79 (33.5)	82 (34.7)	1 (0.4)	68 (28.8)	6 (2.5)	236 (100.0)
통계·데이터과	33	33	0	32	8	106

학과	(31.1)	(31.1)	(0.0)	(30.2)	(7.5)	(100.0)
보건환경학과	50 (47.6)	32 (30.5)	2 (1.9)	16 (15.2)	5 (4.8)	105 (100.0)
간호학과	28 (36.8)	29 (38.2)	1 (1.3)	16 (21.1)	2 (2.6)	76 (100.0)
교육학과	93 (50.5)	51 (27.7)	3 (1.6)	28 (15.2)	9 (4.9)	184 (100.0)
청소년교육과	78 (49.1)	33 (20.8)	3 (1.9)	33 (20.8)	12 (7.5)	159 (100.0)
유아교육과	122 (52.8)	53 (22.9)	2 (0.9)	46 (19.9)	8 (3.5)	231 (100.0)
문화교양학과	65 (48.9)	39 (29.3)	0 (0.0)	22 (16.5)	7 (5.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24 (48.0)	14 (28.0)	2 (4.0)	8 (16.0)	2 (4.0)	50 (100.0)
계	1,568 (44.0)	1,074 (30.1)	70 (2.0)	710 (19.9)	143 (4.0)	3,565 (100.0)

2)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

‘귀하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형성평가가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 정도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 도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0%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36.9%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그렇다’가 33.7%에서 44.0%로 10.3% 증가하여, 형성평가가 학업 지속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 별	남자	23 (1.8)	36 (2.8)	171 (13.5)	438 (34.5)	600 (47.3)	1,268 (100.0)	
	여자	14 (0.6)	70 (3.0)	369 (16.1)	877 (38.2)	967 (42.1)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15 (1.1)	40 (3.0)	177 (13.1)	448 (33.3)	667 (49.5)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2 (0.5)	12 (2.9)	78 (18.5)	161 (38.2)	168 (39.9)	421 (100.0)
		3 학년	20 (1.1)	54 (3.0)	285 (15.9)	706 (39.3)	732 (40.7)	1,797 (100.0)
연 령 대	10대	0 (0.0)	1 (10.0)	0 (0.0)	3 (30.0)	6 (60.0)	10 (100.0)	
	20대	10 (2.0)	31 (6.2)	116 (23.0)	189 (37.5)	158 (31.3)	504 (100.0)	
	30대	10 (1.3)	29 (3.7)	163 (20.8)	318 (40.7)	262 (33.5)	782 (100.0)	
	40대	7 (0.7)	21 (2.2)	150 (16.0)	362 (38.6)	399 (42.5)	939 (100.0)	
	50대	7 (0.9)	11 (1.4)	65 (8.2)	269 (33.9)	441 (55.6)	793 (100.0)	
	60대	3 (0.6)	12 (2.5)	38 (8.0)	146 (30.9)	274 (57.9)	473 (100.0)	
	70대 이상	0 (0.0)	1 (1.6)	8 (12.5)	28 (43.8)	27 (42.2)	64 (100.0)	
계		37 (1.0)	106 (3.0)	540 (15.1)	1,315 (36.9)	1,567 (44.0)	3,565 (100.0)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형성평가가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81.8%과 여성 80.3%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신입생의 경우 82.8%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은 80%, 2학년 편입생은 78.1%로 분석되어, 신입생이 편입생보다 형성평가가 학업지속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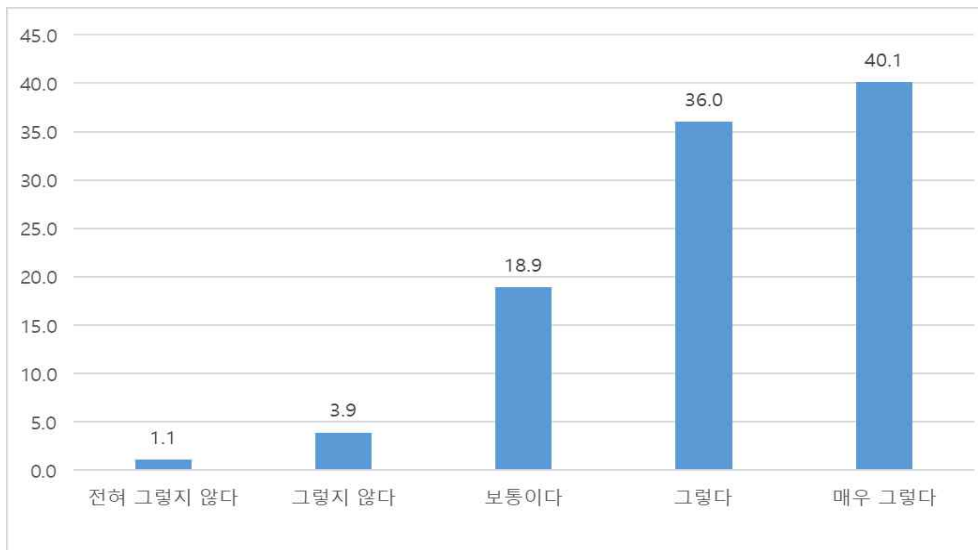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국어국문학과	0 (0.0)	1 (0.8)	21 (16.9)	41 (33.1)	61 (49.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 (1.3)	10 (4.5)	40 (17.9)	82 (36.8)	88 (39.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5 (3.3)	2 (1.3)	19 (12.5)	62 (40.8)	64 (42.1)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 (2.9)	1 (2.9)	5 (14.7)	11 (32.4)	16 (47.1)	34 (100.0)
일본학과	1 (0.8)	5 (4.0)	20 (16.0)	38 (30.4)	61 (48.8)	125 (100.0)
법학과	3 (1.4)	10 (4.7)	31 (14.4)	80 (37.2)	91 (42.3)	215 (100.0)
행정학과	0 (0.0)	2 (3.9)	7 (13.7)	16 (31.4)	26 (51.0)	51 (100.0)
경제학과	1 (1.9)	1 (1.9)	5 (9.3)	20 (37.0)	27 (50.0)	54 (100.0)
경영학과	5 (2.4)	2 (1.0)	45 (21.4)	85 (40.5)	73 (34.8)	210 (100.0)
무역학과	0 (0.0)	0 (0.0)	3 (12.0)	9 (36.0)	13 (5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 (2.0)	1 (1.0)	22 (21.6)	38 (37.3)	39 (38.2)	102 (100.0)
관광학과	0 (0.0)	1 (1.6)	10 (16.4)	17 (27.9)	33 (54.1)	61 (100.0)
사회복지학과	2 (0.5)	5 (1.2)	49 (12.1)	153 (37.8)	196 (48.4)	405 (100.0)
농학과	0 (0.0)	5 (2.1)	24 (10.0)	84 (35.1)	126 (52.7)	239 (100.0)
생활과학과	0 (0.0)	9 (3.4)	35 (13.2)	98 (37.0)	123 (46.4)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 (0.8)	10 (4.2)	40 (16.9)	107 (45.3)	77 (32.6)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2 (1.9)	6 (5.7)	21 (19.8)	46 (43.4)	31 (29.2)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2 (1.9)	14 (13.3)	42 (40.0)	45 (42.9)	105 (100.0)
간호학과	1 (1.3)	2 (2.6)	21 (27.6)	34 (44.7)	18 (23.7)	76 (100.0)
교육학과	1 (0.5)	5 (2.7)	25 (13.6)	71 (38.6)	82 (44.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 (0.6)	4 (2.5)	18 (11.3)	50 (31.4)	86 (54.1)	159 (100.0)
유아교육과	3 (1.3)	12 (5.2)	41 (17.7)	79 (34.2)	96 (41.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 (1.5)	9 (6.8)	17 (12.8)	36 (27.1)	69 (51.9)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1 (2.0)	7 (14.0)	16 (32.0)	26 (52.0)	50 (100.0)
계	37 (1.0)	106 (3.0)	540 (15.1)	1,315 (36.9)	1,567 (44.0)	3,565 (100.0)

3)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 취득 도움도

‘귀하는 형성평가 도입 후 기존보다 성적 취득에 도움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2]와 같다.



[그림 IV-12]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 정도

전반적으로 형성평가가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40.1%는 ‘매우 도움이 된다’, 36.0%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도움이 된다’가 전년 동월(27.2%)에 비해 12.9%의 큰 증가율을 보이며, 성적취득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IV-23>과 같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형성평가가 성적취득에 매우 도움이 되며, 남성이 76.7%, 여성이 75.8%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입학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신입생이 79.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3학년 편입생 74.4%, 2학년 편입생 72.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성별	남자	23 (1.8)	46 (3.6)	226 (17.8)	450 (35.5)	523 (41.2)	1,268 (100.0)	
	여자	16 (0.7)	92 (4.0)	448 (19.5)	834 (36.3)	907 (39.5)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17 (1.3)	52 (3.9)	206 (15.3)	442 (32.8)	630 (46.8)	1,347 (100.0)	
	편입생	2학년	2 (0.5)	28 (6.7)	86 (20.4)	155 (36.8)	150 (35.6)	421 (100.0)
		3학년	20 (1.1)	58 (3.2)	382 (21.3)	687 (38.2)	650 (36.2)	1,797 (100.0)
연령대	10대	0 (0.0)	1 (10.0)	2 (20.0)	3 (30.0)	4 (40.0)	10 (100.0)	
	20대	7 (1.4)	32 (6.3)	142 (28.2)	163 (32.3)	160 (31.7)	504 (100.0)	
	30대	8 (1.0)	35 (4.5)	194 (24.8)	275 (35.2)	270 (34.5)	782 (100.0)	
	40대	10 (1.1)	34 (3.6)	178 (19.0)	357 (38.0)	360 (38.3)	939 (100.0)	
	50대	9 (1.1)	20 (2.5)	92 (11.6)	291 (36.7)	381 (48.0)	793 (100.0)	
	60대	5 (1.1)	13 (2.7)	57 (12.1)	167 (35.3)	231 (48.8)	473 (100.0)	
	70대	0	3	9	28	24	64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이상	(0.0)	(4.7)	(14.1)	(43.8)	(37.5)	(100.0)
계		39 (1.1)	138 (3.9)	674 (18.9)	1,284 (36.0)	1,430 (40.1)	3,565 (100.0)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 취득 도움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4>와 같다.

<표 IV-24>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학과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국어국문학과	2 (1.6)	3 (2.4)	25 (20.2)	43 (34.7)	51 (41.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 (0.4)	14 (6.3)	48 (21.5)	88 (39.5)	72 (32.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6 (3.9)	6 (3.9)	26 (17.1)	59 (38.8)	55 (36.2)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 (2.9)	2 (5.9)	8 (23.5)	10 (29.4)	13 (38.2)	34 (100.0)
일본학과	1 (0.8)	7 (5.6)	24 (19.2)	49 (39.2)	44 (35.2)	125 (100.0)
법학과	3 (1.4)	10 (4.7)	41 (19.1)	88 (40.9)	73 (34.0)	215 (100.0)
행정학과	0 (0.0)	5 (9.8)	5 (9.8)	20 (39.2)	21 (41.2)	51 (100.0)
경제학과	0 (0.0)	1 (1.9)	10 (18.5)	22 (40.7)	21 (38.9)	54 (100.0)
경영학과	1 (0.5)	5 (2.4)	53 (25.2)	74 (35.2)	77 (36.7)	210 (100.0)
무역학과	0 (0.0)	0 (0.0)	5 (20.0)	8 (32.0)	12 (4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0 (0.0)	2 (2.0)	21 (20.6)	38 (37.3)	41 (40.2)	102 (100.0)
관광학과	0 (0.0)	0 (0.0)	12 (19.7)	17 (27.9)	32 (52.5)	61 (100.0)
사회복지학과	4 (1.0)	13 (3.2)	57 (14.1)	157 (38.8)	174 (43.0)	405 (100.0)
농학과	1 (0.4)	5 (2.1)	37 (15.5)	82 (34.3)	114 (47.7)	239 (100.0)
생활과학과	2 (0.8)	14 (5.3)	38 (14.3)	96 (36.2)	115 (43.4)	265 (100.0)

IV. 학습활동

컴퓨터과학과	4 (1.7)	8 (3.4)	62 (26.3)	86 (36.4)	76 (32.2)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1 (0.9)	6 (5.7)	22 (20.8)	45 (42.5)	32 (30.2)	106 (100.0)
보건환경학과	3 (2.9)	0 (0.0)	20 (19.0)	37 (35.2)	45 (42.9)	105 (100.0)
간호학과	1 (1.3)	1 (1.3)	20 (26.3)	29 (38.2)	25 (32.9)	76 (100.0)
교육학과	1 (0.5)	12 (6.5)	27 (14.7)	63 (34.2)	81 (44.0)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 (0.6)	5 (3.1)	30 (18.9)	42 (26.4)	81 (50.9)	159 (100.0)
유아교육과	5 (2.2)	14 (6.1)	48 (20.8)	69 (29.9)	95 (41.1)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 (0.8)	5 (3.8)	27 (20.3)	48 (36.1)	52 (39.1)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0 (0.0)	8 (16.0)	14 (28.0)	28 (56.0)	50 (100.0)
계	39 (1.1)	138 (3.9)	674 (18.9)	1,284 (36.0)	1,430 (40.1)	3,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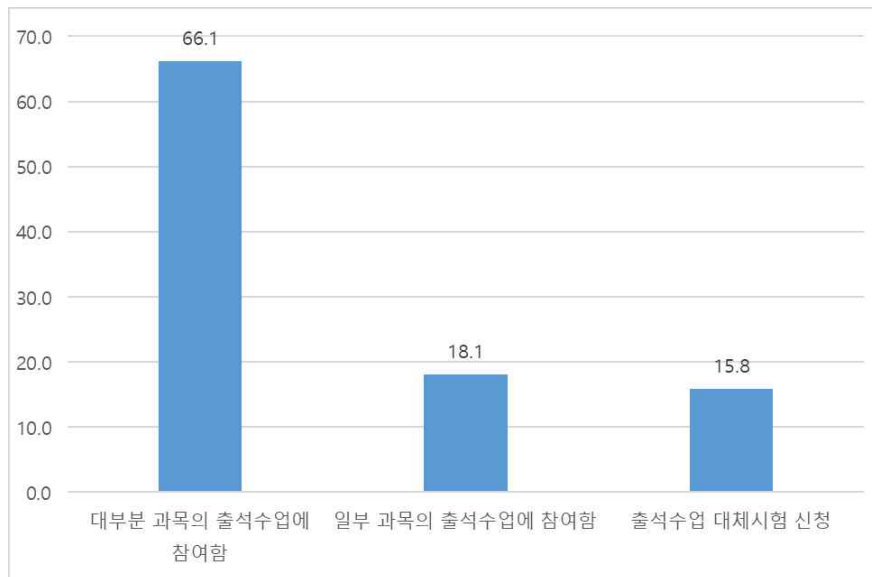
4. 출석수업 참여 현황

출석수업 참여 현황은 출석수업 참여방식 및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경험 및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출석수업 참여 방식

출석수업 참여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이 66.1%로 가장 많았고,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이 18.1%,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이 15.8% 순이었다. 2021학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이 61.8%에서 66.1%로 4.3% 증가했으며,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 비율도 19.4%에서 15.8%로 전년대비 3.6%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출석수업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수업 참여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3]과 같다.



[그림 IV-13] 출석수업 참여 방식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출석수업 참여방식(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	전체	
성 별	남자	853 (67.3)	198 (15.6)	217 (17.1)	1,268 (100.0)	
	여자	1,504 (65.5)	446 (19.4)	347 (15.1)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942 (69.9)	215 (16.0)	190 (14.1)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290 (68.9)	59 (14.0)	72 (17.1)	421 (100.0)
		3 학년	1,125 (62.6)	370 (20.6)	302 (16.8)	1,797 (100.0)
		계	9	1	0	10
연 령 대	10대	9 (90.0)	1 (10.0)	0 (0.0)	10 (100.0)	
	20대	276 (54.8)	110 (21.8)	118 (23.4)	504 (100.0)	
	30대	505 (64.6)	131 (16.8)	146 (18.7)	782 (100.0)	
	40대	602 (64.1)	179 (19.1)	158 (16.8)	939 (100.0)	
	50대	539 (68.0)	150 (18.9)	104 (13.1)	793 (100.0)	
	60대	372 (78.6)	67 (14.2)	34 (7.2)	473 (100.0)	
	70대	54 (84.4)	6 (9.4)	4 (6.3)	64 (100.0)	
	이상	2,357 (66.1)	644 (18.1)	564 (15.8)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에 응답한 비율은 여성 15.1%보다 남성이 17.1%로 더 높고, ‘대부분의 출석수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남성이 67.3%로 여성 65.5%보다 높으며,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는 여성이 19.4%로 남성 15.6%보다 높았다.

입학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이 69.9%로, 2학년 편입생 68.9%, 3학년 편입생 6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에 응답한 비율은 2학년 편입생이 17.1%로 입학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은 20대와 40대에서 각각 21.8%와 19.1%로 높게 나타났다.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은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23.4%로 나타났다. 20-30대의 젊은 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고, 출석수업 대체시험에 대한 선호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석수업 참여방식’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출석수업 참여방식(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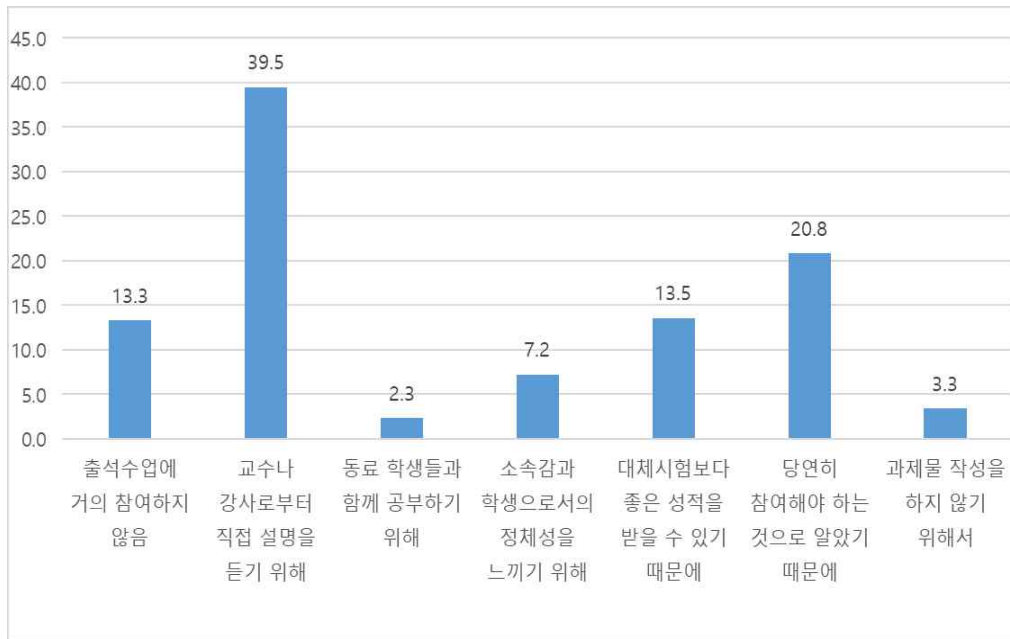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	전체
국어국문학과	89 (71.8)	15 (12.1)	20 (16.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47 (65.9)	32 (14.3)	44 (19.7)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13 (74.3)	14 (9.2)	25 (16.4)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1 (61.8)	4 (11.8)	9 (26.5)	34 (100.0)
일본학과	95 (76.0)	12 (9.6)	18 (14.4)	125 (100.0)
법학과	126 (58.6)	45 (20.9)	44 (20.5)	215 (100.0)
행정학과	26 (51.0)	14 (27.5)	11 (21.6)	51 (100.0)
경제학과	38 (70.4)	7 (13.0)	9 (16.7)	54 (100.0)
경영학과	109 (51.9)	47 (22.4)	54 (25.7)	210 (100.0)
무역학과	15 (60.0)	2 (8.0)	8 (3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57 (55.9)	21 (20.6)	24 (23.5)	102 (100.0)
관광학과	36 (59.0)	11 (18.0)	14 (23.0)	61 (100.0)
사회복지학과	249 (61.5)	97 (24.0)	59 (14.6)	405 (100.0)
농학과	162 (67.8)	44 (18.4)	33 (13.8)	239 (100.0)
생활과학과	174 (65.7)	50 (18.9)	41 (15.5)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52 (64.4)	37 (15.7)	47 (19.9)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78 (73.6)	15 (14.2)	13 (12.3)	106 (100.0)
보건환경학과	73 (69.5)	28 (26.7)	4 (3.8)	105 (100.0)
간호학과	53 (69.7)	12 (15.8)	11 (14.5)	76 (100.0)
교육학과	118 (64.1)	40 (21.7)	26 (14.1)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13 (71.1)	23 (14.5)	23 (14.5)	159 (100.0)
유아교육과	172 (74.5)	48 (20.8)	11 (4.8)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02 (76.7)	21 (15.8)	10 (7.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9 (78.0)	5 (10.0)	6 (12.0)	50 (100.0)
계	2,357 (66.1)	644 (18.1)	564 (15.8)	3,565 (100.0)

2)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이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가 39.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20.8%,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5% 순이었다. ‘출석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은 13.3%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가 2.4%,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2.9% 증가했다.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4]와 같다.



[그림 IV-14] 출석수업 참여 이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IV-27>과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에 응답한 비율이 여성 40.4%, 남성 37.7%로 여성이 2.7% 더 높게 나타났다. ‘출석수업에 참여하면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는 남성 11.4%, 여성 14.8%로 여성이 3.4%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에 응답한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속감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에서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석수업에 참여하면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는 3학년 편입생에서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는 ‘소속감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서’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른 입학유형보다 높았다.

<표 IV-27> 출석수업 참여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출석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동료 학생들과 공부하기 위해	소속 과목으로 정해진 성적을 받기 위해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성별	남자	193 (15.2)	478 (37.7)	37 (2.9)	134 (10.6)	144 (11.4)	236 (18.6)	46 (3.6)	1,268 (100.0)	
	여자	281 (12.2)	929 (40.4)	46 (2.0)	123 (5.4)	339 (14.8)	506 (22.0)	73 (3.2)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162 (12.0)	537 (39.9)	37 (2.7)	123 (9.1)	161 (12.0)	292 (21.7)	35 (2.6)	1,347 (100.0)	
	편입생	2학년	64 (15.2)	162 (38.5)	8 (1.9)	22 (5.2)	42 (10.0)	116 (27.6)	7 (1.7)	421 (100.0)
		3학년	248 (13.8)	708 (39.4)	38 (2.1)	112 (6.2)	280 (15.6)	334 (18.6)	77 (4.3)	1,797 (100.0)
		4학년								
연령대	10대	1 (10.0)	2 (20.0)	0 (0.0)	1 (10.0)	2 (20.0)	4 (40.0)	0 (0.0)	10 (100.0)	
	20대	100 (19.8)	130 (25.8)	7 (1.4)	18 (3.6)	131 (26.0)	88 (17.5)	30 (6.0)	504 (100.0)	
	30대	128 (16.4)	227 (29.0)	15 (1.9)	27 (3.5)	152 (19.4)	192 (24.6)	41 (5.2)	782 (100.0)	
	40대	124 (13.2)	400 (42.6)	20 (2.1)	55 (5.9)	118 (12.6)	193 (20.6)	29 (3.1)	939 (100.0)	
	50대	87 (11.0)	360 (45.4)	23 (2.9)	100 (12.6)	59 (7.4)	151 (19.0)	13 (1.6)	793 (100.0)	
	60대	31 (6.6)	250 (52.9)	16 (3.4)	52 (11.0)	20 (4.2)	100 (21.1)	4 (0.8)	473 (100.0)	
	70대	3 (4.7)	38 (59.4)	2 (3.1)	4 (6.3)	1 (1.6)	14 (21.9)	2 (3.1)	64 (100.0)	
	이상									
계		474 (13.3)	1,407 (39.5)	83 (2.3)	257 (7.2)	483 (13.5)	742 (20.8)	119 (3.3)	3,565 (100.0)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가 4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출석수업에 참여하면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한 비율은 10-30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10대 20%, 20대 26.0%, 30대 19.4%). 30대와 40대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6%, 20.6%로 다소 높았다. 60대와 70대도 출석수업을 학교의 공식적인 제도여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출석수업 참여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28>과 같다.

<표 IV-28> 출석수업 참여이유(학과별)

단위: 명, %

구분	출석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교수나 강사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소속감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	대체시험 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
국어국문학과	17 (13.7)	53 (42.7)	4 (3.2)	17 (13.7)	6 (4.8)	26 (21.0)	1 (0.8)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7 (16.6)	92 (41.3)	6 (2.7)	11 (4.9)	35 (15.7)	39 (17.5)	3 (1.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1 (13.8)	71 (46.7)	2 (1.3)	12 (7.9)	12 (7.9)	32 (21.1)	2 (1.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8 (23.5)	15 (44.1)	1 (2.9)	3 (8.8)	2 (5.9)	5 (14.7)	0 (0.0)	34 (100.0)
일본학과	18 (14.4)	44 (35.2)	4 (3.2)	13 (10.4)	19 (15.2)	22 (17.6)	5 (4.0)	125 (100.0)
법학과	39 (18.1)	85 (39.5)	5 (2.3)	15 (7.0)	35 (16.3)	28 (13.0)	8 (3.7)	215 (100.0)
행정학과	10 (19.6)	16 (31.4)	1 (2.0)	3 (5.9)	8 (15.7)	12 (23.5)	1 (2.0)	51 (100.0)
경제학과	8 (14.8)	16 (29.6)	2 (3.7)	7 (13.0)	9 (16.7)	11 (20.4)	1 (1.9)	54 (100.0)
경영학과	42 (20.0)	72 (34.3)	5 (2.4)	11 (5.2)	32 (15.2)	40 (19.0)	8 (3.8)	210 (100.0)
무역학과	6 (24.0)	5 (20.0)	0 (0.0)	2 (8.0)	7 (28.0)	5 (2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2 (21.6)	36 (35.3)	0 (0.0)	6 (5.9)	20 (19.6)	16 (15.7)	2 (2.0)	102 (100.0)
관광학과	11 (18.0)	23 (37.7)	3 (4.9)	6 (9.8)	6 (9.8)	10 (16.4)	2 (3.3)	61 (100.0)
사회복지학과	43 (10.6)	183 (45.2)	10 (2.5)	36 (8.9)	45 (11.1)	67 (16.5)	21 (5.2)	405 (100.0)
농학과	26 (10.9)	109 (45.6)	7 (2.9)	23 (9.6)	20 (8.4)	48 (20.1)	6 (2.5)	239 (100.0)
생활과학과	36 (13.6)	100 (37.7)	4 (1.5)	18 (6.8)	50 (18.9)	48 (18.1)	9 (3.4)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3 (18.2)	66 (28.0)	1 (0.4)	10 (4.2)	60 (25.4)	39 (16.5)	17 (7.2)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11 (10.4)	44 (41.5)	1 (0.9)	1 (0.9)	20 (18.9)	25 (23.6)	4 (3.8)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 (4.8)	52 (49.5)	2 (1.9)	3 (2.9)	16 (15.2)	22 (21.0)	5 (4.8)	105 (100.0)
간호학과	10 (13.2)	22 (28.9)	0 (0.0)	1 (1.3)	17 (22.4)	20 (26.3)	6 (7.9)	76 (100.0)

교육학과	20 (10.9)	79 (42.9)	4 (2.2)	25 (13.6)	20 (10.9)	34 (18.5)	2 (1.1)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0 (12.6)	76 (47.8)	1 (0.6)	11 (6.9)	20 (12.6)	27 (17.0)	4 (2.5)	159 (100.0)
유아교육과	8 (3.5)	60 (26.0)	14 (6.1)	3 (1.3)	10 (4.3)	132 (57.1)	4 (1.7)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0 (7.5)	67 (50.4)	3 (2.3)	13 (9.8)	12 (9.0)	23 (17.3)	5 (3.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 (6.0)	21 (42.0)	3 (6.0)	7 (14.0)	2 (4.0)	11 (22.0)	3 (6.0)	50 (100.0)
계	474 (13.3)	1,407 (39.5)	83 (2.3)	257 (7.2)	483 (13.5)	742 (20.8)	119 (3.3)	3,565 (100.0)

3) 출석수업 만족도

‘귀하의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의 출석수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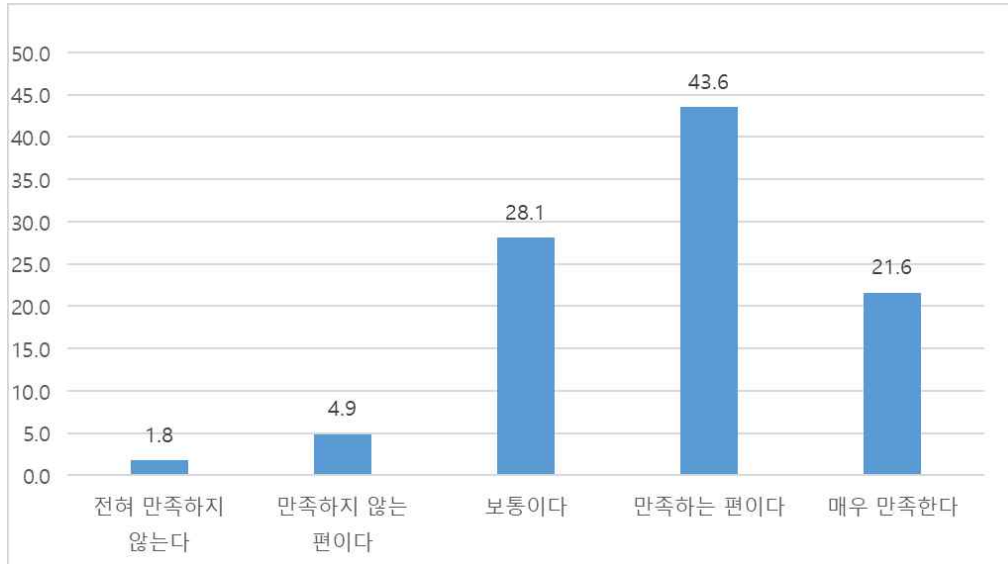
‘출석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는 편이다’에 가장 높은 43.6%의 응답율을 보였고, ‘보통이다’ 28.1%, ‘매우 만족한다’ 21.6% 순이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65.2%의 학생들이 출석수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만족하는 편이다’에 대한 응답이 1.3%, ‘매우 만족한다’가 5% 증가하여 출석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29>와 같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출석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여성 65.5%, 남성 64.6%로 여성이 0.9%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 응답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이 67.1%로 2학년 편입생 64.3%와 3학년 63.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대, 30대 각각 51.0%, 5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40대 69.5%, 50대 72.4%, 60대 75.9%, 70대 이상은 76.6%의 분포를 보여, 40대 이상으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출석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5]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

<표 IV-29>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값	
성별	남자	40 (3.2)	72 (5.7)	337 (26.6)	529 (41.7)	290 (22.9)	1,268 (100.0)	3.75	.97	3.82	
	여자	23 (1.0)	103 (4.5)	666 (29.0)	1,024 (44.6)	481 (20.9)	2,297 (100.0)	3.80	.85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17 (1.3)	73 (5.4)	353 (26.2)	587 (43.6)	317 (23.5)	1,347 (100.0)	3.83	.89	0.49	
	편입생	2학년	9 (2.1)	24 (5.7)	117 (27.8)	182 (43.2)	89 (21.1)	421 (100.0)	3.76		.92
		3학년	37 (2.1)	78 (4.3)	533 (29.7)	784 (43.6)	365 (20.3)	1,797 (100.0)	3.76		.89

연령대	10대	0 (0.0)	3 (30.0)	0 (0.0)	4 (40.0)	3 (30.0)	10 (100.0)	3.70	1.25	23.65**
	20대	13 (2.6)	36 (7.1)	198 (39.3)	201 (39.9)	56 (11.1)	504 (100.0)	3.50	.88	
	30대	19 (2.4)	54 (6.9)	284 (36.3)	301 (38.5)	124 (15.9)	782 (100.0)	3.58	.92	
	40대	16 (1.7)	40 (4.3)	230 (24.5)	423 (45.0)	230 (24.5)	939 (100.0)	3.86	.89	
	50대	11 (1.4)	27 (3.4)	181 (22.8)	360 (45.4)	214 (27.0)	793 (100.0)	3.93	.87	
	60대	4 (0.8)	13 (2.7)	97 (20.5)	229 (48.4)	130 (27.5)	473 (100.0)	3.99	.82	
	70대 이상	0 (0.0)	2 (3.1)	13 (20.3)	35 (54.7)	14 (21.9)	64 (100.0)	3.95	.74	
계	63 (1.8)	175 (4.9)	1,003 (28.1)	1,553 (43.6)	771 (21.6)	3,565 (100.0)	3.78	.90		

‘출석수업 만족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30>과 같다.

<표 IV-30> 전공과목 출석수업 만족도(학과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국어국문학과	1 (0.8)	6 (4.8)	34 (27.4)	48 (38.7)	35 (28.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2 (0.9)	12 (5.4)	63 (28.3)	94 (42.2)	52 (23.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 (1.3)	4 (2.6)	42 (27.6)	61 (40.1)	43 (28.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0 (0.0)	1 (2.9)	7 (20.6)	15 (44.1)	11 (32.4)	34 (100.0)
일본학과	5 (4.0)	6 (4.8)	41 (32.8)	46 (36.8)	27 (21.6)	125 (100.0)
법학과	2 (0.9)	8 (3.7)	69 (32.1)	97 (45.1)	39 (18.1)	215 (100.0)
행정학과	0 (0.0)	2 (3.9)	17 (33.3)	24 (47.1)	8 (15.7)	51 (100.0)
경제학과	0 (0.0)	1 (1.9)	15 (27.8)	26 (48.1)	12 (22.2)	54 (100.0)
경영학과	7 (3.3)	11 (5.2)	75 (35.7)	88 (41.9)	29 (13.8)	2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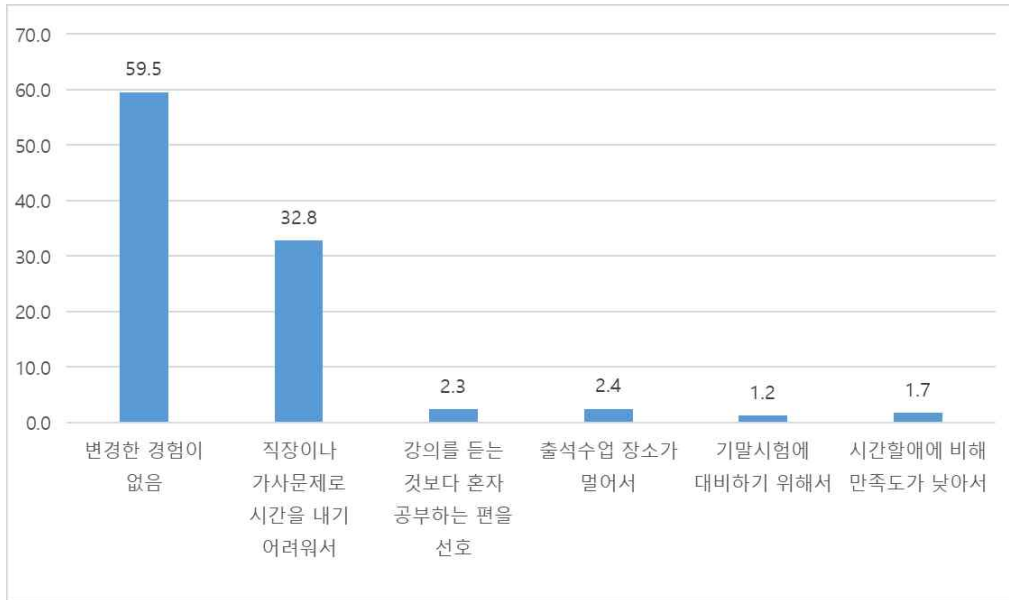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무역학과	0 (0.0)	0 (0.0)	9 (36.0)	11 (44.0)	5 (2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 (1.0)	9 (8.8)	33 (32.4)	47 (46.1)	12 (11.8)	102 (100.0)
관광학과	1 (1.6)	4 (6.6)	16 (26.2)	22 (36.1)	18 (29.5)	61 (100.0)
사회복지학과	9 (2.2)	14 (3.5)	101 (24.9)	186 (45.9)	95 (23.5)	405 (100.0)
농학과	4 (1.7)	10 (4.2)	59 (24.7)	109 (45.6)	57 (23.8)	239 (100.0)
생활과학과	2 (0.8)	20 (7.5)	65 (24.5)	121 (45.7)	57 (21.5)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1 (4.7)	22 (9.3)	90 (38.1)	92 (39.0)	21 (8.9)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2 (1.9)	5 (4.7)	36 (34.0)	46 (43.4)	17 (16.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 (3.8)	3 (2.9)	27 (25.7)	46 (43.8)	25 (23.8)	105 (100.0)
간호학과	1 (1.3)	4 (5.3)	23 (30.3)	38 (50.0)	10 (13.2)	76 (100.0)
교육학과	3 (1.6)	5 (2.7)	44 (23.9)	85 (46.2)	47 (25.5)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 (0.6)	5 (3.1)	31 (19.5)	76 (47.8)	46 (28.9)	159 (100.0)
유아교육과	4 (1.7)	17 (7.4)	62 (26.8)	105 (45.5)	43 (18.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 (0.8)	5 (3.8)	33 (24.8)	57 (42.9)	37 (27.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1 (2.0)	11 (22.0)	13 (26.0)	25 (50.0)	50 (100.0)
계	63 (1.8)	175 (4.9)	1,003 (28.1)	1,553 (43.6)	771 (21.6)	3,565 (100.0)

4)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우선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이유는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다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변경한 경험이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전년 동월(53.8%)에 비해 5.7% 증가했다.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IV-16]과 같다.



[그림 IV-16]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31>과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남성이 33.7%로 여성 32.3% 보다 1.4%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변경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학년 편입생 59.1%, 3학년 편입생은 56.8%로 가장 낮았다. 즉, 3학년 편입생은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에 35.5%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며 입학유형 중 출석수업 대체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변경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0대가 80.0%, 70대 이상이 8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은 20대 43.5%, 30대 37.5%로 젊은 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출석수업 대체시험보다는 출석수업 직접 참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1>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변경한 경험이 없음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편을 선호	출석수업 장소가 멀어서	기말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할애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서	전체	
성 별	남자	731 (57.6)	427 (33.7)	30 (2.4)	31 (2.4)	21 (1.7)	28 (2.2)	1,268 (100.0)	
	여자	1,391 (60.6)	741 (32.3)	53 (2.3)	55 (2.4)	23 (1.0)	34 (1.5)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853 (63.3)	390 (29.0)	29 (2.2)	31 (2.3)	21 (1.6)	23 (1.7)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249 (59.1)	140 (33.3)	14 (3.3)	11 (2.6)	1 (0.2)	6 (1.4)	421 (100.0)
		3 학년	1,020 (56.8)	638 (35.5)	40 (2.2)	44 (2.4)	22 (1.2)	33 (1.8)	1,797 (100.0)
연 령 대	10대	8 (80.0)	2 (2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20대	223 (44.2)	219 (43.5)	21 (4.2)	22 (4.4)	9 (1.8)	10 (2.0)	504 (100.0)	
	30대	418 (53.5)	293 (37.5)	23 (2.9)	17 (2.2)	9 (1.2)	22 (2.8)	782 (100.0)	
	40대	545 (58.0)	329 (35.0)	21 (2.2)	26 (2.8)	8 (0.9)	10 (1.1)	939 (100.0)	
	50대	514 (64.8)	230 (29.0)	11 (1.4)	13 (1.6)	10 (1.3)	15 (1.9)	793 (100.0)	
	60대	362 (76.5)	89 (18.8)	3 (0.6)	7 (1.5)	7 (1.5)	5 (1.1)	473 (100.0)	
	70대 이상	52 (81.3)	6 (9.4)	4 (6.3)	1 (1.6)	1 (1.6)	0 (0.0)	64 (100.0)	
계	2,122 (59.5)	1,168 (32.8)	83 (2.3)	86 (2.4)	44 (1.2)	62 (1.7)	3,565 (100.0)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표 IV-32> 출석수업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학과별)

단위: 명, %

구분	변경한 경험이 없음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혼자 공부하는 편을 선호	출석수업 장소가 멀어서	기말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할애에 비해 만족도가 낮아서	전체
국어국문학과	82 (66.1)	29 (23.4)	2 (1.6)	5 (4.0)	2 (1.6)	4 (3.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31 (58.7)	75 (33.6)	7 (3.1)	6 (2.7)	0 (0.0)	4 (1.8)	223 (100.0)

IV. 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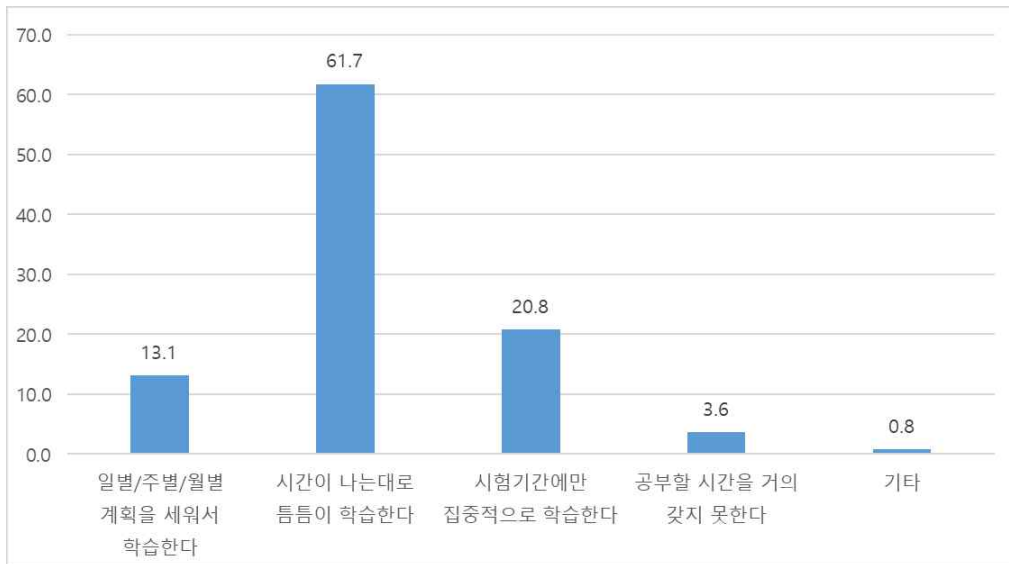
중어중문학과	94 (61.8)	44 (28.9)	4 (2.6)	4 (2.6)	2 (1.3)	4 (2.6)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5 (44.1)	16 (47.1)	1 (2.9)	1 (2.9)	1 (2.9)	0 (0.0)	34 (100.0)
일본학과	74 (59.2)	44 (35.2)	4 (3.2)	1 (0.8)	0 (0.0)	2 (1.6)	125 (100.0)
법학과	110 (51.2)	84 (39.1)	6 (2.8)	6 (2.8)	4 (1.9)	5 (2.3)	215 (100.0)
행정학과	30 (58.8)	17 (33.3)	0 (0.0)	1 (2.0)	3 (5.9)	0 (0.0)	51 (100.0)
경제학과	32 (59.3)	18 (33.3)	2 (3.7)	0 (0.0)	1 (1.9)	1 (1.9)	54 (100.0)
경영학과	104 (49.5)	90 (42.9)	7 (3.3)	3 (1.4)	2 (1.0)	4 (1.9)	210 (100.0)
무역학과	9 (36.0)	15 (60.0)	0 (0.0)	0 (0.0)	1 (4.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43 (42.2)	51 (50.0)	4 (3.9)	3 (2.9)	1 (1.0)	0 (0.0)	102 (100.0)
관광학과	27 (44.3)	25 (41.0)	0 (0.0)	6 (9.8)	0 (0.0)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265 (65.4)	115 (28.4)	7 (1.7)	10 (2.5)	4 (1.0)	4 (1.0)	405 (100.0)
농학과	153 (64.0)	65 (27.2)	4 (1.7)	11 (4.6)	4 (1.7)	2 (0.8)	239 (100.0)
생활과학과	146 (55.1)	94 (35.5)	10 (3.8)	3 (1.1)	4 (1.5)	8 (3.0)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18 (50.0)	98 (41.5)	8 (3.4)	4 (1.7)	1 (0.4)	7 (3.0)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59 (55.7)	44 (41.5)	2 (1.9)	0 (0.0)	1 (0.9)	0 (0.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68 (64.8)	27 (25.7)	4 (3.8)	1 (1.0)	2 (1.9)	3 (2.9)	105 (100.0)
간호학과	48 (63.2)	22 (28.9)	1 (1.3)	2 (2.6)	1 (1.3)	2 (2.6)	76 (100.0)
교육학과	98 (53.3)	71 (38.6)	3 (1.6)	7 (3.8)	4 (2.2)	1 (0.5)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02 (64.2)	47 (29.6)	3 (1.9)	4 (2.5)	1 (0.6)	2 (1.3)	159 (100.0)
유아교육과	189 (81.8)	36 (15.6)	1 (0.4)	3 (1.3)	1 (0.4)	1 (0.4)	231 (100.0)
문화교양학과	92 (69.2)	28 (21.1)	3 (2.3)	4 (3.0)	4 (3.0)	2 (1.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3 (66.0)	13 (26.0)	0 (0.0)	1 (2.0)	0 (0.0)	3 (6.0)	50 (100.0)
계	2,122 (59.5)	1,168 (32.8)	83 (2.3)	86 (2.4)	44 (1.2)	62 (1.7)	3,565 (100.0)

5.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현황에서는 방송대 재학생들의 ‘학업스타일, 평소 및 시험기간의 학습시간, 학습동아리 참여 여부 및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학업스타일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학업스타일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17]과 같다.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하는 비율이 61.7%로 가장 높고,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20.8%, ‘일별, 주별 또는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13.1%, ‘공부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3.6%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학습한다’ 비율이 66.2%에서 61.7%로 4.5% 감소했고,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가 17.3%에서 20.8%로 3.5% 증가하면서, 재학생들의 학업스타일이 시간 분산형 학습보다는 시간 집중형 학습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17] 학업스타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학업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33>과 같다.

<표 IV-33> 학업스타일(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일별, 주별, 또는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학습한다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공부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181 (14.3)	849 (67.0)	185 (14.6)	43 (3.4)	10 (0.8)	1,268 (100.0)	
	여자	285 (12.4)	1,352 (58.9)	556 (24.2)	86 (3.7)	18 (0.8)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173 (12.8)	844 (62.7)	263 (19.5)	53 (3.9)	14 (1.0)	1,347 (100.0)	
	편 입 생	2학 년	79 (18.8)	248 (58.9)	76 (18.1)	14 (3.3)	4 (1.0)	421 (100.0)
		3학 년	214 (11.9)	1,109 (61.7)	402 (22.4)	62 (3.5)	10 (0.6)	1,797 (100.0)
연 령 대	10대	3 (30.0)	4 (40.0)	2 (20.0)	0 (0.0)	1 (10.0)	10 (100.0)	
	20대	58 (11.5)	202 (40.1)	204 (40.5)	37 (7.3)	3 (0.6)	504 (100.0)	
	30대	91 (11.6)	419 (53.6)	228 (29.2)	41 (5.2)	3 (0.4)	782 (100.0)	
	40대	109 (11.6)	611 (65.1)	182 (19.4)	29 (3.1)	8 (0.9)	939 (100.0)	
	50대	105 (13.2)	572 (72.1)	94 (11.9)	13 (1.6)	9 (1.1)	793 (100.0)	
	60대	83 (17.5)	347 (73.4)	30 (6.3)	9 (1.9)	4 (0.8)	473 (100.0)	
	70대 이상	17 (26.6)	46 (71.9)	1 (1.6)	0 (0.0)	0 (0.0)	64 (100.0)	
계		466 (13.1)	2,201 (61.7)	741 (20.8)	129 (3.6)	28 (0.8)	3,565 (100.0)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스타일에 남녀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한다’가 67.0%로 여성 58.9%보다 8.1%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비율이 24.2%로 남성 14.6%보다 약 9.6% 높게 나타났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한다’는 비율은 62.7%로 전체보다 높았다. 3학년 편입생은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는 비율이 22.4%로 1학년 신입생과 2학년 편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시험기간에만 학습’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감소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험기간에만 학습하는 경향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소에도 꾸준히 학습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습스타일’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34>와 같다.

<표 IV-34> 학습스타일(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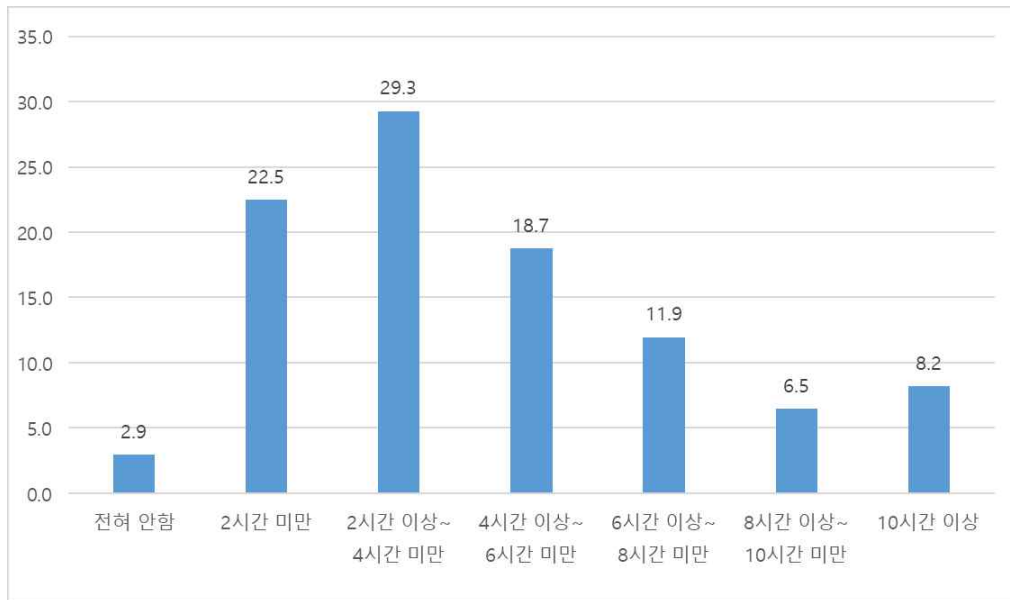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계획을 세워서	시간이 나는대로	시험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시간 거의 없음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16 (12.9)	88 (71.0)	11 (8.9)	8 (6.5)	1 (0.8)	124 (100.0)
영어영문학과	41 (18.4)	144 (64.6)	32 (14.3)	3 (1.3)	3 (1.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8 (18.4)	112 (73.7)	9 (5.9)	2 (1.3)	1 (0.7)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3 (8.8)	22 (64.7)	6 (17.6)	2 (5.9)	1 (2.9)	34 (100.0)
일본학과	23 (18.4)	79 (63.2)	21 (16.8)	2 (1.6)	0 (0.0)	125 (100.0)
법학과	28 (13.0)	139 (64.7)	36 (16.7)	10 (4.7)	2 (0.9)	215 (100.0)
행정학과	5 (9.8)	27 (52.9)	16 (31.4)	3 (5.9)	0 (0.0)	51 (100.0)
경제학과	10 (18.5)	32 (59.3)	10 (18.5)	1 (1.9)	1 (1.9)	54 (100.0)
경영학과	21 (10.0)	113 (53.8)	61 (29.0)	14 (6.7)	1 (0.5)	210 (100.0)
무역학과	1 (4.0)	14 (56.0)	10 (40.0)	0 (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1 (10.8)	54 (52.9)	32 (31.4)	3 (2.9)	2 (2.0)	102 (100.0)
관광학과	8 (13.1)	40 (65.6)	11 (18.0)	1 (1.6)	1 (1.6)	61 (100.0)
사회복지학과	47 (11.6)	252 (62.2)	92 (22.7)	11 (2.7)	3 (0.7)	405 (100.0)
농학과	26 (10.9)	166 (69.5)	41 (17.2)	6 (2.5)	0 (0.0)	239 (100.0)
생활과학과	45 (17.0)	159 (60.0)	53 (20.0)	8 (3.0)	0 (0.0)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9 (12.3)	120 (50.8)	73 (30.9)	13 (5.5)	1 (0.4)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6 (5.7)	69 (65.1)	26 (24.5)	5 (4.7)	0 (0.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14 (13.3)	62 (59.0)	22 (21.0)	6 (5.7)	1 (1.0)	105 (100.0)
간호학과	2 (2.6)	51 (67.1)	20 (26.3)	3 (3.9)	0 (0.0)	76 (100.0)
교육학과	31 (16.8)	117 (63.6)	27 (14.7)	4 (2.2)	5 (2.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0 (12.6)	99 (62.3)	31 (19.5)	8 (5.0)	1 (0.6)	159 (100.0)
유아교육과	27 (11.7)	116 (50.2)	75 (32.5)	11 (4.8)	2 (0.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7 (12.8)	94 (70.7)	19 (14.3)	3 (2.3)	0 (0.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7 (14.0)	32 (64.0)	7 (14.0)	2 (4.0)	2 (4.0)	50 (100.0)
계	466 (13.1)	2,201 (61.7)	741 (20.8)	129 (3.6)	28 (0.8)	3,565 (100.0)

2) 학습시간

재학생들의 학습시간을 ‘평소 학습시간’과 ‘시험기간 학습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평소 일주일 동안의 평균 학습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 [그림 IV-18]과 같다. 1순위는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며 29.3%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2시간 미만’ 22.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8.7%,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1.9%, ‘10시간 이상’ 8.2%,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공부를 전혀 안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그림 IV-18]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에 따라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V-35>와 같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남성 비율은 17.6%로, 여성 25.2%보다 7.6% 낮았다. 남성은 6시간 이상으로 공부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평소 학습 시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3학년 편입생은 ‘2시간 미만’ 학습하는 비율이 24.2%로 가장 높았다. 평소 학습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30대 학생은 ‘2시간 미만’으로 학습하는 비율이 각각 30.4% 28.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은 ‘4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고, 특히 60-70대는 ‘10시간 이상’ 학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욱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IV-35>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안함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전체	
성별	남자	19 (1.5)	223 (17.6)	349 (27.5)	237 (18.7)	178 (14.0)	105 (8.3)	157 (12.4)	1,268 (100.0)	
	여자	86 (3.7)	578 (25.2)	694 (30.2)	431 (18.8)	248 (10.8)	125 (5.4)	135 (5.9)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46 (3.4)	274 (20.3)	381 (28.3)	235 (17.4)	160 (11.9)	107 (7.9)	144 (10.7)	1,347 (100.0)	
	편입생	2학년	12 (2.9)	92 (21.9)	119 (28.3)	93 (22.1)	49 (11.6)	25 (5.9)	31 (7.4)	421 (100.0)
		3학년	47 (2.6)	435 (24.2)	543 (30.2)	340 (18.9)	217 (12.1)	98 (5.5)	117 (6.5)	1,797 (100.0)
연령대	10대	0 (0.0)	1 (10.0)	4 (40.0)	0 (0.0)	0 (0.0)	2 (20.0)	3 (30.0)	10 (100.0)	
	20대	35 (6.9)	153 (30.4)	150 (29.8)	73 (14.5)	48 (9.5)	18 (3.6)	27 (5.4)	504 (100.0)	
	30대	39 (5.0)	226 (28.9)	273 (34.9)	128 (16.4)	59 (7.5)	27 (3.5)	30 (3.8)	782 (100.0)	
	40대	24 (2.6)	236 (25.1)	286 (30.5)	199 (21.2)	102 (10.9)	43 (4.6)	49 (5.2)	939 (100.0)	
	50대	5 (0.6)	135 (17.0)	206 (26.0)	171 (21.6)	121 (15.3)	75 (9.5)	80 (10.1)	793 (100.0)	
	60대	2 (0.4)	48 (10.1)	104 (22.0)	88 (18.6)	84 (17.8)	54 (11.4)	93 (19.7)	473 (100.0)	

	70대 이상	0 (0.0)	2 (3.1)	20 (31.3)	9 (14.1)	12 (18.8)	11 (17.2)	10 (15.6)	64 (100.0)
계		105 (2.9)	801 (22.5)	1,043 (29.3)	668 (18.7)	426 (11.9)	230 (6.5)	292 (8.2)	3,565 (100.0)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36>과 같다.

<표 IV-36>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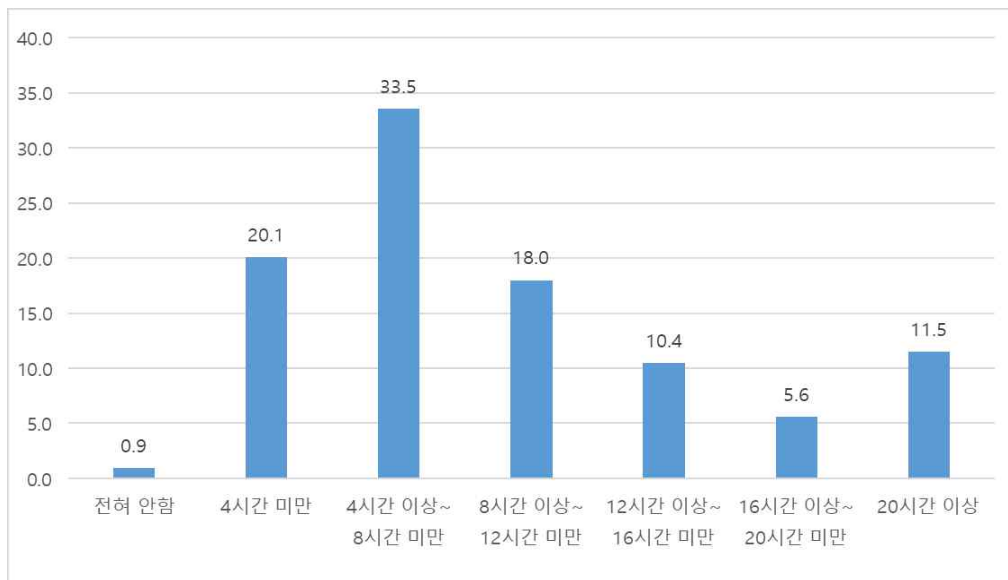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혀 안함	2시간 미만	2시간 ~4시간	4시간 ~6시간	6시간 ~8시간	8시간 ~10시간	10시간 이상	전체
국어국문학과	2 (1.6)	17 (13.7)	34 (27.4)	20 (16.1)	25 (20.2)	10 (8.1)	16 (12.9)	124 (100.0)
영어영문학과	7 (3.1)	38 (17.0)	48 (21.5)	53 (23.8)	39 (17.5)	14 (6.3)	24 (10.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 (1.3)	16 (10.5)	31 (20.4)	34 (22.4)	25 (16.4)	13 (8.6)	31 (20.4)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3 (8.8)	4 (11.8)	7 (20.6)	11 (32.4)	6 (17.6)	1 (2.9)	2 (5.9)	34 (100.0)
일본학과	1 (0.8)	26 (20.8)	31 (24.8)	25 (20.0)	17 (13.6)	7 (5.6)	18 (14.4)	125 (100.0)
법학과	8 (3.7)	36 (16.7)	67 (31.2)	39 (18.1)	29 (13.5)	17 (7.9)	19 (8.8)	215 (100.0)
행정학과	2 (3.9)	16 (31.4)	15 (29.4)	5 (9.8)	7 (13.7)	2 (3.9)	4 (7.8)	51 (100.0)
경제학과	0 (0.0)	8 (14.8)	17 (31.5)	8 (14.8)	10 (18.5)	2 (3.7)	9 (16.7)	54 (100.0)
경영학과	5 (2.4)	53 (25.2)	79 (37.6)	27 (12.9)	23 (11.0)	12 (5.7)	11 (5.2)	210 (100.0)
무역학과	1 (4.0)	6 (24.0)	9 (36.0)	5 (20.0)	1 (4.0)	0 (0.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3 (2.9)	25 (24.5)	44 (43.1)	11 (10.8)	12 (11.8)	5 (4.9)	2 (2.0)	102 (100.0)
관광학과	1 (1.6)	12 (19.7)	15 (24.6)	13 (21.3)	8 (13.1)	7 (11.5)	5 (8.2)	61 (100.0)
사회복지학과	13 (3.2)	94 (23.2)	122 (30.1)	81 (20.0)	40 (9.9)	29 (7.2)	26 (6.4)	405 (100.0)
농학과	2 (0.8)	46 (19.2)	72 (30.1)	53 (22.2)	24 (10.0)	18 (7.5)	24 (10.0)	239 (100.0)
생활과학과	6 (2.3)	67 (25.3)	85 (32.1)	49 (18.5)	26 (9.8)	16 (6.0)	16 (6.0)	265 (100.0)
컴퓨터학과	11 (4.7)	56 (23.7)	74 (31.4)	51 (21.6)	25 (10.6)	11 (4.7)	8 (3.4)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3 (2.8)	26 (24.5)	34 (32.1)	15 (14.2)	13 (12.3)	7 (6.6)	8 (7.5)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 (1.9)	34 (32.4)	27 (25.7)	17 (16.2)	14 (13.3)	5 (4.8)	6 (5.7)	105 (100.0)
간호학과	4	29	19	14	7	3	0	76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5.3)	(38.2)	(25.0)	(18.4)	(9.2)	(3.9)	(0.0)	(100.0)
교육학과	2 (1.1)	37 (20.1)	58 (31.5)	35 (19.0)	28 (15.2)	10 (5.4)	14 (7.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9 (5.7)	28 (17.6)	44 (27.7)	36 (22.6)	17 (10.7)	12 (7.5)	13 (8.2)	159 (100.0)
유아교육과	16 (6.9)	88 (38.1)	66 (28.6)	30 (13.0)	12 (5.2)	6 (2.6)	13 (5.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 (1.5)	25 (18.8)	35 (26.3)	25 (18.8)	13 (9.8)	18 (13.5)	15 (11.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0 (0.0)	14 (28.0)	10 (20.0)	11 (22.0)	5 (10.0)	5 (10.0)	5 (10.0)	50 (100.0)
계	105 (2.9)	801 (22.5)	1,043 (29.3)	668 (18.7)	426 (11.9)	230 (6.5)	292 (8.2)	3,565 (100.0)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관련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학습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4시간 미만’ 20.1%,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8.0%, ‘20시간 이상’ 11.5%, ‘12시간 이상~16시간 미만’ 10.4%, ‘16시간 이상~20시간 미만’ 5.6% 순이었다. ‘전혀 안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0.9%였다. 앞서 살펴본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에 비해 시험기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학습하는데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업스타일’ 분석결과([그림 IV-19])에서, 전체의 약 20.8% 학생들이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고 응답한 것과 일관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림 IV-19]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IV-37>과 같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에 있어 남성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학습하는 비율이 30.0%로 여성 35.5%보다 낮았고, ‘20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로 여성 9.8%보다 높았다. 여성은 ‘8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소 학습시간과 마찬가지로 시험기간 동안에도 남성의 학습시간이 여성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안함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성 별	남자	10 (0.8)	238 (18.8)	380 (30.0)	245 (19.3)	138 (10.9)	73 (5.8)	184 (14.5)	1,268 (100.0)	
	여자	23 (1.0)	478 (20.8)	816 (35.5)	396 (17.2)	234 (10.2)	125 (5.4)	225 (9.8)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19 (1.4)	277 (20.6)	443 (32.9)	232 (17.2)	139 (10.3)	72 (5.3)	165 (12.2)	1,347 (100.0)	
	편 입 생	2학 년	4 (1.0)	75 (17.8)	140 (33.3)	89 (21.1)	46 (10.9)	22 (5.2)	45 (10.7)	421 (100.0)
		3학 년	10 (0.6)	364 (20.3)	613 (34.1)	320 (17.8)	187 (10.4)	104 (5.8)	199 (11.1)	1,797 (100.0)
연 령 대	10대	1 (10.0)	2 (20.0)	3 (30.0)	0 (0.0)	0 (0.0)	1 (10.0)	3 (30.0)	10 (100.0)	
	20대	10 (2.0)	115 (22.8)	182 (36.1)	94 (18.7)	44 (8.7)	19 (3.8)	40 (7.9)	504 (100.0)	
	30대	11 (1.4)	158 (20.2)	324 (41.4)	132 (16.9)	64 (8.2)	36 (4.6)	57 (7.3)	782 (100.0)	
	40대	6 (0.6)	214 (22.8)	313 (33.3)	163 (17.4)	99 (10.5)	46 (4.9)	98 (10.4)	939 (100.0)	
	50대	2 (0.3)	144 (18.2)	240 (30.3)	151 (19.0)	87 (11.0)	52 (6.6)	117 (14.8)	793 (100.0)	
	60대	3 (0.6)	75 (15.9)	115 (24.3)	84 (17.8)	66 (14.0)	40 (8.5)	90 (19.0)	473 (100.0)	
	70대 이상	0 (0.0)	8 (12.5)	19 (29.7)	17 (26.6)	12 (18.8)	4 (6.3)	4 (6.3)	64 (100.0)	
계		33 (0.9)	716 (20.1)	1,196 (33.5)	641 (18.0)	372 (10.4)	198 (5.6)	409 (11.5)	3,565 (100.0)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1학년 신입생은 ‘2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2.2%로, 2학년 편입생 10.7%와 3학년 편입생 11.1% 보다 높았다.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의 학습 시간에 대해 3학년 편입생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학년 편입생 33.3%, 1학년 신입생 3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20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비율은 60대에서 19.0%, 50대에서 14.8%로 가장 높았다. 20-40대는 8시간 미만으로 학습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나, 앞서 <표 IV-37>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험기간 동안의 평균 학습 시간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38>과 같다.

<표 IV-38>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 시간(학과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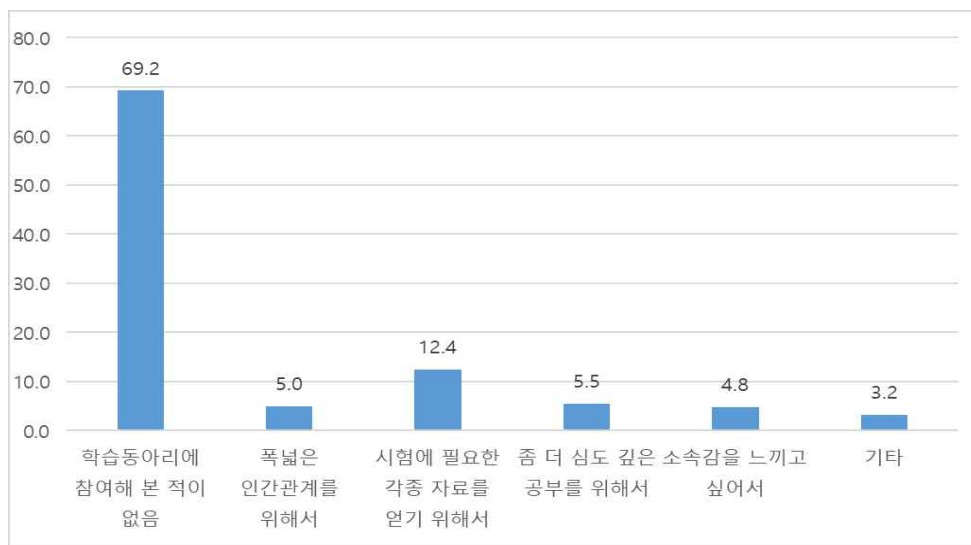
구분	전혀 안함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6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전체
국어국문학과	0 (0.0)	24 (19.4)	37 (29.8)	20 (16.1)	18 (14.5)	8 (6.5)	17 (13.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5 (2.2)	32 (14.3)	74 (33.2)	45 (20.2)	27 (12.1)	17 (7.6)	23 (10.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 (1.3)	20 (13.2)	40 (26.3)	30 (19.7)	18 (11.8)	14 (9.2)	28 (18.4)	152 (100.0)
프랑스언어문 화학과	1 (2.9)	3 (8.8)	12 (35.3)	9 (26.5)	1 (2.9)	3 (8.8)	5 (14.7)	34 (100.0)
일본학과	0 (0.0)	24 (19.2)	37 (29.6)	25 (20.0)	14 (11.2)	8 (6.4)	17 (13.6)	125 (100.0)
법학과	2 (0.9)	42 (19.5)	64 (29.8)	54 (25.1)	22 (10.2)	8 (3.7)	23 (10.7)	215 (100.0)
행정학과	0 (0.0)	11 (21.6)	21 (41.2)	6 (11.8)	5 (9.8)	2 (3.9)	6 (11.8)	51 (100.0)
경제학과	0 (0.0)	5 (9.3)	20 (37.0)	10 (18.5)	4 (7.4)	7 (13.0)	8 (14.8)	54 (100.0)
경영학과	4 (1.9)	45 (21.4)	78 (37.1)	42 (20.0)	17 (8.1)	5 (2.4)	19 (9.0)	210 (100.0)
무역학과	0 (0.0)	7 (28.0)	9 (36.0)	6 (24.0)	2 (8.0)	0 (0.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학 과	0 (0.0)	32 (31.4)	34 (33.3)	17 (16.7)	5 (4.9)	8 (7.8)	6 (5.9)	102 (100.0)

IV. 학습활동

관광학과	0 (0.0)	10 (16.4)	22 (36.1)	10 (16.4)	10 (16.4)	5 (8.2)	4 (6.6)	61 (100.0)
사회복지학과	0 (0.0)	85 (21.0)	128 (31.6)	66 (16.3)	48 (11.9)	26 (6.4)	52 (12.8)	405 (100.0)
농학과	0 (0.0)	46 (19.2)	84 (35.1)	40 (16.7)	25 (10.5)	10 (4.2)	34 (14.2)	239 (100.0)
생활과학과	1 (0.4)	63 (23.8)	89 (33.6)	42 (15.8)	24 (9.1)	14 (5.3)	32 (12.1)	265 (100.0)
컴퓨터과학과	3 (1.3)	44 (18.6)	82 (34.7)	48 (20.3)	24 (10.2)	9 (3.8)	26 (11.0)	236 (100.0)
통계·데이터 과학과	2 (1.9)	13 (12.3)	35 (33.0)	16 (15.1)	18 (17.0)	5 (4.7)	17 (16.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1 (1.0)	30 (28.6)	30 (28.6)	17 (16.2)	11 (10.5)	3 (2.9)	13 (12.4)	105 (100.0)
간호학과	3 (3.9)	21 (27.6)	31 (40.8)	8 (10.5)	6 (7.9)	2 (2.6)	5 (6.6)	76 (100.0)
교육학과	1 (0.5)	34 (18.5)	75 (40.8)	28 (15.2)	17 (9.2)	14 (7.6)	15 (8.2)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 (1.3)	29 (18.2)	54 (34.0)	32 (20.1)	16 (10.1)	8 (5.0)	18 (11.3)	159 (100.0)
유아교육과	5 (2.2)	55 (23.8)	87 (37.7)	36 (15.6)	20 (8.7)	11 (4.8)	17 (7.4)	231 (100.0)
문화교양학과	0 (0.0)	30 (22.6)	38 (28.6)	19 (14.3)	20 (15.0)	10 (7.5)	16 (12.0)	133 (100.0)
생활체육지도 과	1 (2.0)	11 (22.0)	15 (30.0)	15 (30.0)	0 (0.0)	1 (2.0)	7 (14.0)	50 (100.0)
계	33 (0.9)	716 (20.1)	1,196 (33.5)	641 (18.0)	372 (10.4)	198 (5.6)	409 (11.5)	3,565 (100.0)

3)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20]과 같다.



[그림 IV-20]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학습동아리에 참여한 이유는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가 12.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위해서’ 5.5%,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5.0%,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4.8%, ‘기타’ 3.2%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이 전년 동월(65.0%)에 비해 4.2% 증가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IV-39>와 같다.

<표 IV-39>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학습동아리에 참여해 본 적 이 없	폭넓은 인간관계 를 위 해 서	시험에 각종 필요한 자료 를 얻 기 위 해 서	좀 더 심 도 깊 은 공 부 를 위 해 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 어 서	기타	전체	
성 별	남자	891 (70.3)	88 (6.9)	131 (10.3)	75 (5.9)	49 (3.9)	34 (2.7)	1,268 (100.0)	
	여자	1,575 (68.6)	89 (3.9)	312 (13.6)	120 (5.2)	121 (5.3)	80 (3.5)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864 (64.1)	89 (6.6)	181 (13.4)	85 (6.3)	88 (6.5)	40 (3.0)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303 (72.0)	16 (3.8)	47 (11.2)	28 (6.7)	16 (3.8)	11 (2.6)	421 (100.0)
		3 학년	1,299 (72.3)	72 (4.0)	215 (12.0)	82 (4.6)	66 (3.7)	63 (3.5)	1,797 (100.0)
연 령 대	10대	9 (9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0 (100.0)	
	20대	407 (80.8)	17 (3.4)	50 (9.9)	15 (3.0)	10 (2.0)	5 (1.0)	504 (100.0)	
	30대	612 (78.3)	13 (1.7)	90 (11.5)	25 (3.2)	15 (1.9)	27 (3.5)	782 (100.0)	
	40대	650 (69.2)	39 (4.2)	111 (11.8)	55 (5.9)	46 (4.9)	38 (4.0)	939 (100.0)	
	50대	482 (60.8)	55 (6.9)	114 (14.4)	52 (6.6)	60 (7.6)	30 (3.8)	793 (100.0)	
	60대	273 (57.7)	47 (9.9)	67 (14.2)	39 (8.2)	35 (7.4)	12 (2.5)	473 (100.0)	
	70대 이상	33 (51.6)	6 (9.4)	11 (17.2)	9 (14.1)	4 (6.3)	1 (1.6)	64 (100.0)	
계	2,466 (69.2)	177 (5.0)	443 (12.4)	195 (5.5)	170 (4.8)	114 (3.2)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습동아리 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이 70.3%이며, 여성 68.6% 보다 높았다.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에서 남성은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위해서(5.9%)’,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6.9%)’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고, 여성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13.6%)’,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5.3%)’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학년 편입생과 3학년 편입생의 경우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이 신입생보다 높았다. 1학년 신입생의 경우는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

다고 응답한 학생이 64.1%이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편입생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없는데’ 비율이 감소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과 ‘좀 더 심도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40>과 같다.

<표 IV-40>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학과별)

단위: 명, %

구분	학습동아리에 참여해본 적이 없음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시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해서	좀 더 심도깊은 공부를 위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기타	전체
국어국문학과	74 (59.7)	9 (7.3)	15 (12.1)	8 (6.5)	10 (8.1)	8 (6.5)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70 (76.2)	5 (2.2)	16 (7.2)	16 (7.2)	7 (3.1)	9 (4.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08 (71.1)	8 (5.3)	5 (3.3)	21 (13.8)	8 (5.3)	2 (1.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5 (73.5)	0 (0.0)	0 (0.0)	5 (14.7)	2 (5.9)	2 (5.9)	34 (100.0)
일본학과	94 (75.2)	6 (4.8)	6 (4.8)	7 (5.6)	10 (8.0)	2 (1.6)	125 (100.0)
법학과	164 (76.3)	7 (3.3)	19 (8.8)	14 (6.5)	7 (3.3)	4 (1.9)	215 (100.0)
행정학과	36 (70.6)	5 (9.8)	9 (17.6)	0 (0.0)	0 (0.0)	1 (2.0)	51 (100.0)
경제학과	32 (59.3)	4 (7.4)	10 (18.5)	1 (1.9)	3 (5.6)	4 (7.4)	54 (100.0)
경영학과	148 (70.5)	7 (3.3)	36 (17.1)	7 (3.3)	7 (3.3)	5 (2.4)	210 (100.0)
무역학과	21 (84.0)	0 (0.0)	2 (8.0)	0 (0.0)	0 (0.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76 (74.5)	5 (4.9)	5 (4.9)	10 (9.8)	2 (2.0)	4 (3.9)	102 (100.0)
관광학과	41 (67.2)	5 (8.2)	8 (13.1)	0 (0.0)	6 (9.8)	1 (1.6)	61 (100.0)
사회복지학과	257 (63.5)	22 (5.4)	71 (17.5)	18 (4.4)	26 (6.4)	11 (2.7)	405 (100.0)

IV. 학습활동

농학과	150 (62.8)	16 (6.7)	41 (17.2)	15 (6.3)	9 (3.8)	8 (3.3)	239 (100.0)
생활과학과	192 (72.5)	13 (4.9)	24 (9.1)	11 (4.2)	18 (6.8)	7 (2.6)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96 (83.1)	7 (3.0)	20 (8.5)	7 (3.0)	2 (0.8)	4 (1.7)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85 (80.2)	2 (1.9)	8 (7.5)	4 (3.8)	1 (0.9)	6 (5.7)	106 (100.0)
보건환경학과	73 (69.5)	1 (1.0)	23 (21.9)	3 (2.9)	3 (2.9)	2 (1.9)	105 (100.0)
간호학과	57 (75.0)	1 (1.3)	9 (11.8)	2 (2.6)	1 (1.3)	6 (7.9)	76 (100.0)
교육학과	107 (58.2)	16 (8.7)	28 (15.2)	15 (8.2)	13 (7.1)	5 (2.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89 (56.0)	8 (5.0)	27 (17.0)	11 (6.9)	17 (10.7)	7 (4.4)	159 (100.0)
유아교육과	162 (70.1)	11 (4.8)	37 (16.0)	7 (3.0)	8 (3.5)	6 (2.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77 (57.9)	14 (10.5)	18 (13.5)	11 (8.3)	7 (5.3)	6 (4.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2 (64.0)	5 (10.0)	6 (12.0)	2 (4.0)	3 (6.0)	2 (4.0)	50 (100.0)
계	2,466 (69.2)	177 (5.0)	443 (12.4)	195 (5.5)	170 (4.8)	114 (3.2)	3,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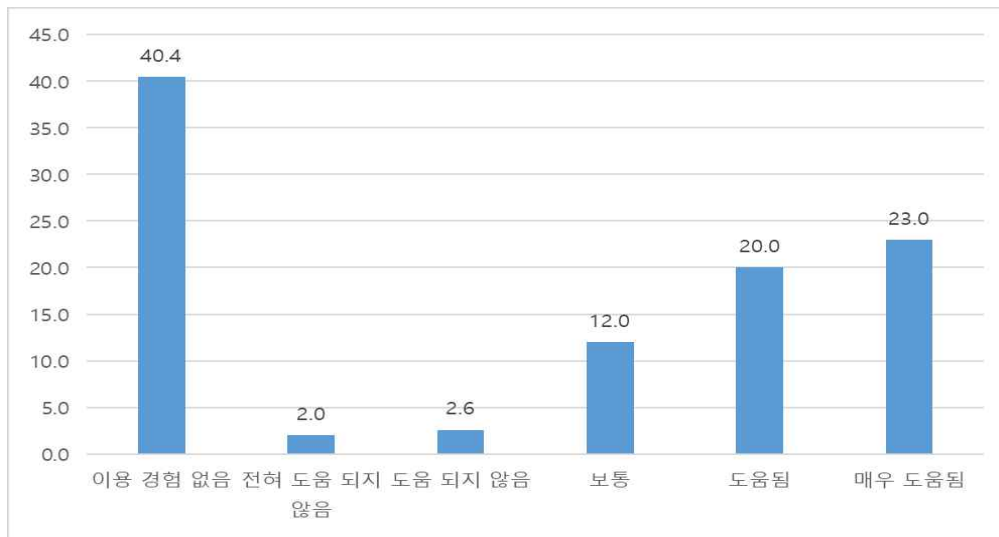
V. 학교생활 적응

이 장에서는 방송대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1) 튜터링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튜터링’ 학생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림 V-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반면, 튜터링 서비스가 ‘매우도움됨’, ‘도움됨’의 응답을 합하면 43.0%이고, ‘보통’은 12.0%로 나타나 튜터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튜터링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동월(38.6%)에 비해 1.8% 증가했으며, 응답 순위는 지난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V-1] 튜터링의 도움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V-1>과 같다.

<표 V-1> 튜터링의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성 별	남자	566 (44.6)	24 (1.9)	34 (2.7)	155 (12.2)	249 (19.6)	240 (18.9)	1,268 (100.0)	
	여자	875 (38.1)	48 (2.1)	59 (2.6)	272 (11.8)	464 (20.2)	579 (25.2)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578 (42.9)	26 (1.9)	33 (2.4)	155 (11.5)	257 (19.1)	298 (22.1)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166 (39.4)	15 (3.6)	11 (2.6)	51 (12.1)	86 (20.4)	92 (21.9)	421 (100.0)
		3 학년	697 (38.8)	31 (1.7)	49 (2.7)	221 (12.3)	370 (20.6)	429 (23.9)	1,797 (100.0)
연 령 대	10대	3 (30.0)	0 (0.0)	1 (10.0)	1 (10.0)	1 (10.0)	4 (40.0)	10 (100.0)	
	20대	220 (43.7)	10 (2.0)	13 (2.6)	68 (13.5)	94 (18.7)	99 (19.6)	504 (100.0)	
	30대	340 (43.5)	22 (2.8)	23 (2.9)	106 (13.6)	146 (18.7)	145 (18.5)	782 (100.0)	
	40대	372 (39.6)	17 (1.8)	21 (2.2)	99 (10.5)	178 (19.0)	252 (26.8)	939 (100.0)	
	50대	307 (38.7)	14 (1.8)	26 (3.3)	78 (9.8)	182 (23.0)	186 (23.5)	793 (100.0)	
	60대	175 (37.0)	9 (1.9)	9 (1.9)	66 (14.0)	96 (20.3)	118 (24.9)	473 (100.0)	
	70대 이상	24 (37.5)	0 (0.0)	0 (0.0)	9 (14.1)	16 (25.0)	15 (23.4)	64 (100.0)	
계	1,441 (40.4)	72 (2.0)	93 (2.6)	427 (12.0)	713 (20.0)	819 (23.0)	3,565 (100.0)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튜터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이 44.6%로 여성 38.1%보다 6.5% 높았다. 튜터링 서비스의 도움 정도에 대해 ‘매우 도움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25.2%, 남성 18.9%로 여성의 만족도가 6.3% 높았다.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의 경우 튜터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42.9%로 2학년 편입생 39.4%와 3학년 편입생 38.8%에 비해 높았다. 튜터링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3학년 편입생들이 ‘매우 도움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23.9%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튜터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음’이 20-30대에서 각각

43.7%, 43.5%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튜터링 서비스가 ‘도움됨’과 ‘매우 도움됨’의 응답 비율은 10대와 4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튜터링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튜터링의 도움 정도(학과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국어국문학과	66 (53.2)	2 (1.6)	2 (1.6)	10 (8.1)	22 (17.7)	22 (17.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83 (37.2)	8 (3.6)	7 (3.1)	19 (8.5)	47 (21.1)	59 (26.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74 (48.7)	2 (1.3)	3 (2.0)	13 (8.6)	32 (21.1)	28 (18.4)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9 (26.5)	0 (0.0)	0 (0.0)	3 (8.8)	5 (14.7)	17 (50.0)	34 (100.0)
일본학과	50 (40.0)	3 (2.4)	3 (2.4)	19 (15.2)	27 (21.6)	23 (18.4)	125 (100.0)
법학과	123 (57.2)	4 (1.9)	5 (2.3)	30 (14.0)	35 (16.3)	18 (8.4)	215 (100.0)
행정학과	22 (43.1)	2 (3.9)	3 (5.9)	0 (0.0)	17 (33.3)	7 (13.7)	51 (100.0)
경제학과	36 (66.7)	1 (1.9)	3 (5.6)	2 (3.7)	6 (11.1)	6 (11.1)	54 (100.0)
경영학과	153 (72.9)	4 (1.9)	5 (2.4)	16 (7.6)	15 (7.1)	17 (8.1)	210 (100.0)
무역학과	14 (56.0)	1 (4.0)	1 (4.0)	4 (16.0)	2 (8.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43 (42.2)	1 (1.0)	4 (3.9)	19 (18.6)	20 (19.6)	15 (14.7)	102 (100.0)
관광학과	28 (45.9)	2 (3.3)	2 (3.3)	8 (13.1)	9 (14.8)	12 (19.7)	61 (100.0)
사회복지학과	110 (27.2)	5 (1.2)	8 (2.0)	42 (10.4)	100 (24.7)	140 (34.6)	405 (100.0)
농학과	72 (30.1)	4 (1.7)	11 (4.6)	44 (18.4)	53 (22.2)	55 (23.0)	239 (100.0)
생활과학과	94 (35.5)	4 (1.5)	5 (1.9)	32 (12.1)	57 (21.5)	73 (27.5)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19 (50.4)	8 (3.4)	7 (3.0)	32 (13.6)	42 (17.8)	28 (11.9)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55 (51.9)	1 (0.9)	2 (1.9)	13 (12.3)	20 (18.9)	15 (14.2)	106 (100.0)
보건환경학과	38 (36.2)	2 (1.9)	1 (1.0)	12 (11.4)	22 (21.0)	30 (28.6)	105 (100.0)

간호학과	26 (34.2)	2 (2.6)	0 (0.0)	9 (11.8)	25 (32.9)	14 (18.4)	76 (100.0)
교육학과	56 (30.4)	4 (2.2)	9 (4.9)	22 (12.0)	39 (21.2)	54 (29.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43 (27.0)	2 (1.3)	3 (1.9)	25 (15.7)	30 (18.9)	56 (35.2)	159 (100.0)
유아교육과	67 (29.0)	8 (3.5)	5 (2.2)	32 (13.9)	43 (18.6)	76 (32.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43 (32.3)	1 (0.8)	3 (2.3)	14 (10.5)	30 (22.6)	42 (31.6)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7 (34.0)	1 (2.0)	1 (2.0)	7 (14.0)	15 (30.0)	9 (18.0)	50 (100.0)
계	1,441 (40.4)	72 (2.0)	93 (2.6)	427 (12.0)	713 (20.0)	819 (23.0)	3,565 (100.0)

2) 멘토링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멘토링’ 학생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 보았다. [그림 V-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1.3%였다.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멘토링 서비스에 대해 ‘도움됨’ 12.4%, ‘보통’ 10.5%, ‘매우 도움됨’ 9.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멘토링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년 동월(63.9%)에 비해 2.6% 감소하였다.



[그림 V-2] 멘토링의 도움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V-3>과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여성이 62.6%, 남성 59.0%로 여성이 3.6% 더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여성 21.2%, 남성 23.7%로 남성이 여성보다 2.5% 더 높았다.

<표 V-3> 멘토링의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성 별	남자	748 (59.0)	32 (2.5)	42 (3.3)	145 (11.4)	169 (13.3)	132 (10.4)	1,268 (100.0)	
	여자	1,439 (62.6)	66 (2.9)	75 (3.3)	231 (10.1)	273 (11.9)	213 (9.3)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834 (61.9)	43 (3.2)	45 (3.3)	119 (8.8)	167 (12.4)	139 (10.3)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253 (60.1)	17 (4.0)	18 (4.3)	50 (11.9)	46 (10.9)	37 (8.8)	421 (100.0)
		3 학년	1,100 (61.2)	38 (2.1)	54 (3.0)	207 (11.5)	229 (12.7)	169 (9.4)	1,797 (100.0)
		계							
연 령 대	10대	7 (70.0)	0 (0.0)	0 (0.0)	1 (10.0)	0 (0.0)	2 (20.0)	10 (100.0)	
	20대	309 (61.3)	14 (2.8)	17 (3.4)	61 (12.1)	53 (10.5)	50 (9.9)	504 (100.0)	
	30대	487 (62.3)	22 (2.8)	28 (3.6)	99 (12.7)	84 (10.7)	62 (7.9)	782 (100.0)	
	40대	569 (60.6)	33 (3.5)	31 (3.3)	87 (9.3)	123 (13.1)	96 (10.2)	939 (100.0)	
	50대	506 (63.8)	15 (1.9)	25 (3.2)	69 (8.7)	98 (12.4)	80 (10.1)	793 (100.0)	
	60대	272 (57.5)	13 (2.7)	15 (3.2)	50 (10.6)	72 (15.2)	51 (10.8)	473 (100.0)	
	70대 이상	37 (57.8)	1 (1.6)	1 (1.6)	9 (14.1)	12 (18.8)	4 (6.3)	64 (100.0)	
계	2,187 (61.3)	98 (2.7)	117 (3.3)	376 (10.5)	442 (12.4)	345 (9.7)	3,565 (100.0)		

입학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1학년 신입생이 61.9%로 가장 높았고 2학년 편입생이 60.1%로 가장 낮았다. 멘토링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학년 신입생이 22.7%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학년 편입생

이 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대, 50대, 30대는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응답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60대와 7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멘토링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4>와 같다.

<표 V-4> 멘토링의 도움 정도(학과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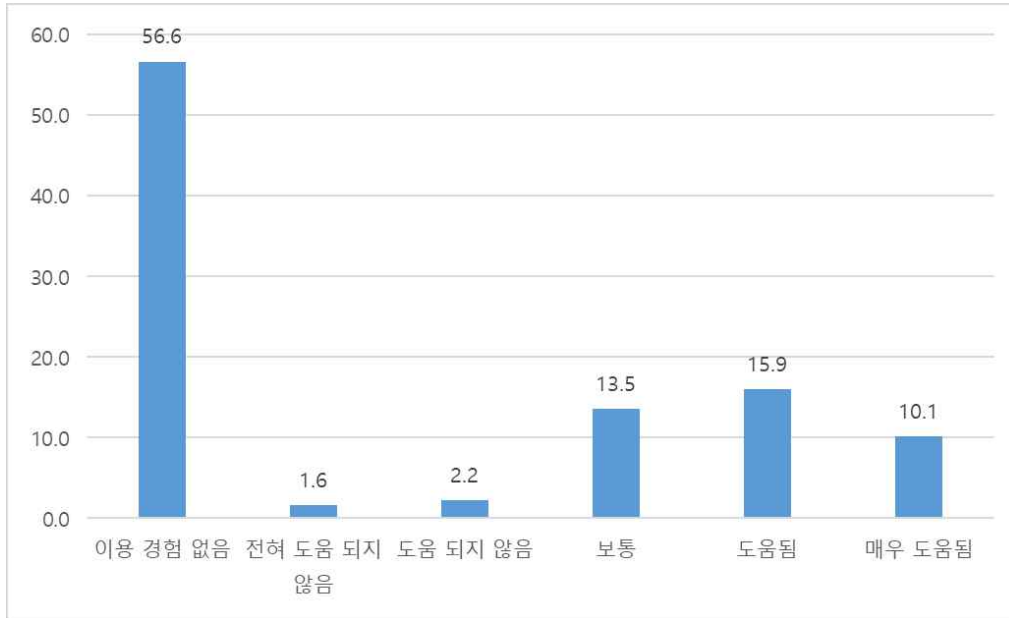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국어국문학과	77 (62.1)	3 (2.4)	2 (1.6)	8 (6.5)	27 (21.8)	7 (5.6)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47 (65.9)	7 (3.1)	7 (3.1)	15 (6.7)	24 (10.8)	23 (10.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95 (62.5)	5 (3.3)	4 (2.6)	13 (8.6)	21 (13.8)	14 (9.2)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6 (76.5)	0 (0.0)	0 (0.0)	2 (5.9)	3 (8.8)	3 (8.8)	34 (100.0)
일본학과	82 (65.6)	5 (4.0)	4 (3.2)	14 (11.2)	9 (7.2)	11 (8.8)	125 (100.0)
법학과	147 (68.4)	7 (3.3)	3 (1.4)	22 (10.2)	26 (12.1)	10 (4.7)	215 (100.0)
행정학과	30 (58.8)	3 (5.9)	2 (3.9)	3 (5.9)	11 (21.6)	2 (3.9)	51 (100.0)
경제학과	32 (59.3)	2 (3.7)	0 (0.0)	7 (13.0)	7 (13.0)	6 (11.1)	54 (100.0)
경영학과	156 (74.3)	3 (1.4)	4 (1.9)	17 (8.1)	17 (8.1)	13 (6.2)	210 (100.0)
무역학과	18 (72.0)	0 (0.0)	1 (4.0)	4 (16.0)	2 (8.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67 (65.7)	0 (0.0)	6 (5.9)	11 (10.8)	15 (14.7)	3 (2.9)	102 (100.0)
관광학과	37 (60.7)	2 (3.3)	2 (3.3)	7 (11.5)	5 (8.2)	8 (13.1)	61 (100.0)
사회복지학과	233 (57.5)	10 (2.5)	12 (3.0)	42 (10.4)	59 (14.6)	49 (12.1)	405 (100.0)
농학과	108 (45.2)	5 (2.1)	10 (4.2)	48 (20.1)	36 (15.1)	32 (13.4)	239 (100.0)
생활과학과	161 (60.8)	11 (4.2)	11 (4.2)	27 (10.2)	29 (10.9)	26 (9.8)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60 (67.8)	7 (3.0)	12 (5.1)	25 (10.6)	20 (8.5)	12 (5.1)	236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통계·데이터과 학과	74 (69.8)	2 (1.9)	5 (4.7)	8 (7.5)	9 (8.5)	8 (7.5)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7 (54.3)	3 (2.9)	4 (3.8)	13 (12.4)	13 (12.4)	15 (14.3)	105 (100.0)
간호학과	44 (57.9)	3 (3.9)	3 (3.9)	7 (9.2)	16 (21.1)	3 (3.9)	76 (100.0)
교육학과	115 (62.5)	4 (2.2)	6 (3.3)	22 (12.0)	19 (10.3)	18 (9.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94 (59.1)	3 (1.9)	3 (1.9)	17 (10.7)	20 (12.6)	22 (13.8)	159 (100.0)
유아교육과	121 (52.4)	11 (4.8)	9 (3.9)	27 (11.7)	30 (13.0)	33 (14.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79 (59.4)	2 (1.5)	5 (3.8)	11 (8.3)	17 (12.8)	19 (14.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27 (54.0)	0 (0.0)	2 (4.0)	6 (12.0)	7 (14.0)	8 (16.0)	50 (100.0)
계	2,187 (61.3)	98 (2.7)	117 (3.3)	376 (10.5)	442 (12.4)	345 (9.7)	3,565 (100.0)

3) 학생콜센터(1577-9995)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학생콜센터’ 학생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림 V-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6.6%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콜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에 대해서, ‘도움됨’이 1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보통’ 13.5%, ‘매우 도움됨’ 10.1%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생콜센터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년 동월(56.5%)에 비해 0.1% 감소하여,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V-3] 학생콜센터의 도움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V-5>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생콜센터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 56.5%, 여성 56.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콜센터 ‘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26.3%로 남성 25.7%보다 0.6%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5>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학생콜센터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 56.5%, 여성 56.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콜센터 ‘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이 26.3%로 남성 25.7%보다 0.6% 높게 나타났다.

<표 V-5>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성별	남자	716 (56.5)	22 (1.7)	33 (2.6)	171 (13.5)	208 (16.4)	118 (9.3)	1,268 (100.0)
	여자	1,302 (56.7)	36 (1.6)	46 (2.0)	310 (13.5)	360 (15.7)	243 (10.6)	2,297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733 (54.4)	22 (1.6)	26 (1.9)	192 (14.3)	224 (16.6)	150 (11.1)	1,347 (100.0)	
	편입생	2학년	239 (56.8)	8 (1.9)	7 (1.7)	57 (13.5)	71 (16.9)	39 (9.3)	421 (100.0)
		3학년	1,046 (58.2)	28 (1.6)	46 (2.6)	232 (12.9)	273 (15.2)	172 (9.6)	1,797 (100.0)
연령대	10대	4 (40.0)	0 (0.0)	0 (0.0)	1 (10.0)	2 (20.0)	3 (30.0)	10 (100.0)	
	20대	334 (66.3)	8 (1.6)	11 (2.2)	70 (13.9)	55 (10.9)	26 (5.2)	504 (100.0)	
	30대	468 (59.8)	11 (1.4)	20 (2.6)	112 (14.3)	111 (14.2)	60 (7.7)	782 (100.0)	
	40대	505 (53.8)	17 (1.8)	24 (2.6)	131 (14.0)	146 (15.5)	116 (12.4)	939 (100.0)	
	50대	438 (55.2)	15 (1.9)	18 (2.3)	87 (11.0)	145 (18.3)	90 (11.3)	793 (100.0)	
	60대	233 (49.3)	6 (1.3)	6 (1.3)	71 (15.0)	96 (20.3)	61 (12.9)	473 (100.0)	
	70대 이상	36 (56.3)	1 (1.6)	0 (0.0)	9 (14.1)	13 (20.3)	5 (7.8)	64 (100.0)	
계	2,018 (56.6)	58 (1.6)	79 (2.2)	481 (13.5)	568 (15.9)	361 (10.1)	3,565 (100.0)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1학년 신입생의 학생콜센터 ‘이용 경험이 없음’ 비율은 54.4%로 가장 낮았고, 3학년 편입생은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이 27.7%로 2학년 편입생 26.2%와 3학년 편입생 2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이용경험이 없음’ 비율은 20대 66.3%, 30대 59.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콜센터 ‘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33.2%로 가장 높았다. 50대-70대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생콜센터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6>과 같다.

<표 V-6> 학생콜센터 도움 정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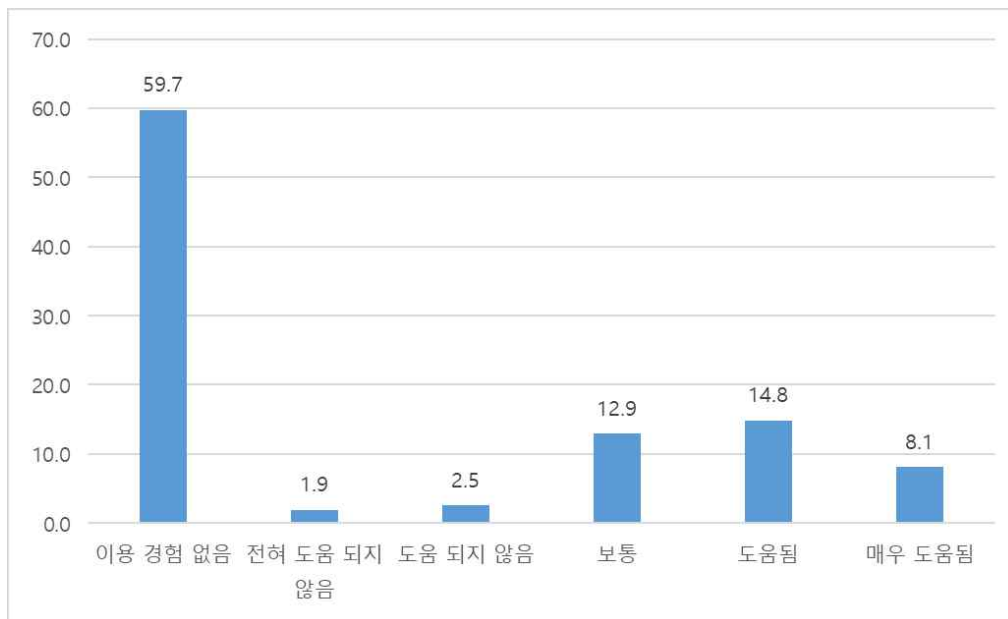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국어국문학과	73 (58.9)	1 (0.8)	1 (0.8)	17 (13.7)	23 (18.5)	9 (7.3)	124 (100.0)

V. 학교생활 적응

영어영문학과	127 (57.0)	5 (2.2)	5 (2.2)	24 (10.8)	34 (15.2)	28 (12.6)	223 (100.0)
중어중문학과	98 (64.5)	2 (1.3)	2 (1.3)	13 (8.6)	26 (17.1)	11 (7.2)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7 (79.4)	0 (0.0)	0 (0.0)	2 (5.9)	2 (5.9)	3 (8.8)	34 (100.0)
일본학과	75 (60.0)	0 (0.0)	6 (4.8)	17 (13.6)	17 (13.6)	10 (8.0)	125 (100.0)
법학과	111 (51.6)	4 (1.9)	4 (1.9)	23 (10.7)	43 (20.0)	30 (14.0)	215 (100.0)
행정학과	25 (49.0)	2 (3.9)	0 (0.0)	8 (15.7)	14 (27.5)	2 (3.9)	51 (100.0)
경제학과	29 (53.7)	0 (0.0)	0 (0.0)	10 (18.5)	9 (16.7)	6 (11.1)	54 (100.0)
경영학과	129 (61.4)	6 (2.9)	2 (1.0)	25 (11.9)	31 (14.8)	17 (8.1)	210 (100.0)
무역학과	16 (64.0)	0 (0.0)	1 (4.0)	4 (16.0)	3 (12.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59 (57.8)	2 (2.0)	2 (2.0)	14 (13.7)	17 (16.7)	8 (7.8)	102 (100.0)
관광학과	33 (54.1)	1 (1.6)	2 (3.3)	10 (16.4)	8 (13.1)	7 (11.5)	61 (100.0)
사회복지학과	221 (54.6)	4 (1.0)	10 (2.5)	52 (12.8)	77 (19.0)	41 (10.1)	405 (100.0)
농학과	113 (47.3)	3 (1.3)	7 (2.9)	47 (19.7)	38 (15.9)	31 (13.0)	239 (100.0)
생활과학과	142 (53.6)	4 (1.5)	5 (1.9)	43 (16.2)	41 (15.5)	30 (11.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56 (66.1)	1 (0.4)	7 (3.0)	30 (12.7)	25 (10.6)	17 (7.2)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84 (79.2)	0 (0.0)	1 (0.9)	7 (6.6)	10 (9.4)	4 (3.8)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3 (50.5)	1 (1.0)	2 (1.9)	19 (18.1)	14 (13.3)	16 (15.2)	105 (100.0)
간호학과	44 (57.9)	2 (2.6)	1 (1.3)	12 (15.8)	13 (17.1)	4 (5.3)	76 (100.0)
교육학과	102 (55.4)	5 (2.7)	4 (2.2)	28 (15.2)	27 (14.7)	18 (9.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82 (51.6)	3 (1.9)	2 (1.3)	28 (17.6)	25 (15.7)	19 (11.9)	159 (100.0)
유아교육과	121 (52.4)	10 (4.3)	12 (5.2)	28 (12.1)	39 (16.9)	21 (9.1)	231 (100.0)
문화교양학과	66 (49.6)	2 (1.5)	3 (2.3)	13 (9.8)	27 (20.3)	22 (16.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2 (64.0)	0 (0.0)	0 (0.0)	7 (14.0)	5 (10.0)	6 (12.0)	50 (100.0)
계	2,018 (56.6)	58 (1.6)	79 (2.2)	481 (13.5)	568 (15.9)	361 (10.1)	3,565 (100.0)

4)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학생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림 V-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9.7%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도움됨’ 14.8%,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12.9%, ‘매우 도움됨’ 8.1%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년 동월(60.2%)에 비해 0.5% 감소하였다.



[그림 V-4]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7>과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남성 59.9%, 여성 59.6%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여성이 23.4%로 남자 21.9%보다 1.5% 높았다.

<표 V-7>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성 별	남자	760 (59.9)	29 (2.3)	35 (2.8)	166 (13.1)	189 (14.9)	89 (7.0)	1,268 (100.0)	
	여자	1,370 (59.6)	39 (1.7)	55 (2.4)	295 (12.8)	340 (14.8)	198 (8.6)	2,297 (100.0)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801 (59.5)	23 (1.7)	31 (2.3)	185 (13.7)	193 (14.3)	114 (8.5)	1,347 (100.0)	
	편 입 생	2 학년	223 (53.0)	14 (3.3)	8 (1.9)	57 (13.5)	83 (19.7)	36 (8.6)	421 (100.0)
		3 학년	1,106 (61.5)	31 (1.7)	51 (2.8)	219 (12.2)	253 (14.1)	137 (7.6)	1,797 (100.0)
		학 년							
연 령 대	10대	5 (50.0)	0 (0.0)	1 (10.0)	1 (10.0)	1 (10.0)	2 (20.0)	10 (100.0)	
	20대	312 (61.9)	8 (1.6)	13 (2.6)	66 (13.1)	67 (13.3)	38 (7.5)	504 (100.0)	
	30대	456 (58.3)	14 (1.8)	21 (2.7)	110 (14.1)	122 (15.6)	59 (7.5)	782 (100.0)	
	40대	526 (56.0)	25 (2.7)	29 (3.1)	129 (13.7)	136 (14.5)	94 (10.0)	939 (100.0)	
	50대	504 (63.6)	14 (1.8)	19 (2.4)	75 (9.5)	125 (15.8)	56 (7.1)	793 (100.0)	
	60대	283 (59.8)	7 (1.5)	6 (1.3)	70 (14.8)	70 (14.8)	37 (7.8)	473 (100.0)	
	70대 이상	44 (68.8)	0 (0.0)	1 (1.6)	10 (15.6)	8 (12.5)	1 (1.6)	64 (100.0)	
계	2,130 (59.7)	68 (1.9)	90 (2.5)	461 (12.9)	529 (14.8)	287 (8.1)	3,565 (100.0)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3학년 편입생은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61.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1학년 신입생 59.5%, 2학년 편입생 53.0% 순으로 나타났다. 2학년 편입생은 ‘매우 도움됨’은 응답 비율이 8.6%로 다른 입학유형 보다 높은 반면, ‘전혀 도움되지 않음’에 대한 응답 비율도 3.3%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68.8%)과 50대(63.6%), 20대(61.9%)에서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40대에서 24.5%로 가장 높았다.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8>과 같다.

<표 V-8>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 도움 정도(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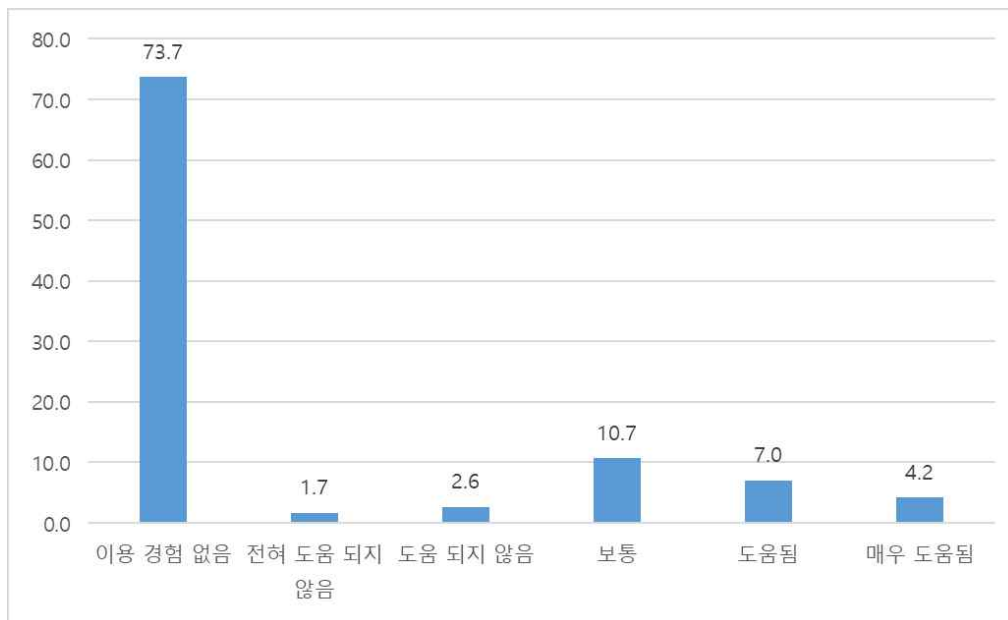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국어국문학과	73 (58.9)	0 (0.0)	3 (2.4)	23 (18.5)	20 (16.1)	5 (4.0)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40 (62.8)	4 (1.8)	6 (2.7)	18 (8.1)	38 (17.0)	17 (7.6)	223 (100.0)
중어중문학과	93 (61.2)	3 (2.0)	3 (2.0)	14 (9.2)	30 (19.7)	9 (5.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0 (58.8)	0 (0.0)	0 (0.0)	2 (5.9)	6 (17.6)	6 (17.6)	34 (100.0)
일본학과	71 (56.8)	2 (1.6)	6 (4.8)	19 (15.2)	18 (14.4)	9 (7.2)	125 (100.0)
법학과	134 (62.3)	8 (3.7)	5 (2.3)	27 (12.6)	27 (12.6)	14 (6.5)	215 (100.0)
행정학과	28 (54.9)	1 (2.0)	2 (3.9)	4 (7.8)	12 (23.5)	4 (7.8)	51 (100.0)
경제학과	33 (61.1)	0 (0.0)	0 (0.0)	7 (13.0)	8 (14.8)	6 (11.1)	54 (100.0)
경영학과	146 (69.5)	2 (1.0)	5 (2.4)	24 (11.4)	18 (8.6)	15 (7.1)	210 (100.0)
무역학과	13 (52.0)	0 (0.0)	1 (4.0)	4 (16.0)	5 (20.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56 (54.9)	1 (1.0)	2 (2.0)	21 (20.6)	15 (14.7)	7 (6.9)	102 (100.0)
관광학과	39 (63.9)	1 (1.6)	1 (1.6)	12 (19.7)	5 (8.2)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246 (60.7)	6 (1.5)	11 (2.7)	42 (10.4)	65 (16.0)	35 (8.6)	405 (100.0)
농학과	135 (56.5)	4 (1.7)	9 (3.8)	40 (16.7)	29 (12.1)	22 (9.2)	239 (100.0)
생활과학과	144 (54.3)	4 (1.5)	4 (1.5)	38 (14.3)	47 (17.7)	28 (10.6)	265 (100.0)
컴퓨터과학과	156 (66.1)	3 (1.3)	5 (2.1)	29 (12.3)	29 (12.3)	14 (5.9)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78 (73.6)	0 (0.0)	2 (1.9)	7 (6.6)	16 (15.1)	3 (2.8)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5 (52.4)	3 (2.9)	1 (1.0)	14 (13.3)	19 (18.1)	13 (12.4)	105 (100.0)
간호학과	44 (57.9)	2 (2.6)	3 (3.9)	14 (18.4)	8 (10.5)	5 (6.6)	76 (100.0)
교육학과	107 (58.2)	5 (2.7)	8 (4.3)	24 (13.0)	29 (15.8)	11 (6.0)	184 (100.0)
청소년교육과	97	3	3	23	18	15	159

	(61.0)	(1.9)	(1.9)	(14.5)	(11.3)	(9.4)	(100.0)
유아교육과	104 (45.0)	13 (5.6)	7 (3.0)	38 (16.5)	42 (18.2)	27 (11.7)	231 (100.0)
문화교양학과	87 (65.4)	3 (2.3)	3 (2.3)	11 (8.3)	16 (12.0)	13 (9.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1 (62.0)	0 (0.0)	0 (0.0)	6 (12.0)	9 (18.0)	4 (8.0)	50 (100.0)
계	2,130 (59.7)	68 (1.9)	90 (2.5)	461 (12.9)	529 (14.8)	287 (8.1)	3,565 (100.0)

5) 진로·심리 상담

방송대 재학생들에게 ‘진로·심리상담’ 학생지원 서비스의 도움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림 V-5]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3.7%로 가장 많았다. 진로·심리상담 서비스의 도움 정도가 ‘보통’이었다는 응답이 10.7%이고, 그다음에 ‘도움됨’ 7.0%, ‘매우 도움됨’ 4.2%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진로·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년 동월(75.5%)에 비해 1.8% 감소하였다.



[그림 V-5]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9>와 같다.

성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여성 74.1%로 남성 73.0%보다 1.1% 높게 나타났다. 진로·심리상담 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여성 11.3%, 남성 11.2%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V-9> 진로 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성별	남자	926 (73.0)	31 (2.4)	32 (2.5)	137 (10.8)	90 (7.1)	52 (4.1)	1,268 (100.0)	
	여자	1,703 (74.1)	29 (1.3)	62 (2.7)	244 (10.6)	161 (7.0)	98 (4.3)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1,013 (75.2)	19 (1.4)	35 (2.6)	134 (9.9)	88 (6.5)	58 (4.3)	1,347 (100.0)	
	편입생	2학년	309 (73.4)	9 (2.1)	8 (1.9)	48 (11.4)	34 (8.1)	13 (3.1)	421 (100.0)
		3학년	1,307 (72.7)	32 (1.8)	51 (2.8)	199 (11.1)	129 (7.2)	79 (4.4)	1,797 (100.0)
연령대	10대	8 (80.0)	0 (0.0)	0 (0.0)	1 (10.0)	0 (0.0)	1 (10.0)	10 (100.0)	
	20대	362 (71.8)	7 (1.4)	13 (2.6)	61 (12.1)	34 (6.7)	27 (5.4)	504 (100.0)	
	30대	564 (72.1)	12 (1.5)	13 (1.7)	95 (12.1)	62 (7.9)	36 (4.6)	782 (100.0)	
	40대	680 (72.4)	18 (1.9)	26 (2.8)	104 (11.1)	70 (7.5)	41 (4.4)	939 (100.0)	
	50대	617 (77.8)	12 (1.5)	27 (3.4)	59 (7.4)	49 (6.2)	29 (3.7)	793 (100.0)	
	60대	348 (73.6)	9 (1.9)	15 (3.2)	53 (11.2)	32 (6.8)	16 (3.4)	473 (100.0)	
	70대 이상	50 (78.1)	2 (3.1)	0 (0.0)	8 (12.5)	4 (6.3)	0 (0.0)	64 (100.0)	
계		2,629 (73.7)	60 (1.7)	94 (2.6)	381 (10.7)	251 (7.0)	150 (4.2)	3,565 (100.0)	

입학유형별 현황을 보면, 진로·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비율은 1학년 신입생 7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학년 편입생 73.4%, 3학년 편입생 7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됨’과 ‘도움됨’의 응답 비율은 3학년 편입생이 11.6%로 가장 높았고, ‘전혀 도움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은 2학년 편입생이 2.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10대와 70대 이상에서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다’

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우 도움됨’과 ‘도움됨’의 응답 비율은 30대와 20대가 각각 12.5%, 1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진로와 취업 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위 취득이나 상급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학습하는 10대와 지적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70대는 진로·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며, 취업과 이직, 승진 등의 경력개발의 목적을 가진 20대와 30대는 서비스에 보다 많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표 V-10>과 같다.

<표 V-10> 진로·심리상담 서비스 도움 정도(학과별)

단위: 명, %

구분	이용 경험 없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전체
국어국문학과	94 (75.8)	1 (0.8)	2 (1.6)	15 (12.1)	8 (6.5)	4 (3.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72 (77.1)	3 (1.3)	6 (2.7)	19 (8.5)	16 (7.2)	7 (3.1)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25 (82.2)	5 (3.3)	2 (1.3)	7 (4.6)	10 (6.6)	3 (2.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9 (85.3)	0 (0.0)	1 (2.9)	2 (5.9)	1 (2.9)	1 (2.9)	34 (100.0)
일본학과	91 (72.8)	2 (1.6)	6 (4.8)	19 (15.2)	4 (3.2)	3 (2.4)	125 (100.0)
법학과	160 (74.4)	4 (1.9)	6 (2.8)	25 (11.6)	9 (4.2)	11 (5.1)	215 (100.0)
행정학과	34 (66.7)	2 (3.9)	1 (2.0)	6 (11.8)	8 (15.7)	0 (0.0)	51 (100.0)
경제학과	39 (72.2)	0 (0.0)	0 (0.0)	4 (7.4)	5 (9.3)	6 (11.1)	54 (100.0)
경영학과	171 (81.4)	2 (1.0)	1 (0.5)	17 (8.1)	12 (5.7)	7 (3.3)	210 (100.0)
무역학과	17 (68.0)	0 (0.0)	1 (4.0)	4 (16.0)	2 (8.0)	1 (4.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73 (71.6)	1 (1.0)	3 (2.9)	17 (16.7)	7 (6.9)	1 (1.0)	102 (100.0)
관광학과	48 (78.7)	1 (1.6)	0 (0.0)	8 (13.1)	2 (3.3)	2 (3.3)	61 (100.0)
사회복지학과	300 (74.1)	6 (1.5)	14 (3.5)	43 (10.6)	32 (7.9)	10 (2.5)	405 (100.0)
농학과	159 (66.5)	7 (2.9)	15 (6.3)	32 (13.4)	14 (5.9)	12 (5.0)	239 (100.0)
생활과학과	190	2	8	36	16	13	265

	(71.7)	(0.8)	(3.0)	(13.6)	(6.0)	(4.9)	(100.0)
컴퓨터과학과	180 (76.3)	3 (1.3)	4 (1.7)	22 (9.3)	18 (7.6)	9 (3.8)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82 (77.4)	1 (0.9)	2 (1.9)	10 (9.4)	6 (5.7)	5 (4.7)	106 (100.0)
보건환경학과	71 (67.6)	2 (1.9)	5 (4.8)	11 (10.5)	8 (7.6)	8 (7.6)	105 (100.0)
간호학과	54 (71.1)	1 (1.3)	2 (2.6)	11 (14.5)	7 (9.2)	1 (1.3)	76 (100.0)
교육학과	129 (70.1)	2 (1.1)	5 (2.7)	20 (10.9)	17 (9.2)	11 (6.0)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11 (69.8)	3 (1.9)	1 (0.6)	15 (9.4)	17 (10.7)	12 (7.5)	159 (100.0)
유아교육과	173 (74.9)	8 (3.5)	5 (2.2)	23 (10.0)	12 (5.2)	10 (4.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91 (68.4)	4 (3.0)	4 (3.0)	10 (7.5)	12 (9.0)	12 (9.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36 (72.0)	0 (0.0)	0 (0.0)	5 (10.0)	8 (16.0)	1 (2.0)	50 (100.0)
계	2,629 (73.7)	60 (1.7)	94 (2.6)	381 (10.7)	251 (7.0)	150 (4.2)	3,565 (100.0)

2.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V-11>과 같다. 평균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과제물 준비하기’가 평균값이 2.59로 가장 낮았고, 그다음이 ‘기말시험 준비하기’ 2.60,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2.84, ‘학사일정 확인하기’ 2.95, ‘홈페이지 이용하기’ 3.22, ‘학사용어 이해하기’ 3.25, ‘태블릿 PC 사용 출석시험’ 3.62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과제물 준비하기’와 ‘기말시험 준비하기’에 여전히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방송대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성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제와 시험 영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제물 준비하기’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50.1%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첫 학기 과제물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말시험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48.9%,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은 37.5%였다. 또한, 각 영역의 평균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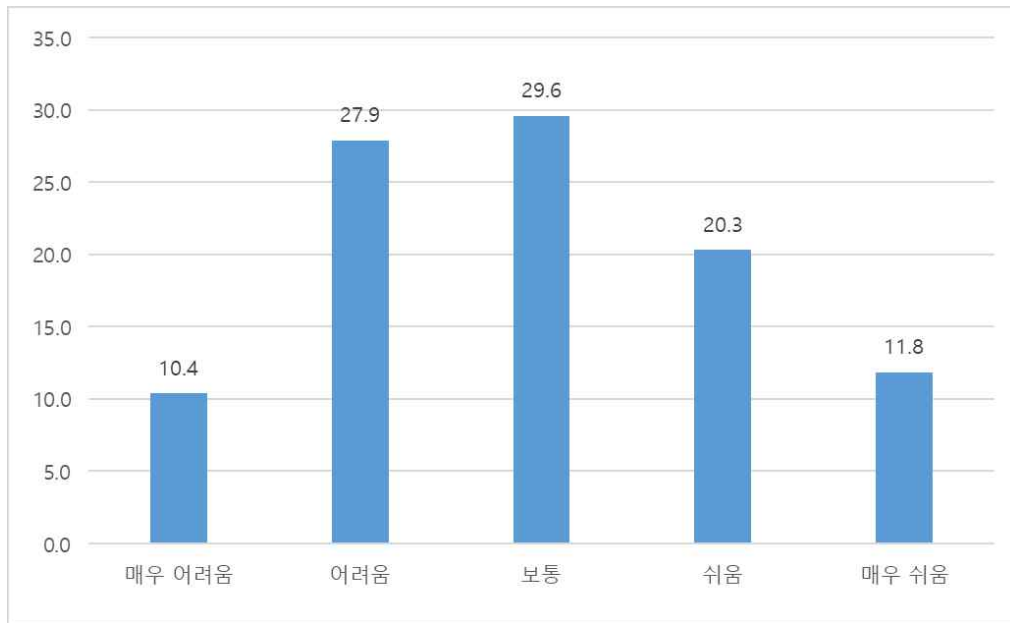
<표 V-11> 방송대 첫 학기 적응에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학사일정 확인하기	370 (10.4)	994 (27.9)	1,055 (29.6)	724 (20.3)	422 (11.8)	3,565 (100.0)	2.95	1.17
학사용어 이해하기	222 (6.2)	710 (19.9)	1,142 (32.0)	950 (26.6)	541 (15.2)	3,565 (100.0)	3.25	1.12
홈페이지 이용하기	224 (6.3)	693 (19.4)	1,222 (34.3)	940 (26.4)	486 (13.6)	3,565 (100.0)	3.22	1.10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391 (11.0)	945 (26.5)	1,337 (37.5)	618 (17.3)	274 (7.7)	3,565 (100.0)	2.84	1.08
과제물 준비하기	591 (16.6)	1,196 (33.5)	1,085 (30.4)	478 (13.4)	215 (6.0)	3,565 (100.0)	2.59	1.10
기말시험 준비하기	592 (16.6)	1,152 (32.3)	1,144 (32.1)	461 (12.9)	216 (6.1)	3,565 (100.0)	2.60	1.09
태블릿PC 사용 출석시험 참석	142 (4.0)	353 (9.9)	1,087 (30.5)	1,117 (31.3)	866 (24.3)	3,565 (100.0)	3.62	1.08

1) 학사일정 확인하기

‘학사일정 확인하기(수강신청, 출석수업, 과제물, 기말시험 일정, 또는 장소 확인 등)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그림 V-6]과 같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어려움’ 27.9%, ‘쉬움’ 20.3%, ‘매우 쉬움’ 11.8% ‘매우 어려움’ 10.4%,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38.3%로 약 3분의 1 이상의 재학생들이 방송대에 입학한 첫 학기에 학사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6] 학사일정 확인하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1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학사일정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35.9%, 여성 39.5%로 남성보다 여성이 3.6%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학사일정 확인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 값
성별	남자	117 (9.2)	339 (26.7)	393 (31.0)	268 (21.1)	151 (11.9)	1,268 (100.0)	3.00	1.67
	여자	253 (11.0)	655 (28.5)	662 (28.8)	456 (19.9)	271 (11.8)	2,297 (100.0)	2.93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172 (12.8)	357 (26.5)	388 (28.8)	258 (19.2)	172 (12.8)	1,347 (100.0)	2.93	1.59
	편입생 2학년	29 (6.9)	114 (27.1)	139 (33.0)	88 (20.9)	51 (12.1)	421 (100.0)	3.04	

	3학년	169 (9.4)	523 (29.1)	528 (29.4)	378 (21.0)	199 (11.1)	1,797 (100.0)	2.95	1.15	
연령대	10대	1 (10.0)	4 (40.0)	1 (10.0)	3 (30.0)	1 (10.0)	10 (100.0)	2.90	1.29	2.86**
	20대	59 (11.7)	153 (30.4)	121 (24.0)	96 (19.0)	75 (14.9)	504 (100.0)	2.95	1.25	
	30대	95 (12.1)	250 (32.0)	221 (28.3)	138 (17.6)	78 (10.0)	782 (100.0)	2.81	1.16	
	40대	69 (7.3)	271 (28.9)	297 (31.6)	191 (20.3)	111 (11.8)	939 (100.0)	3.00	1.12	
	50대	86 (10.8)	177 (22.3)	251 (31.7)	183 (23.1)	96 (12.1)	793 (100.0)	3.03	1.17	
	60대	53 (11.2)	124 (26.2)	144 (30.4)	101 (21.4)	51 (10.8)	473 (100.0)	2.94	1.16	
	70대 이상	7 (10.9)	15 (23.4)	20 (31.3)	12 (18.8)	10 (15.6)	64 (100.0)	3.05	1.23	
계	370 (10.4)	994 (27.9)	1,055 (29.6)	724 (20.3)	422 (11.8)	3,565 (100.0)	2.95	1.17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한 첫 학기에 학사일정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 39.3%, 3학년 편입생 38.5%, 2학년 편입생 34.0%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30대에서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학사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보다 높았다. 50대에서는 전체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우리 대학에서 배포하는 KNOU 위클리나 공지사항 게시판의 공지를 더 꼼꼼히 챙기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에서 학사일정 확인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사일정 확인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13>과 같다.

<표 V-13> 학사일정 확인하기(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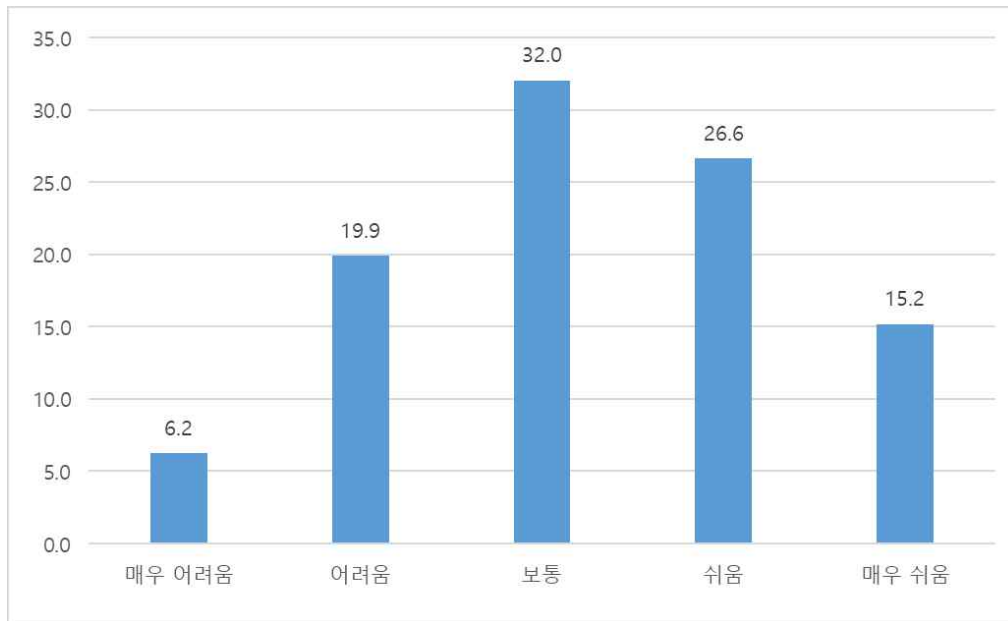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전체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국어국문학과	15 (12.1)	35 (28.2)	34 (27.4)	23 (18.5)	17 (13.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9 (8.5)	71 (31.8)	72 (32.3)	41 (18.4)	20 (9.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1	35	46	33	27	152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7.2)	(23.0)	(30.3)	(21.7)	(17.8)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 (2.9)	6 (17.6)	10 (29.4)	7 (20.6)	10 (29.4)	34 (100.0)
일본학과	11 (8.8)	37 (29.6)	39 (31.2)	25 (20.0)	13 (10.4)	125 (100.0)
법학과	25 (11.6)	60 (27.9)	65 (30.2)	39 (18.1)	26 (12.1)	215 (100.0)
행정학과	4 (7.8)	20 (39.2)	13 (25.5)	8 (15.7)	6 (11.8)	51 (100.0)
경제학과	6 (11.1)	13 (24.1)	20 (37.0)	8 (14.8)	7 (13.0)	54 (100.0)
경영학과	20 (9.5)	63 (30.0)	63 (30.0)	40 (19.0)	24 (11.4)	210 (100.0)
무역학과	5 (20.0)	4 (16.0)	5 (20.0)	6 (24.0)	5 (2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5 (14.7)	28 (27.5)	30 (29.4)	18 (17.6)	11 (10.8)	102 (100.0)
관광학과	4 (6.6)	20 (32.8)	15 (24.6)	14 (23.0)	8 (13.1)	61 (100.0)
사회복지학과	34 (8.4)	96 (23.7)	126 (31.1)	106 (26.2)	43 (10.6)	405 (100.0)
농학과	20 (8.4)	67 (28.0)	80 (33.5)	49 (20.5)	23 (9.6)	239 (100.0)
생활과학과	32 (12.1)	72 (27.2)	77 (29.1)	54 (20.4)	30 (11.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33 (14.0)	79 (33.5)	63 (26.7)	39 (16.5)	22 (9.3)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13 (12.3)	28 (26.4)	24 (22.6)	21 (19.8)	20 (18.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8 (7.6)	27 (25.7)	32 (30.5)	19 (18.1)	19 (18.1)	105 (100.0)
간호학과	4 (5.3)	32 (42.1)	23 (30.3)	15 (19.7)	2 (2.6)	76 (100.0)
교육학과	16 (8.7)	58 (31.5)	54 (29.3)	34 (18.5)	22 (12.0)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0 (12.6)	36 (22.6)	46 (28.9)	38 (23.9)	19 (11.9)	159 (100.0)
유아교육과	31 (13.4)	58 (25.1)	72 (31.2)	41 (17.7)	29 (12.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6 (12.0)	39 (29.3)	33 (24.8)	33 (24.8)	12 (9.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7 (14.0)	10 (20.0)	13 (26.0)	13 (26.0)	7 (14.0)	50 (100.0)
계	370 (10.4)	994 (27.9)	1,055 (29.6)	724 (20.3)	422 (11.8)	3,565 (100.0)

2) 학사용어 이해하기

‘학사용어 이해하기’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그림 V-7]과 같다.



[그림 V-7] 학사용어 이해하기

‘학사용어 이해하기(수강신청 및 변경, 출석수업, 과제물 시험 등)의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쉬움’ 26.6%, ‘어려움’ 19.9%, ‘매우 쉬움’ 15.2%, ‘매우 어려움’ 6.2%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 답한 비율을 합하면 26.1%로 약 4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입학한 첫 학기에 학사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14>와 같다.

<표 V-14> 학사용어 이해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 별	남자	63 (5.0)	234 (18.5)	425 (33.5)	358 (28.2)	188 (14.8)	1,268 (100.0)	3.29	1.08	1.92	
	여자	159 (6.9)	476 (20.7)	717 (31.2)	592 (25.8)	353 (15.4)	2,297 (100.0)	3.22	1.14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112 (8.3)	289 (21.5)	420 (31.2)	330 (24.5)	196 (14.6)	1,347 (100.0)	3.16	1.16	7.53**	
	편 입 생	2학 년	18 (4.3)	81 (19.2)	135 (32.1)	112 (26.6)	75 (17.8)	421 (100.0)	3.34		1.11
		3학 년	92 (5.1)	340 (18.9)	587 (32.7)	508 (28.3)	270 (15.0)	1,797 (100.0)	3.29		1.09
연 령 대	10대	0 (0.0)	2 (20.0)	4 (40.0)	3 (30.0)	1 (10.0)	10 (100.0)	3.30	.95	1.56	
	20대	38 (7.5)	98 (19.4)	144 (28.6)	120 (23.8)	104 (20.6)	504 (100.0)	3.31	1.21		
	30대	45 (5.8)	152 (19.4)	265 (33.9)	199 (25.4)	121 (15.5)	782 (100.0)	3.25	1.11		
	40대	42 (4.5)	201 (21.4)	291 (31.0)	260 (27.7)	145 (15.4)	939 (100.0)	3.28	1.10		
	50대	58 (7.3)	139 (17.5)	251 (31.7)	243 (30.6)	102 (12.9)	793 (100.0)	3.24	1.11		
	60대	34 (7.2)	109 (23.0)	159 (33.6)	112 (23.7)	59 (12.5)	473 (100.0)	3.11	1.12		
	70대 이상	5 (7.8)	9 (14.1)	28 (43.8)	13 (20.3)	9 (14.1)	64 (100.0)	3.19	1.10		
계		222 (6.2)	710 (19.9)	1,142 (32.0)	950 (26.6)	541 (15.2)	3,565 (100.0)	3.25	1.12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학사용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23.5%, 여성 27.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학사용어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이 29.8%로 가장 높았고, 2학년 편입생과 3학년 편입생은 각각 23.5%, 24%로 전체보다 낮았다. 학사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입학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60대와 20대가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학사용어

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30.2%, 26.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70대 이상과 50대는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대에서 학사용어를 이해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학사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유사한 이유로 볼 수 있다.

‘학사용어 이해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15>와 같다.

<표 V-15> 학사용어 이해하기(학과별)

구분	단위: 명, %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국어국문학과	11 (8.9)	20 (16.1)	40 (32.3)	31 (25.0)	22 (17.7)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3 (5.8)	43 (19.3)	82 (36.8)	55 (24.7)	30 (13.5)	223 (100.0)
중어중문학과	4 (2.6)	25 (16.4)	56 (36.8)	37 (24.3)	30 (19.7)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0 (0.0)	6 (17.6)	6 (17.6)	10 (29.4)	12 (35.3)	34 (100.0)
일본학과	10 (8.0)	19 (15.2)	40 (32.0)	34 (27.2)	22 (17.6)	125 (100.0)
법학과	17 (7.9)	42 (19.5)	67 (31.2)	58 (27.0)	31 (14.4)	215 (100.0)
행정학과	1 (2.0)	18 (35.3)	15 (29.4)	10 (19.6)	7 (13.7)	51 (100.0)
경제학과	2 (3.7)	13 (24.1)	18 (33.3)	12 (22.2)	9 (16.7)	54 (100.0)
경영학과	10 (4.8)	46 (21.9)	61 (29.0)	59 (28.1)	34 (16.2)	210 (100.0)
무역학과	1 (4.0)	4 (16.0)	8 (32.0)	7 (28.0)	5 (2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8 (7.8)	19 (18.6)	31 (30.4)	30 (29.4)	14 (13.7)	102 (100.0)
관광학과	2 (3.3)	15 (24.6)	19 (31.1)	14 (23.0)	11 (18.0)	61 (100.0)
사회복지학과	18 (4.4)	66 (16.3)	128 (31.6)	136 (33.6)	57 (14.1)	405 (100.0)
농학과	12 (5.0)	48 (20.1)	93 (38.9)	64 (26.8)	22 (9.2)	239 (100.0)
생활과학과	19 (7.2)	58 (21.9)	83 (31.3)	69 (26.0)	36 (13.6)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2 (9.3)	57 (24.2)	67 (28.4)	54 (22.9)	36 (15.3)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7 (6.6)	17 (16.0)	30 (28.3)	26 (24.5)	26 (24.5)	106 (100.0)
보건환경학과	5 (4.8)	16 (15.2)	37 (35.2)	24 (22.9)	23 (21.9)	105 (100.0)

간호학과	2 (2.6)	23 (30.3)	28 (36.8)	19 (25.0)	4 (5.3)	76 (100.0)
교육학과	10 (5.4)	37 (20.1)	66 (35.9)	44 (23.9)	27 (14.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2 (7.5)	32 (20.1)	41 (25.8)	52 (32.7)	22 (13.8)	159 (100.0)
유아교육과	18 (7.8)	53 (22.9)	68 (29.4)	54 (23.4)	38 (16.5)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3 (9.8)	26 (19.5)	44 (33.1)	33 (24.8)	17 (12.8)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5 (10.0)	7 (14.0)	14 (28.0)	18 (36.0)	6 (12.0)	50 (100.0)
계	222 (6.2)	710 (19.9)	1,142 (32.0)	950 (26.6)	541 (15.2)	3,565 (100.0)

3) 홈페이지 이용하기

‘홈페이지 이용하기’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그림 V-8]과 같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홈페이지 이용하기(과제물 제출, 출석수업 변경 등)의 어려움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보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쉬움’ 26.4%, ‘어려움’ 19.4%, ‘매우 쉬움’ 13.6%, ‘매우 어려움’ 6.3%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25.7%로 약 4분의 1의 학생들은 입학한 첫 학기에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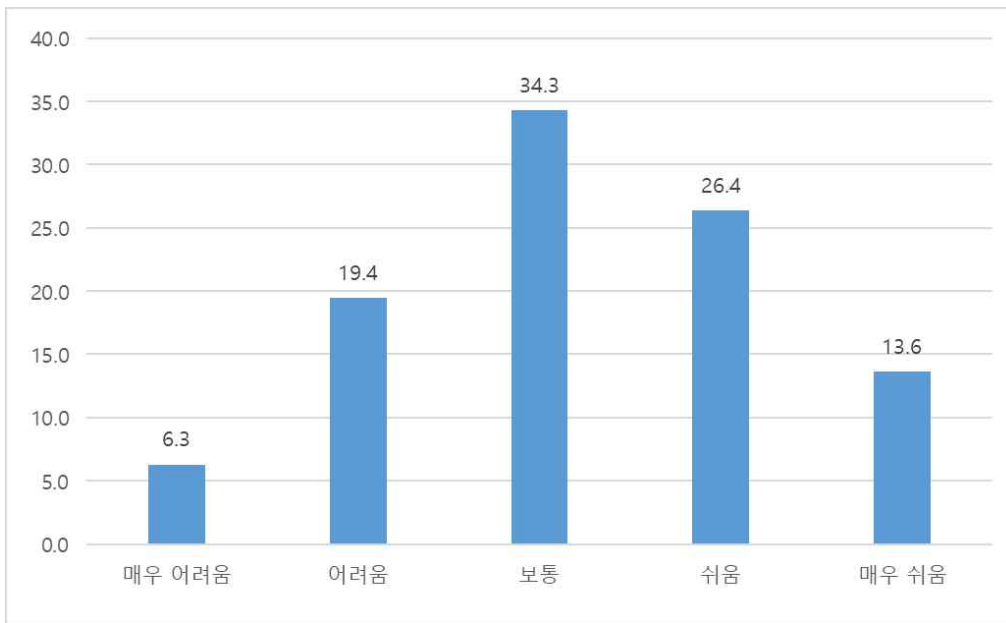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16>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홈페이지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23.0%, 여성 27.3%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에 입학한 첫 학기에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이 27.8%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과 2학년 편입생과 각각 24.6%, 23.8%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 40%, 30대 30.9%, 20대 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22.2%로 낮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대

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나온 것은 학사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8] 홈페이지 이용하기

<표 V-16> 홈페이지 이용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별	남자	73 (5.8)	218 (17.2)	440 (34.7)	359 (28.3)	178 (14.0)	1,268 (100.0)	3.28	1.08	2.46*	
	여자	151 (6.6)	475 (20.7)	782 (34.0)	581 (25.3)	308 (13.4)	2,297 (100.0)	3.18	1.11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105 (7.8)	269 (20.0)	450 (33.4)	327 (24.3)	196 (14.6)	1,347 (100.0)	3.18	1.14	1.40	
	편입생	2학년	23 (5.5)	77 (18.3)	144 (34.2)	121 (28.7)	56 (13.3)	421 (100.0)	3.26		1.07
		3학년	96 (5.3)	347 (19.3)	628 (34.9)	492 (27.4)	234 (13.0)	1,797 (100.0)	3.23		1.07
연령대	10대	1 (10.0)	3 (30.0)	3 (30.0)	2 (20.0)	1 (10.0)	10 (100.0)	2.90	1.20	3.59**	
	20대	39 (7.7)	96 (19.0)	152 (30.2)	118 (23.4)	99 (19.6)	504 (100.0)	3.28	1.20		

30대	66 (8.4)	176 (22.5)	264 (33.8)	191 (24.4)	85 (10.9)	782 (100.0)	3.07	1.11
40대	41 (4.4)	184 (19.6)	330 (35.1)	250 (26.6)	134 (14.3)	939 (100.0)	3.27	1.07
50대	50 (6.3)	126 (15.9)	277 (34.9)	241 (30.4)	99 (12.5)	793 (100.0)	3.27	1.07
60대	26 (5.5)	92 (19.5)	178 (37.6)	118 (24.9)	59 (12.5)	473 (100.0)	3.19	1.06
70대 이상	1 (1.6)	16 (25.0)	18 (28.1)	20 (31.3)	9 (14.1)	64 (100.0)	3.31	1.05
계	224 (6.3)	693 (19.4)	1,222 (34.3)	940 (26.4)	486 (13.6)	3,565 (100.0)	3.22	1.10

‘홈페이지 이용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17>과 같다.

<표 V-17> 홈페이지 이용하기(학과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국어국문학과	7 (5.6)	20 (16.1)	47 (37.9)	29 (23.4)	21 (16.9)	124 (100.0)
영어영문학과	12 (5.4)	50 (22.4)	76 (34.1)	56 (25.1)	29 (13.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6 (3.9)	24 (15.8)	55 (36.2)	37 (24.3)	30 (19.7)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 (2.9)	6 (17.6)	10 (29.4)	8 (23.5)	9 (26.5)	34 (100.0)
일본학과	9 (7.2)	20 (16.0)	42 (33.6)	41 (32.8)	13 (10.4)	125 (100.0)
법학과	14 (6.5)	45 (20.9)	67 (31.2)	62 (28.8)	27 (12.6)	215 (100.0)
행정학과	1 (2.0)	11 (21.6)	23 (45.1)	9 (17.6)	7 (13.7)	51 (100.0)
경제학과	3 (5.6)	10 (18.5)	23 (42.6)	12 (22.2)	6 (11.1)	54 (100.0)
경영학과	11 (5.2)	47 (22.4)	74 (35.2)	49 (23.3)	29 (13.8)	210 (100.0)
무역학과	1 (4.0)	3 (12.0)	7 (28.0)	7 (28.0)	7 (2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0 (9.8)	18 (17.6)	35 (34.3)	24 (23.5)	15 (14.7)	102 (100.0)
관광학과	2 (3.3)	17 (27.9)	20 (32.8)	11 (18.0)	11 (18.0)	61 (100.0)
사회복지학과	21 (5.2)	58 (14.3)	146 (36.0)	128 (31.6)	52 (12.8)	405 (100.0)
농학과	15 (6.3)	47 (19.7)	73 (30.5)	75 (31.4)	29 (12.1)	239 (100.0)
생활과학과	15	58	94	67	31	265

	(5.7)	(21.9)	(35.5)	(25.3)	(11.7)	(100.0)
컴퓨터과학과	19 (8.1)	58 (24.6)	82 (34.7)	51 (21.6)	26 (11.0)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6 (5.7)	25 (23.6)	29 (27.4)	26 (24.5)	20 (18.9)	106 (100.0)
보건환경학과	6 (5.7)	18 (17.1)	31 (29.5)	25 (23.8)	25 (23.8)	105 (100.0)
간호학과	4 (5.3)	22 (28.9)	24 (31.6)	22 (28.9)	4 (5.3)	76 (100.0)
교육학과	13 (7.1)	34 (18.5)	70 (38.0)	47 (25.5)	20 (10.9)	184 (100.0)
청소년교육과	12 (7.5)	24 (15.1)	54 (34.0)	48 (30.2)	21 (13.2)	159 (100.0)
유아교육과	19 (8.2)	44 (19.0)	85 (36.8)	51 (22.1)	32 (13.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2 (9.0)	28 (21.1)	38 (28.6)	41 (30.8)	14 (10.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5 (10.0)	6 (12.0)	17 (34.0)	14 (28.0)	8 (16.0)	50 (100.0)
계	224 (6.3)	693 (19.4)	1,222 (34.3)	940 (26.4)	486 (13.6)	3,565 (100.0)

4)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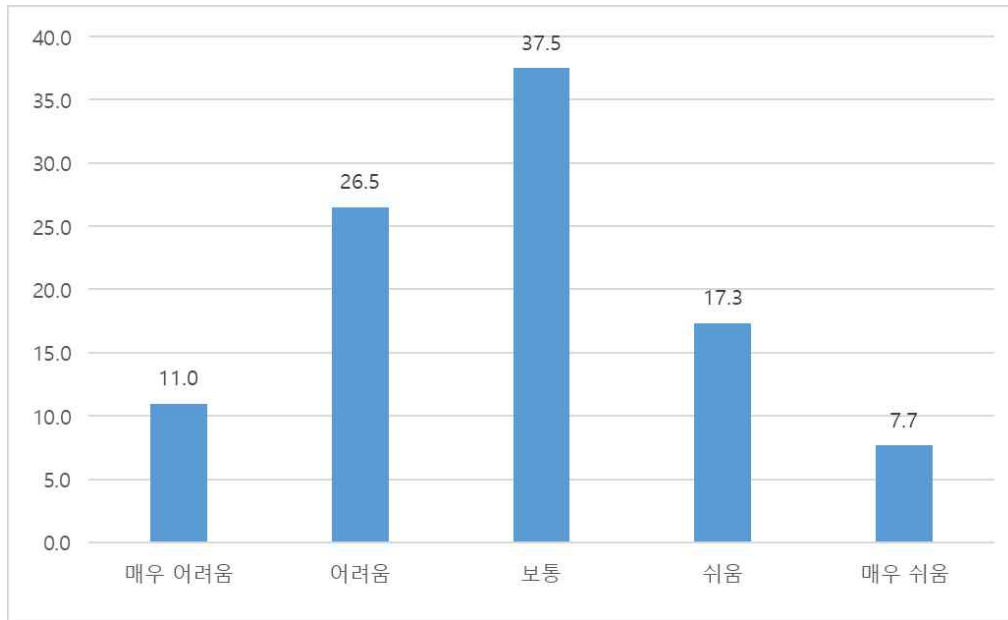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 어려움의 정도’를 질문한 결과는 [그림 V-9]와 같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어려움’ 26.5%, ‘쉬움’ 17.3%, ‘매우 어려움’ 11.0%, ‘매우 쉬움’ 7.7%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37.5%로 약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방송대에 입학한 첫 학기에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1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학습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33.8%, 여성 39.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한 첫 학기에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은 40.6%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 35.9%, 2학년 편입생 34.0%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편입생의 경우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유

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9] 학습계획 세워 공부하기

<표 V-18> 학습계획 세워 공부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 값	
성별	남자	130 (10.3)	298 (23.5)	460 (36.3)	267 (21.1)	113 (8.9)	1,268 (100.0)	2.95	1.10	4.38**	
	여자	261 (11.4)	647 (28.2)	877 (38.2)	351 (15.3)	161 (7.0)	2,297 (100.0)	2.78	1.06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173 (12.8)	375 (27.8)	500 (37.1)	204 (15.1)	95 (7.1)	1,347 (100.0)	2.76	1.08	7.07**	
	편입생	2학년	40 (9.5)	103 (24.5)	164 (39.0)	76 (18.1)	38 (9.0)	421 (100.0)	2.93		1.08
		3학년	178 (9.9)	467 (26.0)	673 (37.5)	338 (18.8)	141 (7.8)	1,797 (100.0)	2.89		1.07
연령대	10대	1 (10.0)	1 (10.0)	3 (30.0)	2 (20.0)	3 (30.0)	10 (100.0)	3.50	1.35	6.89**	
	20대	55 (10.9)	143 (28.4)	174 (34.5)	84 (16.7)	48 (9.5)	504 (100.0)	2.86	1.12		
	30대	115 (14.7)	215 (27.5)	277 (35.4)	120 (15.3)	55 (7.0)	782 (100.0)	2.73	1.11		
	40대	118 (12.6)	268 (28.5)	347 (37.0)	148 (15.8)	58 (6.2)	939 (100.0)	2.74	1.06		

	50대	61 (7.7)	194 (24.5)	319 (40.2)	156 (19.7)	63 (7.9)	793 (100.0)	2.96	1.03
	60대	37 (7.8)	111 (23.5)	191 (40.4)	92 (19.5)	42 (8.9)	473 (100.0)	2.98	1.05
	70대 이상	4 (6.3)	13 (20.3)	26 (40.6)	16 (25.0)	5 (7.8)	64 (100.0)	3.08	1.01
	계	391 (11.0)	945 (26.5)	1,337 (37.5)	618 (17.3)	274 (7.7)	3,565 (100.0)	2.84	1.08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40대가 입학 첫 학기에 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와 41.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10대와 70대를 제외하고 60대와 50대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31.3%와 32.2%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계획적 학습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은, 준고령층 이상의 연령대에 비해 학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연령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계획 세워 공부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19>와 같다.

<표 V-19> 학습계획 세워 공부하기(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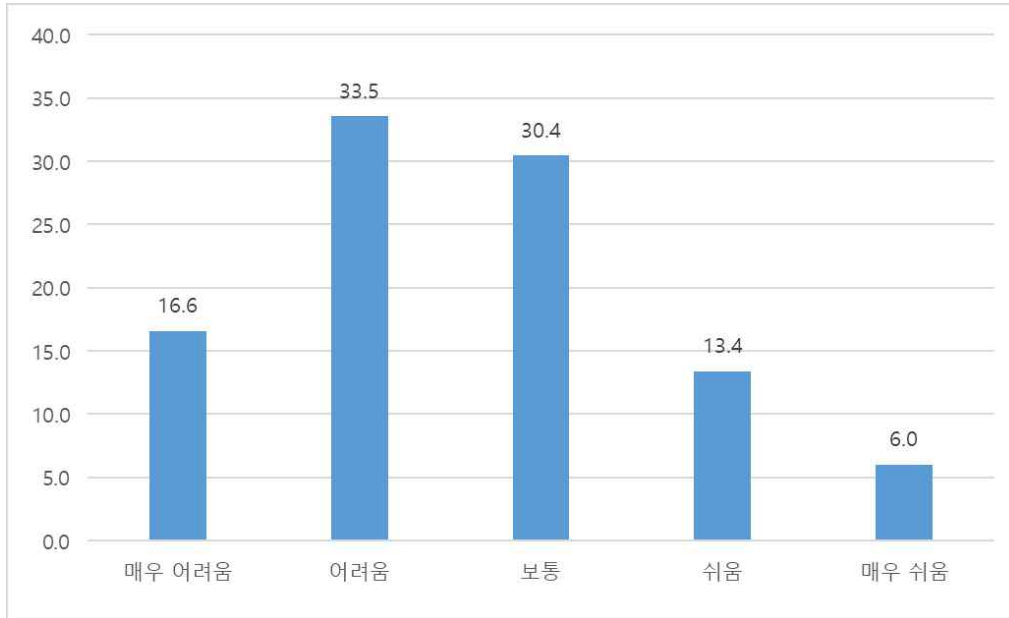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전체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국어국문학과	8 (6.5)	33 (26.6)	50 (40.3)	19 (15.3)	14 (11.3)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0 (13.5)	47 (21.1)	99 (44.4)	35 (15.7)	12 (5.4)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3 (8.6)	34 (22.4)	60 (39.5)	27 (17.8)	18 (11.8)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2 (5.9)	4 (11.8)	17 (50.0)	7 (20.6)	4 (11.8)	34 (100.0)
일본학과	12 (9.6)	28 (22.4)	50 (40.0)	28 (22.4)	7 (5.6)	125 (100.0)
법학과	22 (10.2)	55 (25.6)	79 (36.7)	42 (19.5)	17 (7.9)	215 (100.0)
행정학과	5 (9.8)	14 (27.5)	16 (31.4)	9 (17.6)	7 (13.7)	51 (100.0)
경제학과	4 (7.4)	11 (20.4)	23 (42.6)	9 (16.7)	7 (13.0)	54 (100.0)
경영학과	22 (10.5)	69 (32.9)	80 (38.1)	29 (13.8)	10 (4.8)	210 (100.0)
무역학과	4 (16.0)	4 (16.0)	10 (40.0)	3 (12.0)	4 (16.0)	25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미디어영상학과	13 (12.7)	28 (27.5)	40 (39.2)	12 (11.8)	9 (8.8)	102 (100.0)
관광학과	8 (13.1)	13 (21.3)	26 (42.6)	9 (14.8)	5 (8.2)	61 (100.0)
사회복지학과	34 (8.4)	116 (28.6)	146 (36.0)	87 (21.5)	22 (5.4)	405 (100.0)
농학과	19 (7.9)	54 (22.6)	103 (43.1)	42 (17.6)	21 (8.8)	239 (100.0)
생활과학과	31 (11.7)	78 (29.4)	105 (39.6)	36 (13.6)	15 (5.7)	265 (100.0)
컴퓨터과학과	32 (13.6)	63 (26.7)	83 (35.2)	37 (15.7)	21 (8.9)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13 (12.3)	31 (29.2)	34 (32.1)	19 (17.9)	9 (8.5)	106 (100.0)
보건환경학과	15 (14.3)	27 (25.7)	36 (34.3)	16 (15.2)	11 (10.5)	105 (100.0)
간호학과	6 (7.9)	30 (39.5)	19 (25.0)	19 (25.0)	2 (2.6)	76 (100.0)
교육학과	20 (10.9)	53 (28.8)	66 (35.9)	27 (14.7)	18 (9.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22 (13.8)	40 (25.2)	54 (34.0)	29 (18.2)	14 (8.8)	159 (100.0)
유아교육과	37 (16.0)	67 (29.0)	73 (31.6)	38 (16.5)	16 (6.9)	231 (100.0)
문화교양학과	14 (10.5)	38 (28.6)	46 (34.6)	27 (20.3)	8 (6.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5 (10.0)	8 (16.0)	22 (44.0)	12 (24.0)	3 (6.0)	50 (100.0)
계	391 (11.0)	945 (26.5)	1,337 (37.5)	618 (17.3)	274 (7.7)	3,565 (100.0)

5) 과제물 준비하기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방송대 입학 첫 학기 ‘과제물 준비하기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V-10]과 같다.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보통’ 30.4%, ‘매우 어려움’ 16.6%, ‘쉬움’ 13.4%, ‘매우 쉬움’ 6.0%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을 합하면 50.1%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방송대에 입학한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 과제물 준비하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20>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44.5%, 여성 53.3%로 여성이 남성보다 8.8%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은 54.6%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 48.3%, 2학년 편입생은 43.9%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편입생의 경우 신입생보다 과제물 준비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70%, 40대 54.3%, 30대 52%의 순으로 나타났고 20대는 42.3%로 전체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20> 과제물 준비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별	남자	176 (13.9)	388 (30.6)	401 (31.6)	210 (16.6)	93 (7.3)	1,268 (100.0)	2.73	1.12	5.67**
	여자	415 (18.1)	808 (35.2)	684 (29.8)	268 (11.7)	122 (5.3)	2,297 (100.0)	2.51	1.08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258 (19.2)	477 (35.4)	395 (29.3)	139 (10.3)	78 (5.8)	1,347 (100.0)	2.48	1.09	10.69**
	편입생	2학년 (13.5)	128 (30.4)	145 (34.4)	65 (15.4)	26 (6.2)	421 (100.0)	2.70	1.08	
		3학년 (15.4)	276 (32.9)	545 (30.3)	274 (15.2)	111 (6.2)	1,797 (100.0)	2.64	1.10	
연령 대	10대	4 (40.0)	3 (30.0)	1 (10.0)	1 (10.0)	1 (10.0)	10 (100.0)	2.20	1.40	4.54**
	20대	82 (16.3)	131 (26.0)	163 (32.3)	79 (15.7)	49 (9.7)	504 (100.0)	2.77	1.19	
	30대	145 (18.5)	262 (33.5)	240 (30.7)	97 (12.4)	38 (4.9)	782 (100.0)	2.52	1.08	
	40대	164 (17.5)	346 (36.8)	278 (29.6)	103 (11.0)	48 (5.1)	939 (100.0)	2.49	1.06	
	50대	123 (15.5)	273 (34.4)	228 (28.8)	120 (15.1)	49 (6.2)	793 (100.0)	2.62	1.10	
	60대	66 (14.0)	158 (33.4)	154 (32.6)	67 (14.2)	28 (5.9)	473 (100.0)	2.65	1.07	
	70대 이상	7 (10.9)	23 (35.9)	21 (32.8)	11 (17.2)	2 (3.1)	64 (100.0)	2.66	1.00	
계		591 (16.6)	1,196 (33.5)	1,085 (30.4)	478 (13.4)	215 (6.0)	3,565 (100.0)	2.59	1.10	

‘과제물 준비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1>과 같다.

<표 V-21> 과제물 준비하기(학과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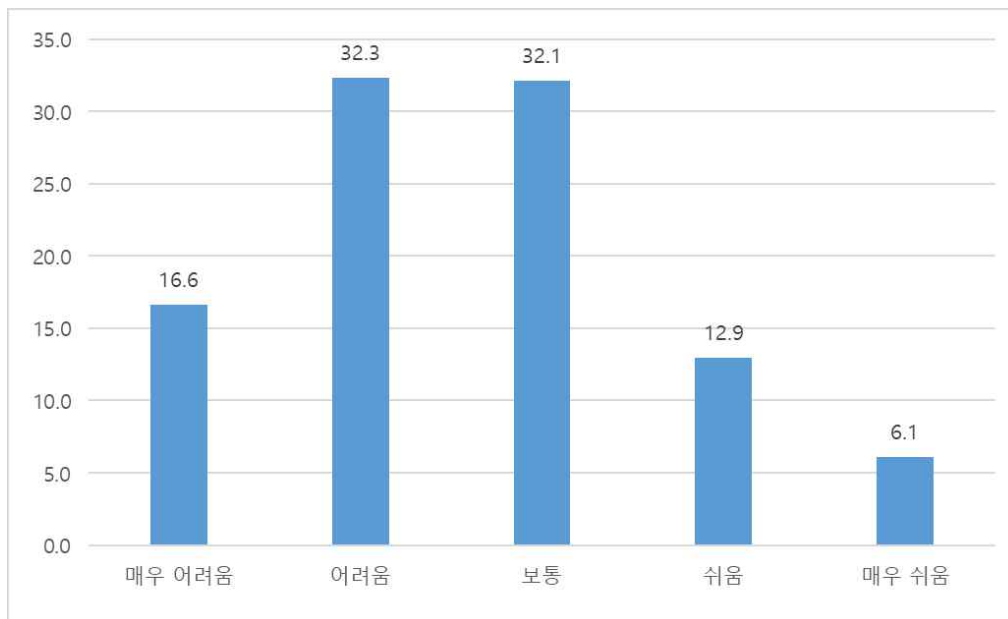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국어국문학과	14 (11.3)	44 (35.5)	40 (32.3)	15 (12.1)	11 (8.9)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2 (14.3)	77 (34.5)	75 (33.6)	30 (13.5)	9 (4.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9 (12.5)	48 (31.6)	50 (32.9)	21 (13.8)	14 (9.2)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1 (2.9)	12 (35.3)	8 (23.5)	9 (26.5)	4 (11.8)	34 (100.0)

V. 학교생활 적응

일본학과	15 (12.0)	42 (33.6)	41 (32.8)	22 (17.6)	5 (4.0)	125 (100.0)
법학과	31 (14.4)	64 (29.8)	73 (34.0)	34 (15.8)	13 (6.0)	215 (100.0)
행정학과	12 (23.5)	16 (31.4)	12 (23.5)	8 (15.7)	3 (5.9)	51 (100.0)
경제학과	7 (13.0)	15 (27.8)	20 (37.0)	8 (14.8)	4 (7.4)	54 (100.0)
경영학과	44 (21.0)	70 (33.3)	68 (32.4)	20 (9.5)	8 (3.8)	210 (100.0)
무역학과	3 (12.0)	10 (40.0)	6 (24.0)	3 (12.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8 (17.6)	29 (28.4)	31 (30.4)	13 (12.7)	11 (10.8)	102 (100.0)
관광학과	2 (3.3)	29 (47.5)	20 (32.8)	7 (11.5)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81 (20.0)	142 (35.1)	116 (28.6)	52 (12.8)	14 (3.5)	405 (100.0)
농학과	33 (13.8)	82 (34.3)	70 (29.3)	40 (16.7)	14 (5.9)	239 (100.0)
생활과학과	43 (16.2)	100 (37.7)	80 (30.2)	28 (10.6)	14 (5.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4 (18.6)	70 (29.7)	64 (27.1)	42 (17.8)	16 (6.8)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12 (11.3)	31 (29.2)	32 (30.2)	18 (17.0)	13 (12.3)	106 (100.0)
보건환경학과	17 (16.2)	40 (38.1)	29 (27.6)	10 (9.5)	9 (8.6)	105 (100.0)
간호학과	14 (18.4)	31 (40.8)	18 (23.7)	11 (14.5)	2 (2.6)	76 (100.0)
교육학과	25 (13.6)	72 (39.1)	53 (28.8)	20 (10.9)	14 (7.6)	184 (100.0)
청소년교육과	36 (22.6)	47 (29.6)	45 (28.3)	21 (13.2)	10 (6.3)	159 (100.0)
유아교육과	58 (25.1)	75 (32.5)	67 (29.0)	19 (8.2)	12 (5.2)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0 (15.0)	40 (30.1)	48 (36.1)	18 (13.5)	7 (5.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0 (20.0)	10 (20.0)	19 (38.0)	9 (18.0)	2 (4.0)	50 (100.0)
계	591 (16.6)	1,196 (33.5)	1,085 (30.4)	478 (13.4)	215 (6.0)	3,565 (100.0)

6) 기말평가 준비하기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방송대 입학 첫 학기 ‘기말평가 준비하기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1]과 같다.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보통’ 32.1%, ‘매우 어려움’ 16.6%, ‘쉬움’ 12.9%, ‘매우 쉬움’ 6.1%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48.9%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기말평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1] 기말평가 준비하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2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기말평가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42%, 여성 52.8%로 여성이 남성보다 10.8%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기말평가 준비하기(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편 차	t/F값	
성 별	남자	161 (12.7)	372 (29.3)	431 (34.0)	205 (16.2)	99 (7.8)	1,268 (100.0)	2.77	1.11	7.16**	
	여자	431 (18.8)	780 (34.0)	713 (31.0)	256 (11.1)	117 (5.1)	2,297 (100.0)	2.50	1.07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252 (18.7)	473 (35.1)	410 (30.4)	135 (10.0)	77 (5.7)	1,347 (100.0)	2.49	1.08	10.64**	
	편 입 생	2학 년	59 (14.0)	122 (29.0)	152 (36.1)	61 (14.5)	27 (6.4)	421 (100.0)	2.70		1.08
		3학 년	281 (15.6)	557 (31.0)	582 (32.4)	265 (14.7)	112 (6.2)	1,797 (100.0)	2.65		1.10
연 령 대	10대	3 (30.0)	4 (40.0)	2 (20.0)	1 (10.0)	0 (0.0)	10 (100.0)	2.10	.99	5.87**	
	20대	74 (14.7)	132 (26.2)	165 (32.7)	81 (16.1)	52 (10.3)	504 (100.0)	2.81	1.18		
	30대	145 (18.5)	253 (32.4)	263 (33.6)	84 (10.7)	37 (4.7)	782 (100.0)	2.51	1.06		
	40대	177 (18.8)	307 (32.7)	294 (31.3)	114 (12.1)	47 (5.0)	939 (100.0)	2.52	1.08		
	50대	125 (15.8)	270 (34.0)	243 (30.6)	105 (13.2)	50 (6.3)	793 (100.0)	2.60	1.10		
	60대	64 (13.5)	167 (35.3)	150 (31.7)	64 (13.5)	28 (5.9)	473 (100.0)	2.63	1.06		
	70대 이상	4 (6.3)	19 (29.7)	27 (42.2)	12 (18.8)	2 (3.1)	64 (100.0)	2.83	.92		
계	592 (16.6)	1,152 (32.3)	1,144 (32.1)	461 (12.9)	216 (6.1)	3,565 (100.0)	2.60	1.09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한 첫 학기에 기말평가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 53.8%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은 46.6%, 2학년 편입생은 43%로 비교적 낮았다.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는 편입생의 경우 신입생보다 기말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기말평가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40대, 30대였고, 각각 70%, 51.5%와 50.9%를 나타내었다.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재학생들의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 분석결과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표 IV-35> 참조) 높은 연령층에서는 평소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기말공부를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이 비교적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기말평가 준비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3>과 같다.

<표 V-23> 기말평가 준비하기(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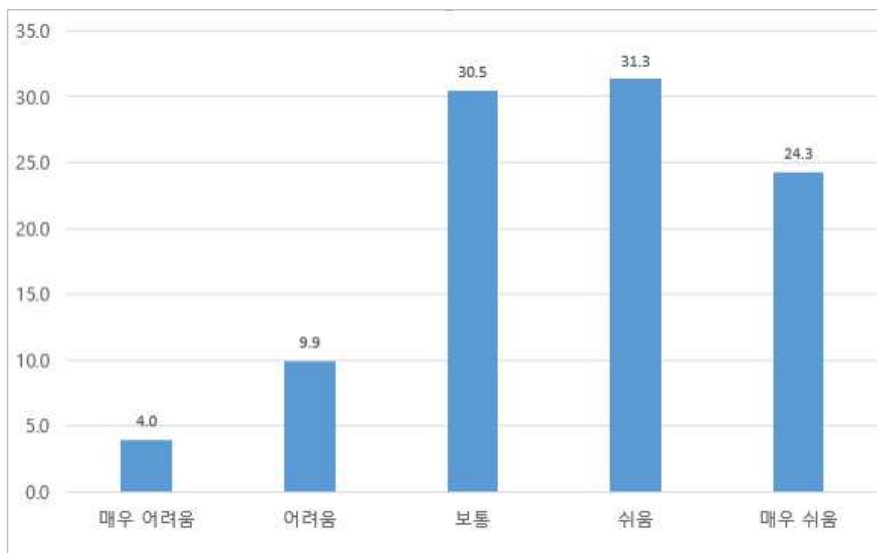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국어국문학과	20 (16.1)	39 (31.5)	44 (35.5)	11 (8.9)	10 (8.1)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5 (15.7)	74 (33.2)	80 (35.9)	25 (11.2)	9 (4.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17 (11.2)	44 (28.9)	55 (36.2)	21 (13.8)	15 (9.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4 (11.8)	6 (17.6)	9 (26.5)	9 (26.5)	6 (17.6)	34 (100.0)
일본학과	15 (12.0)	38 (30.4)	45 (36.0)	22 (17.6)	5 (4.0)	125 (100.0)
법학과	34 (15.8)	68 (31.6)	66 (30.7)	31 (14.4)	16 (7.4)	215 (100.0)
행정학과	11 (21.6)	14 (27.5)	15 (29.4)	8 (15.7)	3 (5.9)	51 (100.0)
경제학과	7 (13.0)	13 (24.1)	23 (42.6)	7 (13.0)	4 (7.4)	54 (100.0)
경영학과	37 (17.6)	83 (39.5)	64 (30.5)	20 (9.5)	6 (2.9)	210 (100.0)
무역학과	4 (16.0)	6 (24.0)	7 (28.0)	5 (20.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3 (12.7)	34 (33.3)	33 (32.4)	12 (11.8)	10 (9.8)	102 (100.0)
관광학과	3 (4.9)	24 (39.3)	23 (37.7)	8 (13.1)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69 (17.0)	122 (30.1)	135 (33.3)	66 (16.3)	13 (3.2)	405 (100.0)
농학과	32 (13.4)	85 (35.6)	78 (32.6)	32 (13.4)	12 (5.0)	239 (100.0)
생활과학과	46 (17.4)	99 (37.4)	81 (30.6)	25 (9.4)	14 (5.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5 (19.1)	65 (27.5)	74 (31.4)	36 (15.3)	16 (6.8)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13 (12.3)	32 (30.2)	32 (30.2)	17 (16.0)	12 (11.3)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1 (20.0)	36 (34.3)	26 (24.8)	13 (12.4)	9 (8.6)	105 (100.0)
간호학과	18 (23.7)	31 (40.8)	18 (23.7)	9 (11.8)	0 (0.0)	76 (100.0)
교육학과	32 (17.4)	67 (36.4)	51 (27.7)	18 (9.8)	16 (8.7)	184 (100.0)
청소년교육과	30	52	46	20	11	159

	(18.9)	(32.7)	(28.9)	(12.6)	(6.9)	(100.0)
유아교육과	58 (25.1)	66 (28.6)	74 (32.0)	20 (8.7)	13 (5.6)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1 (15.8)	46 (34.6)	43 (32.3)	17 (12.8)	6 (4.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7 (14.0)	8 (16.0)	22 (44.0)	9 (18.0)	4 (8.0)	50 (100.0)
계	592 (16.6)	1,152 (32.3)	1,144 (32.1)	461 (12.9)	216 (6.1)	3,565 (100.0)

7)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방송대 입학 첫 학기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2]와 같다. ‘쉬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보통’ 30.5%, ‘매우 쉬움’ 24.3%, ‘어려움’ 9.9%, ‘매우 어려움’ 4.0% 순이었다.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13.9%로 입학 첫 학기에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느끼고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림 V-12]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2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11.9%, 여성 15%로 여성이 남성보다 3.4%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
(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 별	남자	48 (3.8)	103 (8.1)	393 (31.0)	423 (33.4)	301 (23.7)	1,268 (100.0)	3.65	1.05	1.27	
	여자	94 (4.1)	250 (10.9)	694 (30.2)	694 (30.2)	565 (24.6)	2,297 (100.0)	3.60	1.09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62 (4.6)	133 (9.9)	405 (30.1)	402 (29.8)	345 (25.6)	1,347 (100.0)	3.62	1.11	0.44	
	편 입 생	2학 년	8 (1.9)	38 (9.0)	137 (32.5)	142 (33.7)	96 (22.8)	421 (100.0)	3.67		.99
		3학 년	72 (4.0)	182 (10.1)	545 (30.3)	573 (31.9)	425 (23.7)	1,797 (100.0)	3.61		1.07
연 령 대	10대	0 (0.0)	2 (20.0)	1 (10.0)	1 (10.0)	6 (60.0)	10 (100.0)	4.10	1.29	9.32**	
	20대	14 (2.8)	43 (8.5)	117 (23.2)	143 (28.4)	187 (37.1)	504 (100.0)	3.88	1.09		
	30대	31 (4.0)	67 (8.6)	242 (30.9)	245 (31.3)	197 (25.2)	782 (100.0)	3.65	1.07		
	40대	38 (4.0)	99 (10.5)	278 (29.6)	307 (32.7)	217 (23.1)	939 (100.0)	3.60	1.08		
	50대	34 (4.3)	62 (7.8)	274 (34.6)	258 (32.5)	165 (20.8)	793 (100.0)	3.58	1.04		
	60대	24 (5.1)	73 (15.4)	149 (31.5)	143 (30.2)	84 (17.8)	473 (100.0)	3.40	1.10		
	70대 이상	1 (1.6)	7 (10.9)	26 (40.6)	20 (31.3)	10 (15.6)	64 (100.0)	3.48	.94		
계	142 (4.0)	353 (9.9)	1,087 (30.5)	1,117 (31.3)	866 (24.3)	3,565 (100.0)	3.62	1.08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대 입학 첫 학기에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학년 신입생은 14.5%로 가장 높았고, 3학년 편입생은 14.1%, 2학년 편입생은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보다 2학년 편입생이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준비하기

에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입학유형에서 나타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 첫 학기에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20.5%였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14.5%로 나타났다(10대 제외). 60대가 20.5%로 비교적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태블릿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20대는 1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준비하기’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5>와 같다.

<표 V-25>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학과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전체
국어국문학과	3 (2.4)	13 (10.5)	41 (33.1)	35 (28.2)	32 (25.8)	124 (100.0)
영어영문학과	9 (4.0)	17 (7.6)	76 (34.1)	69 (30.9)	52 (23.3)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 (1.3)	11 (7.2)	45 (29.6)	51 (33.6)	43 (28.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0 (0.0)	3 (8.8)	7 (20.6)	12 (35.3)	12 (35.3)	34 (100.0)
일본학과	4 (3.2)	7 (5.6)	36 (28.8)	45 (36.0)	33 (26.4)	125 (100.0)
법학과	14 (6.5)	26 (12.1)	59 (27.4)	72 (33.5)	44 (20.5)	215 (100.0)
행정학과	2 (3.9)	8 (15.7)	14 (27.5)	15 (29.4)	12 (23.5)	51 (100.0)
경제학과	1 (1.9)	5 (9.3)	16 (29.6)	17 (31.5)	15 (27.8)	54 (100.0)
경영학과	11 (5.2)	23 (11.0)	67 (31.9)	60 (28.6)	49 (23.3)	210 (100.0)
무역학과	1 (4.0)	1 (4.0)	4 (16.0)	9 (36.0)	10 (4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 (2.0)	9 (8.8)	25 (24.5)	33 (32.4)	33 (32.4)	102 (100.0)
관광학과	0 (0.0)	10 (16.4)	16 (26.2)	24 (39.3)	11 (18.0)	61 (100.0)
사회복지학과	13 (3.2)	30 (7.4)	117 (28.9)	148 (36.5)	97 (24.0)	405 (100.0)
농학과	8 (3.3)	29 (12.1)	80 (33.5)	68 (28.5)	54 (22.6)	239 (100.0)
생활과학과	15	26	93	76	55	265

	(5.7)	(9.8)	(35.1)	(28.7)	(20.8)	(100.0)
컴퓨터과학과	12 (5.1)	28 (11.9)	59 (25.0)	69 (29.2)	68 (28.8)	236 (100.0)
통계·데이터과 학과	2 (1.9)	6 (5.7)	29 (27.4)	33 (31.1)	36 (34.0)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 (3.8)	6 (5.7)	37 (35.2)	32 (30.5)	26 (24.8)	105 (100.0)
간호학과	6 (7.9)	31 (40.8)	24 (31.6)	13 (17.1)	2 (2.6)	76 (100.0)
교육학과	6 (3.3)	11 (6.0)	60 (32.6)	55 (29.9)	52 (28.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8 (5.0)	16 (10.1)	49 (30.8)	52 (32.7)	34 (21.4)	159 (100.0)
유아교육과	11 (4.8)	14 (6.1)	77 (33.3)	66 (28.6)	63 (27.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7 (5.3)	19 (14.3)	41 (30.8)	44 (33.1)	22 (16.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 (2.0)	4 (8.0)	15 (30.0)	19 (38.0)	11 (22.0)	50 (100.0)
계	142 (4.0)	353 (9.9)	1,087 (30.5)	1,117 (31.3)	866 (24.3)	3,56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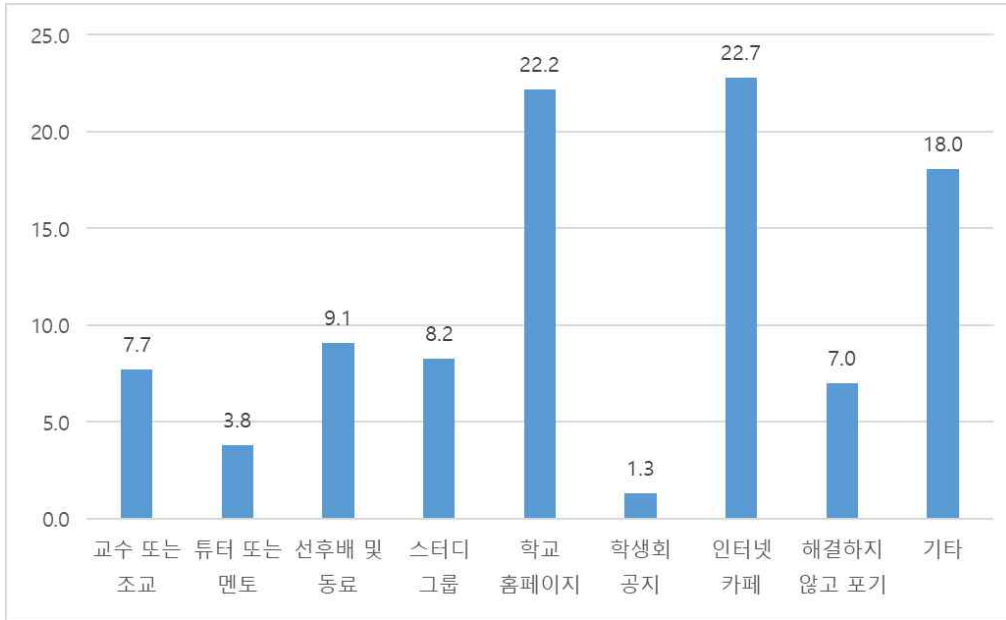
3.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

방송대 재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내용과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방법,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1) 교과내용

‘귀하는 교과내용 중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V-13]과 같다.

‘인터넷 카페’를 선택한 응답이 2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학교 홈페이지’ 22.2%, ‘기타’ 18.0%, ‘선후배 및 동료’가 9.1%, ‘스터디그룹’ 8.2%로 나타났다. ‘해결하지 않고 포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7.0%였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인터넷카페’가 2순위에 서 1순위로 상승하여 재학생들이 ‘인터넷카페’를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V-13]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26>과 같다.

<표 V-26>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교수 또는 조교	튜터 또는 멘토	선후배 및 동료	스터디 그룹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공지	인터넷 카페	해결하지 않고 포기	기타	
성별	남자	100 (7.9)	41 (3.2)	77 (6.1)	98 (7.7)	295 (23.3)	17 (1.3)	336 (26.5)	73 (5.8)	1,268 (100.0)	
	여자	174 (7.6)	94 (4.1)	246 (10.7)	196 (8.5)	495 (21.5)	29 (1.3)	475 (20.7)	176 (7.7)	2,297 (100.0)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91 (6.8)	51 (3.8)	152 (11.3)	142 (10.5)	294 (21.8)	14 (1.0)	288 (21.4)	87 (6.5)	1,347 (100.0)	
	편입생	2학년	43 (10.2)	25 (5.9)	29 (6.9)	14 (3.3)	101 (24.0)	3 (0.7)	95 (22.6)	35 (8.3)	421 (100.0)
		3학년	140 (7.8)	59 (3.3)	142 (7.9)	138 (7.7)	395 (22.0)	29 (1.6)	428 (23.8)	127 (7.1)	1,797 (100.0)
연령대	10대	4 (40.0)	0 (0.0)	1 (10.0)	0 (0.0)	3 (30.0)	0 (0.0)	0 (0.0)	0 (0.0)	10 (100.0)	
	20대	40 (7.9)	13 (2.6)	42 (8.3)	21 (4.2)	139 (27.6)	5 (1.0)	111 (22.0)	49 (9.7)	504 (100.0)	
	30대	61	23	67	33	189	6	188	59	782	

	(7.8)	(2.9)	(8.6)	(4.2)	(24.2)	(0.8)	(24.0)	(7.5)	(100.0)
40대	79 (8.4)	37 (3.9)	78 (8.3)	78 (8.3)	204 (21.7)	14 (1.5)	219 (23.3)	65 (6.9)	939 (100.0)
50대	54 (6.8)	32 (4.0)	85 (10.7)	94 (11.9)	152 (19.2)	14 (1.8)	170 (21.4)	41 (5.2)	793 (100.0)
60대	35 (7.4)	24 (5.1)	42 (8.9)	62 (13.1)	87 (18.4)	7 (1.5)	109 (23.0)	33 (7.0)	473 (100.0)
70대 이상	1 (1.6)	6 (9.4)	8 (12.5)	6 (9.4)	16 (25.0)	0 (0.0)	14 (21.9)	2 (3.1)	64 (100.0)
계	274 (7.7)	135 (3.8)	323 (9.1)	294 (8.2)	790 (22.2)	46 (1.3)	811 (22.7)	249 (7.0)	3,565 (100.0)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방법에 대해 남성의 26.5%는 ‘인터넷 카페’를 1순위로 응답하였고, 여성 21.5%는 ‘학교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학교 홈페이지의 다양한 학습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방법에 대해 1학년 신입생과 2학년 편입생은 ‘학교홈페이지’와 ‘인터넷카페’를 각각 1, 2 순위로 선택하였으며, 3학년 편입생은 ‘학교홈페이지’보다 ‘인터넷카페’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학년 신입생이 2, 3학년 편입생에 비해 ‘선후배 및 동료’를 통해 교과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방법에 대해 40-60대는 ‘학교홈페이지’ 보다 ‘인터넷카페’를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과내용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높은 연령군일수록 인터넷카페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7>과 같다.

<표 V-27> 교과내용 어려움 해결 방법(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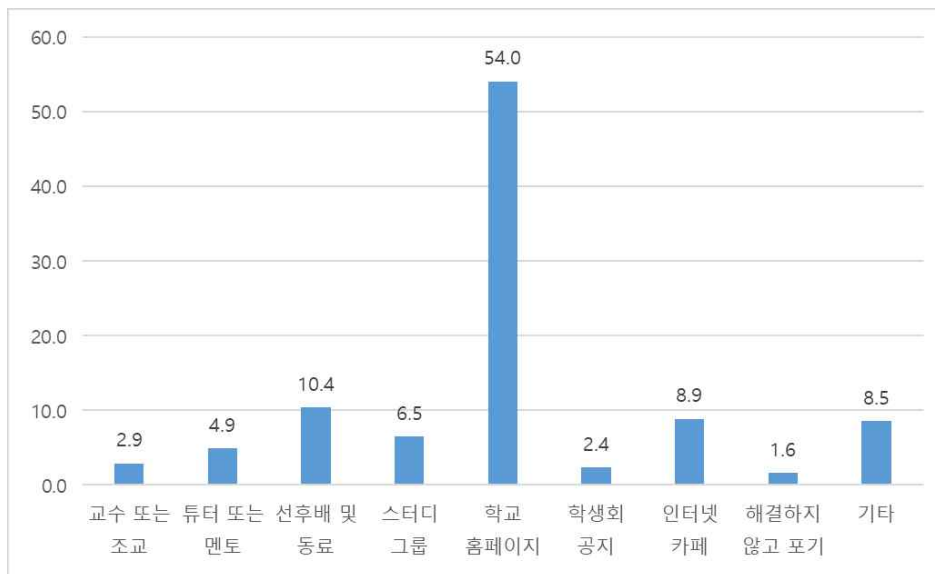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								
	교수 또는 조교	튜터 또는 멘토	선후배 및 동료	스터디 그룹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공지	인터넷 카페	해결하지 않고 포기	기타
국어국문학과	10 (8.1)	4 (3.2)	16 (12.9)	15 (12.1)	21 (16.9)	3 (2.4)	26 (21.0)	5 (4.0)	24 (19.4)
영어영문학과	19 (8.5)	9 (4.0)	10 (4.5)	14 (6.3)	48 (21.5)	1 (0.4)	49 (22.0)	19 (8.5)	54 (24.2)
중어중문학과	16 (10.5)	4 (2.6)	10 (6.6)	9 (5.9)	33 (21.7)	1 (0.7)	36 (23.7)	15 (9.9)	28 (18.4)

V. 학교생활 적응

프랑스언어문 화학	11 (32.4)	2 (5.9)	2 (5.9)	2 (5.9)	5 (14.7)	0 (0.0)	2 (5.9)	1 (2.9)	9 (26.5)
일본학과	16 (12.8)	2 (1.6)	9 (7.2)	8 (6.4)	35 (28.0)	0 (0.0)	25 (20.0)	11 (8.8)	19 (15.2)
법학과	19 (8.8)	8 (3.7)	10 (4.7)	8 (3.7)	55 (25.6)	2 (0.9)	46 (21.4)	23 (10.7)	44 (20.5)
행정학과	3 (5.9)	3 (5.9)	4 (7.8)	6 (11.8)	11 (21.6)	1 (2.0)	14 (27.5)	4 (7.8)	5 (9.8)
경제학과	7 (13.0)	1 (1.9)	8 (14.8)	4 (7.4)	14 (25.9)	1 (1.9)	8 (14.8)	3 (5.6)	8 (14.8)
경영학과	7 (3.3)	2 (1.0)	13 (6.2)	21 (10.0)	48 (22.9)	4 (1.9)	55 (26.2)	18 (8.6)	42 (20.0)
무역학과	0 (0.0)	0 (0.0)	2 (8.0)	1 (4.0)	10 (40.0)	0 (0.0)	5 (20.0)	1 (4.0)	6 (24.0)
미디어영상학 과	6 (5.9)	4 (3.9)	13 (12.7)	3 (2.9)	22 (21.6)	0 (0.0)	28 (27.5)	5 (4.9)	21 (20.6)
관광학과	3 (4.9)	2 (3.3)	10 (16.4)	1 (1.6)	13 (21.3)	1 (1.6)	14 (23.0)	5 (8.2)	12 (19.7)
사회복지학과	20 (4.9)	9 (2.2)	35 (8.6)	49 (12.1)	96 (23.7)	12 (3.0)	99 (24.4)	24 (5.9)	61 (15.1)
농학과	6 (2.5)	14 (5.9)	25 (10.5)	31 (13.0)	44 (18.4)	1 (0.4)	71 (29.7)	12 (5.0)	35 (14.6)
생활과학과	26 (9.8)	18 (6.8)	22 (8.3)	14 (5.3)	65 (24.5)	4 (1.5)	52 (19.6)	21 (7.9)	43 (16.2)
컴퓨터과학과	25 (10.6)	3 (1.3)	13 (5.5)	5 (2.1)	42 (17.8)	4 (1.7)	61 (25.8)	14 (5.9)	69 (29.2)
통계· 데이터과학과	10 (9.4)	3 (2.8)	8 (7.5)	8 (7.5)	17 (16.0)	0 (0.0)	23 (21.7)	6 (5.7)	31 (29.2)
보건환경학과	9 (8.6)	3 (2.9)	9 (8.6)	12 (11.4)	25 (23.8)	0 (0.0)	24 (22.9)	5 (4.8)	18 (17.1)
간호학과	4 (5.3)	3 (3.9)	11 (14.5)	8 (10.5)	19 (25.0)	1 (1.3)	22 (28.9)	4 (5.3)	4 (5.3)
교육학과	12 (6.5)	7 (3.8)	20 (10.9)	23 (12.5)	31 (16.8)	2 (1.1)	49 (26.6)	13 (7.1)	27 (14.7)
청소년교육과	12 (7.5)	8 (5.0)	27 (17.0)	18 (11.3)	34 (21.4)	3 (1.9)	26 (16.4)	7 (4.4)	24 (15.1)
유아교육과	20 (8.7)	13 (5.6)	27 (11.7)	11 (4.8)	66 (28.6)	2 (0.9)	40 (17.3)	22 (9.5)	30 (13.0)
문화교양학과	6 (4.5)	10 (7.5)	13 (9.8)	21 (15.8)	23 (17.3)	1 (0.8)	25 (18.8)	8 (6.0)	26 (19.5)
생활체육 지도과	7 (14.0)	3 (6.0)	6 (12.0)	2 (4.0)	13 (26.0)	2 (4.0)	11 (22.0)	3 (6.0)	3 (6.0)
계	274 (7.7)	135 (3.8)	323 (9.1)	294 (8.2)	790 (22.2)	46 (1.3)	811 (22.7)	249 (7.0)	643 (18.0)

2) 학사행정

학사행정 관련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 [그림 V-14]와 같다. ‘귀하는 학사행정(시험일정, 출석수업 신청, 수강신청 등)과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로 54.0%였다. 그다음 ‘선후배 및 동료’ 10.4%, ‘인터넷 카페’ 8.9%, ‘기타’ 8.5%, ‘스터디 그룹’ 6.5%, ‘튜터 또는 멘토’ 4.9%, ‘기타’ 8.5%, ‘해결하지 않고 포기’ 1.6%, ‘학생회 공지’ 2.4%, ‘교수 또는 조교’ 2.9% 순이었다. 2021학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응답은 전년 동월(51.8%)에 비해 2.2% 증가했다.



[그림 V-14]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28>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사행정의 어려움 해결방법이 남성과 여성 모두 ‘학교홈페이지’라고 응답하였으며 각각 57.8%와 51.9%의 비율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사행정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방법으로 ‘선후배 및 동료’에 응답한 비율은 1학년 신입생이 13.2%로, 2학년과 3학년 편입생의 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V-28>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교수 또는 조교	튜터 또는 멘토	선후배 및 동료	스터디 그룹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공지	인터넷 카페	해결하지 않고 포기	기타	
성별	남자	42 (3.3)	55 (4.3)	96 (7.6)	81 (6.4)	733 (57.8)	28 (2.2)	127 (10.0)	27 (2.1)	79 (6.2)	
	여자	61 (2.7)	119 (5.2)	273 (11.9)	151 (6.6)	1,193 (51.9)	56 (2.4)	189 (8.2)	30 (1.3)	225 (9.8)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24 (1.8)	52 (3.9)	178 (13.2)	100 (7.4)	713 (52.9)	37 (2.7)	111 (8.2)	16 (1.2)	116 (8.6)	
	편입생	2학년	17 (4.0)	25 (5.9)	36 (8.6)	13 (3.1)	249 (59.1)	8 (1.9)	32 (7.6)	11 (2.6)	30 (7.1)
		3학년	62 (3.5)	97 (5.4)	155 (8.6)	119 (6.6)	964 (53.6)	39 (2.2)	173 (9.6)	30 (1.7)	158 (8.8)
연령대	10대	0 (0.0)	0 (0.0)	2 (20.0)	0 (0.0)	6 (60.0)	0 (0.0)	0 (0.0)	0 (0.0)	2 (20.0)	
	20대	10 (2.0)	22 (4.4)	42 (8.3)	21 (4.2)	271 (53.8)	9 (1.8)	66 (13.1)	19 (3.8)	44 (8.7)	
	30대	25 (3.2)	38 (4.9)	71 (9.1)	36 (4.6)	415 (53.1)	15 (1.9)	91 (11.6)	9 (1.2)	82 (10.5)	
	40대	21 (2.2)	56 (6.0)	91 (9.7)	58 (6.2)	522 (55.6)	27 (2.9)	69 (7.3)	14 (1.5)	81 (8.6)	
	50대	28 (3.5)	36 (4.5)	103 (13.0)	59 (7.4)	424 (53.5)	19 (2.4)	66 (8.3)	7 (0.9)	51 (6.4)	
	60대	18 (3.8)	18 (3.8)	53 (11.2)	54 (11.4)	251 (53.1)	12 (2.5)	21 (4.4)	8 (1.7)	38 (8.0)	
	70대 이상	1 (1.6)	4 (6.3)	7 (10.9)	4 (6.3)	37 (57.8)	2 (3.1)	3 (4.7)	0 (0.0)	6 (9.4)	
계	103 (2.9)	174 (4.9)	369 (10.4)	232 (6.5)	1,926 (54.0)	84 (2.4)	316 (8.9)	57 (1.6)	304 (8.5)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사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1순위 ‘학교홈페이지’와 2순위 ‘인터넷 카페’를 제외하고 40-50대는 ‘선후배 및 동료’를, 60대 이상은 ‘스터디그룹’과 ‘튜터 또는 멘토’에 비교적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학사행정’에 대한 어려움 해결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료 학생들 혹은 튜터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29>와 같다.

<표 V-29> 학사행정 어려움 해결 방법(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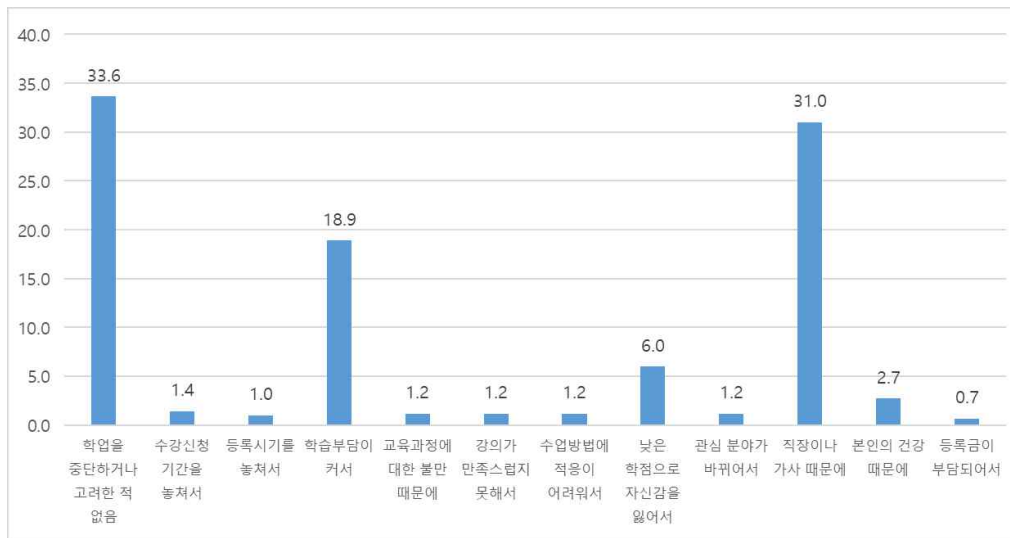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교수 또는 조교	튜터 또는 멘토	선배 및 동료	스터디 그룹	학교 홈페이지	학생회 공지	인터넷 카페	해결하지 않음 포기	기타
국어국문학과	1 (0.8)	6 (4.8)	14 (11.3)	8 (6.5)	71 (57.3)	5 (4.0)	7 (5.6)	2 (1.6)	10 (8.1)
영어영문학과	4 (1.8)	9 (4.0)	15 (6.7)	8 (3.6)	132 (59.2)	3 (1.3)	22 (9.9)	2 (0.9)	28 (12.6)
중어중문학과	6 (3.9)	5 (3.3)	15 (9.9)	6 (3.9)	85 (55.9)	3 (2.0)	13 (8.6)	3 (2.0)	16 (10.5)
프랑스언어문 화학과	6 (17.6)	1 (2.9)	2 (5.9)	1 (2.9)	20 (58.8)	0 (0.0)	3 (8.8)	0 (0.0)	1 (2.9)
일본학과	5 (4.0)	5 (4.0)	9 (7.2)	9 (7.2)	73 (58.4)	2 (1.6)	10 (8.0)	5 (4.0)	7 (5.6)
법학과	2 (0.9)	7 (3.3)	14 (6.5)	9 (4.2)	131 (60.9)	3 (1.4)	19 (8.8)	6 (2.8)	24 (11.2)
행정학과	1 (2.0)	2 (3.9)	5 (9.8)	5 (9.8)	24 (47.1)	1 (2.0)	7 (13.7)	0 (0.0)	6 (11.8)
경제학과	1 (1.9)	2 (3.7)	8 (14.8)	4 (7.4)	34 (63.0)	1 (1.9)	2 (3.7)	0 (0.0)	2 (3.7)
경영학과	5 (2.4)	4 (1.9)	17 (8.1)	18 (8.6)	113 (53.8)	3 (1.4)	29 (13.8)	3 (1.4)	18 (8.6)
무역학과	1 (4.0)	1 (4.0)	1 (4.0)	1 (4.0)	20 (80.0)	0 (0.0)	0 (0.0)	1 (4.0)	0 (0.0)
미디어영상학 과	0 (0.0)	4 (3.9)	9 (8.8)	4 (3.9)	62 (60.8)	0 (0.0)	8 (7.8)	1 (1.0)	14 (13.7)
관광학과	2 (3.3)	1 (1.6)	9 (14.8)	2 (3.3)	37 (60.7)	0 (0.0)	5 (8.2)	1 (1.6)	6 (6.6)
사회복지학과	7 (1.7)	14 (3.5)	40 (9.9)	39 (9.6)	230 (56.8)	12 (3.0)	29 (7.2)	4 (1.0)	30 (7.4)
농학과	8 (3.3)	20 (8.4)	27 (11.3)	27 (11.3)	105 (43.9)	8 (3.3)	23 (9.6)	3 (1.3)	18 (7.5)
생활과학과	9 (3.4)	19 (7.2)	29 (10.9)	9 (3.4)	150 (56.6)	6 (2.3)	15 (5.7)	6 (2.3)	22 (8.3)
컴퓨터과학과	5 (2.1)	6 (2.5)	18 (7.6)	4 (1.7)	132 (55.9)	5 (2.1)	35 (14.8)	5 (2.1)	26 (11.0)
통계·데이터 과학과	3 (2.8)	5 (4.7)	10 (9.4)	4 (3.8)	56 (52.8)	1 (0.9)	12 (11.3)	2 (1.9)	13 (12.3)
보건환경학과	5 (4.8)	7 (6.7)	16 (15.2)	9 (8.6)	51 (48.6)	0 (0.0)	10 (9.5)	2 (1.9)	5 (4.8)
간호학과	4 (5.3)	4 (5.3)	12 (15.8)	7 (9.2)	34 (44.7)	5 (6.6)	6 (7.9)	1 (1.3)	3 (3.9)
교육학과	6 (3.3)	8 (4.3)	21 (11.4)	16 (8.7)	91 (49.5)	7 (3.8)	18 (9.8)	1 (0.5)	16 (8.7)
청소년교육과	8 (5.0)	11 (6.9)	21 (13.2)	17 (10.7)	71 (44.7)	7 (4.4)	12 (7.5)	0 (0.0)	12 (7.5)
유아교육과	5 (2.2)	18 (7.8)	38 (16.5)	7 (3.0)	116 (50.2)	6 (2.6)	18 (7.8)	7 (3.0)	16 (6.9)

문화교양학과	5 (3.8)	12 (9.0)	14 (10.5)	16 (12.0)	59 (44.4)	5 (3.8)	9 (6.8)	1 (0.8)	12 (9.0)
생활체육지도 과	4 (8.0)	3 (6.0)	5 (10.0)	2 (4.0)	29 (58.0)	1 (2.0)	4 (8.0)	1 (2.0)	1 (2.0)
계	103 (2.9)	174 (4.9)	369 (10.4)	232 (6.5)	1,926 (54.0)	84 (2.4)	316 (8.9)	57 (1.6)	304 (8.5)

3) 학업중단 고민 이유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V-15]와 같다.



[그림 V-15] 학업중단 고민 이유

‘귀하가 학업을 중단(휴학, 미등록)하거나 이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33.6%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은 ‘직장이나 가사 때문에’로 31.0%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학습 부담이 커서’ 18.9%, ‘낮은 학점으로 자신감을 잃어서’ 6.0% 순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30>과 같다.

<표 V-30> 학업중단 고민 이유(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음	수강시간을 놓쳐서	등록기를 놓쳐서	학습부담이 커서	교육과정에 대한 때문에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수업방법에 적응이 어려워서	낮은 점수로 자신감을 잃어서	관심분야가 바뀌어서	직장이나 사문에	본인의 건강 때문에	등록이 부당해서
성별	남자	474 (37.4)	21 (1.7)	12 (0.9)	177 (14.0)	21 (1.7)	18 (1.4)	20 (1.6)	85 (6.7)	13 (1.0)	393 (31.0)	23 (1.8)	11 (0.9)
	여자	725 (31.6)	29 (1.3)	24 (1.0)	497 (21.6)	20 (0.9)	23 (1.0)	22 (1.0)	129 (5.6)	29 (1.3)	712 (31.0)	74 (3.2)	13 (0.6)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443 (32.9)	20 (1.5)	18 (1.3)	255 (18.9)	13 (1.0)	12 (0.9)	17 (1.3)	110 (8.2)	17 (1.3)	384 (28.5)	51 (3.8)	7 (0.5)
	2학년 편입생	134 (31.8)	4 (1.0)	3 (0.7)	86 (20.4)	3 (0.7)	7 (1.7)	8 (1.9)	20 (4.8)	3 (0.7)	137 (32.5)	15 (3.6)	1 (0.2)
	3학년	622 (34.6)	26 (1.4)	15 (0.8)	333 (18.5)	25 (1.4)	22 (1.2)	17 (0.9)	84 (4.7)	22 (1.2)	584 (32.5)	31 (1.7)	16 (0.9)
연령대	10대	7 (7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1 (10.0)	0 (0.0)	1 (10.0)	0 (0.0)	0 (0.0)
	20대	159 (31.5)	4 (0.8)	4 (0.8)	89 (17.7)	7 (1.4)	11 (2.2)	12 (2.4)	41 (8.1)	9 (1.8)	151 (30.0)	12 (2.4)	5 (1.0)
	30대	217 (27.7)	9 (1.2)	8 (1.0)	149 (19.1)	15 (1.9)	9 (1.2)	6 (0.8)	56 (7.2)	4 (0.5)	290 (37.1)	13 (1.7)	6 (0.8)
	40대	265 (28.2)	15 (1.6)	9 (1.0)	216 (23.0)	8 (0.9)	8 (0.9)	7 (0.7)	42 (4.5)	11 (1.2)	323 (34.4)	27 (2.9)	8 (0.9)
	50대	302 (38.1)	10 (1.3)	10 (1.3)	123 (15.5)	7 (0.9)	6 (0.8)	8 (1.0)	42 (5.3)	12 (1.5)	249 (31.4)	21 (2.6)	3 (0.4)
	60대	210 (44.4)	10 (2.1)	4 (0.8)	88 (18.6)	4 (0.8)	7 (1.5)	8 (1.7)	30 (6.3)	6 (1.3)	86 (18.2)	18 (3.8)	2 (0.4)
	70대 이상	39 (60.9)	2 (3.1)	1 (1.6)	8 (12.5)	0 (0.0)	0 (0.0)	1 (1.6)	2 (3.1)	0 (0.0)	5 (7.8)	6 (9.4)	0 (0.0)
계	1,199 (33.6)	50 (1.4)	36 (1.0)	674 (18.9)	41 (1.2)	41 (1.2)	42 (1.2)	214 (6.0)	42 (1.2)	1,105 (31.0)	97 (2.7)	24 (0.7)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다’는 응답은 남성 37.4%, 여자 31.6%로 남성이 5.8%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생 중에 여학생들이 미등록이나 휴학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학업 중단을 고려한 이유’는 남성 31.0%와 여성 31.0% 모두 ‘직장일이나 가사 때문’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학습부담이 커서’에 남성 14%, 여성 21.6%로 응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학습부담이 7.6%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다’는 응답 비

율은 3학년 편입생이 34.6%로 가장 낮았다. 2학년과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직장이나 가사 때문에’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비율이 각각 32.5%와 32.5%로 높게 나타났으며, 1학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28.5%의 응답율을 보였다.

‘학업중단 고민 이유’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31>과 같다.

<표 V-31> 학업중단 고민 이유(학과별)

단위: 명, %

구분	학업 중단하 거나 고려 적 없음	수강 신청 기간 을 놓 쳐 서	등 시 기 를 놓 쳐 서	학 습 부 담 이 커 서	교 육 과 에 대 한 만 때 문 에	강 의 가 만 족 스 지 못 해 서	수 업 방 법 에 적 용 이 어 려 워	낮 은 점 수 로 자 신 을 잃 어 서	관 심 야 가 바 뀌 어	직 장 나 가 사 때 문 에	본 인 의 건 강 때 문 에	등 금 부 담 이 커 서
국어국문 학과	56 (45.2)	0 (0.0)	2 (1.6)	20 (16.1)	0 (0.0)	1 (0.8)	1 (0.8)	5 (4.0)	0 (0.0)	31 (25.0)	7 (5.6)	1 (0.8)
영어영문 학과	70 (31.4)	2 (0.9)	3 (1.3)	51 (22.9)	4 (1.8)	7 (3.1)	0 (0.0)	12 (5.4)	5 (2.2)	61 (27.4)	5 (2.2)	3 (1.3)
중어중문 학과	70 (46.1)	3 (2.0)	0 (0.0)	24 (15.8)	1 (0.7)	1 (0.7)	1 (0.7)	8 (5.3)	0 (0.0)	37 (24.3)	6 (3.9)	1 (0.7)
프랑스언 어문화학 과	10 (29.4)	0 (0.0)	0 (0.0)	6 (17.6)	1 (2.9)	0 (0.0)	1 (2.9)	4 (11.8)	0 (0.0)	12 (35.3)	0 (0.0)	0 (0.0)
일본학과	44 (35.2)	4 (3.2)	2 (1.6)	22 (17.6)	0 (0.0)	2 (1.6)	2 (1.6)	9 (7.2)	0 (0.0)	32 (25.6)	6 (4.8)	2 (1.6)
법학과	57 (26.5)	3 (1.4)	4 (1.9)	31 (14.4)	4 (1.9)	4 (1.9)	3 (1.4)	15 (7.0)	1 (0.5)	84 (39.1)	8 (3.7)	1 (0.5)
행정학과	17 (33.3)	0 (0.0)	3 (5.9)	9 (17.6)	1 (2.0)	0 (0.0)	0 (0.0)	7 (13.7)	1 (2.0)	13 (25.5)	0 (0.0)	0 (0.0)
경제학과	13 (24.1)	0 (0.0)	1 (1.9)	12 (22.2)	2 (3.7)	2 (3.7)	1 (1.9)	3 (5.6)	1 (1.9)	18 (33.3)	1 (1.9)	0 (0.0)
경영학과	51 (24.3)	3 (1.4)	2 (1.0)	47 (22.4)	1 (0.5)	2 (1.0)	2 (1.0)	17 (8.1)	1 (0.5)	82 (39.0)	2 (1.0)	0 (0.0)
무역학과	9 (36.0)	0 (0.0)	0 (0.0)	1 (4.0)	0 (0.0)	0 (0.0)	0 (0.0)	1 (4.0)	0 (0.0)	13 (52.0)	0 (0.0)	1 (4.0)
미디어영 상학과	36 (35.3)	3 (2.9)	0 (0.0)	15 (14.7)	0 (0.0)	1 (1.0)	1 (1.0)	4 (3.9)	3 (2.9)	35 (34.3)	3 (2.9)	1 (1.0)
관광학과	20 (32.8)	0 (0.0)	0 (0.0)	5 (8.2)	2 (3.3)	0 (0.0)	4 (6.6)	4 (6.6)	2 (3.3)	21 (34.4)	3 (4.9)	0 (0.0)
사회복지 학과	160 (39.5)	8 (2.0)	3 (0.7)	76 (18.8)	4 (1.0)	2 (0.5)	2 (0.5)	20 (4.9)	6 (1.5)	113 (27.9)	6 (1.5)	5 (1.2)
농학과	98 (41.0)	4 (1.7)	1 (0.4)	41 (17.2)	0 (0.0)	1 (0.4)	6 (2.5)	12 (5.0)	5 (2.1)	67 (28.0)	3 (1.3)	1 (0.4)
생활과학 과	76 (28.7)	4 (1.5)	5 (1.9)	56 (21.1)	4 (1.5)	4 (1.5)	5 (1.9)	25 (9.4)	4 (1.5)	72 (27.2)	10 (3.8)	0 (0.0)
컴퓨터과 학과	74 (31.4)	1 (0.4)	1 (0.4)	49 (20.8)	3 (1.3)	5 (2.1)	2 (0.8)	15 (6.4)	1 (0.4)	83 (35.2)	0 (0.0)	2 (0.8)
통계·데 이터과학 과	30 (28.3)	1 (0.9)	3 (2.8)	28 (26.4)	0 (0.0)	2 (1.9)	1 (0.9)	2 (1.9)	2 (1.9)	36 (34.0)	1 (0.9)	0 (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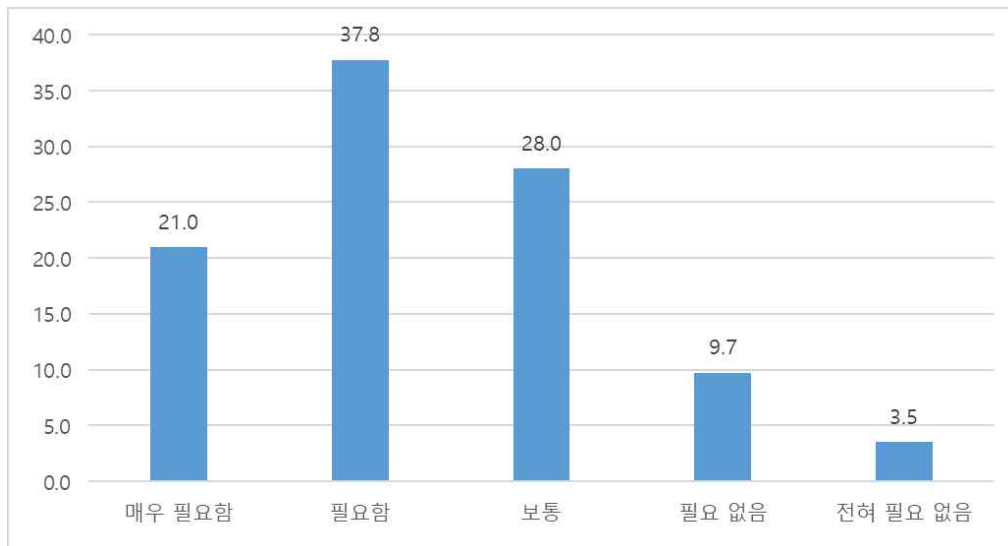
보건환경 학과	39 (37.1)	1 (1.0)	0 (0.0)	14 (13.3)	2 (1.9)	1 (1.0)	1 (1.0)	7 (6.7)	2 (1.9)	34 (32.4)	3 (2.9)	1 (1.0)
간호학과	18 (23.7)	0 (0.0)	0 (0.0)	20 (26.3)	0 (0.0)	0 (0.0)	1 (1.3)	2 (2.6)	0 (0.0)	35 (46.1)	0 (0.0)	0 (0.0)
교육학과	66 (35.9)	4 (2.2)	1 (0.5)	25 (13.6)	2 (1.1)	2 (1.1)	1 (0.5)	8 (4.3)	3 (1.6)	62 (33.7)	9 (4.9)	1 (0.5)
청소년교 육과	56 (35.2)	0 (0.0)	1 (0.6)	40 (25.2)	0 (0.0)	0 (0.0)	1 (0.6)	8 (5.0)	1 (0.6)	44 (27.7)	6 (3.8)	2 (1.3)
유아교육 과	52 (22.5)	7 (3.0)	1 (0.4)	53 (22.9)	6 (2.6)	1 (0.4)	4 (1.7)	13 (5.6)	2 (0.9)	86 (37.2)	5 (2.2)	1 (0.4)
문화교양 학과	57 (42.9)	1 (0.8)	3 (2.3)	21 (15.8)	4 (3.0)	1 (0.8)	1 (0.8)	10 (7.5)	2 (1.5)	22 (16.5)	11 (8.3)	0 (0.0)
생활체육 지도과	20 (40.0)	1 (2.0)	0 (0.0)	8 (16.0)	0 (0.0)	2 (4.0)	1 (2.0)	3 (6.0)	0 (0.0)	12 (24.0)	2 (4.0)	1 (2.0)
계	1,199 (33.6)	50 (1.4)	36 (1.0)	674 (18.9)	41 (1.2)	41 (1.2)	42 (1.2)	214 (6.0)	42 (1.2)	1,105 (31.0)	97 (2.7)	24 (0.7)

4.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방송대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과제물 작성 교육, 시험 준비 전략 안내,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컴퓨터 활용 교육,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의 필요 정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6]과 같다.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고, ‘보통’ 28.0%, ‘매우 필요함’ 21.0% 순이었다.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을 합하면 58.8%의 재학생들이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다.



[그림 V-16]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32>와 같다.

<표 V-32>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별	남자	237 (18.7)	471 (37.1)	389 (30.7)	134 (10.6)	37 (2.9)	1,268 (100.0)	3.58	1.00	-2.07*	
	여자	510 (22.2)	875 (38.1)	610 (26.6)	213 (9.3)	89 (3.9)	2,297 (100.0)	3.65	1.04		
입학유형	신입생 (1학년)	330 (24.5)	522 (38.8)	346 (25.7)	118 (8.8)	31 (2.3)	1,347 (100.0)	3.74	1.00	13.69**	
	편입생	2학년	82 (19.5)	144 (34.2)	139 (33.0)	43 (10.2)	13 (3.1)	421 (100.0)	3.57		1.01
		3학년	335 (18.6)	680 (37.8)	514 (28.6)	186 (10.4)	82 (4.6)	1,797 (100.0)	3.56		1.05
연령대	10대	1 (10.0)	4 (40.0)	4 (40.0)	1 (10.0)	0 (0.0)	10 (100.0)	3.50	.85	5.62**	
	20대	102 (20.2)	165 (32.7)	132 (26.2)	75 (14.9)	30 (6.0)	504 (100.0)	3.46	1.14		
	30대	161 (20.6)	269 (34.4)	222 (28.4)	87 (11.1)	43 (5.5)	782 (100.0)	3.53	1.10		
	40대	182 (19.4)	386 (41.1)	274 (29.2)	69 (7.3)	28 (3.0)	939 (100.0)	3.67	.97		
	50대	182 (23.0)	297 (37.5)	227 (28.6)	70 (8.8)	17 (2.1)	793 (100.0)	3.70	.99		
	60대	107 (22.6)	202 (42.7)	119 (25.2)	37 (7.8)	8 (1.7)	473 (100.0)	3.77	.94		
	70대 이상	12 (18.8)	23 (35.9)	21 (32.8)	8 (12.5)	0 (0.0)	64 (100.0)	3.61	.94		
계		747 (21.0)	1,346 (37.8)	999 (28.0)	347 (9.7)	126 (3.5)	3,565 (100.0)	3.63	1.03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60.3% 남성 55.8%로 여성이 필요성을 4.5%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이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63.3%로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3학년 편입생 56.4%, 1학년 신입생과 2학년 편입생 5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에 대한 응답 비율이 60대 65.3%, 40대와 50대는 모두 60.5%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33>과 같다.

<표 V-33>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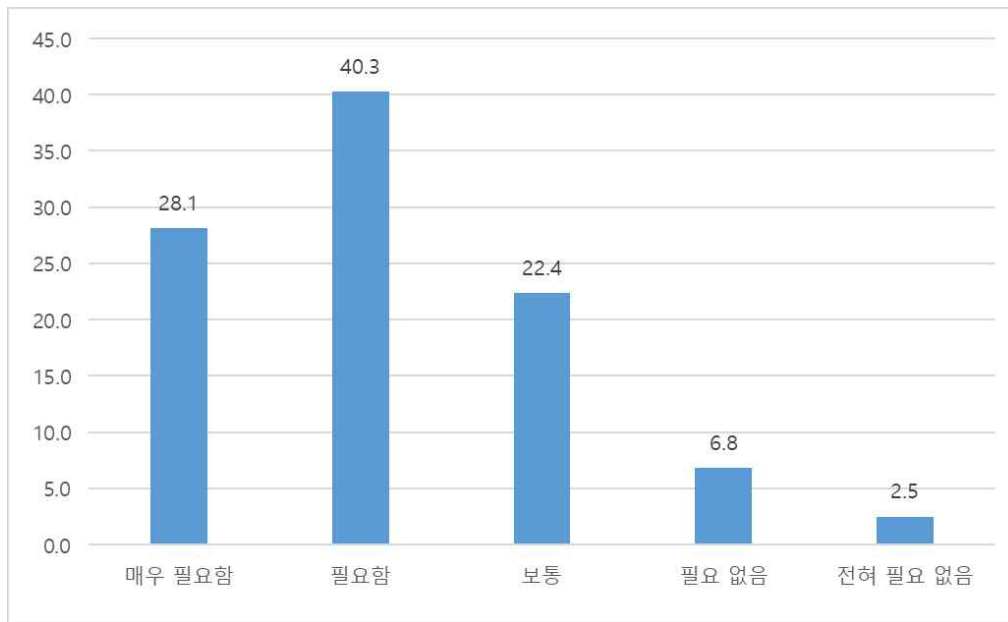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30 (24.2)	43 (34.7)	28 (22.6)	18 (14.5)	5 (4.0)	124 (100.0)
영어영문학과	53 (23.8)	81 (36.3)	58 (26.0)	22 (9.9)	9 (4.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7 (17.8)	55 (36.2)	47 (30.9)	20 (13.2)	3 (2.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6 (17.6)	12 (35.3)	11 (32.4)	3 (8.8)	2 (5.9)	34 (100.0)
일본학과	21 (16.8)	45 (36.0)	41 (32.8)	14 (11.2)	4 (3.2)	125 (100.0)
법학과	45 (20.9)	76 (35.3)	66 (30.7)	19 (8.8)	9 (4.2)	215 (100.0)
행정학과	12 (23.5)	23 (45.1)	10 (19.6)	5 (9.8)	1 (2.0)	51 (100.0)
경제학과	13 (24.1)	18 (33.3)	16 (29.6)	5 (9.3)	2 (3.7)	54 (100.0)
경영학과	39 (18.6)	76 (36.2)	64 (30.5)	21 (10.0)	10 (4.8)	210 (100.0)
무역학과	6 (24.0)	6 (24.0)	9 (36.0)	2 (8.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2 (21.6)	33 (32.4)	31 (30.4)	14 (13.7)	2 (2.0)	102 (100.0)
관광학과	17 (27.9)	25 (41.0)	12 (19.7)	7 (11.5)	0 (0.0)	61 (100.0)
사회복지학과	82 (20.2)	164 (40.5)	122 (30.1)	27 (6.7)	10 (2.5)	405 (100.0)
농학과	44 (18.4)	102 (42.7)	76 (31.8)	14 (5.9)	3 (1.3)	239 (100.0)
생활과학과	60 (22.6)	105 (39.6)	66 (24.9)	25 (9.4)	9 (3.4)	265 (100.0)
컴퓨터과학과	33 (14.0)	96 (40.7)	65 (27.5)	31 (13.1)	11 (4.7)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23 (21.7)	28 (26.4)	29 (27.4)	15 (14.2)	11 (10.4)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7 (25.7)	40 (38.1)	26 (24.8)	9 (8.6)	3 (2.9)	105 (100.0)
간호학과	16 (21.1)	29 (38.2)	22 (28.9)	6 (7.9)	3 (3.9)	76 (100.0)
교육학과	33 (17.9)	71 (38.6)	49 (26.6)	24 (13.0)	7 (3.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39 (24.5)	65 (40.9)	36 (22.6)	14 (8.8)	5 (3.1)	159 (100.0)
유아교육과	63 (27.3)	83 (35.9)	56 (24.2)	18 (7.8)	11 (4.8)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3 (17.3)	49 (36.8)	48 (36.1)	10 (7.5)	3 (2.3)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3 (26.0)	21 (42.0)	11 (22.0)	4 (8.0)	1 (2.0)	50 (100.0)
계	747 (21.0)	1,346 (37.8)	999 (28.0)	347 (9.7)	126 (3.5)	3,565 (100.0)

2) 과제물 작성 교육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과제물 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7]과 같다.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8.1%, ‘보통’ 22.4% 순이었다.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을 합하면 68.4%로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과제물 작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9.3%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V-17] 과제물 작성 교육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34>와 같다.

<표 V-34> 과제물 작성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 별	남자	310 (24.4)	505 (39.8)	322 (25.4)	100 (7.9)	31 (2.4)	1,268 (100.0)	3.76	0.99	-3.94* *	
	여자	692 (30.1)	930 (40.5)	475 (20.7)	143 (6.2)	57 (2.5)	2,297 (100.0)	3.90	0.98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437 (32.4)	553 (41.1)	272 (20.2)	65 (4.8)	20 (1.5)	1,347 (100.0)	3.98	0.92	20.25**	
	편 입 생	2학 년	106 (25.2)	166 (39.4)	108 (25.7)	31 (7.4)	10 (2.4)	421 (100.0)	3.78		0.98
		3학 년	459 (25.5)	716 (39.8)	417 (23.2)	147 (8.2)	58 (3.2)	1,797 (100.0)	3.76		1.02
연 령 대	10대	4 (40.0)	4 (40.0)	2 (20.0)	0 (0.0)	0 (0.0)	10 (100.0)	4.20	0.79	4.06**	
	20대	139 (27.6)	173 (34.3)	127 (25.2)	41 (8.1)	24 (4.8)	504 (100.0)	3.72	1.10		
	30대	216 (27.6)	292 (37.3)	179 (22.9)	63 (8.1)	32 (4.1)	782 (100.0)	3.76	1.07		
	40대	269 (28.6)	379 (40.4)	214 (22.8)	61 (6.5)	16 (1.7)	939 (100.0)	3.88	0.96		
	50대	222 (28.0)	350 (44.1)	164 (20.7)	47 (5.9)	10 (1.3)	793 (100.0)	3.92	0.91		
	60대	132 (27.9)	209 (44.2)	99 (20.9)	27 (5.7)	6 (1.3)	473 (100.0)	3.92	0.91		
	70대 이상	20 (31.3)	28 (43.8)	12 (18.8)	4 (6.3)	0 (0.0)	64 (100.0)	4.00	0.87		
계		1,002 (28.1)	1,435 (40.3)	797 (22.4)	243 (6.8)	88 (2.5)	3,565 (100.0)	3.85	0.99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과제물 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70.6% 남자 64.2%로 여성이 필요성을 6.4%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이 ‘과제물 작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73.5%로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3학년 편입생은 65.3%, 2학년 편입생은 6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70대는 75.1%, 50대와 60대는 모두 72.1%, 40대가 69%로 나타나, 4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과제물 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35>와 같다.

<표 V-35> 과제물 작성 교육(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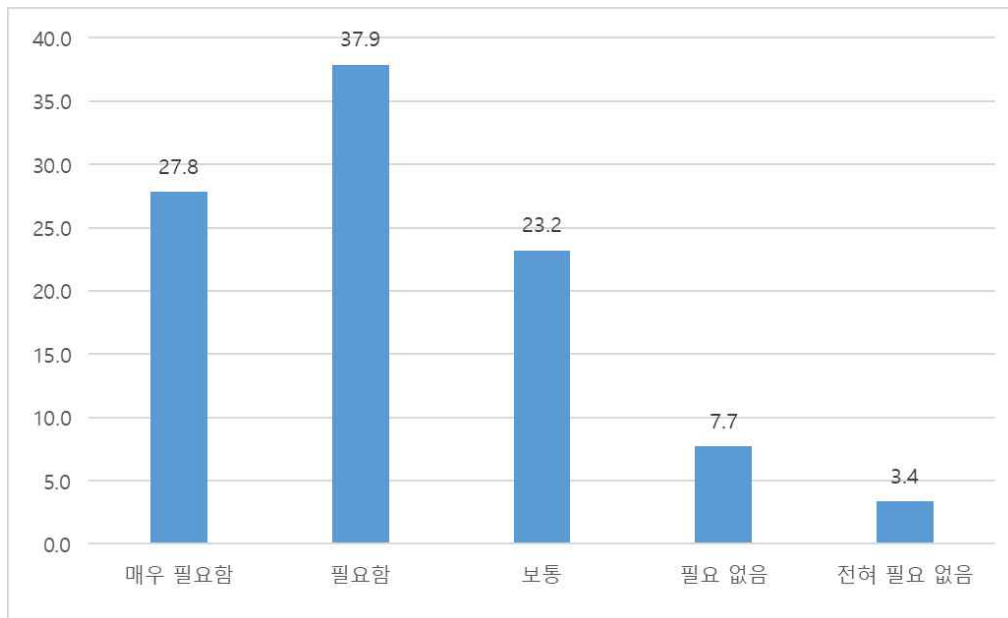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30 (24.2)	54 (43.5)	30 (24.2)	6 (4.8)	4 (3.2)	124 (100.0)
영어영문학과	52 (23.3)	91 (40.8)	57 (25.6)	14 (6.3)	9 (4.0)	223 (100.0)
중어중문학과	35 (23.0)	68 (44.7)	33 (21.7)	14 (9.2)	2 (1.3)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7 (20.6)	13 (38.2)	9 (26.5)	4 (11.8)	1 (2.9)	34 (100.0)
일본학과	22 (17.6)	57 (45.6)	28 (22.4)	15 (12.0)	3 (2.4)	125 (100.0)
법학과	55 (25.6)	90 (41.9)	50 (23.3)	13 (6.0)	7 (3.3)	215 (100.0)
행정학과	19 (37.3)	17 (33.3)	10 (19.6)	4 (7.8)	1 (2.0)	51 (100.0)
경제학과	12 (22.2)	18 (33.3)	21 (38.9)	3 (5.6)	0 (0.0)	54 (100.0)
경영학과	61 (29.0)	83 (39.5)	40 (19.0)	20 (9.5)	6 (2.9)	210 (100.0)
무역학과	2 (8.0)	9 (36.0)	11 (44.0)	1 (4.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9 (28.4)	45 (44.1)	22 (21.6)	6 (5.9)	0 (0.0)	102 (100.0)
관광학과	14 (23.0)	31 (50.8)	11 (18.0)	5 (8.2)	0 (0.0)	61 (100.0)
사회복지학과	133 (32.8)	163 (40.2)	78 (19.3)	26 (6.4)	5 (1.2)	405 (100.0)
농학과	54 (22.6)	118 (49.4)	52 (21.8)	11 (4.6)	4 (1.7)	239 (100.0)
생활과학과	85 (32.1)	113 (42.6)	49 (18.5)	12 (4.5)	6 (2.3)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7 (19.9)	74 (31.4)	73 (30.9)	32 (13.6)	10 (4.2)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18 (17.0)	33 (31.1)	34 (32.1)	12 (11.3)	9 (8.5)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4 (41.9)	34 (32.4)	18 (17.1)	6 (5.7)	3 (2.9)	105 (100.0)
간호학과	24 (31.6)	38 (50.0)	11 (14.5)	2 (2.6)	1 (1.3)	76 (100.0)
교육학과	49 (26.6)	71 (38.6)	47 (25.5)	11 (6.0)	6 (3.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7 (42.1)	56 (35.2)	28 (17.6)	6 (3.8)	2 (1.3)	159 (100.0)
유아교육과	93 (40.3)	80 (34.6)	46 (19.9)	8 (3.5)	4 (1.7)	231 (100.0)
문화교양학과	34	58	30	9	2	133

	(25.6)	(43.6)	(22.6)	(6.8)	(1.5)	(100.0)
생활체육지도과	16 (32.0)	21 (42.0)	9 (18.0)	3 (6.0)	1 (2.0)	50 (100.0)
계	1,002 (28.1)	1,435 (40.3)	797 (22.4)	243 (6.8)	88 (2.5)	3,565 (100.0)

3) 시험 준비 전략 안내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시험 준비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8]과 같다.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7.8%, ‘보통’이 23.2% 순이었다.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을 합하면 65.7%로 약 3분의 2의 학생들이 ‘시험 준비 전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1.1%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V-18] 시험 준비 전략 안내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36>과 같다.

<표 V-36> 시험 준비 전략 안내(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 별	남자	295 (23.3)	474 (37.4)	336 (26.5)	116 (9.1)	47 (3.7)	1,268 (100.0)	3.67	1.04	-5.02**	
	여자	697 (30.3)	877 (38.2)	491 (21.4)	159 (6.9)	73 (3.2)	2,297 (100.0)	3.86	1.03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443 (32.9)	503 (37.3)	289 (21.5)	81 (6.0)	31 (2.3)	1,347 (100.0)	3.93	0.99	18.36**	
	편 입 생	2학 년	97 (23.0)	158 (37.5)	116 (27.6)	36 (8.6)	14 (3.3)	421 (100.0)	3.68		1.02
		3학 년	452 (25.2)	690 (38.4)	422 (23.5)	158 (8.8)	75 (4.2)	1,797 (100.0)	3.72		1.06
연 령 대	10대	2 (20.0)	5 (50.0)	3 (30.0)	0 (0.0)	0 (0.0)	10 (100.0)	3.90	0.74	2.43*	
	20대	138 (27.4)	156 (31.0)	130 (25.8)	54 (10.7)	26 (5.2)	504 (100.0)	3.65	1.14		
	30대	235 (30.1)	278 (35.5)	160 (20.5)	73 (9.3)	36 (4.6)	782 (100.0)	3.77	1.11		
	40대	262 (27.9)	382 (40.7)	209 (22.3)	57 (6.1)	29 (3.1)	939 (100.0)	3.84	1.00		
	50대	214 (27.0)	313 (39.5)	197 (24.8)	53 (6.7)	16 (2.0)	793 (100.0)	3.83	0.97		
	60대	128 (27.1)	190 (40.2)	112 (23.7)	31 (6.6)	12 (2.5)	473 (100.0)	3.83	0.98		
	70대 이상	13 (20.3)	27 (42.2)	16 (25.0)	7 (10.9)	1 (1.6)	64 (100.0)	3.69	0.97		
계		992 (27.8)	1,351 (37.9)	827 (23.2)	275 (7.7)	120 (3.4)	3,565 (100.0)	3.79	1.04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 준비 전략 안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68.5% 남성 60.7%로 여성이 필요성을 7.8%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이 ‘시험 준비 전략 안내’에 대한 필요성을 70.2%로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3학년 편입생 63.6%, 2학년 편입생 6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대 70%, 40대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60%대의 응답 비율로 중요하다라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20대만 58.4%로 다소 낮은 분포를 보였다.

‘시험준비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37>과 같다.

<표 V-37> 시험준비 전략 안내(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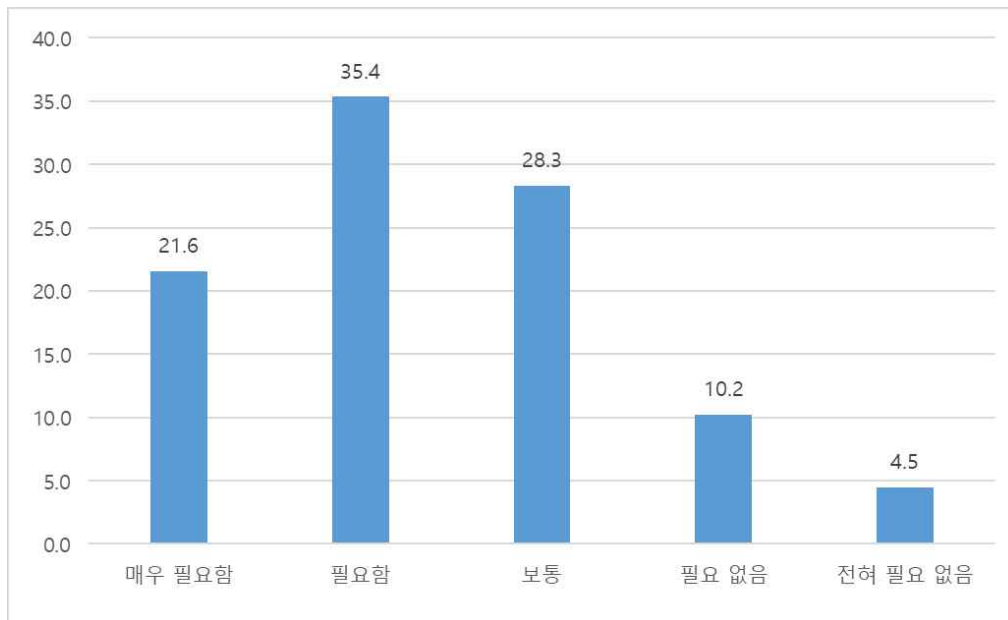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33 (26.6)	45 (36.3)	27 (21.8)	14 (11.3)	5 (4.0)	124 (100.0)
영어영문학과	52 (23.3)	78 (35.0)	61 (27.4)	24 (10.8)	8 (3.6)	223 (100.0)
중어중문학과	32 (21.1)	61 (40.1)	36 (23.7)	17 (11.2)	6 (3.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6 (17.6)	15 (44.1)	4 (11.8)	7 (20.6)	2 (5.9)	34 (100.0)
일본학과	24 (19.2)	41 (32.8)	42 (33.6)	14 (11.2)	4 (3.2)	125 (100.0)
법학과	61 (28.4)	68 (31.6)	57 (26.5)	21 (9.8)	8 (3.7)	215 (100.0)
행정학과	24 (47.1)	16 (31.4)	8 (15.7)	2 (3.9)	1 (2.0)	51 (100.0)
경제학과	12 (22.2)	21 (38.9)	15 (27.8)	5 (9.3)	1 (1.9)	54 (100.0)
경영학과	65 (31.0)	84 (40.0)	41 (19.5)	15 (7.1)	5 (2.4)	210 (100.0)
무역학과	5 (20.0)	7 (28.0)	9 (36.0)	2 (8.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8 (27.5)	41 (40.2)	24 (23.5)	7 (6.9)	2 (2.0)	102 (100.0)
관광학과	14 (23.0)	28 (45.9)	15 (24.6)	1 (1.6)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107 (26.4)	179 (44.2)	86 (21.2)	24 (5.9)	9 (2.2)	405 (100.0)
농학과	56 (23.4)	108 (45.2)	57 (23.8)	15 (6.3)	3 (1.3)	239 (100.0)
생활과학과	96 (36.2)	91 (34.3)	57 (21.5)	13 (4.9)	8 (3.0)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6 (19.5)	77 (32.6)	70 (29.7)	33 (14.0)	10 (4.2)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18 (17.0)	32 (30.2)	26 (24.5)	18 (17.0)	12 (11.3)	106 (100.0)
보건환경학과	36 (34.3)	41 (39.0)	22 (21.0)	1 (1.0)	5 (4.8)	105 (100.0)
간호학과	33 (43.4)	30 (39.5)	8 (10.5)	3 (3.9)	2 (2.6)	76 (100.0)
교육학과	52 (28.3)	70 (38.0)	42 (22.8)	13 (7.1)	7 (3.8)	184 (100.0)
청소년교육과	61 (38.4)	61 (38.4)	29 (18.2)	4 (2.5)	4 (2.5)	159 (100.0)
유아교육과	88 (38.1)	81 (35.1)	44 (19.0)	10 (4.3)	8 (3.5)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5 (18.8)	56 (42.1)	39 (29.3)	9 (6.8)	4 (3.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8 (36.0)	20 (40.0)	8 (16.0)	3 (6.0)	1 (2.0)	50 (100.0)
계	992 (27.8)	1,351 (37.9)	827 (23.2)	275 (7.7)	120 (3.4)	3,565 (100.0)

4)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19]와 같다.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8.3%, ‘매우 필요함’이 21.6% 순이었다.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을 합하면 57.0%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4.7%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V-19]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38>과 같다.

<표 V-38>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별	남자	246 (19.4)	442 (34.9)	387 (30.5)	133 (10.5)	60 (4.7)	1,268 (100.0)	3.54	1.06	-2.32*	
	여자	523 (22.8)	819 (35.7)	623 (27.1)	232 (10.1)	100 (4.4)	2,297 (100.0)	3.62	1.07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348 (25.8)	479 (35.6)	362 (26.9)	113 (8.4)	45 (3.3)	1,347 (100.0)	3.72	1.04	15.74**	
	편입생	2학년	77 (18.3)	153 (36.3)	122 (29.0)	49 (11.6)	20 (4.8)	421 (100.0)	3.52		1.07
		3학년	344 (19.1)	629 (35.0)	526 (29.3)	203 (11.3)	95 (5.3)	1,797 (100.0)	3.51		1.08
연령대	10대	1 (10.0)	4 (40.0)	5 (50.0)	0 (0.0)	0 (0.0)	10 (100.0)	3.60	0.70	3.07*	
	20대	128 (25.4)	133 (26.4)	136 (27.0)	66 (13.1)	41 (8.1)	504 (100.0)	3.48	1.23		
	30대	178 (22.8)	235 (30.1)	223 (28.5)	97 (12.4)	49 (6.3)	782 (100.0)	3.51	1.15		
	40대	195 (20.8)	358 (38.1)	267 (28.4)	86 (9.2)	33 (3.5)	939 (100.0)	3.63	1.02		
	50대	164 (20.7)	316 (39.8)	229 (28.9)	64 (8.1)	20 (2.5)	793 (100.0)	3.68	0.97		
	60대	93 (19.7)	187 (39.5)	134 (28.3)	44 (9.3)	15 (3.2)	473 (100.0)	3.63	1.00		
	70대 이상	10 (15.6)	28 (43.8)	16 (25.0)	8 (12.5)	2 (3.1)	64 (100.0)	3.56	1.01		
계	769 (21.6)	1,261 (35.4)	1,010 (28.3)	365 (10.2)	160 (4.5)	3,565 (100.0)	3.59	1.07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58.5% 남성 54.3%로 여성이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의 필요성을 4.2%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 신입생이 61.4%로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했고, 2학년 편입생 54.6%, 3학년 편입생 5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대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60대가 59.2%였고, 10대는 50%로 가장 낮았다.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39>와 같다.

<표 V-39>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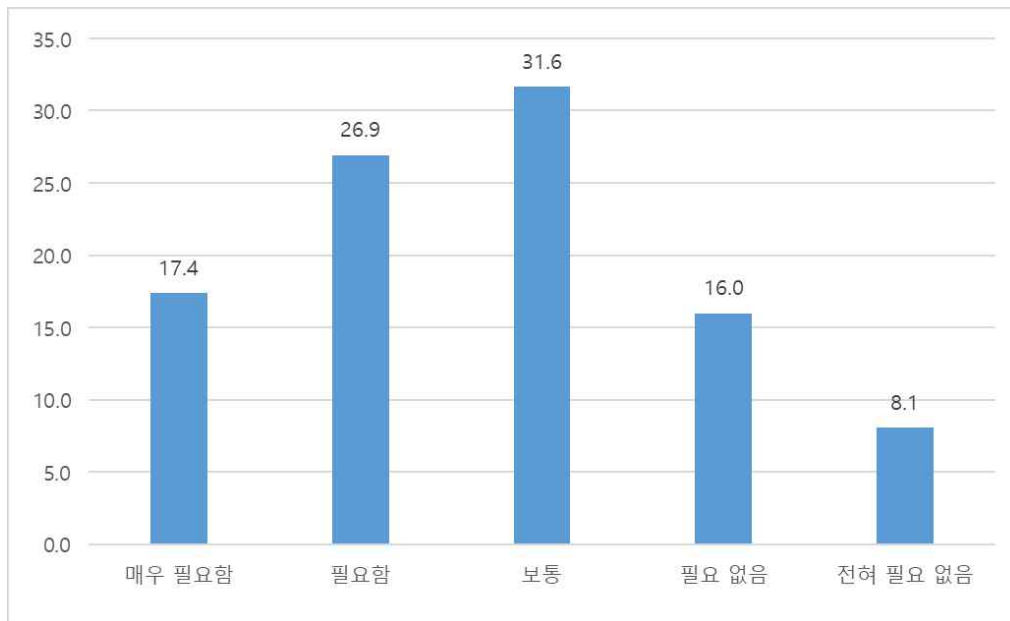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20 (16.1)	50 (40.3)	30 (24.2)	16 (12.9)	8 (6.5)	124 (100.0)
영어영문학과	50 (22.4)	82 (36.8)	56 (25.1)	24 (10.8)	11 (4.9)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4 (15.8)	60 (39.5)	37 (24.3)	25 (16.4)	6 (3.9)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7 (20.6)	9 (26.5)	9 (26.5)	7 (20.6)	2 (5.9)	34 (100.0)
일본학과	24 (19.2)	41 (32.8)	38 (30.4)	17 (13.6)	5 (4.0)	125 (100.0)
법학과	50 (23.3)	71 (33.0)	60 (27.9)	15 (7.0)	19 (8.8)	215 (100.0)
행정학과	17 (33.3)	12 (23.5)	15 (29.4)	5 (9.8)	2 (3.9)	51 (100.0)
경제학과	11 (20.4)	17 (31.5)	14 (25.9)	10 (18.5)	2 (3.7)	54 (100.0)
경영학과	43 (20.5)	67 (31.9)	71 (33.8)	23 (11.0)	6 (2.9)	210 (100.0)
무역학과	5 (20.0)	6 (24.0)	9 (36.0)	3 (12.0)	2 (8.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21 (20.6)	31 (30.4)	33 (32.4)	14 (13.7)	3 (2.9)	102 (100.0)
관광학과	11 (18.0)	27 (44.3)	17 (27.9)	3 (4.9)	3 (4.9)	61 (100.0)
사회복지학과	75 (18.5)	164 (40.5)	117 (28.9)	38 (9.4)	11 (2.7)	405 (100.0)
농학과	42 (17.6)	94 (39.3)	77 (32.2)	21 (8.8)	5 (2.1)	239 (100.0)
생활과학과	72 (27.2)	95 (35.8)	68 (25.7)	17 (6.4)	13 (4.9)	265 (100.0)
컴퓨터과학과	41 (17.4)	68 (28.8)	78 (33.1)	35 (14.8)	14 (5.9)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16 (15.1)	26 (24.5)	31 (29.2)	19 (17.9)	14 (13.2)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8 (26.7)	43 (41.0)	26 (24.8)	5 (4.8)	3 (2.9)	105 (100.0)
간호학과	20 (26.3)	33 (43.4)	15 (19.7)	5 (6.6)	3 (3.9)	76 (100.0)
교육학과	37 (20.1)	71 (38.6)	53 (28.8)	15 (8.2)	8 (4.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44 (27.7)	63 (39.6)	37 (23.3)	10 (6.3)	5 (3.1)	159 (100.0)
유아교육과	73 (31.6)	68 (29.4)	63 (27.3)	17 (7.4)	10 (4.3)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2 (16.5)	46 (34.6)	46 (34.6)	15 (11.3)	4 (3.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6 (32.0)	17 (34.0)	10 (20.0)	6 (12.0)	1 (2.0)	50 (100.0)
계	769 (21.6)	1,261 (35.4)	1,010 (28.3)	365 (10.2)	160 (4.5)	3,565 (100.0)

5) 컴퓨터 활용 교육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컴퓨터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20]과 같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이 26.9%, ‘매우 필요함’이 17.4% 순이었다. 반면 ‘필요 없음’과 ‘전혀 필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24.1%의 분포를 보였다.



[그림 V-20] 컴퓨터 활용 교육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40>과 같다.

<표 V-40> 컴퓨터 활용 교육(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 별	남자	205 (16.2)	339 (26.7)	399 (31.5)	223 (17.6)	102 (8.0)	1,268 (100.0)	3.25	1.16	-1.59	
	여자	414 (18.0)	621 (27.0)	729 (31.7)	347 (15.1)	186 (8.1)	2,297 (100.0)	3.32	1.17		
입 학 유 형	신입생 (1학년)	287 (21.3)	360 (26.7)	421 (31.3)	187 (13.9)	92 (6.8)	1,347 (100.0)	3.42	1.17	14.13**	
	편 입 생	2학 년	68 (16.2)	126 (29.9)	131 (31.1)	66 (15.7)	30 (7.1)	421 (100.0)	3.32		1.13
		3학 년	264 (14.7)	474 (26.4)	576 (32.1)	317 (17.6)	166 (9.2)	1,797 (100.0)	3.20		1.17
연 령 대	10대	2 (20.0)	1 (10.0)	5 (50.0)	1 (10.0)	1 (10.0)	10 (100.0)	3.20	1.23	16.97**	
	20대	89 (17.7)	100 (19.8)	142 (28.2)	97 (19.2)	76 (15.1)	504 (100.0)	3.06	1.30		
	30대	107 (13.7)	173 (22.1)	261 (33.4)	152 (19.4)	89 (11.4)	782 (100.0)	3.07	1.19		
	40대	145 (15.4)	273 (29.1)	319 (34.0)	133 (14.2)	69 (7.3)	939 (100.0)	3.31	1.12		
	50대	145 (18.3)	246 (31.0)	254 (32.0)	115 (14.5)	33 (4.2)	793 (100.0)	3.45	1.07		
	60대	113 (23.9)	146 (30.9)	129 (27.3)	66 (14.0)	19 (4.0)	473 (100.0)	3.57	1.12		
	70대 이상	18 (28.1)	21 (32.8)	18 (28.1)	6 (9.4)	1 (1.6)	64 (100.0)	3.77	1.02		
계		619 (17.4)	960 (26.9)	1,128 (31.6)	570 (16.0)	288 (8.1)	3,565 (100.0)	3.30	1.17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42.9% 남성 45.0%로 여성이 필요성을 2.1%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남성 25.6%, 여성 23.2%로 남성이 필요성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컴퓨터 활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1학년 신입생이 48%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2학년 편입생이 46.1%, 3학년 편입생이 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 이하(30대 35.8%, 20대, 37.5%, 10대 30%)는 40대 이상에 비해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였고, 40대 이상(60대 60.9%, 50대 54.8%, 40대 44.5%)은 모두 컴퓨터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41>과 같다.

<표 V-41> 컴퓨터 활용 교육(학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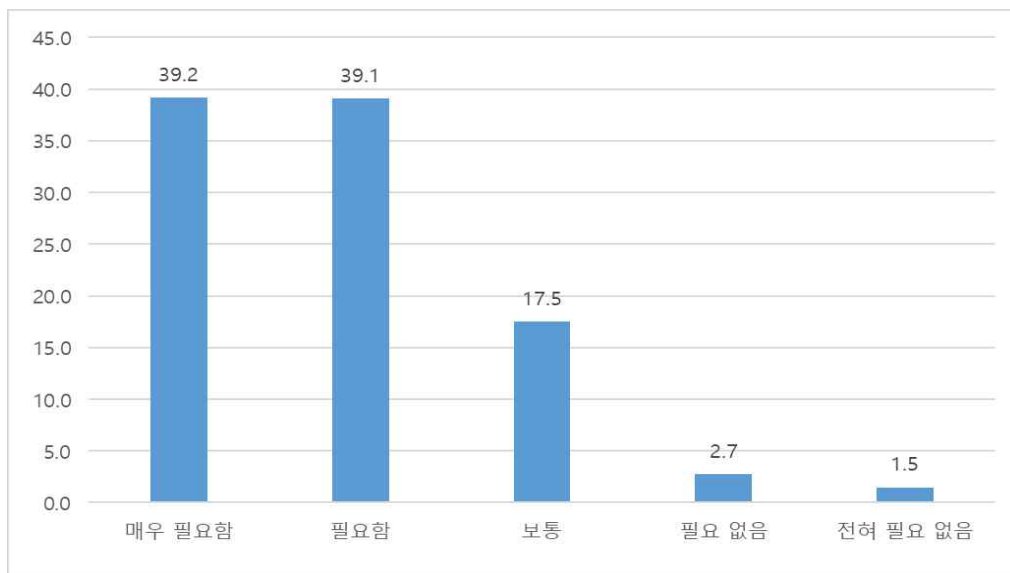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22 (17.7)	31 (25.0)	41 (33.1)	19 (15.3)	11 (8.9)	124 (100.0)
영어영문학과	36 (16.1)	62 (27.8)	72 (32.3)	38 (17.0)	15 (6.7)	223 (100.0)
중어중문학과	22 (14.5)	53 (34.9)	38 (25.0)	26 (17.1)	13 (8.6)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 학과	5 (14.7)	7 (20.6)	10 (29.4)	7 (20.6)	5 (14.7)	34 (100.0)
일본학과	23 (18.4)	43 (34.4)	34 (27.2)	18 (14.4)	7 (5.6)	125 (100.0)
법학과	28 (13.0)	57 (26.5)	69 (32.1)	35 (16.3)	26 (12.1)	215 (100.0)
행정학과	11 (21.6)	11 (21.6)	20 (39.2)	3 (5.9)	6 (11.8)	51 (100.0)
경제학과	10 (18.5)	17 (31.5)	13 (24.1)	12 (22.2)	2 (3.7)	54 (100.0)
경영학과	30 (14.3)	48 (22.9)	76 (36.2)	41 (19.5)	15 (7.1)	210 (100.0)
무역학과	5 (20.0)	4 (16.0)	10 (40.0)	3 (12.0)	3 (12.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13 (12.7)	17 (16.7)	32 (31.4)	27 (26.5)	13 (12.7)	102 (100.0)
관광학과	16 (26.2)	20 (32.8)	19 (31.1)	4 (6.6)	2 (3.3)	61 (100.0)
사회복지학과	66 (16.3)	120 (29.6)	135 (33.3)	60 (14.8)	24 (5.9)	405 (100.0)
농학과	38 (15.9)	68 (28.5)	88 (36.8)	34 (14.2)	11 (4.6)	239 (100.0)
생활과학과	64 (24.2)	65 (24.5)	81 (30.6)	36 (13.6)	19 (7.2)	265 (100.0)
컴퓨터과학과	28 (11.9)	43 (18.2)	75 (31.8)	55 (23.3)	35 (14.8)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 과	10 (9.4)	13 (12.3)	32 (30.2)	35 (33.0)	16 (15.1)	106 (100.0)
보건환경학과	25 (23.8)	31 (29.5)	27 (25.7)	15 (14.3)	7 (6.7)	105 (100.0)
간호학과	11 (14.5)	28 (36.8)	24 (31.6)	8 (10.5)	5 (6.6)	76 (100.0)
교육학과	31 (16.8)	51 (27.7)	61 (33.2)	28 (15.2)	13 (7.1)	184 (100.0)
청소년교육과	33 (20.8)	53 (33.3)	46 (28.9)	15 (9.4)	12 (7.5)	159 (100.0)

유아교육과	57 (24.7)	64 (27.7)	67 (29.0)	24 (10.4)	19 (8.2)	231 (100.0)
문화교양학과	23 (17.3)	39 (29.3)	45 (33.8)	18 (13.5)	8 (6.0)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12 (24.0)	15 (30.0)	13 (26.0)	9 (18.0)	1 (2.0)	50 (100.0)
계	619 (17.4)	960 (26.9)	1,128 (31.6)	570 (16.0)	288 (8.1)	3,565 (100.0)

6) 학사 관련 정보 알림

실태조사 참여자들에게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V-21]과 같다. ‘매우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 39.1%, ‘보통’ 17.5% 순이었다.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응답을 합하면 78.3%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1] 학사 관련 정보 알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표 V-4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81.8% 남성 72.1%로 여성이 필요성을 9.7%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유형에 따른 응

답 결과는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이 ‘학사 관련 정보 알림’에 대한 필요성을 각각 78.3%로, 2학년 편입생이 78.0%로 인식하여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30대에서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에 대한 응답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고, 40대와 50대도 각각 78.6%, 78.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42> 학사 관련 정보 알림(성별, 입학유형별,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평균	표준 편차	t/F값	
성별	남자	447 (35.3)	467 (36.8)	283 (22.3)	52 (4.1)	19 (1.5)	467 (36.8)	447	1,268	4.00	
	여자	950 (41.4)	927 (40.4)	341 (14.8)	46 (2.0)	33 (1.4)	927 (40.4)	950	2,297		
입학 유형	신입생 (1학년)	561 (41.6)	495 (36.7)	245 (18.2)	34 (2.5)	12 (0.9)	495 (36.7)	561	1,347	4.16	
	편입생	2학년	148 (35.2)	180 (42.8)	75 (17.8)	13 (3.1)	5 (1.2)	180 (42.8)	148		421
		3학년	688 (38.3)	719 (40.0)	304 (16.9)	51 (2.8)	35 (1.9)	719 (40.0)	688		1,797
연령대	10대	4 (40.0)	3 (30.0)	3 (30.0)	0 (0.0)	0 (0.0)	3 (30.0)	4	10	4.10	
	20대	230 (45.6)	156 (31.0)	88 (17.5)	16 (3.2)	14 (2.8)	156 (31.0)	230	504		
	30대	339 (43.4)	287 (36.7)	122 (15.6)	16 (2.0)	18 (2.3)	287 (36.7)	339	782		
	40대	358 (38.1)	380 (40.5)	167 (17.8)	25 (2.7)	9 (1.0)	380 (40.5)	358	939		
	50대	287 (36.2)	334 (42.1)	138 (17.4)	26 (3.3)	8 (1.0)	334 (42.1)	287	793		
	60대	158 (33.4)	208 (44.0)	96 (20.3)	9 (1.9)	2 (0.4)	208 (44.0)	158	473		
	70대 이상	21 (32.8)	26 (40.6)	10 (15.6)	6 (9.4)	1 (1.6)	26 (40.6)	21	64		
계	1,397 (39.2)	1,394 (39.1)	624 (17.5)	98 (2.7)	52 (1.5)	1,394 (39.1)	1,397	3,565	4.12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의 필요성에 대한 학과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V-43>과 같다

<표 V-43> 학사 관련 정보 알림(학과별)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전체
국어국문학과	42 (33.9)	53 (42.7)	20 (16.1)	7 (5.6)	2 (1.6)	124 (100.0)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영어영문학과	87 (39.0)	92 (41.3)	36 (16.1)	4 (1.8)	4 (1.8)	223 (100.0)
중어중문학과	47 (30.9)	71 (46.7)	28 (18.4)	6 (3.9)	0 (0.0)	152 (100.0)
프랑스언어문화학과	20 (58.8)	8 (23.5)	3 (8.8)	2 (5.9)	1 (2.9)	34 (100.0)
일본학과	42 (33.6)	51 (40.8)	24 (19.2)	6 (4.8)	2 (1.6)	125 (100.0)
법학과	86 (40.0)	78 (36.3)	41 (19.1)	4 (1.9)	6 (2.8)	215 (100.0)
행정학과	23 (45.1)	16 (31.4)	12 (23.5)	0 (0.0)	0 (0.0)	51 (100.0)
경제학과	24 (44.4)	15 (27.8)	12 (22.2)	3 (5.6)	0 (0.0)	54 (100.0)
경영학과	79 (37.6)	74 (35.2)	44 (21.0)	10 (4.8)	3 (1.4)	210 (100.0)
무역학과	10 (40.0)	10 (40.0)	5 (20.0)	0 (0.0)	0 (0.0)	25 (100.0)
미디어영상학과	37 (36.3)	37 (36.3)	23 (22.5)	5 (4.9)	0 (0.0)	102 (100.0)
관광학과	22 (36.1)	27 (44.3)	10 (16.4)	2 (3.3)	0 (0.0)	61 (100.0)
사회복지학과	164 (40.5)	169 (41.7)	61 (15.1)	7 (1.7)	4 (1.0)	405 (100.0)
농학과	87 (36.4)	106 (44.4)	42 (17.6)	3 (1.3)	1 (0.4)	239 (100.0)
생활과학과	116 (43.8)	99 (37.4)	42 (15.8)	7 (2.6)	1 (0.4)	265 (100.0)
컴퓨터과학과	91 (38.6)	89 (37.7)	43 (18.2)	8 (3.4)	5 (2.1)	236 (100.0)
통계·데이터과학과	42 (39.6)	39 (36.8)	16 (15.1)	4 (3.8)	5 (4.7)	106 (100.0)
보건환경학과	47 (44.8)	38 (36.2)	18 (17.1)	1 (1.0)	1 (1.0)	105 (100.0)
간호학과	28 (36.8)	38 (50.0)	7 (9.2)	1 (1.3)	2 (2.6)	76 (100.0)
교육학과	65 (35.3)	77 (41.8)	32 (17.4)	4 (2.2)	6 (3.3)	184 (100.0)
청소년교육과	57 (35.8)	68 (42.8)	29 (18.2)	3 (1.9)	2 (1.3)	159 (100.0)
유아교육과	122 (52.8)	67 (29.0)	37 (16.0)	0 (0.0)	5 (2.2)	231 (100.0)
문화교양학과	39 (29.3)	55 (41.4)	29 (21.8)	8 (6.0)	2 (1.5)	133 (100.0)
생활체육지도과	20 (40.0)	17 (34.0)	10 (20.0)	3 (6.0)	0 (0.0)	50 (100.0)
계	1,397 (39.2)	1,394 (39.1)	624 (17.5)	98 (2.7)	52 (1.5)	3,565 (100.0)

VI.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방송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활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방송대 교육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송대 재학생 대상의 설문조사는 교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2022년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교내 통계자료의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10월 1일자 등록생으로 설정하였으며, 총 80,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의 응답율은 4.4%이며, 전체 응답자 중 설문조사 중복응답이나 미등록생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둘째 방송대 진학동기에 대한 분석, 셋째, 방송대 재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분석, 넷째, 방송대 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는 방송대의 데이터허브시스템과 정보화본부에서 추출한 2022년 10월 1일자 기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집이 어려운 최종학력과 가계월소득 분포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 방송대 재학생의 규모

연도별 등록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1학기의 등록생 수는 95,389명, 등록률은 70.7%로 전년 동월에 비해 7,620명, 2.5% 감소하였다. 2022학년도 2학기의 등록생 수는

82,571명, 등록률은 69.0%로 전년 동월에 비해 7,681명, 0.2% 감소하였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신·편입생과 재학생은 각각 27,693명(29%), 67,696명(71%)의 분포를 보였고, 신·편입생은 전년 동월(33.3%)에 비해 4.3% 감소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신·편입생과 재학생은 각각 8,767(10.9%), 71,995명(89.1%)의 분포로 나타났고, 신·편입생은 전년 동월(10.8%)에 비해 0.1% 증가하여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단과대학과 학과별 학생 수의 분포는 1학기 및 2학기 모두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의 순으로 동일했으며, 1학기 및 2학기 모두 학생 수가 소폭 증가한 학과는 『사회복지학과』, 『컴퓨터학과』, 『통계·데이터학과』, 『생활체육지도과』, 『미디어영상학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별 재학생 현황은 『서울지역대학』, 『경기지역대학』, 『인천지역대학』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지역대학의 학생 비율을 합하면 1학기 63.7%, 2학기 63.9%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재학생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학년도에는 1학기 및 2학기 모두 남학생의 비율이 전년 대비 각각 0.8%, 1.2%씩 소폭 증가했다. 재학생들의 평균연령은 지난해보다 1.1% 낮아져 43.3세이다.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2022학년도 2학기 기준), 40대 25.9%, 30대 21.3%, 20대 21%, 50대 21.1% 순으로 나타나 40대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50대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13년도 2학기 및 비교하여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1.8% 감소하고,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 증가하였다. ‘직업별 현황(2022학년도 2학기 기준)’은 대체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며 『전업주부』 7.6%, 『회사원(사무직)』 11.1%, 『회사원(관리전문직)』 6.6%, 『자영업』 4.4%의 분포를 보였다. ‘최종학력별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 36.9%, 『4년제 대학 졸업』 30.9%, 『전문대학 졸업』 20.3%, 『대학원 재학 이상』 1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2018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0.9%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월소득 분포’는 ‘200~299만원’ 22.4%, ‘300~399만원’ 15.6%, ‘400~499만원’ 13.2%, ‘100~199만원’ 10.4% 순이었으며,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22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방송대 진학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유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4.9%로 가장 많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가 26.9%,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16.8%,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5% 순으로 나타났다.

□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이유

‘전통적 방식의 대학이 아니라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가 7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가 13.7%였다. 다른 응답들은 1~3%대로 나타났다.

□ 방송대를 선택한 이유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사이버대학, 원격기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 중 방송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가 3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23.0%,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18.5%,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13.5% 순이었다.

□ 학과 선택 시 고려했던 요인

‘학과(전공)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요인’은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가 43.0%로 1순위로 나타났고,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26.8%,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10%,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6.7% 순이었다.

□ 방송대 진학 결정을 어렵게 만든 사항

‘방송대 진학하기로 결심할 당시 귀하의 결정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항은 무엇입니까’은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가 1순위로 39.7%가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23.5%,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12.4%, ‘일반대학과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 8.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2022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습활동’ 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매체강의 수강 현황

‘매체강의 수강 현황’은 ‘매체강의 수강 방식’, ‘사용기기, 수강 장소’, ‘TV 방송강의 시청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매체강의 한 과목당 평균 수강 강 수’는 ‘13-15강’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45.3%)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로 형성평가 확대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다음에 ‘1-3강’ 14.4%, ‘4-6강’ 12.8%, ‘10-12강’ 10.8% 등으로 나타났다. 매체강의를 ‘거의 듣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로 전년 동월(1.9%) 대비 0.5% 감소하였다. ii) ‘매체강의 수강방식’에 대해서는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가 57.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월(59.0%)에 비해 1.7%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 ‘강의만 듣는다’는 비율은 35.2%로 전년 동월(32.9%)에 비해 2.3% 증가하였다. iii)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PC’가 66.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17.2%, ‘태블릿 PC’ 4.7% 순이었다. iv) ‘매체강의 수강 장소’는 ‘집’이 75.3%로 가장 많았고, ‘직장’ 12.3%, ‘이동 중에’ 7.0%, ‘기타’ 2.5%, ‘도서관’은 2.4% 순이었다. v) ‘매체강의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3.6%, ‘보통이다’ 20.0% 등의 순이었다. vi) ‘TV강의 시청 방식’은 ‘TV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가장 많았고,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이 35.5%였다.

□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

‘U-KNOU 캠퍼스 사용현황 및 만족도’는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 ‘U-KNOU 캠퍼스 개선사항’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U-KNOU 캠퍼스 이용 빈도’는 ‘주 2-3회’가 46.9%로 가장 많았고, ‘매일’ 26.6%, ‘주 1회’ 15.6%, ‘월 1회’ 6.3% 순이었다. ii) ‘U-KNOU 캠퍼스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 22.5%, ‘보통이다’ 21.5% 순이었다. iii) ‘U-KNOU 캠퍼스 개선사항’은 ‘학습 지원 기능의 추가 또는 개선’이 35.8%로 가장 많았고, ‘학사 정보 제공’ 33.3%, ‘사용법 안내 및 홍보강화’ 10.4% 순이었다.

□ 형성평가

‘형성평가’에 대한 의견은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형성평가 안내 인지 경로’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44.0%로 가장 많았고, ‘U-KNOU 마이페이지’ 30.1%, ‘문자 및 이메일’ 19.9% 순이었다. ii) ‘형성평가의 학업 지속에 대한 도움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44.0%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33.7%) 대비 10.3% 증가한 결과이다. ‘도움이 된다’도 36.9%의 응답율을 보였다. iii) ‘형성평가 도입 후 성적취득 도움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가 전체의 40.1%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월(27.2%) 대비 12.9% 증가한 결과이다. ‘도움이 된다’는 36.0%로 나타났다.

□ 출석수업 참여 현황

‘출석수업 참여 현황’은 ‘출석수업 참여방식 및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경험 및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i) ‘출석수업 참여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에 응답한 비율이 66.1%로 전년 동월(61.8%)에 비해 4.3% 증가한 결과이다. 반면, ‘출석수업 대체시험 신청’은 15.8%로 전년 동월(19.4%)에 비해 3.6% 감소하였다.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은 18.1%로 나타났다. ii)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가 39.5%로 가장 많았다. iii) ‘출석수업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에 가장 높은 43.6%의 응답율을 보였고, ‘보통이다’ 28.1%, ‘매우 만족한다’ 21.6% 순이었다. iv) ‘출석수업을 대체시험으로 변경한 이유’에서, 변경한 학생들은 ‘직장이나 가사문제로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으며, ‘변경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59.5%를 차지하였다.

□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

‘재학생들의 학습방법 및 학습시간’은 ‘학업스타일’, ‘학습시간’,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 ‘학업스타일’ 조사 결과,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하는 비율이 61.7%로 가장 높고,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20.8%, ‘일별, 주별 또는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학습한다’ 13.1%의 순이었다. ii) ‘학습시간’은 ‘평소 학습시간’과 ‘시험기간 학습시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학생들의 ‘평소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을 조사

한 결과, ‘2시간 이상~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시간 미만’ 22.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8.7%,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1.9%, ‘10시간 이상’ 8.2% 등의 순이었다. ‘시험기간 일주일 평균 학습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학습하는 비율이 3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시간 미만’ 20.1%,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8.0% 순이었다. 평소보다 시험 기간에 평균 학습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학업스타일’ 분석 결과에서(<표 IV-33> 참조), 재학생의 약 20.8%가 시험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 학습동아리 참여동기

‘학습동아리 참여 이유’의 조사 결과,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참여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의 12.4%는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2022 재학생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 실태는 다음과 같다.

□ 학생지원 서비스별 도움 정도

i) ‘튜터링’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40.4%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43.0%가 ‘매우 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ii) ‘멘토링’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61.3%였으며, 멘토링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도움됨’ 12.4%, ‘보통’ 10.5%, ‘매우 도움됨’ 9.7% 순으로 응답하였다. iii) ‘학생콜센터’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56.6%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5.9%가 ‘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iv) ‘대학홈페이지 인터넷상담’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59.7%였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4.8%가 ‘도움됨’으로 응답하였다. v) ‘진로·심리상담’에 대해 ‘이용 경험이 없음’이 전체의 73.7%를 차지하여 학생지원 서비스 중에 이용 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10.7%가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 방송대 입학 첫 학기 적응의 어려움

i) '학사일정 확인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38.3%로 나타나 약 3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학사용어 이해하기(수강신청 및 변경, 출석수업, 과제물 시험 등)'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26.1%로 나타나 약 4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홈페이지 이용하기(과제물 제출, 출석수업 변경 등)'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25.7%로 나타나 약 4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학습계획 세워서 공부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많았고, '매우 어려움'과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37.5%로 나타나 약 3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과제물 준비하기'에 대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많았고, '보통' 30.4%, '매우 어려움' 16.6%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50.1%)의 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기말평가 준비하기'에 대해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가장 많았고, '보통' 32.1%, '매우 어려움' 16.6%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48.9%)에 가까운 학생들이 입학 첫 학기에 과제물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태블릿PC를 이용한 출석 기말시험 응시하기'에 대해 '쉬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로 가장 많았고, '보통' 30.5%, '매우 쉬움' 24.3%의 순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학교생활 어려움 해결 방법

i) '교과내용'의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해, 작년과 달리 '인터넷 카페'를 선택한 응답이 1순위 2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학교 홈페이지' 22.2%, '기타' 18.0%, '선후배 및 동료'가 9.1%, '스터디그룹' 8.2%로 나타났다. ii) '학사행정(시험일정, 출석수업 신청, 수강신청 등)'의 어려움 해결 방법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가 54.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선후배 및 동료' 10.4%, '인터넷 카페' 8.9%, '기타' 8.5%, '스터디그룹' 6.5%, '튜터 또는 멘토' 4.9% 순이었다. iii)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 '직장일이나 가사 때문에' 31.0%, '학습 부담이 커서' 18.9%, '낮은 학점으로 자신감을 잃어서' 6.0% 순으로 나타났으

며,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려한 적 없음’도 33.6%로 나타났다.

□ 학업지속을 위해 필요한 사항

i)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고, ‘보통’ 28.0%, ‘매우 필요함’ 21.0% 순이었다. ii) ‘과제물 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8.1%, ‘보통’ 22.4% 순이었다. iii) ‘시험 준비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함’이 27.8%, ‘보통’이 23.2% 순이었다. iv)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8.3%, ‘매우 필요함’이 21.6% 순이었다. v) ‘컴퓨터 활용 교육’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이 26.9%, ‘매우 필요함’이 17.4% 순이었다. vi) ‘학사 관련 정보 알림’은 ‘매우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2%로 가장 많았고, ‘필요함’ 39.1%, ‘보통’ 17.5% 순이었다.

2. 정책적 시사점

이번 재학생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 방송대 재학생들의 전체적인 규모와 특성 및 성별과 입학유형별, 연령대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실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재학생들의 특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재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개별화된 학생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대학 내부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사정보 제공과 개별 맞춤형 안내 필요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학사일정 확인과 학사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올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대 재학생들의 38.3%가 학사일정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사용어에 대한 이해(수강신청 및 변경, 출석수업, 과제물 시험 등)에 대해서도 26.1%의 재학생이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는 ‘학사일정 확인’에, 60대와 20대는 ‘학사용어 이해’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젊은 학생들은 50대와 다르게 튜터링이나 학습동아리 등 재학생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학사정보 및 일정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 학기의 학사일정과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될 필요가 있으며, ‘원격대학교육의 이해’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사정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중요성은 이번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에서 재학생 37.8%가 학업 지속을 위해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로도 입증되었으며, 홀로 고립되어 공부할 가능성이 높은 재학생들이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역대학의 홈페이지에 적극 게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정해진 학사일정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관련 학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학사정보와 학사 일정을 알려주는 맞춤형 학사정보 서비스와 같은 지원체계 혹은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원격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강화

이러닝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원격대학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능력과 학습전략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필수적인 학습 과정을 계획하며, 학습과정에 대한 점검과 학습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양용철, 1995; Zimmerman, 1990),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Pressley & Ghatala, 1990; Zimmerman & Martines-Pons, 1986).

이번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타일 조사 결과, 학습계획을 세우고 시간관리를 통해 학습하기 보다는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학습한다(61.7%)’,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20.8%)’에 높은 비율로 응답했으며, 입학 첫 학기에 ‘학습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학생의 절반 이상(57%)이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습방법과 학습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제물 준비하기’와 ‘기말평가 준비하기’ 영역도 많은 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으로, 재학생들이 학습지속을 위해 ‘과제물 작성교육(68.4%)’과 ‘시험준비전략 안내 교육(65.7%)’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재학생들은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습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반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며, 원격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온라인 특강 혹은 러닝팁스 시리즈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공부법을 알려주고,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VI-1>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 특강 시리즈 예시

순서	세부 내용
1강	나의 학습스타일 이해하기
2강	평생 학습목표 수립과 실천 방법
3강	한 학기 학습계획 세우기와 실천 방법
4강	나에게 잘 맞는 학습환경 조성하기
5강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한 학습교류
6강	기억력향상을 위한 노트필기 전략
7강	과제물 작성의 이해와 노하우
8강	시간을 절약하는 시간관리 노하우
9강	학습동기 향상 전략
10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전략
11강	효과적으로 기말시험 준비하기
12강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 노하우
13강	영어 학습 전략
14강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노하우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합동(2022).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 Retrieved(2022.12.28.)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511&d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권선아, 김명진, 서희정, 김민정(2020). 원격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평생학습사회, 16(4), 149-169.
- 송수연(2022).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 연구원
- 양용철(1995). Self-Regulatory skills: Definition, Rela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and Development. 학생지도연구, 15, 19-3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데이터허브시스템(2022). 학적-학기별 학생 현황. Retrieved(2022. 12. 23) from http://ep.knou.ac.kr/EP/web/portal/jsp/EP_Default1.jsp.
- Kuh, G. D., Kinzie, J., Buckley, J., Bridges, B. K., & Hayek, J. C.(2007). Piecing together the student success puzzle: Research, propositions, and recommendations.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32(5), 1-182.
- Pressley, M. & Ghatala, E. S. (1990), Self-regulated learning: Monitoring learning from text.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19-34.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6). Development of a structured interview for assessing student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614-628.
- Zimmerman, B. J.(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설문지]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1. 귀하가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직, 승진, 이직, 창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②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 ③ 대학원 이상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 ④ 사회적 관계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⑤ 못다한 학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 ⑥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2. 귀하가 전통적 방식의 대학이 아니라 원격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서
 - ② 학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 ③ 입학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서
 - ④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서
 - ⑤ 교육의 질이 일반대학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 ⑥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법과 제도라고 생각해서
 - ⑦ 일반대학 보다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3. 귀하가 다양한 원격교육기관(사이버대학, 원격기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등) 중 방송대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 ② 학위나 학점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서
 - ③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서
 - ④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 ⑤ 출석수업(면대면 강의)이 있어서
 - ⑥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서
 - ⑦ 다양한 인적(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 귀하가 학과(전공)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했던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직장·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 ② 학과(전공) 동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 ③ 자녀의 학습이나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 ④ 관련된 전공 지식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 ⑤ 사회나 환경의 개선·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 ⑥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 ⑦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을 위해서
- ⑧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5. 방송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할 당시 귀하의 결정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항은 무엇
입니까?

- ① 학비가 부담되었다
- ② 원격교육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 ③ 공부할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았다
- ④ 내 관심에 딱 맞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웠다
- 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에서 지지해 줄지 자신이 없었다
- ⑥ 가르치는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 ⑦ 졸업장이나 배움 내용이 내 삶에 도움이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 ⑧ 일반대학교와 다르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부담되었다

6. 매체강의 한 과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는 총 15강 중 평균적으로 몇 개의 강의를
들으십니까?

- ①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② 1-3강 ③ 4-6강 ④ 7-9강 ⑤ 10-12강
- ⑥ 13-15강

7. 귀하는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십니까?

- ①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 ② 교재를 보면서 강의를 듣는다
- ③ 강의만 듣는다
- ④ 기타()

8. 매체강의를 들을 때 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하십니까?

- ① 거의 강의를 안 듣는다 ② PC ③ TV ④ 스마트폰
- ⑤ 태블릿 PC(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9. 귀하는 주로 어디에서 매체강의를 들으십니까?

- ① 집 ② 직장 ③ 이동 중에 ④ 도서관 ⑤ 지역대학 및 학습관
- ⑥ 학생자치공간 ⑦ 기타()

10. 귀하의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의(교양과목은 제외) 매체강의(멀티미디어, TV, 웹 등)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만족한다

11. 'TV 방송강의'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시청하십니까?

- ① 정해진 방송시간에 TV로 본다
- ② 내가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으로 본다
- ③ 'TV 방송강의'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
- ④ 기타()

12. 귀하는 'U-KNOU 캠퍼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6. 귀하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형성평가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귀하는 형성평가 도입 후 기존보다 성적취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귀하는 출석수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대부분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 ② 일부 과목의 출석수업에 참여함
- ③ 대부분 출석수업 대체시험을 신청함

19. 귀하가 출석수업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출석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 ② 교수나 강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 ③ 동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
- ④ 소속감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
- ⑤ 출석수업에 참여하면 대체시험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⑥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 ⑦ 과제물 작성을 하지 않기 위해

20. 귀하의 소속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과목의(교양과목 제외) 출석수업에 어느 정도 만

40. 귀하가 학업을 중단(휴학, 미등록)하거나 이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를 고려한 적 없음
- ② 수강신청 기간을 놓쳐서
- ③ 등록시기를 놓쳐서
- ④ 학습부담이 커서
- ⑤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 ⑥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 ⑦ 수업 방법에 적응이 어려워서
- ⑧ 낮은 학점으로 자신감을 잃어서
- ⑨ 관심 분야가 바뀌어서
- ⑩ 직장일이나 가사 때문에
- ⑪ 본인의 건강 때문에
- ⑫ 등록금이 부담되어서

* 귀하가 방송대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필요 함	필요 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41. 학사용어 및 절차에 대한 교육					
42. 과제물 작성 교육					
43. 시험 준비 전략 안내					
44. 학습계획 및 시간관리 전략 안내					
45. 컴퓨터 활용 교육					
46. 학사 관련 정보 알림					

47.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필수]

- ① 고졸 ② 2년제 전문대 중퇴 ③ 2년제 전문대 졸업
 ④ 3년제 전문대 중퇴 ⑤ 3년제 전문대 졸업 ⑥ 방송대 중퇴
 ⑦ 방송대 졸업 ⑧ 일반 4년제 대학교 중퇴 ⑨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
 ⑩ 사이버 원격대학 중퇴 ⑪ 사이버 원격대학 졸업 ⑫ 학점은행 및 독학사
 ⑬ 석사학위 소지자 ⑭ 박사학위 소지자

48. 귀하의 출신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필수]

- ① 검정고시 ② 방송통신고등학교 ③ 실업계(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④ 인문계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⑤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⑥ 마이스터고등학교 ⑦ 예술 및 체육고등학교
 ⑧ 외국 소재 고등학교 ⑨ 기타

49.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필수]

-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의사, 약사 ③ 간호사 ④ 의료행정직
- ⑤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⑥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 ⑦ 교사(초등/중고등학교) ⑧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⑨ 교육행정직
- ⑩ 일반공무원 ⑪ 군인, 경찰, 소방 ⑫ 회사원(관리,전문직)
- ⑬ 회사원(사무직) ⑭ 회사원(판매,영업직) ⑮ 회사원(생산기술직)
- ⑯ 서비스업근로자 ⑰ 단순노무직근로자 ⑱ 자영업 및 상점, 시장판매자
- ⑲ 성직자,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⑳ 정치인, 법조인, 언론방송인
- ㉑ 전업주부 ㉒ 전업학생 ㉓ 무직 ㉔ 기타

50. 귀하의 근무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필수]

- ① 직업 없음(전업주부, 전업학생, 무직 해당) ② 전일제 근무자
- ③ 시간제 근무자

51. 본인의 수입을 포함한 가계의 월평균 총 수입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필수]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 ⑦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⑨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⑩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 이상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22-03

2022학년도 재학생 실태조사

2022년 12월 발행 사업책임자 : 서 희 정

발 행 자 : 고 성 환

발 행 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81

☎ (02) 3668-4309

인 쇄 처 : 가람문화사

☎ (02) 873-2362

<비매품>